물길 따라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유산을 두루두루 고루고루 살펴, 과거를 기억해 내고 부산의 정체성을 길어낼 역사 문화 탐방 지침서!

이 책은 물길 따라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각 사물의 내면에 얽히고설키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문학 등을 끄집어내 그 나름의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작업의 산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함은 물론 부산의 독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면, '시민적' 정체성의 굳건한 확립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 「발간사」 중에서

0 4 9 1 0
9 791185 308548
ISBN 979-11-85308-54-8
ISBN 979-11-85308-29-6(세트)
비매품

BUSAN, 百聞이 不如一見

부산 물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부산광역시

BUSAN, 百聞이 不如一見

부산 물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HISTORY TRAVEL

BUSAN, 百聞이 不如一見

부산 물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BUSAN, 百聞이 不如一見

부산 물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일러두기

1. 이 책은 부산의 강과 바다에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유산을 찾아 그 내력과 역사적 의미를 톺아보고자 기획·발간된 부산의 역사 문화유산 답사기이다.
2. 사서·문집·단행본·신문·정기간행물·발굴보고서에는 겹낫표(『 』)를, 시·(단편) 소설·방송프로그램·음악·법률명에는 홑낫표(「 」)를, 공공프로젝트 강좌명은 홑화살괄호(< >)로 표기했다.
3. 본문에 나오는 인명·지명·역사 용어 및 주요 개념 등이 한자와 병기될 때 ( )로 표기하되, 음이 다를 경우 [ ]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4. 본문에서 역사적 용어·개념 및 역사 문화유산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 ) 안에 약술하였고, 인용문 내 ……는 중략을 의미한다.
5. 시각 자료 협조 및 제공처는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 명시하였다. 다만 협조 및 제공처를 표시하지 않은 시각 자료는 이 책의 발행처에서 촬영한 것이다.
6. 시각 자료는 원본 형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독자들의 시각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발간사

부산은 예로부터 강과 바다를 터전 삼아 우리네의 삶을 가꾸고 일구어 온 곳이었습니다. 즉, 부산은 물길을 머금은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선조들은 참으로 다양하고도 역동적인 삶을 영위해왔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은 주변의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유의 역사·문화적 기틀이 갖추어졌습니다.

먼저, 부산은 관방의 도시입니다. 두모포진, 다대진, 서평진, 가덕진, 천성진 등의 수군진과 남산, 간비오산, 황령산 등 각지에 산재한 봉수대의 존재가 이를 입증합니다. 그중 다대진은 조선 시기 경상좌도 바다를 통괄하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아래 편제되어 있었지만, 그 규모와 위상은 그에 버금갈 정도였는데, 그 까닭은 다대진에 부임한 다대진첨사는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의 책임자인 경상좌수사와 동일한 정3품의 품계를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고위 지휘관이 두 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이 군사적으로 긴요한 지역이었다는 방증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초기 일본군에 맞서 부산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다 산화한 다대진첨사 윤흥신 및 그 휘하 군민의 기개와 다시 북상을 꾀할 요량으로 왜군이 쌓아 올린 구포왜성, 죽도왜성 등의 흔적은 왜 우리 고장이 '남쪽 변방의 요새'로 일컬어지는지를 웅변케 해줍니다.

둘째, 부산은 포구의 도시입니다. 낙동강을 품으며 형성되었던 구포 일대의 포구와 남해가 접하는 곳에 자리 잡았던 하단, 장림, 홍티 등과 동해안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져 있던 기장의 9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 후기 구포 일대는

선박과 돈과 곡식이 모여 들기에 사방 곳곳에서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모여들어 단연 동남의 도회(都會)라고 일컬어졌고, 지금은 '상전벽해'라는 표현마저 무색할 정도로 옛 포구의 모습을 찾을 길 없는 하단포구 역시 물류 중심지로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기장의 9포 중 하나인 독이포에는 나라에 바치는 세곡을 수송·보관하고자 만든 곳집으로 조창(漕倉)이 있었는데, 여기서 집하된 세곡은 서울로 '상납'하지 않고 부산으로 '하납'되어 왜관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기장 죽성리의 매 바위(어사암)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적 틀을 기반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셋째, 부산은 상업과 유통의 도시였습니다. 부산의 젖줄이자 생명줄로 일컬어진 낙동강의 존재가 이러한 명명을 추인케 한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근대로 접어들면서 구포는 낙동강 수운을 통한 물자 교류로 물화 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였고, 1905년 경부선 개통은 구포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권회복운동의 한 흐름으로, 교육과 식산흥업을 내걸고 전개되었던 계몽운동이 구포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내력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근대 이후 낙동강은 지금의 강서 일대를 광활한 농업지대로 전환시키는 기저로 기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저 드넓은 김해평야의 조성은 일제의 식량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착수된 산미증식계획의 결과일 뿐이어서, 농업생산력의 증대와는 별개로 우리 지역 농민층에 대한 일제의 수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버린 대저수리조합 건물, 대저수리공사기념비, 대저수문, 그리고 적산가옥 등이 낙동강의 풍요로움과 대치하는 대표적 표징 유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부산은 명승지의 도시입니다. 이는 부산이 남해와 동해를 아우른 천혜의 해양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매혹적인 명승지를 밟아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삶과 이야기를 음미해 본다면 부산이 지닌 역사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헤아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낙동강을 무대로 삶을 영위해 왔던 사람들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여러 장소들도 살펴보길 추천합니다. 전근대 시기 선비들이 남긴 문학적 자취는 물론이요,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당한 기층민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처럼 물길 따라 흩어져 있는 역사 문화유산을 답사하면서 각 사물의 내면에 얽히고설키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문학 등을 끄집어내 그 나름의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작업의 산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함은 물론 부산의 독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면, '시민적' 정체성의 굳건한 확립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력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수 역사적 현장을 둘러보는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수해 주시고, 각 사물의 윤곽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상세히 서술해 주신 다섯 분의 집필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책의 기획과 집필 방향 그리고 편집 등을 도맡아 준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직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부산 시민분들이 물길 속에 담긴 부산의 내력을 꾸밈없이 제대로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차례

1 코스 유서 깊은 연안 고을, 기장의 행정과 관방 유적을 톺아보다 _정영현

1. 기장옛길을 따라 기장읍성으로 18
2. 기장향교와 고읍성 31
3. 죽성리에 있는 임진왜란의 흔적들 37
4. 임랑포 주변의 관방 유적들 45
5. 해창과 주사창 49

2 코스 기장의 아홉 포구, 그 포긋길을 따라 해변을 거닐다 _정영현

1. 송정 가을포와 공수마을 58
2. 시랑리의 포구마을 64
3. 연화리와 대변리 69
4. 죽성리의 명물을 만끽하다 75
5. 「갯마을」과 일광해수욕장 그리고 다시마 78
6. 문오성(文五成) 다섯 마을을 찾아서 83
7. 장안읍의 바닷가 마을 88

3 코스 동백섬에서 기원한 해운대, 바닷길 따라 역사와 문화를 찾다 _정영현

1. 수영강변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들 98
2. 운촌마을 주변의 유적과 동백섬 104
3.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의 풍경이 바뀌다 110
4. 달맞이고개 넘어 송정 가는 길 118

4 코스 남쪽 바다와 맞닿은 곳, 자연과 역사를 품은 공간을 걷다 _김윤미

1. 제뢰등대, 100년간 부산항을 밝혀준 불빛 130
2. 무민사, 왜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134
3. UN기념공원, 세계유일의 유엔묘지 137
4. 신선대,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143
5. 오륙도,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섬 147
6. 이기대, 도시의 자연공원 트레킹 코스 151
7. 부경대학교, 박물관·백경탑 155
8. 황령산 봉수대, 조선시대 통신 네트워크 159

차례

5 코스 부산의 축소판 영도, 우리네의 해양 문화를 음미하다 _김윤미

1. 어묵(삼진어묵), 바다가 건네준 선물 166
2. 영선동패총기념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171
3. 국립해양박물관, 바다를 알면 세계를 안다 175
4. 동삼동패총전시관, 해양교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 179
5. 동삼 어촌마을, 도시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183
6. 태종대, 갖가지 이야기가 숨어있는 보물섬 189
7.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숨비소리'가 뭐예요? 196

6 코스 물길이 접하는 길목, 낙동강 어귀에서 바다와 만나다 _정영현

1. 낙동강 하구의 네 포구 이야기 204
2. 다대포해수욕장과 구름 지는 몰운대 209
3. 다대진과 서평진 215
4. 감천항과 송도해수욕장 225
5. 천마산과 옛 부민동 지역 234

7 코스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보다 _서용태

1. 아픈 역사를 간직한 외양포 포진지 마을 244
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가덕도등대 255
3. 대항 인공동굴의 운명 260
4. 가덕도 꼭대기 연대봉 봉수대 265
5. 천성진과 이순신 271
6. 가덕진성과 대원군 척화비 279
7. 섬 안의 섬 눌차 그리고 정거마을 벽화 286

8 코스 부산의 젖줄 낙동강, 그 속에 남겨진 유통과 상업의 자취 _서용태

1. 구포왜성, 여기저기 잘려 나가다 296
2. 구포은행,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303
3. 구포역과 구포만세 테마거리 309
4. 구포다리를 기억하나요 315
5. 낙동강 재첩국과 삼락재첩거리 321
6. 낙동강 황포돛배 종착지 하단포구 327

차례

9 코스 삼각주가 만든 공간, 서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다 _서용태

1. 대저의 유래와 대저수문 336
2. 대저수리조합, 보존이냐 철거냐 341
3. 대저의 근대건조물, 적산가옥(일식가옥) 347
4. 신평마을 비행기 격납고 그리고 죽도왜성 353
5. 명지 염전과 녹산수문 360
6. 을숙도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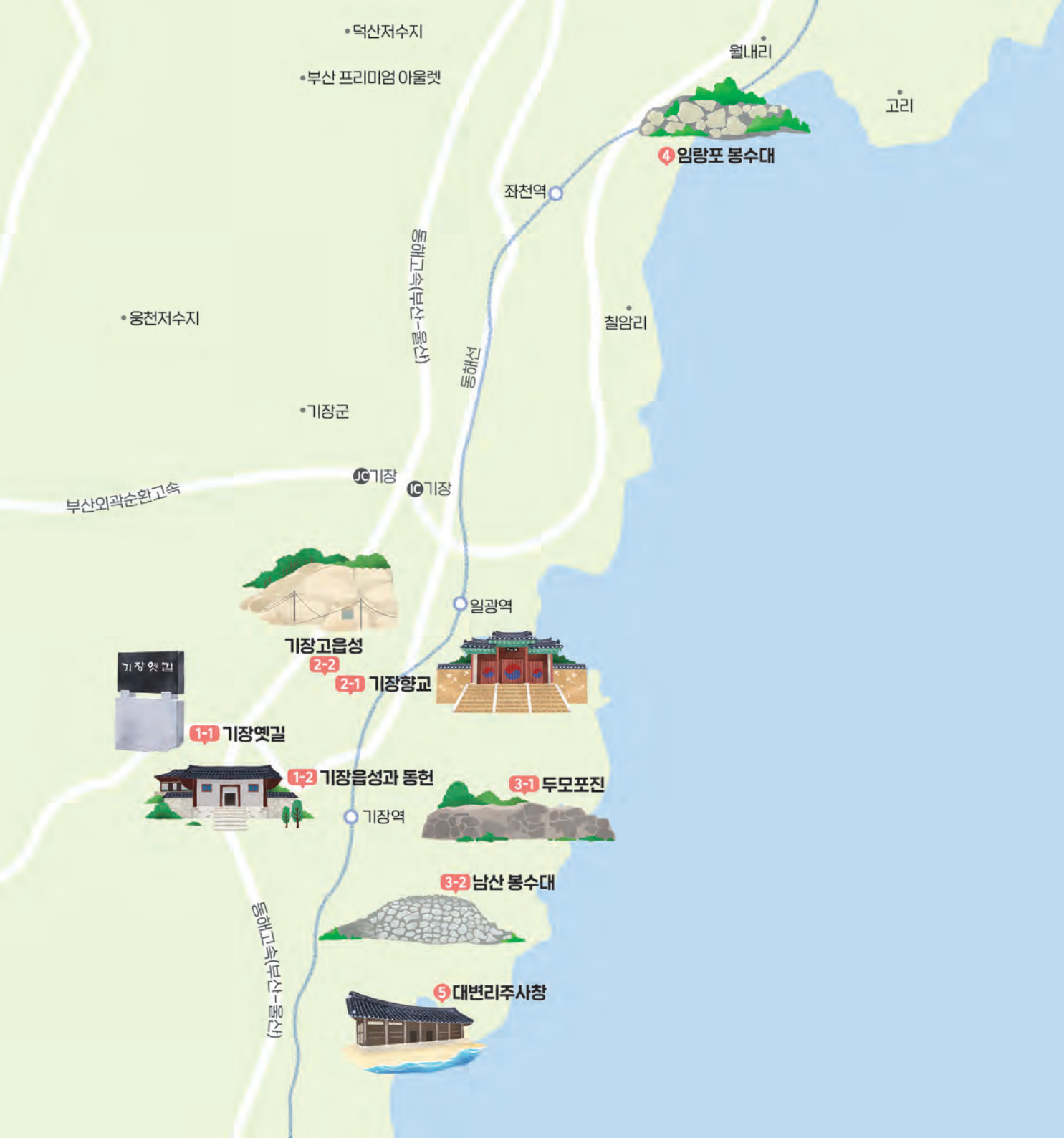
10 코스 동해와 남해를 함께 품은 해양도시, 부산의 바닷길 자연유산 문화해설 _황병익

1. 세 성현의 전설을 간직한 삼성대(三聖臺) 380
2. 신선들의 쉼터 시랑대(侍郞臺) 384
3. 부산의 대표 명소 해운대(海雲臺) 390
4. 신비의 섬 오륙도(五六島) 397
5. 김춘추의 꿈 태종대(太宗臺) 400
6. 그림자도 끊긴다는 명마의 목장 절영도(絶影島) 403
7. 탁 트인 충의의 공간 몰운대(沒雲臺) 407

11 코스 강의 품, 시의 길 마음의 물길이 강처럼 흘러 바다가 되는 곳 _박형준

1. 시심(詩心)이 피어나는 강둑을 따라 414
2. 금수현의 「그네」를 타고 음악의 세계로 417
3. 이은상의 「낙동강」, 슬픈 현대사의 파고 420
4. 배재황의 「오막살이」, 잊힌 독립운동가의 삶과 시 424
5. 이은상의 「故鄕길」, 그리고 지역 출신 두 독립운동가 428
6. 조지훈의 「완화삼」과 박목월의 「나그네」, 과잉 없는 우정 435
7. 이주홍의 「엄마의 품」, 드러나지 않지만 빛나는 마음 439
8.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낙동강의 파수꾼이 일러준 교훈 443

참고문헌 449
집필자 455



1
코스

유서 깊은 연안 고을,
기장의 행정과 관방 유적을 톺아보다

기장군은 늦어도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왔던 고장이며, 삼국시대에 '갑화량곡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역사상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또한 바다를 끼고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는 관방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1 코스

기장옛길 → 기장읍성과 동헌 → 기장향교 → 기장고읍성 → 두모포진 → 남산 봉수대 → 임랑포 봉수대 → 대변리주사창

유서 깊은 연안 고을,
기장의 행정과 관방 유적을 톺아보다

어린 시절 필자에게 기장이라는 곳은 가끔 식구들끼리 바다 구경을 하고 회나 장어구이를 먹는, 혹은 기장시장에 들러 게를 먹거나 철마 한우를 먹거나 하는 곳이었다. 일상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찾는 교외의 관광지였다.

그러다 2013년 어느 학술용역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장군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기장의 역사나 문화유산, 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금석문 탁본이나 구술 등 기장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왔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쉼이 필요할 때마다 방문하는 친근한 고장이 되었다.

기장군은 늦어도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해왔던 고장이며, 삼국시대에 갑화량곡현(甲火良谷縣)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역사상에 등장하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 것은 이곳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고장이라는 뜻이다. 또한 바다를 끼고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일본의 침입에 대비하는 관방의 요충지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장 지역은 산세가 첩첩하여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런 탓인지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중앙에서 보았을 때 기장은 변경의 바닷가에 있는 외딴 마을이었다. 이로 인해 고려 전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적도 있었고, 행정구역도 자주 변경되는 편이었다.

심지어 임진왜란 직후인 1599년에는 기장현이 폐지되어 남쪽은 동래부, 북쪽은 울산으로 나눠지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1617년에 기장현은 다시 설치되었지만, 일광 문오동 지역과 장안 지역은 울산에 편입되었다가 8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1681년이 되어서야 기장현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근대 이후에도 기장은 동래군이나 양산군에 소속되었던 시기를 거쳤다. 1995년 드디어 하나의 군으로 독립하여 부산광역시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부산시에 편입될 때 기장군에는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의 5개 읍면이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편입 이후 극적인 발전상을 보인 끝에 2015년에 정관, 2022년에 일광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소속 5개 읍면 중 4개가 읍이라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기장의 발전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부산 시내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그래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여행은 전근대시기를 중심으로 기장의 행정과 관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체 여정은 먼저 읍내에 있는 기장 옛길과 읍성·향교·고읍성 등을 돌아보고, 이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에 위치한 군사시설과 봉수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할까 한다.

1. 기장옛길을 따라 기장읍성으로

기장옛길을 찾아서

필자는 동래구에 산다. 동래는 전근대시기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었고, 역사적으로 기장과 동래는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선사시대부터 긴밀하게 문화를 공유하였고, 원삼국시대와 삼국시대에는 변한-가야 문화권에 속하였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다. 또 기장현은 역사적으로 몇 차례 동래의 관할 하에 들어가 있기도 했고, 근대에는 동래 지역과 기장 기역이 동래군으로 폐합되어 수십 년간 한솥밥을 먹기도 하였다. 그만큼 기장 지역과 동래 지역은 관련이 깊었다.

필자는 운 좋게도 집 앞으로 다니는 183번 시내버스를 타면 환승 없이 한 번에 기장 읍내까지 다다를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 이 버스를 타고 동래에서 기장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석대와 반송을 지나 안평-고촌, 만화리-교리를 거쳐서 기장 읍내로 들어간다. 이 길은 '반송로'라고 명명되어 있으며, 부산 시내와 기장 지역을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길은 국도 14호선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동래와 기장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였을까? 조선 시기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잘 닦인 국도는 없었지만 석대와 반송을 지나 기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대체로 비슷했다. 지금 도로를 따라 반송을 지나가다 보면 도시철도 4호선의 종점인 안평역을 만나게 되는데, 조선 시기에는 안평 지역에 신명역이 있었다. 이 역을 지나 기장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쌍다리재'라는 지명이 전한다. '쌍다리재'는 안평에서 만화리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근처에 '쌍다리마을' 혹은 '상달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부근에 있는 안평저수지 역시 '쌍다리못'이라고 불리었다. 옛 지도에서도 '쌍교(雙橋)'라고 하여 그 명칭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쌍다리재에서는 동래에서 기장으로 들어가는 길과 양산에서 기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합류하기도 하였다. 조선 시기에 양산에서 기장으로 가려면

조선 시기에 동래부 및 양산군에서 기장으로 가는 길

황산도를 따라 양산 동면을 거쳐 금정구 두구동에서 철마 방면으로 고갯길을 넘고, 철마에서 다시 갈치고개를 넘어가는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 이 길은 현재 '철마로'라고 도로명이 붙어 있다. 갈치고개를 넘으면 드디어 안평저수지를 지나 쌍다리재가 나온다. 쌍다리재는 기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우리의 기장옛길 여행은 여기 쌍다리재 인근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쌍다리재에서 기장옛길 입구로 들어가는 길은 대중교통인 버스 기준으로 크게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만화리영락동산 정류장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기술센터 정류장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동부농원 식당 간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길이 막힌 줄 알고 돌아 나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동부농원 간판이 있는 게이트 앞에서 보면 오른쪽으로는 식당 건물이 있고 왼쪽으로는 길이 이어져 있는데,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된다. 이 길로 들어가면 머잖아 서부천 계곡(용소골)이 시작되고, 계곡을 따라 길이 나 있다. 그리고 '기장옛길' 표지판이 나타난다.

기장옛길 표지판 부근에는 용소골 마애석각을 알리는 표지판도 서 있다. 이 석각은 계곡을 따라 암벽 혹은 바위 표면에 글씨를 새긴 것인데, 총 일곱 명의 지방관에 대한 송덕비(공덕비, 선정비라고도 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길이 고을 입구[洞口]에 해당하므로, 하천 좌우의 바위에 글씨를 새겨 원님들의 송덕비를 대신하려고 한 것이다. 다른 비석은 계곡 하천 가운데 혹은 건너편에 있어서 찾기 힘들지만, 석각 표지판 바로 뒤쪽에 있는 큰 암벽에 새겨진 세 건의 석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모든 석각을 찾아보면 좋겠지만, 이끼가 서려서 모두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계곡의 바위가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워서 위험하고, 벌레와 거미줄도 많기

기장옛길 안내판

현감 손경현 영세불망비

때문에 억지로 찾으러 다니지 않기를 당부한다. 필자는 예전에 여기 용소골의 각석들을 탁본하기 위해 계곡을 이리저리 건너다닌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경험은 아니었다. 이번에도 각석이 거기 있으려니 하고 그냥 계곡을 따라 옛길을 내려온다. 계곡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여근석(女根石) 전설」에 대한 표지판도 확인할 수 있다.

계곡길이 끝나가는 무렵이 되니 기장 읍내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기장옛길에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머리 위로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용소웰빙공원이 나온다.

용소웰빙공원은 용소골이 읍내로 들어가는 위치에 만들어진 용소(골)저수지를 둘러싼 공원이다. 용소(골)저수지는 원래 1974년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기장군 내의 저수지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장 읍내가 점차 도시화되고 농지가 줄어들면서 원래의 용도를 잃고 말았다. 이에 2008년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현재는 산책로와 정원,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있는 생태공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저수지 둑 쪽에서는 전망대가 있는데, 아쉽게도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기장 읍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공원 입구를 나와 바로 아래에 나름 유명한 보이차를 파는 찻집이 있다.

기장읍성 남문과 권은해 생가

아파트 단지 옆으로 난 내리막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대형마트가 보이는데, 대형마트를 지나면서부터는 조선 시기의 기장읍성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고려 시기까지는 기장읍성이 교리에 있었는데, 고려 말 우왕 때에 왜구의 침입으로 관아가 소실되면서 1391년(공양왕 3)에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으로

상공에서 바라본 기장읍성과 그 일대 • 기장군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읍성은 대부분 헐리고 흔적만이 남아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읍성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고,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금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서벽에서 남문에 이르는 구간은 발굴·정비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마트를 지나 차성서로를 따라 내려가다 주공아파트 맞은편 쪽에 복원 중인 읍성의 서쪽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 축대 아래로 내려가면 읍성 남쪽 구간과 남문, 그리고 남문 옹성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장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읍성은 남문이 정문 구실을 하는데, 과거에는 위에 누각을 세운 형태였을 것이다. 또한 남문 앞에는 옹성이 호를 그리며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는 남문을 통해 들어오는 적을 방비하기 위한 시설이다.

조선 시기에 기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옛길을 따라 용소골 계곡을 지나 읍성의 서쪽 성벽을 따라 내려온 후 남문을 통해 기장읍성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읍성 내에는 북쪽에 동헌이 위치하고, 동헌에서 남문까지 종로(鐘路)가 뚫려 있고, 그 주변에 장관청(將官廳)·군관청(軍官廳) 등의 부속건물이 존재했다. 또 읍성 안에서 5·10장인 기장장이 열렸다. 읍성 남문

기장읍성 남문 터와 옹성 터

안쪽을 가로질러 서부천이 흘렀는데, 하천을 복개하여 차성로299번길이 뚫렸다. 옛날에는 서부천을 건너기 위해 수각교(水榷橋)라는 다리를 놓았는데, 그 중건을 기념하는 비석이 후술할 공덕비군에 세워져 있다.

남문 터에서 북쪽을 보면 장관청을 지나 기장현의 동헌으로 들어가는 곧은 오르막길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근처에 동부리 194-2번지에 있는 오래된 가옥을 방문할까 한다. 이 가옥은 2021년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로 지정된 건물로, 1937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명칭은 그저 '동부리 194-2번지 가옥'이다. 과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에 원래 건물 이름이 없다면 그 건물에서 난 유명한 인물의 생가라고 이름을 붙이곤 했다. 혹은 현재 소유주 이름을 붙여 '○○○가옥'이라고 붙이기도 했는데, 현재 이 가옥은 관청에서 매입하여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 팻말에 적힌 설명을 보면 기장 지역 3·1운동을 기획한 건물이라고 되어 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건물일까?

이 건물은 역사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흔히 '권은해 생가'로 불리는 건물이다. 권은해(權銀海, 1903~1994)는 기장 지역의 대지주였던 권상중의 딸이다. 아버지 권상중은 기장의 첫 사립학교인 보명학교(남학교)와 명정의숙(여학교)을 설립하였는데, 그 위치는 바로 기장 장관청이다. 권은해 역시 아버지가 세운 명정의숙을 다녔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고 1921년 기장여자청년회를 결성하였다. 1922년 이상복과 결혼하면서 시댁이 있는 양산에서 양산여성회, 근우회 양산지회, 양산농민조합 설립을 주도하였고 1931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고향인 기장으로 돌아와 지역의 좌익 계통 인사와 교류하였고, 1945년 해방 후에도 부산 지역에서 좌익 활동에 매진하였다. 1948년 월북하였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월남하였다. 하지만 아들 이수형이 공산주의 활동으로 사형을 당한 것을 알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1955년 체포되었다. 1967년에 석방된 이후에는 고향 기장에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다 1994년에 별세하였다.

권은해는 본인과 아들뿐만이 아니라 동생 권복해와 조카 권동수 역시 동래 지역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친척 중에도 박용선·김도엽·김규엽과 같은 좌익 계열 항일운동가들이 많았다. 권은해는 기장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 항일운동가였으나, 일가가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 관계로 항일운동가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그 존재를 불문에 부쳐왔던 것이다. 이 가옥에 당당하게 '권은해 생가'라고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이유도 아마 '빨갱이 집안'에 대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래 들어 김원봉이나 박차정 같은 좌익 계열 항일운동가들이 재평가를 받는 추세이고, 건물 역시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니기도 하니, 권은해를 기장의 항일운동가로서 복권시켜 주는 동시에 이 건물에도 정당한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권은해 생가. 1937년 지어진 것으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다.

장관청 모습. 조선 후기 기장현의 속오군을 지휘하기 위해 부임했던 군관들의 집무 공간이었다.

기장 장관청과 동헌

다시 남문 앞으로 돌아가 장관청으로 향한다. 장관청은 기장현의 속오군(束伍軍)을 통솔하기 위해 부임한 군관들의 집무 공간이며, 1835년에 지어졌다. 속오군은 조선 후기에 편성한 지방군을 말한다. 국권을 상실한 후에는 보명학교·명정의숙의 학사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었다. 오랜 세월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멘트로 보수된 허름한 모습을 띠고 있었으나, 2014년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었다. 복원 당시 장관청 건물뿐 아니라 주변 경관 역시 정비하여 담장이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맞배지붕 형태의 대문도 당당히 서 있다. 기장 동헌과 부속건물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장관청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관청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장관청에서 나와 남문에서 올라오던 길을 계속 올라가면 기장초등학교가 나온다. 여기가 바로 기장현청, 즉 동헌의 터이다.

'동헌'은 조선 시기에 지방관청을 흔히 일컫는 말이다. 원래 지방관청에서

기장 장관청과 회화나무. 1835년 지어진 장관청은 2014년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었다.

지방관이 정무를 보는 공간을 동헌(東軒), 지방관이 거주하는 공간을 서헌(西軒)으로 구분하였다. 기장현의 동헌 영역에는 객사(客舍)와 향청(鄕廳)·인리청(人吏廳)·사창(司倉) 등의 부속건물이 있었다.

기장의 경우 조선 시기의 행정구역 명칭은 기장현이었다. '현'이라는 명칭은 '주'·'부'·'군'에 비해 규모가 작은 행정 구역에 붙는 명칭이다.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동래는 동래도호부, 양산과 울산은 각각 양산군과 울산군이었으므로 기장현은 상대적으로 읍세가 약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다. 기장현을 다스리는 지방관의 명칭은 '기장현감'이었다. 현 중에서도 '현령'이 파견되는 곳이 있고 '현감'이 파견되는 곳이 있는데, 현감이 파견되는 현은 현령이 파견되는 현보다 더욱 규모가 작았다. 현감(종6품)은 현령(종5품)보다 품계가 낮고, 무관들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다만 기장은 고을의 규모에 비해 관방 상의 요지였으므로 원래 현감으로 임명되는 종6품보다 높은 관품을 가진 관료를 기장현감으로 파견하는 일이 많았다.

옛 기록이나 사진을 참고해 보면, 기장초등학교 본관이 있는 곳은 기장현

의 객사가 있던 공간이고, 그 앞에 동헌 건물이 있었다. 기장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읍내에 위치한 역사 깊은 초등학교 중에는 옛 관아 건물 터에 자리를 잡은 경우가 많이 있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라는 역사적 단절을 거치게 되었지만, 조선 시기 관공서에서 현재의 학교로 이어지면서 '공공의 장소'라는 역할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장관청도 사립학교로 활용되었던 것을 보면, 어찌 되었든 공적인 공간은 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통인방과 기장 공덕비군

학교 정문에서 동쪽 내리막길을 따라 발길을 옮기면, 도로 위로 로마시대의 수도교를 떠올리게 하는 석재 구조물이 보인다. 이것은 과거 이곳에 읍성의 성벽이 있었던 공간임을 드러내기 위해 세운 것으로, 현재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동부리 마을회관이 있는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옛 기장읍성이 있던 구역 중 동헌을 중심으로 서쪽은 서부리, 동쪽은 동부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 동부리 일대에는 통방마을이 있었다. 통방마을은 통인방(通引房)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통인방은 조선 시기 지방관청에서 하급 향리인 통인(通引)이 모이는 방을 뜻한다.

동부리 마을회관을 지나가는 골목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복원 중인 기장읍성 동쪽 성벽 구간이 보이고, 조금 더 지나면 성벽과 큰길(차성로) 사이 축대 위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공덕비군을 만날 수 있다.

이 비석들은 원래 지금처럼 한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읍성 주변에 산재해 있었던 것이다. 1972년 당시 국제신문 기자였던 공태도 선생이 주도하여 기장초등학교 정문 근처에 모아두었다가 2004년에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겨진 것이다.

기장 공덕비군. 기장초등학교 정문에 있다가 2004년 현 위치로 옮겼다.

이 비석군은 대부분 지방행정과 관련된 인물들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찰사공덕비 7기, 수군절도사 공덕비 1기, 어사공덕비 1기, 현감공덕비 14기, 군수공덕비 5기, 지방아전공덕비 2기, 객사건성비 1기, 교량개축 및 중축에 관한 비 2기, 기타 3기 등 총36기이며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축에 속한다.

36기의 비석은 한 줄에 12기씩 3개의 열을 이루고 있다. 비석이 서 있는 순서는 대체로 관품을 따르고 있다. 즉 관찰사(수군절도사/어사)-현감(군수)-향리 순이며, 객사 및 교량 수축비가 마지막에 놓여 있다.

덧붙여 공덕비군 뒤쪽인 읍성의 동쪽 벽면을 이루는 암석에 '언양(彦陽)'이라고 희미하게 새겨진 각석(刻石)이 존재한다. 이 이외에도 옛 성벽의 흔적 따라 울산, 창녕 등의 지명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읍성 건축 당시 어느 지역에서 인력이 동원되었는지를 새긴 것이다.

<기장 공덕비군 비석 배치도>

1열

① 순상국서공희순거사비 ② 순상국조공병현거사비 ③ 순상국홍공재철영세불망비
④ 순상국김공세호추사불망비 ⑤ 순상국박공제인유애불망비 ⑥ 관찰사지공석영선정불망비
⑦ 순상국오공취선이배유혜비 ⑧ 수상국이공기춘영세불망비 ⑨ 수사이공도재생사단
⑩ 현감강공유후청덕선정만세불망비 ⑪ 현감백공세전청덕거사비 ⑫ 현감최공진일청덕비

2열

⑬ 군수이공경우영세불망비 ⑭ 행현감손공경현청덕선정비 ⑮ 행현감오공영석생사단
⑯ 행현감이공규선청덕불망비 ⑰ 행현감홍공찬영세불망비 ⑱ 행현감임공백은청덕선정비
⑲ 현감정후숙거사비 ⑳ 행현감오공윤영생사단 ㉑ 현감함공영석거사비
㉒ 현감이공기수거사비 ㉓ 전이조참의행현감권공적청덕선정비
㉔ 행현감김공성뢰무휼해맹선정비

3열

㉕ 행군수이공해륜청덕거사비 ㉖ 행군수엄공신영청덕거사비 ㉗ 행군수홍공재규영세불망비
㉘ 행군수구연호영세불망비 ㉙ 병방정태망무휼고정만세불망지비 ㉚ 경저주부최동진불망비
㉛ 좌수김선국휼군비 ㉜ 가선대부전내장원경오공기영불망비 ㉝ 마애호장한한흥비
㉞ 객사건성비문 ㉟ 청강교비문 ㊱ 수각교중축문비

※ 기장읍성동문축대 '彦陽' 각자

2. 기장향교와 고읍성

학문과 자치의 공간, 기장향교

기장 공덕비군 축대 아래로 계단을 타고 내려와 향교로 향한다. 북쪽으로 오르막길을 오르면 교차로(중앙사거리)가 나오는데, 큰길을 건너면 이곳이 교리이다. 이 마을에 향교가 있기 때문에 '교리(校里)'라는 지명이 붙은 것이다. 교리 입구에서 향교까지는 중간에 특별히 볼거리도 없고 길가는 모텔촌이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걷기에는 조금 귀찮은 구간이다. 필자도 더위를 피해 교리초등학교 인근 밀면집에서 식사도 할 겸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향교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교리초등학교에서 향교까지는 직선으로 길이 뻗어 있으므로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향교는 조선 시기에 만들어진 지방 국립 고등교육기관이다. 즉, 현재로 보자면 지방국립대학 정도 위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주요 고을에 향교가 있었다고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이후 지방에 유학을 장려할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국에 향교를 건립하였다. 부산 지역에는 동래향교와 기장향교 두 곳이 건립되었다. 동래향교의 경우 조선 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장향교는 1617년(광해군 9)에 건립되었음이 확인된다.

향교의 정면에서 보면 입구에 정문에 해당하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이

기장향교 외삼문(세심문). 향교 내에는 명륜당, 대성전 등이 있다.

것을 외삼문이라고 한다. 외삼문에는 '마음을 씻는 문'이라는 뜻으로 세심문(洗心門)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다. 향교는 학문을 닦고 성현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인 만큼 평소에는 외삼문이 아니라 왼쪽으로 난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지방관청이 그 역할에 따라 동헌과 서헌이라는 두 공간으로 구분되듯이, 향교도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향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강론하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데 있다. 그중 학문을 강론하는 역할은 '명륜당(明倫堂)'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명륜당은 '윤리를 밝히는 건물'이라는 뜻인데, 동래향교가 있는 명륜동은 향교의 주요 건물인 명륜당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기장향교에 들어가 보면 명륜당 좌우로 동재(東齋)와 서재(東齋)라는 보조 건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륜당은 실제로 강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동·서재는 유교 경전이나 학습 기자재 등을 보관하는 서재로 활용된다.

선현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공간은 '대성전(大聖殿)'이라는 건물이 중심이 된다. 대성전은 '위대한 성인의 건물'이라는 뜻인데, 김해시 대성동은 김해향교의 대성전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향교의 대성전 좌우에는 의식을 준비하기 위한 건물인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라는 부속 건물이 지어지곤 하는데, 기장향교는 그렇지 않다. 대성전 공간은 제사 공간이므로 보통 명륜당 공간보다 더 엄격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진다. 대성전에서 하는 유교 제사는 매년 2월과 8월에 열리는 석전대제(釋奠大祭)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새벽에 열리는 삭망분향(朔望焚香)이 대표적이다.

중앙의 국학(國學, 즉 성균관)이건 지방의 향교건 학교를 지을 때는 이상과 같은 두 공간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보통 남쪽을 바라보고 앞뒤로 배치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 어느 쪽을 앞에 둘 것인지는 변동이 있었다. 명륜당 공간이 앞이면 전학후묘(前學後廟), 대성전 공간이 앞이면 전묘후학(前廟後學)이라고 한다. 기장향교나 동래향교는 전학후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성균관이나 나주향교는 전묘후학 형태로 지어져 있다.

향교는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방 내의 정치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지방의 양반들은 지역의 지배계급이자 유지로서 지방자치에서 큰 역할을 하였고, 향안 등의 목록을 만들어 다른 신분과 양반을 구별하였다. 향교는 고을 양반들의 집결지로서, 유학을 향유하고 함께 제사를 올리면서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또한 향교와 사립학교인 서원은 지방의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조선 시기 기장의 유림들은

교리에 있는 기장고읍성 터 출토 유물 • 복천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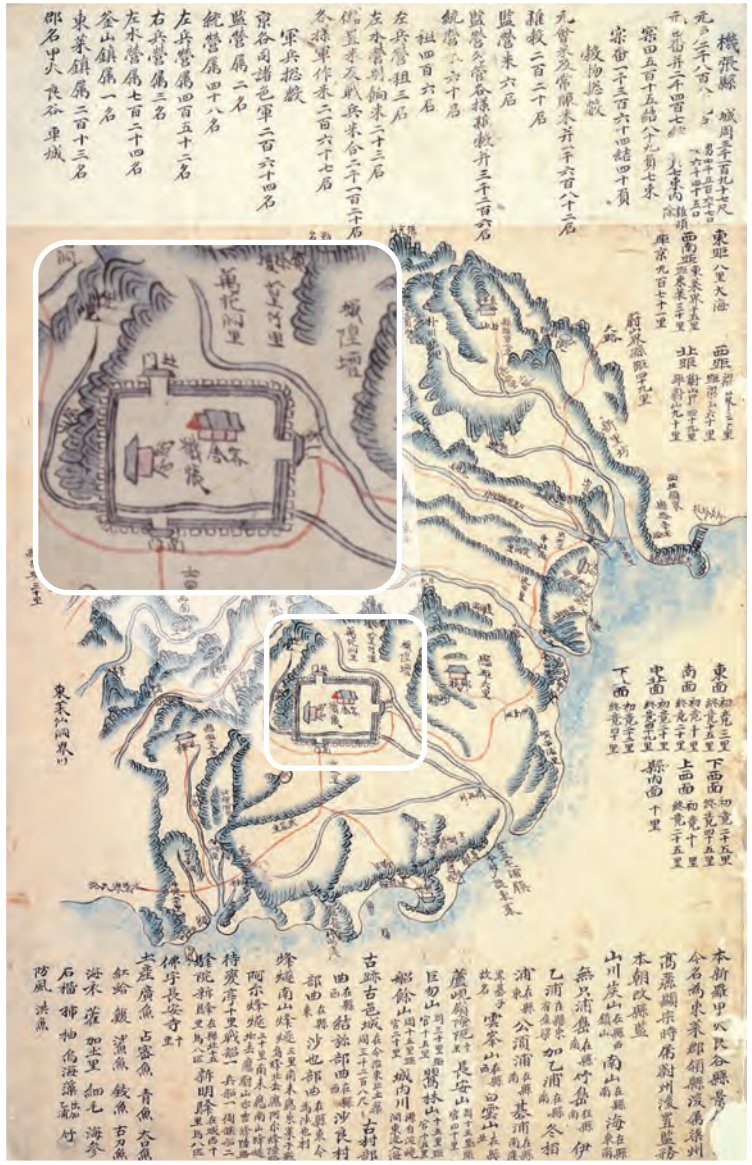
동헌에 부속된 향청(鄕廳)과 이곳 향교를 드나들면서 지방관을 보좌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기장 옛터, 고읍성과 서낭당

기왕 생각이 난 김에 고읍성 터로 발길을 옮겨 본다. 고읍성은 혹은 고현성(古縣城)이라고도 하며, 삼국시대부터 고려 우왕 대까지 기장의 읍성 역할을 했던 곳이다. 당시 읍성은 조선 시기의 읍성처럼 고을을 감싸는 나성(羅城) 형태가 아니고 고을 뒷산에 위치하여 위급시 피란하여 농성하기 위한 형태로 되어 있다. 발굴성과에 따르면 돌로 기단을 쌓은 토성이었다고 한다. 고읍성 터가 위치한 산자락에서는 성벽 터와 함께 기와나 도자기 조각이 출토되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고읍(古邑)'이라고 하여 고읍성 터가 그려져 있다. 향교와 그 앞의 문화그린맨션이 있는 공간은 당시 고을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옛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셋드산 방면으로 조금 이동하면 있는 전원어린이집 맞은편에 기장고읍성이 이곳에 있었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다만 안내판의 위치가 외진 데다 나무 그늘에 세워져서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표면이 안내판의 많이 상해 있었다.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 안내판을 세우는 게 어떨까 생각된다.

18세기 중엽에 그려진 『해동지도』를 보면 읍성과 향교 사이에 '성황단(城隍壇)'이 그려져 있다. 기장 성황당이다. 성황당(城隍堂)은 '서낭당'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성을 수호하는 신인 성황신(城隍神)을 모시는 제단으로 고려 문종 때 신성진(新城鎭)에 성황사(城隍祠)를 설치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점차 민간화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졌다. 보통 사당 외에 돌무더기와 신목(神木)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현재는 성황당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해동지도』에서 성황단은 읍성의 북동쪽, 만화리와 향교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만약 그렇다면 성황단은 조선 시기의 읍성보다는 고려 시기의 읍성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고려 시기에 고읍성 주변에 성황당이 건립되었고, 조선 시기에는 읍성이 이동하였으나 성황당은 제자리에 머물러 변치 않고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이어 나갔던 것이 아닐까?



『해동지도』 속 「기장현」의 기장읍성과 성황단(城隍壇)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죽성리에 있는 임진왜란의 흔적들

조선 전기 기장 해방(海防)의 중심, 두모포진

두모포진(豆毛浦鎭)은 현재 죽성리, 죽성천 하구에 위치한 조선 시기 수군진의 이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기장 읍내에서 6번 마을버스를 타고 원죽1구(죽성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내리면 원죽1리 마을회관 근처에 두모포진의 터가 있다.

두모포진성 터 모습 • 정관박물관

1425년(세종 7)에 작성된 『경상도지리지』 기장현 조에 두모포의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이나 늦어도 조선 초에는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는 유군 병선 8척, 기선군 700명, 무군 병선 5척이 배치되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두모포진에 대해 "현의 동쪽 7리(약 2.75km)에 위치하고 수군만호 1명이 통솔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두모포진 유적은 동헌이 있는 기장초등학교에서 직선으로 2.9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어 "정덕(正德, 명나라의 연호) 경오년(1510, 중종 5)에 비로소 석성을 쌓았는데, 둘레 1,250척(약 385m)이고 높이는 10척(약 3.08m)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두모포진의 규모와 함께 1510년 이전까지는 토성과 목책으로 방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10년은 삼포왜란이 발발한 해이므로, 왜인들이 재차 난동을 부릴 것을 대비하여 두모포진을 석성으로 보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모포는 조선 전기까지 기장 지역에서 왜구를 방비하는 수군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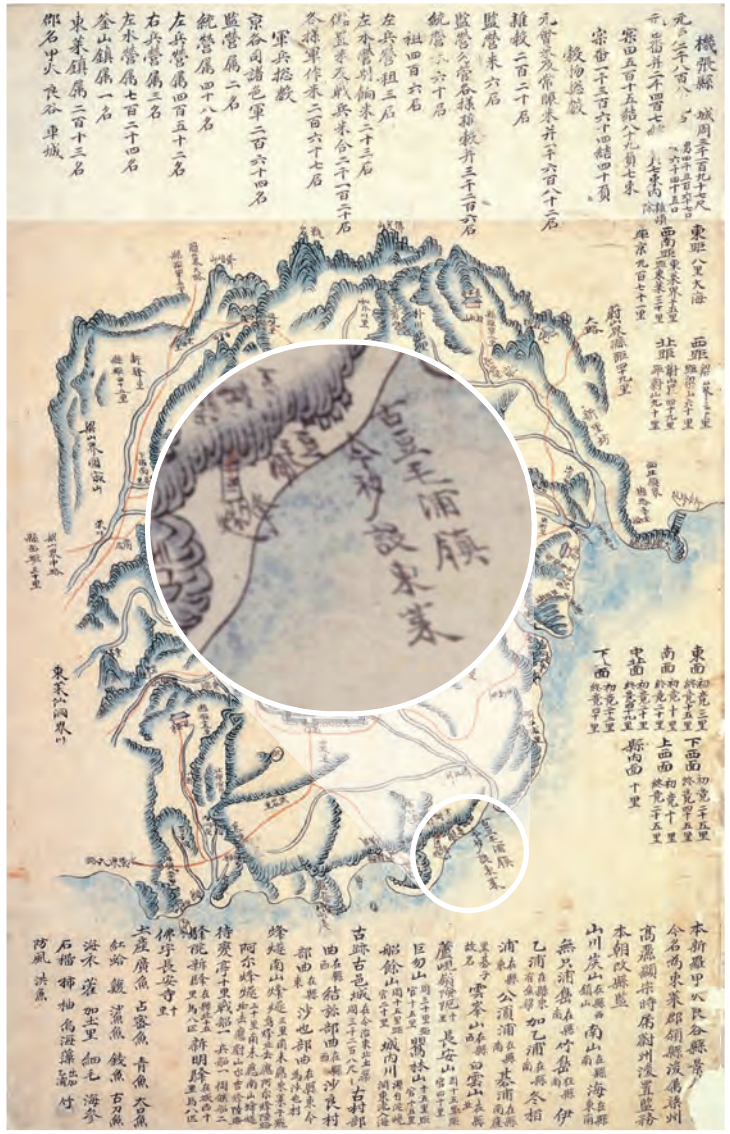
그러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순식간에 부산진과 동래부가 함락되었다. 기장현 역시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에 의해 함락되었고, 기장현감 이용준은 일단 군사를 조전(棗田, 현재의 일광읍 삼성리)으로 물렸다가 서울로 도피하였다. 싸워보지도 않고 현을 내준 일로 인해 전쟁 후인 1599년 기장현이 폐현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일본군은 기장 지역을 발판으로 언양과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두모포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의 기세가 꺾이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시기인 1594년(선조 27) 3월 10일자 『선조실록』 기사를 보면 "서생포·임랑포·두모포·기장·동래 지역의 성황당·수영·부산포와 양산 지방의 구법곡에 왜군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해 10월 1일 기록에는 두모포의 적병 500여 명이 현의 석남촌(石南村)을 포위하여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을 납치해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장과 두모포는 일본군에 점령된 이후 일본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의 소강기에도 조선군이 수복하지 못하고 일본군의 점령 상태에 놓여 있었다. 1595년(선조 28) 6월 8일 양빈의 보고에 따르면 두모포에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일본군 2만 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현재 죽성마을의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병력의 증감은 있었지만 두모포는 가토 기요마사의 주요 거점 중의 하나로 서생포나 울산 학성 방면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곳이었다.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민폐도 컸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같은 시기 기장영(기장읍성)은 아사노 나가마사[淺野長政] 휘하 2,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정도의 규모였다.

조선 후기가 되면 두모포진은 부산진 방면으로 이전하게 된다. 『경상남도여지집성』에 따르면 1629년(인조 7)에 동래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동지지』에는 "선조 25년(1592) 동래로 진을 옮겼다"라고 하였다. 임진왜란 전후의 두모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해인 1592년에 두모포가 부산진 근처로 옮겼다고는 보기 힘들다. 1629년에 옮겼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전한 이후 죽성리의 두모포진 터는 점차 폐허가 되었고, 다만 두모포진이 있던 부근에 '두호(豆湖)마을'이라는 지명이 남게 되었다.

두모포진이 있던 터는 죽성초등학교에서 죽성천을 방면으로 이동하다 보면 찾을 수 있다. 죽성천은 교리의 만화천과 읍내의 서부천, 그리고 청강리에서 흘러오는 청강천이 합류한 하천으로, 죽성리를 통해 동해로 흘러간다. 아마도 두모포진은 동해의 높은 파도를 피해 죽성천 하구에 진지를 마련하



『해동지도』 속 「기장현」에는 "옛 두모포진은 지금 동래로 이설되었다"라고 적혀 있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였을 것이다. 경상좌수영 역시 바다가 아니라 수영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두모포진성 유적은 지금은 풀밭이 되어 있지만, 제법 널찍하게 터가 닦여 있어서 사료에 나온 규모의 성곽이 세워지고 하천변에는 선소가 존재했을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후술한 대변리의 주사창 역시 두모포진에 소속된 선박이 정박하는 시설로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군, 죽성리에 왜성을 쌓다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은 두모포에 주둔하면서 죽성리왜성을 쌓았다. 왜성은 일본군이 쌓은 성을 말하는데, 일본의 성곽축조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죽성리왜성은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가 지었다고 하는데, 당시 사정에 대해서는 1595년(선조 28) 12월 3일의 『선조실록』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기사에는 "(두모포) 진중의 왜인들이 이제 성을 짓는 역사(役事)를 일으켜서 나무를 끌어오고 돌을 실어 나르는 왜인이 도로를 메웠으며 고현성(古縣城)의 돌을 반 이상이나 뽑아내고 또 근처의 암석을 채취하여 끊임없이 실어 날랐다"라고 하였다. 결국 왜성을 쌓는 석재를 근처의 암석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서 교리에 있는 고현성(즉 고읍성) 터에 있는 돌을 이용해 왜성을 지었던 것이다. 기존의 자료들을 보면 기장읍성이나 두모포성의 석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는데, 고읍성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또 읍성과 두모포진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공간이었으므로 굳이 석재를 헐어내어 방어를 약화시킬 이유가 없다.

죽성리왜성이 세워진 곳은 현재 기장 죽성초등학교 뒷산인 웅산이다. 왜성이 들어서기 전에 신라 때의 토성이 지어졌다고 한다. 왜성은 웅산 꼭대기

일제강점기 촬영된 죽성리왜성 전경 모습 • 국립중앙박물관

에 성의 중심부인 혼마루[本丸]를 닦고 전망이 좋은 곳에 망루인 덴슈[天守]를 세웠다. 그 아래로 성벽을 쌓고 지그재그로 길을 내어 방어에 활용하였다. 혼마루 서쪽에는 지성이 세워져서 본성과 연계하였다. 왜성은 성벽이 수직 형태가 아니고 비스듬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고, 꺾이는 곳이 날카롭게 직각을 이루는 등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죽성리왜성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왜성까지 올라가는 길은 정비가 되어 있으나, 왜성이 문화재 내지는 사적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에 사유지가 되었고, 경작지가 들어서서 본래 모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남산 봉수대에 오르다

죽성리에는 관방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대표적인 유적이 있는데, 바로 봉대산에 있는 남산 봉수대이다. 남산 봉수대는 죽성리와 대변리 사이에 위치하는데 죽성리에서는 왜성의 서편으로 난 등산길을 따라 산을 올라야 도착할 수 있으며, 대략 200m 남짓의 높이에 위치한다. 봉수대의 입지가 으레 그렇듯 주변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봉수대에 올라가면 시야가 확 트이고 날씨가 좋으면 송정에서 고리에 이르는 기장의 해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이 산이 '봉대산(烽臺山)'이라고 불리는 것도 정상에 봉수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전에는 그저 '남산(南山)'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봉수대는 봉수(烽燧)라는 통신 체계를 구성하는 시설이다. 봉수는 빛을 활용한 전근대의 통신수단으로, 주로 국가의 비상 연락망으로 활용되었다. 변경에서부터 수도까지 주요 산봉우리에 봉수대를 놓고 서로 연락망을 설정한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봉수대에 불을 피우면, 이어지는 봉수대에서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을 보고 다음 봉수대로 이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수도까지 소식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고대부터 국가적으로 봉수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던 것이다.

조선 시기에는 전국의 봉수 시스템을 한양을 중심으로 5개의 경로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함경도 경흥, 동래 다대포, 평안도 강계, 평안도 의주, 전라도 여수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각각 제1거(炬)에서 제5거로 부른다. 기장 지역의 봉수대는 다대포에서 출발하는 제2거 봉수의 경로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2거 봉수는 경상도 지역의 외침, 주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대포의 응봉 봉수대에서 출발한 봉수는 석성 봉수대(혹은 구봉산 봉수대)→황령산 봉수대→해운대 간비오산 봉수대를 지나 이곳 남산 봉수대를 거쳐 장안읍 임랑포 봉수대를 통해 울산~경주 방면으로 전달되었다.

남산 봉수대는 고려 초인 985년에 축조되었다고 하는데, 고려 후기 왜구가 창궐하면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졌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시기의 기록인 『경상도지리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남산연대 봉화는 현에서 동쪽

으로 5리(약 2km) 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 동래현 땅의 간비오 봉화를 바라보며 거리는 23리(약 9km)이다. 북쪽으로 울산군 지역의 임을랑포(곧 임랑포) 봉화를 바라보며 거리는 25리(약 9.8km)이다" 아마 고려 시기 때부터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에는 "간 비오산과 임랑포 봉수대와 서로 응한다"는 정도의 기록이 남아 있다.

남산 봉수대는 암반 위에 연대를 돌로 쌓은 형태인데, 부산 지역에서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봉수대로 꼽혔다. 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조각이 출토되면서 당시 발굴조사된 봉수대 중 가장 오래된 봉수대이자 연변 봉수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였다. 또한 봉수대 옆에 건물의 흔적도 발굴되었다.

그런데 2013년 6월 인근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굴삭기를 동원하여 유적을 크게 훼손하였다. 훼손한 이유는 봉수대에서 자기들의 공동체 마을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혹은 봉수대를 헐고 헬기 착륙장을 짓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기장군에서 해당 종교단체를 고발하기까지 하였으나, 이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훼손된 봉수대의 복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남산 봉수대 일대 전경 • 정관박물관

4. 임랑포 주변의 관방 유적들

임랑포 봉수대와 아이 봉수대

남산 봉수대의 신호를 전달받는 임랑포 봉수대는 좌광천 하구 근처의 낮은 산 위에 위치한다. 좌광천은 삼각산에서 발원하여 정관읍을 관통하고, 장안읍 임랑리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가는 하천이다. 대체로 일광읍과 장안읍의 경계는 좌광천을 따라 이어져 있는데, 다만 하구 부분은 대체로 임랑리에 속해 있다. 좌광천 하구의 지형을 보면 북쪽은 비교적 평탄한 퇴적층이 펼쳐져 있지만 남쪽은 깎아지른 절벽이 솟아 있는데, 그 절벽 위에 봉수대가 있다. 이와 같은 지형상의 이유로 인해 문동리 방면에서 올라가야 봉수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정작 임랑리 쪽에서는 봉수대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임랑포 봉수대는 현재는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울산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옛 문헌을 보면 울산군의 봉수대로 언급되고 있다. 『경상도지리지』에서도 울산군 조에 나오는데, 여기서 남산 봉수대와 서로 연락한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조선 초기에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765년(영조 41)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임랑포 봉수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 이전에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봉수대 형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임랑포 봉수대 모습 • 정관박물관

다만 교통 면에서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주변이 정비되지 않아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고 숲이 우거져서 남산 봉수대와 같이 바닷가를 따라 펼쳐진 주변 풍경을 조망하기는 힘든 편이다.

기장에 또 하나의 봉수대는 아이 봉수대(혹은 아이포 봉수대)이다. 이곳은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 영역 내에 들어가 있어서 직접 답사는 불가능하지만, 기장의 관방에 대해 얘기하는 김에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두려고 한다. 이 봉수대는 고리원전 영내에 있는 작은 산꼭대기에 위치하며, 이 산의 이름도 봉수대가 있었다고 하여 '봉대산(烽臺山)'이다.

아이 봉수대는 현재 행정구역 상으로는 장안읍 효암리에 속하지만, 조선 시기에는 울산의 영역이었었다. 그리므로 이 봉수에 대한 옛 기록은 울산 지역의 지리지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울산군에 있는 여덟 개의 봉화 중 하나로 아이포(阿爾浦)가 꼽히고 있으니, 적어도 세종 무렵에는 봉수대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장의 남산 봉수대에서 서생포 봉수대로 전달되는 과정에는 몇 개의 간봉(間烽)을 거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아이 봉수대였다. 남산에서 전달된 봉화는 임랑포 봉수대를 지나 이곳 아이 봉수대를 거쳐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의 이길 봉수대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 봉수대는 '이길 봉수대'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아이 봉수대를 임랑포 남쪽에 표기하면서 혼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아이 봉수대는 임랑포와 두모포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고, 현재의 아이 봉수대가 이길 봉수대로 불리고, 현재의 이길 봉수대는 나사리에 있다고 하여 '나사 봉수대'로 불려왔던 것이다. 1998년 기장문화원 공태도 원장의 연구에 의해 당시 이길 봉수대로 불리던 봉수대는 사실은 아이 봉수대였음이 알려지게 되었고, 나사 봉수대도 동시에 이길 봉수대라는 명칭을 찾게 되었다. 현재는 이때 정정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신고리원전 건설에 앞서 1997년과 2001년에 부산박물관에 의해 조사 및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 봉수대는 동해 쪽으로 튀어나와 곶을 이루는 산꼭대기에 위치하여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당시 기준으로 봉수대가 원형대로 복원된 몇 안 되는 사례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그 경내에 위치하여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기껏 원래의 이름과 형상을 되찾았지만, 이 봉수대가 일반에 공개되는 날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만 더한다.

임랑포왜성의 입지

관방 유적을 찾아 임랑리까지 왔으니 임랑포왜성 역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임랑포왜성은 임랑해수욕장 뒤편에 있는 방모산에 위치하고 있다.

상공에서 바라본 임랑포왜성 •정관박물관

『대동지지』에서는 "임랑포성과 왜성은 일본인이 쌓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임랑포성'은 임랑포왜성, '왜성'은 죽성리왜성을 말한다. 이 성은 일본에서는 '세이관성[せいぐわん城]'으로 알려져 있다.

임랑포왜성은 1593년 일본측의 모리 가쓰노부[毛利勝信]가 이끄는 병력이 지어서 거성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에 따라서는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가 지었다고도 하는데, 가쓰노부와 요시나리는 동일 인물이다.

임랑포왜성은 방모산에서 좌광천을 바라보고 성곽을 쌓았고 그 아래 평지에는 거주 구역이 있었다. 성곽은 산 정상에 위치하는데 산의 높이도 낮고 성의 규모도 크지 않다. 산 주변에 일부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 구역이 있었던 곳은 2001년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실향하게 된 효암리 주민들을 위한 이주민 마을을 지으면서 발굴조사가 된 바 있고, 현재는 그 흔적을 확인할 길이 없다.

효암리 이주민 마을 남쪽 좌광천 하안에는 효암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효암공원에서 좌광천 너머를 보면 봉수대가 있는 산과 하천이 만나는 곳이 이루어진 절벽이 보인다. 강의 하구에 형성된 절벽은 제법 장관을 이루고 있다. 얼핏 안동 병산서원에서 낙동강 너머로 보았던 절벽이 생각날 정도이다.

5. 해창과 주사창

문동리 해창과 대변리의 주사창

임랑포 봉수대 아래 문동리마을로 돌아가 보자. 조선 시기에 문동리는 기장을 대표하는 아홉 개의 포구 중의 하나인 독이포(禿伊浦)가 있었던 곳이며, 또 해창(海倉)이 있었다. '해창'은 말 그대로 '바닷가에 있는 창고'이다. 조곡(租穀), 즉 조세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곡물을 배로 실어 나르기 위하여 저장하는 창고를 뜻한다.

기장의 해창은 왜관에 지급하는 쌀, 즉 공작미(公作米)를 운반하고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고이다. 한양으로 올려보내지[上納] 않고 아래로 보낸다[下納]고 하여 공작미를 하납미(下納米)라고도 부르며, 하납미를 실어 나르는 배를 하납선(下納船)이라고 한다. 기장 해창은 하납선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므로 하납선창(下納船倉)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해창에서 실어진 곡물은 하납선을 통해 운반되어 부산진성에 있는 부창(釜倉)으로 운반되었다가 대마도주나 왜관의 각 관원 등에게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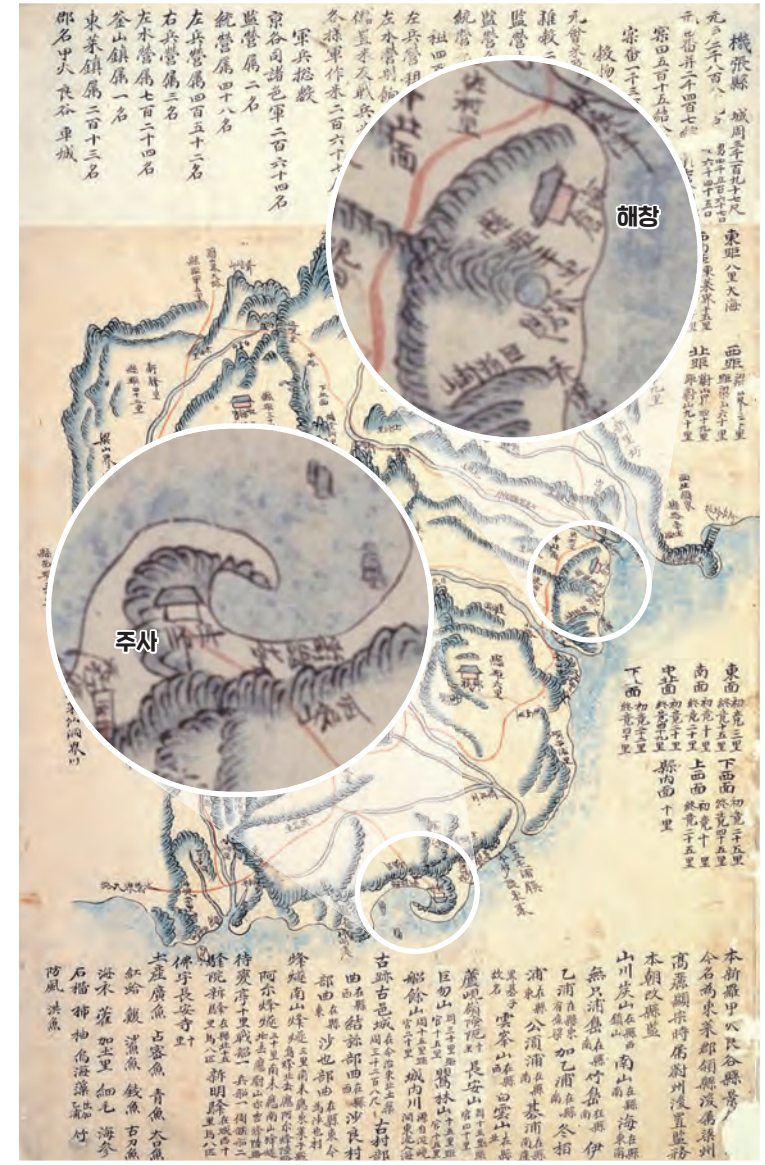
『기장현읍지』(1831)에는 해창이 기장 읍내에서 동쪽으로 20리(약 7.85km)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다. 해창이 있던 지역에는 지금도 '해창마을'이라는 지명이 전하고 있다. 해창마을은 문동리 인근의 다섯 마을을 일컫는 '문오성마

을' 중에서 문동·문상마을에 해당한다. 또 해창마을을 '창밭[倉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또 자갈밭을 이루어진 포구에는 '버릿개'라는 지명이 전하기도 하는데, 선창에 말뚝을 세워 밧줄(버리)로 묶어 배를 정박시키는 포구라는 뜻이다. 아쉽게도 지금은 옛 해창의 흔적도, 버릿개의 자갈밭도 찾을 수가 없다.

주사창(舟師廠 혹은 舟師倉)은 기장읍 대변리에 위치했던 곳이다. 옛 문헌이나 지도를 보면 주사소(舟師所) 혹은 그냥 주사(舟師)라고 표기되며 전선창(戰船廠)이라고도 한다. 현재 수협 대변지점 건물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그 뒤편 언덕에 주사대(舟師臺)라는 지명이 전하고 있다. 그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사창에 대한 설명과 주사창이 표기된 옛 지도를 넣은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사창의 '주사(舟師)'는 수군(水軍)을 뜻하는 말이며, 주사창은 전선(戰船), 즉 군함을 정박시키는 곳이었다. 대변리의 주사창은 이웃한 죽성리의 수군진영인 두모포영 소속의 배를 정박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이, 두모포영이 1629년에 동래로 이전했음에도 주사창이 표기된 지도나 문헌은 18세기 이후의 것이 많다는 점이다. 1899년에 편찬된 『기장읍지』의 진보(鎭堡) 조에는 주사에 대해 "현 남쪽 7리(약 2.75㎞) 되는 곳에 수군 대장(代將) 1명, 선장(船將) 1명, 병선감관(兵船監官)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1명, 선직(船直) 1명이 관할하는 전선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이 배치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두모포영이 이전한 이후에도 이곳의 주사창은 이전하지 않았고, 계속 전선과 수군이 머무르며 관방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대변(大邊)'의 지명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선 시기



『해동지도』 속 「기장현」에 그려진 '해창(海倉)'과 '주사(舟師)'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에 이곳 포구의 명칭은 '무지포(無知浦 혹은 無只浦)'이며, 이곳에 대동미를 수납하는 대동고가 위치하고 그 주변에 포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동고변포(大同庫邊浦)'를 줄여서 '대변'이라는 지명이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현지 주민에게서는 연화리의 죽도가 산에서 보면 '큰 갓[大弁]'과 같이 보이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부산대 이근열 교수는 이곳에 '대변소(待變所 혹은 待邊所, 변란을 대비하여 수군들이 주둔하는 곳)'가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변'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이곳에 대변소가 있었다면, 조선 후기 주사창의 배들이 어디에 소속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무지포에는 조선 전기에 만호가 지휘하는 두모포 소속의 배가 정박하고 있었고, 조선 후기에도 작은 수군기지인 대변소가 들어서서 해안경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주사창 역시 대변소 소속의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었을 것이며, 1899년의 『기장읍지』에 기재된 '주사'는 곧 이 대변소의 수군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주사창이 있었던 대변리의 대변항 풍경(2019) • 비짓부산

2
코스

기장의 아홉 포구,
그 포긋길을 따라 해변을 거닐다

기장은 바다의 고장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연의 위협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기장 포구 사람들은 바다를 떠나지 않고 의연히 삶의 터전으로 삼아 왔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세월이 점점 쌓여 끝내 하나의 역사를 이루었다.

2 코스

공수마을 → 오랑대 → 대변항 → 죽성리 → 학리 → 일광 → 문오성마을 → 임랑해수욕장

기장의 아홉 포구,
그 포긋길을 따라 해변을 거닐다

기장은 서쪽의 산과 동쪽의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기장 관내의 읍·면 중 정관읍과 철마면을 제외한 기장읍·일광읍·장안읍은 모두 바다와 면해 있다. 기장군은 남해에서 동해로 접어드는 입구에 해당하는 고장이며, 총 40km가 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기장의 바닷가는 때로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으로, 때로는 자그락거리는 자갈밭으로, 때로는 하얀 모래사장으로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기장의 바다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살아왔고, 바닷가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어 생활에 활용하였다. 기장은 바다의 고장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기장의 특산물 역시 바다에서 나는 각종 해산물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농사만을 전업으로 하는 농촌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계절이 순환하고 달이 차고 이지러지고, 밀물과 썰물이 오가고, 날씨와 바람이 바뀌는 등의 자연현상도 육지 사람과 바다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또한 농촌과 어촌은 마을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역할 구분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는다는 것은 훨씬 많은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바다의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면서 동시에 순응하고, 위대한 자연의 힘을 경배하기도 하였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배를 이용하여 바다로 나아갔다. 배를 타고 여러 해산물들을 채집하거나 다른 지역과 교역하였다. 육지와 바다가 맞닿아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을 '포구(浦口)'라고 하였다. 포구는 단순히 '포(浦)'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는 '개'라고 불렀다. 포구 주변 바닷가를 흔히 '갯가'라고 일컫기도 하였다. 또 예전에 바닷가 사람을 '갯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지배층들이 가진 농업 중심의 사고방식과 바닷가 사람에게 지워진 고된 신역(身役)으로 인해 '갯가 사람'은 기피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을 가진, 차별적인 표현이 되기도 했다.

자연의 위협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기장 포구 사람들은 바다를 떠나지 않고 의연히 삶의 터전으로 삼아 왔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온 세월이 점점 쌓여 끝내 하나의 역사를 이루었다.

1. 송정 가을포와 공수마을

기장의 아홉 포구

조선시대의 사료에는 기장현의 포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두모포(豆毛浦)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여기에 이을포(伊乙浦)·가을포(加乙浦)·동백포(冬柏浦)·공수포(公須浦)·기포(碁浦)·무지포(無知浦)가 더하여 기록되어 있다. 1832년 출간된 『기장현읍지』에는 두모포가 빠지고 독이포(禿伊浦)·월내포(月內浦)·화사을포(火士乙浦)가 추가되어 있는데, 총 아홉 개의 포구가 된다. 이 아홉 개의 포구가 기장을 대표하는 '기장 9포'로 꼽히게 되었다. 이를 남쪽부터 정리하면 앞면의 표와 그림과 같다.

순번	명칭	현재 항구
1	가을포	송정항
2	공수포	공수항
3	무지포	대변항
4	이을포	이천항
5	기포	이동항
6	동백포	동백항
7	독이포	중동항
8	월내포	월내항
9	화사을포	고리항

기장 9포의 위치

다만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가을포나 이을포가 빠지고 두모포와 항리포(港里浦, 일광읍 학리항)가 들어가기도 한다.

요즈음은 포구를 항구라고 부르는 일이 더 많다. 기장군 홈페이지를 보면 기장 바닷가에는 현재 열일곱 개의 어항이 있다. 이를 남쪽부터 북쪽으로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공수항 - 동암항 - 서암항 - 신암항 - 대변항 - 월전항 - 두호항 - 학리항 - 이천항 - 이동항 - 동백항 - 신평항 - 칠암항 - 중동항 - 월내항 - 임랑항 - 길천항

이 중 공수항에서 두호항까지는 기장읍, 학리항에서 중동항까지는 일광읍, 월내에서 길천항까지는 장안읍에 위치한다.

기본적으로 기장의 해안 길은 남쪽 코스와 북쪽 코스로 나눌 수 있다. 기장의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으나, 해안 길은 그렇지 못하다. 죽성리와 학리 사이의 바닷가에는 신앙촌이 있는데, 신앙촌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폐쇄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장 해안 길을 따라 이동할 때는 시랑리에서 죽성리에 이르는 남쪽 코스와 삼성리에서 월내에 이르는 북쪽 코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한 번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해안을 따라 죽성리까지 가서 군청 쪽으로 나왔다가 다시 일광에서 해안 쪽으로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기장 해안 길을 도보로 다닌다면, 하루 만에 해변길 40km를 주파해야 하므로 체력적으로 버거운 일이다. 더구나 주마간산(走馬看山)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누려가며 여행한다면 시간적으로도 하루 일정은 짧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마침 기장 해안 길이 남북으로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두 번 정도로 나누어 걸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송정 가을포

송정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송정동은 원래 기장에 속한 땅이었다.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가는 길을 생각하면 느낄 수 있겠지만, 해운대와 송정 사이에는 신곡산이 있어 지형적으로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에 송정 지역은 동래부의 영역이 아니라 현재 기장읍 시랑리의 석산·당사마을과 함께 기장현 남면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63년에 부산시가 부산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당시 동래군 기장면 송정리가 해운대출장소 관할로 들어갔던 것이다. '송정동'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1966년의 일이다. 1980년에 해운대출장소가 해운대구로 승격하면서 우리가 아는 해운대구 송정동이 되었으며, 1996년에 송정터널이 뚫리면서 송정 지역이 해운대 신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게 되었다.

해수욕장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기장 9포의 하나인 가을포로 불리는 어촌마을이었다. 현재도 죽도 근처에 송정항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구를 감싸고 있는 방파제 양쪽 끝에는 두 개의 등대가 마련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광어, 도다리, 갈치 등을 어획하며, 겨울철에는 미역 양식을 한다고 한다.

'가을포'라는 명칭은 혹은 '가래포(加來浦)'라고도 표기된다. 이 명칭은 갈대가 많아서 그렇게 붙었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갈대를 '가래'라고 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죽도공원의 송일정

였으므로 '가을포'나 '가래포'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갈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송정항의 입지를 보면 송정천의 하구에 위치하므로 하천변에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었음을 상상해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기장의 특산물로 오해조(烏海藻)를 소개하면서 "가을포에서 난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오해조는 '검은색의 바닷말(해초)'이라는 의미인데 다시마의 일종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어찌 되었건 가을포의 특산 공물로 나와 있다면 가을포 일대에서 많이 자라고 또 많이 채취했을 것이다.

가을포를 송정으로 부르게 된 것은 이곳의 세거 씨족인 광주 노씨(光州盧氏)가 해송림이 울창한 언덕에 정자를 지은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현재도 송정항 근처에는 송일정(松日亭)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고, 일출 명소로 꼽

히고 있다.

『기장현읍지』(1831)에는 기장현 남면 송정방으로 표기되어 있고, 『기장현읍지』(1899)에는 기장현 남면 송정리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이며, 송정천이 기장군과 해운대구의 경계가 되어 있다.

송정의 명물 중 하나로 해수욕장 입구의 로터리형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에서 시랑리와 연화리, 대변리를 지나 죽성리 방면으로 기장해안로가 뚫려 있다. 이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자주 이용되는 길이며, 도보나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장해안로를 따라 송정천 위로 세워진 송정교(송정2호교)를 건너면 기장읍 공수마을로 접어들게 된다.

공수마을과 공수포

공수마을은 기장군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행정구역 상으로는 기장읍 시랑리에 속한다. 송정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 이웃 마을이라 필자도 송정에 놀러 왔다가 공수마을까지 산책을 다니곤 하였다. 송정천에서 공수마을로 넘어가는 길에 '공수고개'라는 지명도 남아 있다.

원래 공수마을은 기장 9포의 하나로 꼽히는 공수포가 있던 어촌마을이었다. 공수마을이라는 명칭은 이곳에 공수전(公須田, 지방관청의 비용을 대기 위해 마련한 토지)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강원도 양양에도 공수전리라는 지명이 있다. 공수포의 옛 이름은 '비오개'인데, 비옥포(非玉浦 혹은 飛玉浦)나 비오포(飛烏浦)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비오개'라는 지명은 철새인 비오리가 많이 몰려드는 포구(개)라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후술할 시랑대의 옛 이름인 '원앙대(鴛鴦臺)'도 이 비오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운대 '간비오산 봉수대' 명칭에서는 '비오(飛烏)'가 이두(吏讀)로 '날오'라고 읽고 '나루'를 뜻한다고 한다. 어쩌면 비오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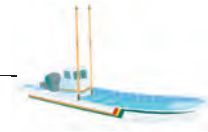
공수 포구 근처는 어촌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후릿그물 체험, 조간대 체험, 해조류 장아찌 만들기 체험, 다시마 비누 만들기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이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 마을에는 '공수마을수호 신사당'이라는 이름이 붙은 당집이 있다. 당집 뒤에는 당산나무가 크게 가지를 펼치고 있는데, 항구 근처에서 한눈에 보일 정도다.

근래 들어서 공수마을은 부쩍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다. 필자의 기억에 처음 이곳이 유명해진 것은 먹거리 덕분이었다.

공수마을은 기장의 명물인 꼼장어 짚불 구이의 원조로 유명하다. 꼼장어의 정식 명칭은 '먹장어'이다. '곰장어'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부산 지역에서는 '꼼장어'로 발음하고 어르신들은 아예 '꾸무자'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뱀장어나 붕장어와는 종이 다른, 원시적인 어류이다. 눈이 퇴화되고 입 모양도 특이해서 얼핏 보면 머리와 꼬리가 잘 구분되지 않고, 보통 구워 먹을 때에도 머리까지 통째로 먹는 경우가 많다. 타지에서 부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갈치에서 양념구이로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장의 짚불 구이도 이제 전국적으로 꽤 유명해져 있다. 그 중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집이 공수마을에 있고, 이외에도 꼼장어 요리를 잘하는 가게가 들어서 있다.

지금 기장해안로를 따라 공수마을을 지나가면 큰 길가에는 어촌 느낌은 찾기 힘들다. 21세기 들어 해변과 도로 주변에 펜션과 커피전문점이 크게 늘었다. 도로를 중심으로 원래 마을 건너편에 거대한 펜션 촌이 형성되어 있다. 근래에는 으리으리한 풀빌라 숙박시설도 들어서 있다. 이제 기장 해안가에는 커피전문점이 횟집보다 많다고 봐도 될 정도고, 공수마을도 마찬가지이다.

2. 시랑리의 포구마을



용궁사와 시랑대 석각

해동용궁사는 시랑대 근처 암석해안에 자리 잡은 사찰이다. 이 절은 전통이 있는 사찰로는 보기 힘들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특색 있는 석물이 있는 장소로서 유명하다. 문헌이나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절이 지어진 것은 1970년대 무렵으로 보이는데, 주변의 절경과 기복신앙의 명소로 번창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사찰로 손꼽히게 되었다. 동해안 암벽에 위치하는 점이나 입구에 있는 '관음성지' 비석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에는 양양 낙산사와 같은 관음 사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시랑대 인근 암석해안에 있는 해동용궁사

시랑대 각석 • 정영현

필자가 용궁사를 찾는 이유는 대개 시랑대에 가기 위해서이다. 시랑대는 해변에 있는 깎아지른 절벽이다. 공수마을에서 언급한 대로 원래 이곳의 명칭은 '원앙대(鴛鴦臺)'였다. 원앙대에는 「미랑스님과 용녀」, 「장사와 독룡」 등 주로 용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그러다가 조선 영조 대에 이조참의를 지낸 권적(權適)이 좌천되어 기장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이곳에서 시를 지으며 울적한 마음을 달랬다고 하여 '시랑대(侍郞臺)'라는 명칭이 붙었다. '시랑(侍郞)'은 중국 관직명인데 이조참의 벼슬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시랑대는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풍경 좋은 절벽이기도 하지만, '시랑대'라는 큰 글씨를 비롯하여 여기저기 마애석각(磨崖石刻)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시랑대 글씨 옆에는 권적의 시와 그것을 차운(次韻)한 시가 새겨져 있다. 그 주변의 여러 암벽과 바위에는 홍문관 교리를 지낸 손경현(孫庚鉉)과 연관된 '학사암(學士嵒)', 기장현감이었던 엄신영과 연관된 '엄신영 제우영(嚴信永 弟宇永)', 용왕제를 지냈던 '제룡단(祭龍壇)' 등의 글씨가 새겨

져 있다. 지금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데크와 난간이 세워졌는데, 이로 인해 몇몇 글씨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동암마을과 오랑대의 용왕단

다시 용궁사로 돌아가 갈맷길 표지판 방향으로 이동한다. 지장보살상과 여러 개의 돌탑을 지나면 '홍룡교(紅龍橋)'라는 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지나면 해안을 따라 400m 남짓 산책로가 뚫려 있다. 해안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업 분야의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1921년 5월 조선총독부 수산시험장으로 영도 남항동에서 시작하였고 해방 후에는 중앙수산시험장, 1963년에는 국립수산진흥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영도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은 1989년의 일이며, 2002년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수산과학원 내부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공간에는 전시시설과 교육시설이 있다. 전시시설은 수산과학관과 '탐구 1호'라는 명칭의 선박이 있고, 체험교육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인근에는 국립부산과학관도 있다.

다시 해안 길로 내려와 동암마을로 향하였다. 수산과학관 옆에는 무속인들이 머무는 건물이 있다. 기장은 동해의 용왕신을 널리 모시는 고장이며 바닷가 곳곳에 제단이 있다. 매년 정월대보름 무렵 기장 지역 포구에서는 동해안 별신굿이 개최되기도 한다.

동암마을은 동암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어촌마을이다. 기장해안로와 접하는 마을 입구 쪽은 용궁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거대한 식당촌이 형성되어 있고, 바닷가 쪽에만 항구마을다운 정취가 조금 남아 있다. 그나마

동암마을에 있는 동암항 풍경

도 지금 이 마을의 풍경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계 유명 호텔의 위용이다. 처음 이 호텔이 지어질 때는 마을과 해안의 풍광을 해치는 개발이라는 비난을 들었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휴양 명소가 되었다. 비싼 숙박료에도 기장의 바다를 찾아온 관광객들이나 풍경 좋은 곳에서 호캉스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으리으리한 호텔 건물도 여러 번 보다 보니 익숙해져서 동암마을의 풍경의 일부가 된 듯하다. 아니, 동암마을이 호텔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동암마을에서 호텔 앞으로 해안을 따라 동암해안길이 정비되었다. 해안에는 벌너리바위, 거북바위 등 기암괴석이 바다를 향해 뻗어 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랑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해안 군사시설로 인해 이 길이 막혀 있었다. 그래서 동암에서 서암까지 가려면 다시 큰길(기장해안로)로 나와야 했다. 이후 군부대 측의 양해로 처음에 좁은 오솔길이 뚫렸

오랑대와 그 위에 세워진 용왕단

고, 지금은 제법 잘 정비된 산책로가 조성된 것이다.

동암산책로를 따라가다가 군부대를 지나면 바닷가 바위 위에 작은 기와집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근처를 오랑대(五郞臺)라고 한다. 이 이름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다섯 선비가 이곳에 놀러 왔다가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바위 위의 건물은 용왕을 모시는 당집으로 '용왕단(龍王壇)'이라고 한다. 파도치는 바닷가 바위 위에 있는 기와집 풍경이 워낙 이채롭다 보니 무속신앙을 믿지 않는 관광객들도 호기심에 용왕단을 찾는다. 한편으로 오랑대는 사진가들 사이에서 일출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다. 최근 오랑대 주변은 공원으로 정비되었고, 캠핑장이 마련되어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는 장소가 되었다.

덧붙이자면 최근까지도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명칭은 '오'랑대와 '시'랑대에서 그 이름을 딴 것이다. 얼핏 들으면 외래어 같기도, 혹은 이집트의 신 이름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옛 지명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3. 연화리와 대변리

서암항과 신암항의 이색 등대

오랑대를 지나면 동암해안길은 다시 기장해안로와 합류하고, 곧 연화리로 접어든다. 연화리에는 서암항과 신암항이 있다. 연화리 일대는 횟집촌으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또 다섯 개의 특색 있는 등대가 있는데, 필자는 현

연화리 서암항에 있는 젖병등대와 건너편의 닭벼슬등대. 남북방파제등대의 별칭이다.

장 답사 때 등대 순례를 하고 있는 관광객을 만나기도 하였다. 서암항의 남북방파제등대는 각각 '젖병등대', '닭벼슬등대'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또 신암항에서는 멀리 대변 외항방파제의 두 등대와 대변방파제의 등대, 총 세 개의 등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항방파제의 두 등대는 원래 '장승등대'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노란색등대는 '마징가등대', 흰색등대는 '태권브이등대'라는 별명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빨간색 대변방파제등대는 허리에 축구공을 두르고 있는데, 그 명칭도 '월드컵등대'이다.

신암항은 명물 중 하나는 앞바다에 있는 '죽도(竹島)'라는 섬이다. 육지의 바위산과 대칭을 이루는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으며, 신암항에서 죽도까지 멋진 다리도 놓여 있다. 하지만 이 섬은 신앙촌 소유의 별장지로 일반인들은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리를 건너봤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접안시설까지만 진입이 가능하다.

대변항의 기장대멸치

신암항을 지나면 커다란 만(灣)이 나타나고, 맞은편에 수많은 어선과 커다란 등대, 창고시설이 보인다. 여기가 대변항이다. 신암항에서 대변항에 이르는 곳이 바로 옛적 기장 9포의 하나인 무지포이다. '대변'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을에 대동미를 저장하는 대동고(大同庫)가 있었기 때문에 대동고변포(大同庫邊浦, 대동고 근처의 포구)라는 명칭을 줄여 대변포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연화리와 대변리 일대는 횟집촌으로 서로 연결되어 외부인이 보기에는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변은 기장 멸치 어업의 메카이기 때문에 멸치잡이 시설이 되어 있는 어선들이 줄이어 있어서

대변항의 멸치잡이 어선과 뻗침대

그 풍경이 다른 항구마을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 멸치잡이 어선의 특징은 기다란 대나무 장대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나무 장대는 '뻗침대'라고 하며, 멸치 떼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드리우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대변항에서 수십 대의 멸치 어선이 뻗침대를 세우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장관이다. 대변항은 전국 멸치 어획량의 6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멸치 산지이다. 기장의 멸치는 다른 멸치보다 크기가 굵은 것이 특징으로 '기장대멸치'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되어 있고 회로도 먹는다. 대멸치는 봄철이 제철이라 매년 4~5월에 대변항에서 대변멸치축제가 열리곤 한다. 또한 항구 옆에 기장대멸치를 형상화한 조각 작품을 세워놓았다. 또한 대변에는 낚시로 잡은 갈치로 만든 갈치회나 장어구이도 유명하며, 건어물과 미역·다시마를 파는 특화거리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척화비와 박순천 생가

대변항 바로 가까이에는 용암초등학교가 있다. 이 초등학교는 항구 바로 곁에 있다는 점도 이색적이지만, 두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교정에 있는 척화비이다. 척화비는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후 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전국에 세워진 비석이다. 비석 앞면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옆면에는 "우리의 자손에게 경고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우다"라고 적혀 있다. 병인년은 병인양요가 일어난 해이고 신미년은 신미양요가 일어난 해이다. 부산에는 현재 세 개의 척화비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부산진성에 있던 것으로 현재는 부산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다른 하나는 가덕포구에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천가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대변에 있는 것이다. 이 척화비는 원래는 방파제 안쪽에 세워졌는데 일제강점기에 항만을 축조하면서 바다에 빠뜨려졌다. 1947년 마을 청년들이 이를 건져서 대변항 어판장 뒤쪽 축대에 세웠다가 2005년 다시 현재의 용암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긴 것이다. 초등학교 내에서도 몇 차례 위치를 옮겼는데, 현재는 방문객들이 학교에 진입하지 않고도 잘 볼 수 있도록 정문 옆에 위치한다.

다른 하나는 용암초등학교의 명칭이다.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 기장국민학교 분교로 출발하여 1963년 대변국민학교로 개교하였고, 1996년 대변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변리에 있는 초등학교이니 '대변초등학교'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만, 교명이 아무래도 대변(大便)을 연상시켜서 학생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는

1. 기장척화비　2. 학교명 변경 안내판 • 이상 정영현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년 학생회장 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학교명칭 변경이 공약으로 걸렸고, 그 후보 학생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명 변경 운동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총동창회의 지지와 교육청의 심의를 얻어 '용암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과거 을미개혁 때 대변리의 명칭이 기장군 읍내면 용암동(龍岩洞)이었으므로 여기서 이름을 딴 것이다. 언뜻 보면 해프닝 같지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점과 선거 공약을 관철해 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대변 지역 출신 인물로 정치가 박순천(朴順天, 1898~1983)이 있다. 본명은 명련(命連)이며, 대변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는 남장을 하고 서당에 다녔다고

하며, 부산의 일신여학교를 졸업하였고 졸업 후 교사 생활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고, 석방 후에도 감시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순천댁'으로 행세했기 때문에 후에 '박순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유학 후 시댁이 있는 고령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촌운동을 하였고, 1936년 가족과 함께 상경하여 이듬해 경성가정여숙(현재의 중앙여자고등학교)을 설립하였다. 해방 후에는 주로 우익계통의 여성운동을 하다가 대한부인회 소속으로 종로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하여 부산 동구와 서울 마포구 등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의정활동을 하며 여권과 민주화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었고, 5·16군사정변 이후 붕괴된 민주당 재건에 앞장서서 1963년 총재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5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마치고 1983년 86세의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처럼 기장을 대표하는 정치가이다 보니 기장군 차원에서 대변리의 박순천 생가를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생가 복원은 박순천의 친일 행각이 문제시되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가 경성가정의숙에 재직하던 무렵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일제의 협박에 의해 학생들을 정신대에 자원하도록 종용하였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친일 시국 연설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생가 복원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4. 죽성리의 명물을 만끽하다

황학대와 어사암

죽성리에는 두호항(죽성항)과 월전항 두 개의 항구가 있다. 이번 여행길을 따라 남쪽으로 죽성리에 접어들면 보이는 항구가 월전항이다. 이곳에는 유명한 월전활어판매장이 있고 생선회 등 다양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다. 또 후술할 칠암만큼이나 월전 역시 붕장어(바다장어, 흔히 일본어로 아나고) 구이로 유명한 곳이다.

해변을 따라 난 죽성로를 따라 길을 걸으면 두호마을에 도착한다. 두호마을이라는 명칭은 조선 전기에 두모포(豆毛浦) 수군진지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두호마을에도 물론 횟집과 장어구이 가게가 있지만, 월전에 비한다면 잘 꾸며진 커피전문점과 펜션이 있는 관광마을 같은 색채가 강하다. 아마도 바위 해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기장 읍내에서 가깝다는 입지 조건, 황학대나 드림세트장 같은 볼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황학대(黃鶴臺)는 두호항 인근에 솟아 있는 바위 언덕이다. 바위의 형상이 황학이 바다를 향해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원래는 섬이었다고 하는데 죽성천 하구의 퇴적으로 육지가 되었다. 언덕 위에는 정자가 있어서 포구 근처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또 뒤편에

있는 언덕에서 보면 황학대와 정자 자체가 포구의 풍경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1618년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가 경원에서 기장으로 이배되어 6년을 지냈을 때 죽성에서 머물렀다고 하며, 황학대에서 많은 시문을 남겼다고 한다. 황학대 뒤편 암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 지역의 출신의 진사 방치주(方致周)의 이름이다. 옆에 후손들의 이름도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다.

황학대

어사암(御使岩)은 죽성리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바위이다. 원래 이름은 매바위[鷹岩]라고 한다. 이 바위에 '어사암'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19세기에 암행어사로 기장을 찾은 이도재(李道宰)라는 인물 때문이다. 1883년 독이포(현재의 문동리)에 있는 해창에서 곡식을 실은 배가 부산포를 향해 운항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 이곳 매바위에서 좌초되어 침몰하고 말았다. 곡식을 실은 배가 좌초되어 쌀가마니가 흩어지자 인근 주민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쌀을 가져갔다. 관청에서 이를 알고 쌀을 가져간 백성들을 잡아들였다. 마침 이때 이도재는 경상좌도(경상도에서 낙동강 동쪽 지역)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진상을 밝기기 위해 기장을 찾았다. 이때 기장의 관기 월매(月梅)가 기장 백성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선처해줄 것을 탄원했고, 덕분에 잡혀간 주민들은 풀려날 수 있었다.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두호 지역 주민들은 매바위를 어사암이라고 부르고, 바위에 '어사암(御使岩)'·'이도재 기월매(李道宰 妓月梅)'라는 글씨를 새겼다. 한편으로 이도재 생사단(生祀壇)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 그 뜻을 기리기도 했는데, 이 비석은 읍내의 공덕비군으로 옮겨져 있다. 생사단이라는 것은 큰 은혜를 입은 인물에 대해 아직 살아 있음에도 제사를 올리는 제단을 말한다. 어사암은 썰물 때는 육지와 연결되고 밀물이 되면 아래쪽이 바다에 잠기는데 테트라포드 위를 건너다녀야 해서 직접 가보는 것은 위험하다.

국수당 해송

마을 뒤편 언덕에는 해송이 있다. 해송은 말 그대로 바닷가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로 '곰솔'이라고도 한다. 죽성리의 해송은 수령 400년의 곰솔 다섯 그루가 한군데 모여 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는데, 원래 여섯 그루였다가 하나가 죽었다고 한다. 곰솔 사이에 작은 당집이 있는데, 이곳을 국수당(國守堂) 혹은 국사당(國祀堂)이라고 부른다. 옛적에 이곳에 돌무덤을 쌓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제사를 올렸던 곳이라는 뜻이다. 지금도 이곳은 마을의 서낭당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월대보름에 풍어제를 올리는 공간이다. 이외에도 정월대보름에는 항구 인근의 할배 당산과 할매 당산, 어사암 등에 두루 제사를 올린다.

마을 뒤편에는 두모포왜성과 남산 봉수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두호마을 북쪽 죽성천변에 위치한 원죽마을은 옛 두모포가 있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의 넋을 기리는 무명 도공 추모비가 있다.

5. 「갯마을」과 일광해수욕장 그리고 다시마

학리와 삼성리

기장 해안 여행길 북쪽 구간의 시작은 일광읍 학리(鶴里)이다. 학리는 조선 시대에는 '항리포(港里浦)'라고 불렸던 어촌마을로, 죽성천의 북쪽과 일광해수욕장 남쪽 사이에 반도처럼 튀어나온 곳이다. 학리 뒷산은 신앙촌의 영역에 포함되어 남쪽으로는 도로가 두절되어 있으므로 삼성리 방면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학리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이곳의 지형이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을 닮았다거나, 소나무에 학이 앉았다거나, 혹은 항리가 학리로 바뀌었다거나 하는 여러 설이 있다. 이곳 역시 기장을 대표하는 어항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외지의 낚시꾼을 대상으로 낚싯배를 대여하는 일도 성행하고 있다. 학리 앞바다에서는 전복이나 미역을 양식하고 있다. 항구 옆에는 '해녀집'이라고 해서 해녀들이 운영하는 해산물 식당이 여러 집 늘어서 있다. 이곳 해녀집은 다른 지역에서 잘 먹지 않는 말미잘탕도 먹을 수 있다. 학리와 맞은편 이천리 사이에는 일광해수욕장을 포함하는 만이 형성되어 있는데, 방파제에서 보는 풍경이 뛰어나다. 학리마을은 오영수의 소설 「갯마을」의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하다.

삼성리는 일광읍의 중심지로 행정복지센터와 일광해수욕장이 이곳에 있다. 또 기장읍에서 일광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학리의 유일한 출입구이며, 이천-이동-동백-칠암-문동으로 이어지는 일광로의 출발점인 교통의 요지이다. 동해선 일광역으로 도시철도가 다니게 되면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 현재 동해선 일광역의 명칭이 과거에는 삼성역이기도 했다. 삼성리에는 201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의 주거지 개발이 진행되었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2022년에는 드디어 일광면이 일광읍으로 승격하였다.

임랑해수욕장과 더불어 기장을 대표하는 일광해수욕장 풍경

삼성리는 명승지인 삼성대(三聖臺)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차성가(車城歌)」(1860)나 『기장현읍지』(1899)에서도 삼성대의 명칭을 찾을 수 있다. 세 명이 방문했다고 해서 삼성대라고 하는데, 그 세 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다.

학리에서 삼성리 쪽으로 들어가는 일광해수욕장 남쪽의 바닷가에는 고산 윤선도 선생 시비가 세워져 있다. 윤선도는 기장에서 유배 생활 중이던 1621년, 면회 온 배다른 동생 윤선양(尹善養)을 이곳에서 떠나보내면서 「증별소제(贈別少弟, 떠나는 동생에게 바친다)」라는 제목으로 두 수의 시를 지었다. 시의 내용은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 윤선도는 윤선양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말을 타고 일광 바다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잠깐 서서 시를 감상하는데 참 절절하다.

일광해수욕장은 임랑해수욕장과 더불어 기장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 인근에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주변에 유명한 복국집이나 찐빵집, 열무 국숫집 등이 있어 필자도 일광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자주 찾곤 한다.

이천항과 이동항

일광해수욕장에서 이천항으로 발길을 옮긴다. 일광천 하구에 다다르면 별님공원 입구에 난계 오영수 갯마을 문학비라는 비석이 서 있고, 그 앞에 일광천 위로 강송교가 세워져 있다. 여기서 일광천을 건너면 옛 기장 9포의 하나인 이을포가 있었던 이천항으로 갈 수 있다.

이천항은 일광해수욕장에서 산책 삼아 걸어 다닐 만큼 가까운 포구이다. 이천항 역시 건너편으로 학리마을이 바라다 보이는 좋은 경치를 가지고 있고, 어업과 양식업이 성하다.

또 동명의 오영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갯마을」(1965)의 촬영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천항이다. 이 작품은 젊어 남편을 잃고 홀로된 갯마을 여성의 인생역정을 그리고 있다. 일광에서는 매년 여름 갯마을 축제를 개최하는데, 원래 마당극 축제로 출발한 만큼 마당극 공연을 하고 「갯마을」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이동항은 조선시대에 기포(碁浦 혹은 棋浦)라고 불리었으며, 기장 9포 중 하나이다. 기포는 여기서 나는 자갈돌로 만든 검은 바둑알이 특산품이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동국여지승람』에 기포가 현의 남쪽 7리(약 2.75km)에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읍내보다 북동쪽 직선거리로 4km 남짓 위치라니 좀 의아하다. 참고로 실제 읍내 남쪽 2.75km면 대변항 정도의 위치가 된다. 『각사등록』에는 1849년 3월 초에는 기포 앞바다에 이양선이 출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동항은 관광지보다는 수산업 중심지의 성격이 강하다. 항구 남쪽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는 홍보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장은 서해안의 완도와 더불어 미역과 다시마 산지로 전국에 이름이 높은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기장현읍지』 등의 기록을 보면 미역이나 김, 오해조, 우뭇가사리, 참가사리 등 해조류가 기장 지역의 특산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미역 등 해조류는 자연적으로 생식하는 것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기장 지역에 해조류 양식을 처음 도입하여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1960년대에 시작된 것은 확실하다. 다시마 등의 양

이동항 모습. 방파제 근처의 거대한 크레인을 통해 이동항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 정영현

식을 위해서는 종자에 해당하는 모조를 구해야 했는데, 그것을 수송하여 양식에 성공하기까지가 매우 힘든 과정이었다. 1963년 영도에 있던 국립수산과학원(당시 중앙수산시험장)에서 미역 시험 양식에 성공하였다. 이에 기장 지역의 어민들이 양식을 시도하여 성공한 결과 미역 양식 기술이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빈촌이었던 이동마을은 미역과 다시마 양식을 전개하고 넙치 축양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동마을 가운데에는 이동 당산이 있는데, 항구에서도 민가 뒤편으로 거대한 당산나무가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년 음력 정월 14일 자정과 6월 3일 자정에 당제를 올린다고 한다.

방파제 인근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동행한 분의 말에 따르면 물고기에 비해 젖어 있는 해조류는 훨씬 무겁기 때문에 더 큰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같은 기장 바다의 포구마을이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수산업이 행해지는가에 따라 항구 시설이나 배의 모양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동해안 항구 풍경은 다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보아온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6. 문오성(文五成) 다섯 마을을 찾아서

동백항과 신평소공원의 윷판대

일광로를 따라 이동항에서 동백리로 가는 길에는 선바위유원지가 있다. 이곳에는 기암괴석들이 비쭉비쭉 드러나 있고,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일광면 동백리는 두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는데, 남쪽은 온정마을, 북쪽은 동백마을이다. 온정마을 방면의 상당 부분은 부경대학교 수산해양과학연구단지가 들어서 있다. 온정마을은 1970년대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건설

기장 9포의 하나인 동백포가 있었던 동백항 • 정영현

되면서 30여 가구의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동백항은 동백 마을에 있다. 마을 서쪽에는 거물산(巨勿山)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조선용 목재를 조달하기 위한 봉산(封山, 사사로운 벌채를 금하는 산)이었다고 한다.

동백항은 기장 9포의 하나인 동백포(冬柏浦)가 있었던 곳이다. 동백천 하구를 중심으로 어항이 형성되어 있고, 항구를 감싸는 방파제 끝에는 희고 붉은 등대가 세워져 있는 전형적인 항구의 모습이다.

다시 일광로를 따라 북상하니 신평리로 접어들었다. 신평리는 신평소공원으로 유명하다. 이 공원은 2003년 조성된 후 여러 차례 정비를 거쳐 2020년 무렵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지금은 배의 이물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이 있고 주변에 산책로에 데크길이 놓여 잘 정비된 느낌을 준다. 공원이 생기기 전까지 이 해안은 '윷판대[擲柶臺]'로 유명했다. 윷판대 주변에는 악어 등처럼 날카로운 바위 능선이 바다를 향해 평행하게 여러 갈래 비죽비죽 뻗어 있다. 기장 지역에는 이런 형태의 지형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윷판대는 특히 두드러진다.

이 바위를 윷판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설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 장수와 왜장이 며칠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자 바위에 윷판을 새기고 윷놀이로 결판을 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윷놀이로도 하루 종일 승부가 나지 않자

신평리 윷판대 모습 • 정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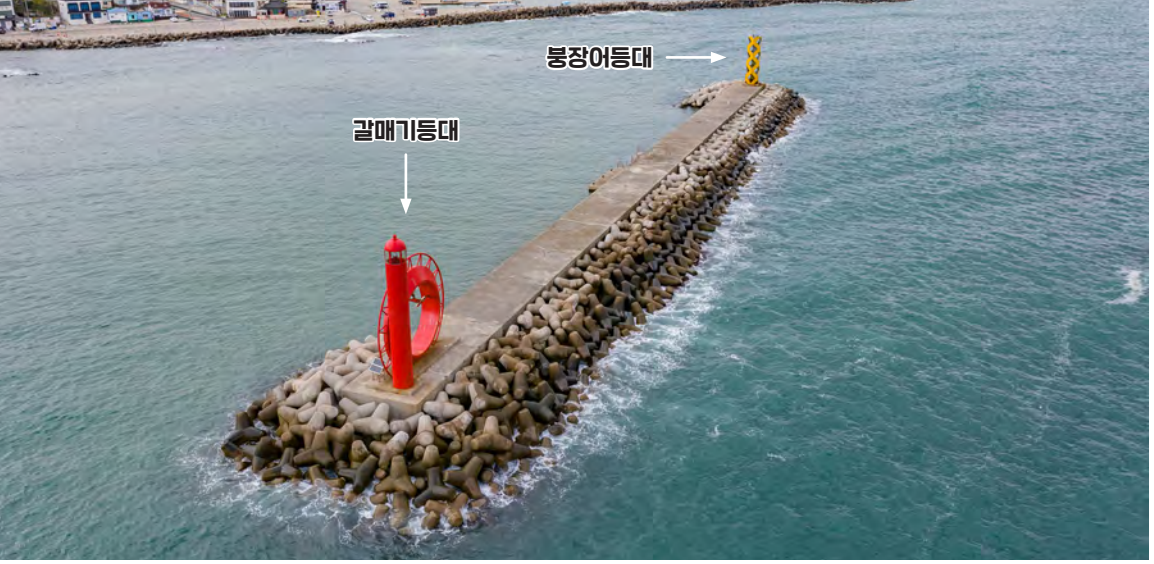
조선 장수가 일본 장수를 발로 차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무얼 보고 윷판을 연상한 것일까. 보통 '윷판바위' 같은 지명이 있는 곳은 바위에 윷판 모양의 성혈(星穴, Cup-Mark)이 새겨진 경우가 많은데 이곳 윷판대에는 얼핏 보면 그런 형상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데 2020년 윷판대 근처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다. 아마 옛날 사람들은 바위에 새겨진 이 움푹한 자국을 보고 윷판이라고 부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칠암의 등대와 횟집 마을

신평소공원에서 문오성로를 따라 북상하다 보니 신평항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칠암항에 도착하였다. 신평항과 칠암항 사이로 칠암항의 남방파제가 있는데, 남방파제 끝에는 칠암의 명물 중 하나인 야구등대가 있다. 항구에서 보면 야구등대가 바로 앞에 있지만, 등대까지 도착하려면 방파제 길을 제법 멀리 걸어야 한다. 이 등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생김새 자체가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형상화하여 멀리서도 눈에 띈다. 등대 내부에는 올림픽 우승에 대한 내용과 이제는 전설로 존재하는 고(故) 최동원 선수에 대한 전시물이 있다. 야구등대 옆 방파제에는 빨간 갈매기등대와 노란 붕장어등대도 서 있다.

칠암항은 기장에서 손꼽히는 횟집 마을이다. 해변을 따라 수십 개의 크고 작은 횟집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칠암에서는 각종 회나 장어구이, 대게찜 등 온갖 종류의 해산물 요리를 취급하지만, 특별히 유명한 명물을 하나 꼽자면 붕장어를 들 수 있다. 붕장어는 앞서 월전에서도 다루었지만, '칠암 아나고'라는 명칭이 부산 지역에서



칠암항에 있는 붕장어등대와 갈매기등대

하나의 브랜드로 통할 정도이다.

붕장어는 부산·기장 지역에서 널리 먹는 횟감 중의 하나이다. 붕장어는 살에 기름이 많아서 자칫 비리거나 입에 기름기가 남기 십상인데, 부산(기장) 지역에서는 붕장어 회에서 기름을 빼서 담백하게 내놓는 방법이 있다. 이른바 부산식 혹은 기장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잘게 썰어낸 붕장어 살을 탈수기에 넣어 기름을 빼는 것이다. 붕장어 전용 탈수기가 개발되어 있고, 부산 지역에서는 대부분 전용 탈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붕장어 회의 식감이 보들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생선회를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인기가 많다.

문오동과 중동항

칠암항에서 문오성길을 따라 북상하면 문중리로 들어선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기장 9포 중 하나인 독이포(禿伊浦)가 있었던 곳이며 그 부근에 해창(海倉)이 있었다. 독이포는 혹은 '독포(禿浦)'라고도 하는데, '대머리'라는 뜻이다. 인근에 민둥산이 있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해창은 하납선창(下納船廠)이라고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일광읍 북쪽의 5개 마을을 합쳐서 '문오동(文五洞)' 혹은 '문오성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에 '문'으로 시작하는 다섯 마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다섯 마을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기장현이 폐현되었을 때 모두 울산군에 속하기도 하였다.

문오동	현재 지명
문동마을	문동리 문동마을
문상마을	문동리 해창마을
문중마을	문중리
문하마을	칠암리
문서마을	동백리

문오동마을의 현재 지명

동백리에서 문동리까지 이르는 해안도로인 '문오성길' 역시 옛 문오성마을의 역사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덧붙이자면 문동마을의 지명유래에 대해서는 문오동 외에 독이포의 유래가 되는 '민둥산'이 '문동'이라는 발음으로 변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원래 문중리에는 문중항, 문동리에는 문동항이라는 소규모 항구가 각각 있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1년 두 항구를 합쳐 하나의 큰 항구로 정비했다. 명칭도 합쳐서 '중동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중동항에서는 미역·다시마·성게 양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항구 일대는 칠암과 연결되어 횟집과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7. 장안읍의 바닷가 마을

효암리 이주민마을과 박태준기념관

과거에는 장고개를 넘고 좌광천을 지나야 장안읍에 다다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좌광천 하구에 임랑교가 놓여서 해안 길을 따라서도 장안읍에 이를 수 있다. 임랑교를 넘어 장안읍 바닷가 최남단에 있는 마을이 임랑리이다.

본격적으로 임랑리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생긴 마을의 사연을 짧게 소개할까 한다. 좌광천 변에 위치한 효암리 이주민마을이다. 효암리는 기장군 해변가에 있는 마을 중 최북단에 있는 마을로, 울주군 서생면과 인접해 있다. 명칭 역시 원래 울산 효열동(孝烈洞)의 일부를 기장의 차암동(車岩洞)을 합치면서 효암리라는 명칭을 쓰게 된 것이다.

효암리 사람들은 왜 임랑으로 이주하게 된 것일까? 그 역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의한 것이다. 처음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었을 때만 해도 효암리마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점차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원전 용량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효암리와 울주군 서생면의 비학마을·골메마을 등이었다. 원전 건설에 앞서 2001년 마을을 비워주는 보상으로 효암리 마을 주민에게 제공된 거주지가 바로 임랑리의 좌광천 주변이었던 것이다. 비록 보상

임랑리에 있는 효암이주민회관 • 정영현

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졸지에 실향민이 된 효암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옮겨와 서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

마을을 찾아보니 마을 한 귀퉁이에는 효암이주민회관이 있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노릇을 하고 있고, 좌광천 근처 놀이터에는 정자가 있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마을 터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과 마을 공동체가 남아 있는 한 마을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효암리 이주민마을에서 임랑으로 가는 길에 임랑교차로가 있는데, 이 근처에 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포항제철(현 포스코)의 창립자로 유명한 고(故) 박태준 회장의 기념관이 있다. 이 기념관은 2021년에 정식으로 개관했다. 임랑 출신의 인물인 박태준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그의 생가터를 포함하고 있다.

임랑포와 임랑해수욕장

임랑포는 기장 9포에는 들지 못하지만, 『경상도지리지』에서 임을랑포 봉화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조선 전기에는 포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을랑포(林乙浪浦)는 임랑포의 다른 표기인데 정확한 뜻은 알기 힘들다. 현재 임랑은 해수욕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해변 북쪽에 임랑항이 있다. 하지만 임랑포 봉수대와 임랑포왜성의 위치로 봤을 때 조선시대의 임랑포구는 좌광천 하구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본다.

임랑해수욕장은 일광해수욕장과 함께 기장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 1.5km에 이르는 긴 모래사장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소나무가 우거져 경치가 아름답다. 이곳의 명물 중 하나는 가수 정훈희·김태화 부부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로, 벌써 나이가 지긋해진 방문객들이 라이브 카페와 임랑 바다에 들러 젊은 시절 낭만을 찾곤 한다.

임랑항 근처에는 기장도예관이 있어 기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예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또 구입할 수 있다. 동해선 철로 건너편에는 묘관음사가 있다. 이 절에는 성철스님이 머물렀던 것으로 유명하며, 성철스님의 딸이 난생처음 아버지를 만나러 이곳에 방문했다가 되돌아갔다는 일화가 전하고 있다. 그 딸은 후에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는데, 성철스님이 이렇게 직접 법명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불필(不必)'.

월내포와 보부상 배상기

월내리는 기장 9포 중 하나인 월내포(月來浦)가 있었던 곳이다. 또 2·7장인 월내장이 번성하였는데, 현재는 월내역 주변에 위치한다.

월내어린이공원 입구에 있는 송덕비 • 정영현

월내 지역을 지금 보기에는 기장 읍내에서 보면 제법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마을 규모도 특별히 크지 않고, 어업이 크게 발달한 곳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법 소도시다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근처에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장안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월내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월내는 옛적 월내포에서 이어지는 어촌의 성격은 점점 약해지고 외부에서 이주해온 직장인들의 주거지라는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공동체를 지키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월내리 당산이다. 당산은 시장에서 동해선 철길 근처로 조금 들어가면 있는데, 산신인 '할배 당산'이라고 한다. 당제는 정월대보름 자정에 지내

는데, 산신제를 마친 후 용왕제를 올린다고 한다.

월내에서 길천으로 넘어가는 월내교 앞에는 월내어린이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입구에 네 기의 비석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석들은 그 내용상 송덕비(공덕비, 선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송덕비는 누군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며, 보통 지방의 수령이나 아전들의 선정을 기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비석은 모두 보부상단과 관련된 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석은 총 네 기이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비석은 뒷면에 음기 대신 다른 비석이 새겨져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다섯 개의 비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세 개가 배상기라는 인물을 기리는 비석인데, 성명 앞에 붙은 호칭은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두 개, 좌우사반수(左右社班首)가 한 개로 나타나고 있다. 통정대부는 고위 관료인 당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인데 조선 후기에는 실제 관직 생활을 하지 않아도 관청에 돈을 내고 통정대부가 되는 일이 많았다. 좌우사반수 중 좌우사는 보부상 조직이 좌사와 우사 두 개로 나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수는 보부상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다. 나머지 두 개의 비석은 친목계장(親睦契長) 이봉관(李奉寬), 전주사(前主事) 접장(接長) 전상명(前相明)이라는 인물의 것인데, 이들도 모두 배상기가 이끄는 보부상단의 인물로 보인다. 이 비석을 통해 월내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보부상단의 활동과 조직, 그리고 그 우두머리였던 배상기라는 인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고리 화사을포와 길천항

기장 9포 중 남은 하나는 화사을포(火士乙浦) 혹은 화포(火浦)이다. '화사을포'는 '불살개'라는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현재 장안읍 고리(古里)에 위치했던 포구였는데, 지금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영역에 포함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직접 방문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지도를 살펴보면 고리 해안에 포구의 방파제 시설 등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화사을포는 없어지고, 고리는 원전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古里'라는 한자를 풀면 '옛 마을'이 되는데, 이름 그대로 옛 마을이 되어버렸으니 더욱 애석하다.

이제 고리원전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월내에 도착했고, 화사을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쯤에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발길을 돌릴까 했는데, 동행하는 분이 아직 항구가 하나 더 남았다고 알려준다. 어리둥절하는 내가 안내를 받은 곳이 바로 길천항이다.

길천리는 월내에서 장안천을 건너면 있는 마을이다. 마을 북쪽의 들을 '질고지'라고 했고, 그 사이로 흐르는 하천을 '질곶이천'이라고 했는데 이 하천에서 '길천'이라는 지명이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길천항은 길천리에 있는 항구로, 말하자면 기장군 최북단의 항구인 동시에 고리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라고 할 수 있다. 고리에 너무 가깝다 보니 월내에서 보이던 원전이 길천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항구는 협소하지만 방파제가 갖추어져 있고, 한쪽에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시설인 건선거(乾船渠, Dry Dock)도 보인다. 길천항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업은 주로 양식업이다.

길천항이 기장 지역의 여타 항구마을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항구 인근에 관광객들을 위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고리원전과 바로 이웃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길천항은 관광지가 된 다른 포구마을과 달리 포구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3
코스

동백섬에서 기원한 해운대,
바닷길 따라 역사와 문화를 찾다

역사 기록을 보면 '해운대'는 하나의 지점에서 출발한다. 동백섬에 최치원이 다녀갔다는 '해운대 각석'과 그 주변의 암석해안이 그것이다. 반면 행정구역 상 해운대는 북동쪽으로 장산, 남쪽으로 남해, 서쪽으로는 수영강이 흐르는, 대체로 삼각형 모양의 땅으로 이뤄진 공간이다.

3 코스

센텀시티 → 간비오산 봉수대 → 동백섬 → 해운대 해수욕장 → 구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사 → 달맞이고개 → 청사포 → 송정해수욕장

동백섬에서 기원한 해운대,
바닷길 따라 역사와 문화를 찾다

과연 '해운대'란 무엇일까. 해운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운대는 '내가 사는 동네'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타지 사람들이 해운대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어디가 볼만한지, 어디가 맛있는지 하는 데 쏠려 있는 듯하다. 필자는 부산에 살면서 지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수시로 해운대를 들락거리고 있다. 하지만 막상 해운대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 별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강렬해서일까.

역사 기록을 보면 '해운대'는 하나의 지점에서 출발한다. 동백섬에 최치원이 다녀갔다는 '해운대 각석'과 그 주변의 암석해안이 그것이다. 조금 더 확장하면 운촌항이 있는 지역까지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또 옛 문헌에는 '해운포'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것은 경상좌수영이 있었던 지명으로 현재 수영구에 있는 경상좌수영 위치로 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수영비행장이나 수영만요트경기장은 현재의 해운대구에 있으니, 수영강을 가운데 두고 '수영'과 '해운대'는 서로 조금씩 뒤섞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

요즈음 사람들은 해운대 하면 우선 바다부터 떠올릴 것이다. 아마 부산 사람이건 타지 사람이건, '부산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지명'을 꼽으라면 해운대가 단연 1위일 것이다. 매년 여름이 되면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부산을 찾지만, 부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관광지를 조사하면 해운대가 1위를 빼앗긴 적이 별로 없다. 해운대의 정체성을 바다에서 찾는다면 해운대해수욕장이 있는 우동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생각할 것이다. 부산 시민이라면 신시가지가 있는 좌동까지 포함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 송정 지역은 바닷가이기는 하지만 해운대와는 구분이 되는 듯하다.

행정구역 상의 해운대구는 어떠한가.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해 보자. 해운대구는 북동쪽으로 장산, 남쪽으로 남해, 서쪽으로는 수영강이 흐르는, 대체로 삼각형 모양의 땅이다. 장산은 북동쪽이라고 하지만 해운대구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형상이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주로 장산 주변으로 띠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경계를 보면 수영강 유역이 남해안만큼이나 길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은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해운대는 인구가 40만이나 되는 부산 최대의 주거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해운대에 사람이 살아온 역사는 구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이 살아온 고장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해운대는 바다와 산과 강이 공존하는 곳이며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오랜 세월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의 해운대를 일구어 가고 있다.

1. 수영강변에 새겨진 역사의 흔적들

삼어마을과 재송포

이번 여행의 시작 지점으로 삼은 곳은 센텀시티이다. 센텀시티라면 일반적으로 해운대라고 인식되는 지역의 한쪽 끝으로 삼아도 큰 이의가 없을 것이고, 송정까지 도보여행을 한다고 해도 한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의 집에서 센텀시티까지 환승 없이 센텀시티로 가려면 155번 버스를 타고 반여동과 재송동 방면으로 둘러 가야 한다. 이번 여행은 강과 바닷길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마침 이 두 마을도 수영강변에 있으니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반여동의 경우 마을 대부분이 장산 자락에 위치하지만 수영강 상류를 끼고 있다. 그 중 반여4동에 해당하는 '삼어(三魚 혹은 三漁)마을'의 명칭은 수영강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삼어'라는 지명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철에 따라 수영강을 거슬러 오는 황어·은어·연어를 이 지역에서 낚았기 때문에 '삼어마을'이라고 불렀다는 설이다.

반여동 바로 하류에는 재송동이 있다. 재송동은 조선시대에 재송포(栽松浦)가 있었던 곳으로, 이름을 풀이하면 '소나무를 기르는 포구'라는 뜻이 된다. 조선 전기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경상도 동래현 산천 조에 "재송포는 현 동쪽 10리(약 3.93km)에 있으며 소나무 수만 그루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재송동의 뒷산에 해당하는 장산 일대는 봉산(封山)으로 지정되었다. 봉산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적인 벌채를 금지하는 산을 뜻한다. 재송동의 송림에서 생산된 목재는 인근 관청 등을 조영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수영강 너머 경상좌수영의 선박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벌채된 목재를 재송포에서 배에 싣거나 뗏목처럼 띄워서 조금 하류에 있는 좌수영 선소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수영비행장에서 센텀시티로

센텀시티는 행정구역 상 재송1동과 우2동의 일부분이며, 수영강변에 만들어진 신도시이다. 센텀시티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옛 수영비행장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센텀시티의 터는 원래 동래군 남면 재송리에 있는 수영강 하류의 120만여㎡ 넓이의 충적평야로, '날벌' 또는 '강나루'라고 불렸다. 또한 인근에 승당이나 설분곡 등의 마을 이름이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과수원을 일구었고 1934년 골프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태평양전쟁기인 1940년 이곳에 병참 수송을 위한 비행장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노역을 징발당했다고 한다. 1944년 비행장이 완공되어 '육군비행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에 의해 '수영비행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국내선 항로가 개통되었으며, 1948년 민간항공 운송이 시작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은 임시수도가 되었고 수영비행장도 임시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다.

1954년까지 유엔공군 비행장으로 활용되었다. 전쟁 후에는 교통부에서 인수하였다. 1958년 '부산비행장(혹은 부산수영비행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63년 부산~후쿠오카 간 국제선 노선이 개통되었다. 1970년대 이후 늘어난 항공수요에 비해 활주로나 계기착륙장치 등 시설이 부족하여 김해에 있는 공군비행장으로 공항을 이전하게 되었다. 1976년 김해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수영비행장은 이후 1996년까지 공군비행장으로 활용되었다.

수영비행장 옆으로는 동래 안락교차로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길이 있었고(충렬대로~해운대로), 수영비행장 앞에서 수영교 방면으로 넘어가는 길이 갈라졌다. 이 교차로를 수영비행장 삼거리, 줄여서 '수비삼거리'라고 불렀다. 현재 이곳은 '올림픽교차로'라는 명칭의 오거리가 되어 있지만, 아직도 연세가 지긋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비삼거리'가 관용적인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6년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되면서 수영비행장 땅은 공군에서 부산광역시로 이관되었다. 그에 앞선 1994년부터 건설교통부 주도로 이곳을 '정보단지'로 개발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1997년 IMF 사태로 개발이 난항을 겪던 중 1998년 부산시로 개발이 이관되었고, 2000년에 사업 명칭도 '센텀시티'로 변경되었다. 이후 산업 단지·혁신 도시 외에도 주거지와 상업지, 공공시설과 공원 등이 포함된 개발이 진행되었고 2013년 준공하였다.

1960년대 옛 수영비행장 모습 • 부산역사문화대전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전경

현재 센텀시티 내에는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을 비롯한 다양한 상업시설을 포함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과 컨퍼런스 공간인 벡스코(BEXCO), 방송국도 들어서 있다. 또한 영화의전당이나 시립미술관 같은 문화시설도 들어서 있다. 이곳저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아파트 주거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과 학교도 들어섰다.

센텀시티 일대의 개발 과정에서 올림픽교차로 인근의 승당마을을 강제 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철거반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승당(僧堂 혹은 勝堂)마을은 현재 센텀시티에서 요트경기장에 이르는 한적한 마을이었는데, 올림픽 사거리 쪽은 내승당, 요트경기장 쪽은 외승당으로 불렸다. 그런데 1993년경부터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택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진행되었고, 보상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생존을 걸고 농성을 벌였던 것이다. 이제는 내승당에도 외승당에도 옛 마을의 흔적은 찾아보기는 힘들다.

수영만요트경기장과 마린시티

센텀시티 남쪽에는 설분곡(雪粉谷)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한자만 봐서는 '눈가루 계곡'이라고 풀이가 되지만, 사실 동래와 해운대의 경계가 되었던 '섧은 고개'라는 지명에서 유래된 곳이며 월대(月臺)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섧은 고개'라니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운대 사람이 딸을 시집보내면서 여기까지 배웅 나와 서럽게 울었던 연유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설분곡에는 과수원만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어 '설분곡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 설분곡에는 옛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해운대공업고등학교와 문화여자고등학교, 센텀여자고등학교(과거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해림초등학교 등 학교들이 들어서 있다.

설분곡에서 해운대로 맞은편 길에는 마린시티가 있다. 마린시티는 수영만 매립 사업의 결과물이다. 수영비행장이 있던 시기의 옛 사진을 보면 수영강 하구에는 토사가 퇴적되어 이루어진 중도(中島)도 있었다. 비행장 바로 남쪽에 해안이 있고, 마린시티와 수영만요트경기장 일대는 바다였다. 이 해변은 경치도 아름다웠고 해변에는 운촌마을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도 많아서 '작은 해운대'라는 뜻으로 '소운대(小雲臺)'라고 불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해변에 돌담을 쌓아 썰물 때 갇힌 물고기를 잡는 '석방렴(石方廉)'이라는 방식으로 어로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소운대 해안은 1983년 수영만 매립으로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이 사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때 사용될 수영만 요트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짓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이때 매립으로 만들어진 땅을 '마린시티'라고 한다. 매립 대상지는 1,024㎡ 남짓의 면적이었고 당시 시공사는 ㈜대우였는데, 대우는 매립지의 일부를 분할 받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당시 마린시티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였던 대우마리나다. 이외에도 수영만요트경기장 주변의 빈 땅에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하나둘씩 형성되었다. 또 요트경기장 근처에는 올림픽 공원과 올림픽 동산이 들어섰다. 올림픽 이후에도 요트경기장은 요트 접안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수십 대의 크고 작은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요트경기장 내에 부산영상위원회나 시네마테크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현재는 '영화의전당'으로 모두 옮겨져 있다.

21세기에도 마린시티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고, 현재는 동백섬 앞까지 바싹 다가가 있다. 2016년부터 마린시티는 우1동에서 분리되어 우3동이 되었다. 처음 마린시티에 들어섰던 오션뷰(Ocean View) 건물들은 그 앞으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바람에 건물뷰가 되고 말았다. 이제 해변 방파제 바로 앞까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과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이 들어서 있다. 이 고층빌딩 군락이 이루는 야경이 이제 대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꼽히고 있으니, 소운대 절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까?

수영만요트경기장과 그 일대

2. 운촌마을 주변의 유적과 동백섬

간비오산 봉수대와 운촌항

요트경기장에서 나온 필자는 간비오산 봉수대를 향해 발을 옮겼다. 운촌 버스역을 통과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피자 가게와 주유소 사이로 등산로가 열려 있다. 조금 올라가면 얼마 전까지 동해남부선 철길이었던 산책로(그린레일웨이)가 나오고, 그 위에 운촌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있다. 경로당 옆으로 계속 올라가면 운촌 당산이 있고 그 옆에 당산나무로 보이는 노송이 있다. 표지판을 보니 운촌 당산은 1700년 무렵 건립되었고 매년 음력 정월 14일 자정과 10월 5일 자정에 당제를 지내는데, 당제는 거릿대장군제, 산신제, 당산제 순으로 진행된다고 적혀 있다. 간비오산 봉수대가 있는 봉대산은 148m 정도의 높이고 등산에 익숙하지 않은 필자의 걸음으로도 정상까지 고작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체육공원까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가팔라서 숨이 찬다.

산 정상에 도착하면 봉수대 화구 위치에 화톳불을 피울 수 있을 만한 작은 화구가 만들어져 있고, 산 정상을 표시하는 표지석이 땅에 박혀 있다. 주변 경관이 잘 보이는 위치이긴 한데 주변에 나무가 자라서 파노라마가 이어지지 않는다.

간비오산 봉수대 화구 • 정영현

간비오산(干飛烏山) 봉수대는 '간비오 봉화'라고도 한다. 『경상도지리지』 동래현 봉화조에서 황령산 봉화는 동쪽으로 간비오 봉화와 바라보는데 거리는 15리이다. 간비오 봉화는 동쪽으로 기장 땅의 남산 봉화와 바라보는데 거리는 23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늦어도 세종 초에는 이미 황령산 봉수대와 남산 봉수대 사이의 간봉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 부산 지역의 봉수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 봉수대를 찾을 수 있다. 봉화는 먼 곳의 소식을 불이나 연기를 통해 중계식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봉수대는 주변 지역의 이상을 살피는 망루 노릇도 하였다.

봉대산 명칭에 대해서는 봉수대가 있어서 봉대산이라고 불린다는 설명을 찾을 수 있는데, '간비오산'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신라 왕호(王號) 중 하나인 '마립간(麻立干)'이나 재상을 뜻하는 '각간(角干)' 등에 붙는 '간(干)'은 '우두머리' 혹은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오(飛烏)'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어 우리말을 표현하는 이두식 표기인데, '날오'라고 읽으며 '나루'를 뜻한다. 그러므로 '간비오'는 '큰 나루터'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운촌(雲村)은 춘천이 바다에 접하는 어귀에 형성된 어촌마을이다. '춘천(春川)'은 간혹 '춘천천'이라고도 하는데, 해운대 일대를 관통하는 하천이다. 그 유역을 보면 장산에서 발원하여 폭포사(瀑布寺)로 유명한 장산폭포(양운폭포)

와 대천호를 지나 좌동 방면으로 흘러간다. 잘 보이지 않지만 부흥봉에서 발원한 하천도 좌동에서 합류한다. 도시철도 장산역 근처에서부터 복개 구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춘천은 해운대해변로를 따라 먼 길을 땅속을 달려온 후 운촌항 앞 송림공원에 이르러서야 다시 햇볕을 보는 것이다.

운촌항은 동백섬이 파도를 막아주고 춘천의 담수와 염수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천혜의 어장이었다. 1911년 편찬된 『한국수산지』에는 운촌에 대해 "수영만의 북동안에 위치한 (동래군) 동하면 내의 주요한 어촌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운촌 포구에는 특히 멸치 어업이 성행하였는데, 멸치 어선 20척과 어막이 있었다고 한다. 또 운촌 멸치는 당시 부산에서 생산되는 멸치의 70%를 차지하였고 동래장에서도 이름난 특산물이었다고 한다.

현재 운촌항은 사실상 어항보다는 유람선이나 크루즈 등 관광용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 되었다. 거기에 2010년대 후반부터 부산 지역에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 지역으로 운촌항이 선정되고, 그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축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환경문제와 특혜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동백섬과 최치원

동백섬은 예전에는 춘천 하구에 있는 섬이었을 텐데 지금은 입구가 매축되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개장한 이듬해인 1966년 동백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제정되어 있다.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명물, 잘 정비된 산책로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봄이면 벚꽃 명소로도 유명하다. 섬의 이름대로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보다는 섬 전체에 곰솔(해송)이 우거져 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해운대(海雲臺)' 명칭은 신라 하대의 유학자 최치원(崔致遠, 856~?)의 자를 따서 붙인 곳이다. 최치원은 신라에서 6두품(頭品)이었던 경주 최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당시 신라는 골품(骨品)이라는 제도로 왕족인 진골과 6~1두품으로 엄격한 신분이 있던 사회였다. 신라 하대가 되면 이에 염증을 느낀 신라인, 특히 6두품들이 대거 당나라로 건너갔다. 왜냐하면 당나라에는 외국인들도 빈공과(賓貢科)라는 과거 시험을 봐서 진사로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치원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에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하지만 지방의 하급관료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황소(黃巢)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한 절도사 고병(高駢)의 종사관으로 합류하였다. 이때 쓴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이 유명하다. 29세 때인 885년(헌강왕 11) 귀국하여 고국에서 뜻을 펼쳐보려 했으나 요직에 오르지 못하고 지방관을 전전하게 된다. 진성여왕 때 개혁책인 「시무 10조(時務十條)」를 올려 아찬 벼슬을 받았으나 개혁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좌절한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전국을 방랑하며 책 읽고 글을 짓는 일로 여생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전국에 최치원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 해운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치원은 보통 고운(孤雲)이라는 자(字)로 알려져 있으나, '해운(海雲)'이라는 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동백섬 남쪽 바위에는 '해운대(海雲臺)'라고 새겨진 각석이 유명한데, 최치원 본인이 쓴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하며, 여기서 '해운대'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웃한 창원시 마산에도 월영대(月影臺)라는 곳에 최치원과 관련된 일화가 전하고 있다.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니 동상이 보인다. 동상은 높은 단 위에 있는데 관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문창후로 손색이 없는 모습이다.

동백섬에 있는 최치원 동상

최치원 동상 앞으로 난 길을 따라 내려가니 왼쪽으로 작은 정자가 나오고, 앞으로 누리마루전망대 풍경이 펼쳐진다. 예전에는 등대전망대로 불렸던 곳이다. 전망대 옆에는 해운대등대가 서 있고, 주변에 원형으로 널찍한 공간이 있다. 전망대 바로 아래에는 예의 해운대 석각이 있다. 조선 후기의 관료 조엄(趙曮)의 『해사일기』 9월 3일자에는 해운대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해운대 석각이 있는 암벽에서 쓴 것이다. "해운대 앞에 바위가 3면을 둘러싸서 층층을 이루고 넓적하여 1,000명도 앉을 만하며, 앞이 트여 대마도와 마주하니 중간에 가리는 것이 하나 없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문인들이 해운대를 방문하여 최치원을 기리곤 하였다. 그 가운데 필자의 기억에 가장 강하게 남는 것은 고려 후기 문인 최해(崔瀣)이다. 최해는 최치원의 후손이었고, 선조의 행적을 따라 원나라의 빈공과에 합격하기도 하였던 인물이다. 젊은 시절 최해는 선조의 유적인 해운대를 방문하였다. 요즈음 말로 성지순례를 한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 합포만호 장선(張瑄)이 소나무를 깎아 자기 감상을 시로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시가 너무 졸렬했다. 최치원에 대한 존경심에 최해는 그 시를 파내고 흙을 발라 버렸다. 나중에 장선은 그 사실을 알고 수하 맹장에게 최해를 추격하도록 했는데 하인 한 명은 안동에서 잡히고 최해는 몰래 죽령을 넘어 개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해의 선조에 대한 존경심과 외골수적인 성격이 동시에 드러나는 에피소드이다.

가던 길을 조금 뒤로 돌려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 방문하였다. 등대에서 그리 머지않은 위치이다. 누리마루는 2005년 11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 지도자 회의 장소로 지어진 곳이다. 건물 명칭 자체가 '세계 정상'이라는 뜻인 만큼 당시 21개국 정상이 이곳에 모여 회의를 열었고, 회의 이후에는 이 행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정비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또 지금도 국제 행사 개최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누리마루 건물이 들어설 당시에 동백섬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은 동백섬의 명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누리마루에서 보는 주변 풍경도 전망대에 못지않게 아름답다.

다시 등대를 지나 동백섬 산책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다음 목적지는 인어상이다. 이 인어상은 안데르센의 이야기 속 인어가 아니라 전설 속의 황옥공주라는 인어라고 한다. 원래 1974년 홍익대 김정숙 교수가 만든 인어상이 서 있었다가 1987년 셀마 태풍으로 유실되고 1989년 다시 동아대학교 임동락 교수의 인어상이 세워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누리마루 APEC하우스. 그 너머로 광안대교가 보인다.

3.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의 풍경이 바뀌다

해운대해수욕장과 옛 해운대역사

데크길을 따라 인어상을 지나면 예의 호텔 앞으로 나오고, 눈앞으로 끝없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해운대해수욕장은 1965년 개장했지만, 일제강점기에 백사장에서 학생들이 하계 단련을 하곤 하였다고 한다. 기왕 해운대에 온 김에 백사장을 밟고 싶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멀어서 그냥 길을 따라 해변을 걸었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이 맑은 날씨를 즐기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 직전인 5월 말에는 이곳 모래사장에서 모래축제를 개최하며, 필자도 몇 차례 구경하러 온 적이 있다. 해운대의 모래사장은 예전에는 매우 폭이 넓었으나 수영만 매립을 전후하여 하천과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현재는 수시로 다른 지역의 모래를 부어서 모래사장의 폭을 유지하는 형편이고, 이 때문에 모래의 질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말았다.

구남로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옛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사가 보인다. 이 건물은 중앙의 팔각정을 중심으로 좌우로 승강장 공간이 펼쳐져 있다. 2016년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이 개통되면서 옛 동해남부선 역들은 폐역이 되고 선로 역시 그 쓸모를 잃게 되었다.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옛적 동해남부선은 부산진에서 포항에 이르는 철도로 해안 가까이 철로가 놓여서 차창 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또 부산 사람들이 해운대나 경주 등 유명 관광지로 갈 때 타는 피서 열차, 수학여행 열차로 각광을 받았다. 김복만 사진작가의 피서 열차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승객들이 객차 지붕이나 증기기관차 앞에 타고 위험천만한 여행을 즐기기도 하였다. 현재 개통된 동해선은 옛 동해남부선에 비해 훨씬 내륙으로 다녀서 부전역에서 경주까지 가는 길에 월내역 근처가 아니면 차창 밖으로 바다를 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터널이 많아 깜깜한 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가는 길을 빨라졌는지 몰라도 낭만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동해남부선이 폐지되면서 역사는 문화공간으로 정비되었다. 역사 앞에는 '아틀리에 칙칙폭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필자도 전시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간 노고를 다하고 은퇴한 해운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역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

1. 김복만 작가의 「송정 기차역」(1960년대) • 부산시립미술관
2. 옛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사.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었으면 하는 것이다.

옛 해운대역사 옆으로는 해리단길 방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해리단길 입구. 옛 해운대역사 뒤편에 있다.

해리단길은 철로 뒤편의 우1동마을에 있는 거리이다. 동해남부선이 폐지되면서 해운대 방문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해리단길'이라는 명칭은 서울 용산 '경리단길'에서 '~단길'을 따오는 게 유행이던 시절에 붙은 것이다. 그 입구에 구청에서 '함께 해리단길'이라는 글자 조형물을 세운 것을 보면 이 명칭이 거의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조인 경리단길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상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역 특성을 무시한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보다 좋은 이름을 새로 공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우1동의 전통 마을인 못안마을과 장지마을이 있었던 공간이니 거기서 이름을 따는 것도 좋고, 우동의 옛 지명이 '우리(右里)'이니 편하게 '우리길' 같은 이름도 어떨까 싶다.

해운대역사 뒤편으로는 철길을 걷어내고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린레일웨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이 길은 동해남부선 옛 철길을 정비하여 만든 것으로, 올림픽교차로에서 시작하여 동부산관광단지(오시리아역)까지 연결되어 있다. 운촌마을회관 앞으로 지나가던 산책로도 그린레일웨이의 한 구간이다. 필자도 이 길을 따라 중동역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해운대 신도시와 구석기 유적

중동은 바닷가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절반 부분에서 시작하여 달맞이고개를 지나 청사포에 이르는 구간, 내륙 쪽으로는 해운대 신도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중1동은 해운대구청·해운대 온천·해운대시장·미포·신도시가 있는 곳으로 해운대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달맞이언덕과 청사포는 중2동으로 나뉘어 있다.

해운대 신도시(신시가지)는 중동의 북동부와 장산 자락에 위치한 좌동 지역에 형성된 신도시이다. 1980년대 도시지역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부산 지역의 경우 4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해운대 좌동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1991~1997년에 걸쳐 아파트 단지와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건설되었다. 좌동은 원래 새실마을, 장산마을, 좌동마을이 있는 외곽지역이었으나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폭증하여 현재 좌1동부터 좌4동까지 네 개 동으로 분동되어 있다.

신시가지 개발은 좌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오산마을(중동역 주변)까지 확장되었고, 달맞이언덕 안쪽 부분까지 대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해운대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구석기 유적인 해운대 좌동·중동 유적이 발견되었다. 원래 이 지역에는 묘지나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해운대 신시가지를 조성하기에 앞서 1992년 좌동·중동 지역에서 진행된 지표조사·시굴조사에서 구석기와 삼국시대 유물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었다. 1992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산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두 유적은 모두 후기 구석기의 유적으로, 석기를 제작한 흔적이 주로 발견될 뿐 주거·생활·장례 등에 관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좌동 유적에서는 모루돌·망치돌·몸돌·격지 등 석기를 만드는 도구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석영으로 만든 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본 규슈[九州] 지역과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 중동 유적은 좌동에서 발견되지 않는 좀돌날 도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동 유적이 좌동 유적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이 좀돌날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베츠[湧別] 지역의 제작 기법과 비슷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좌동·중동 유적은 구석기시대부터 부산 지역에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한반도의 다른 지역 및 일본의 구석기 유물과의 비교를 통해 한반도의 구석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 유적 발견은 영도 동삼동패총과 함께 부산 지역 선사고고학 발굴의 큰 이정표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발굴조사가 끝난 유적지에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다. 지금은 어느 곳에 구석기 유적이 있었는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발굴된 유물은 모두 부산박물관 등으로 모두 옮겨져 있다. 그나마 2021년 좌동초등학교 옆 햇살공원(좌동 1293번지)에 좌동 구석기 유적이 있었다고 하는 안내판과 비석이 세워졌는데, 건립 당시 구청 보도 자료에 번지수가 잘못 나가는 등 아직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운대 구석기 유적지 비석

해운대구청, 온천, 시장

중동역 근처 식당에서 요기를 하고 해운대 구청 앞으로 돌아왔다. 해운대구는 일제강점기 부산부 수영출장소 관할이었다가 1953년 해운대출장소가 독립하였다. 1957년 구제 시행에 따라 부산직할시 동래구 해운대출장소 관할이 되었다. 1976년 동래구를 거치지 않는 직할출장소가 되었고 1980년 드디어 해운대구로 독립하였다.

해운대구청 건물에는 구청 외에도 구의회가 입주해 있다. 해운대구는 2022년 현재 인구 40만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구이며 해운대구청은 거대도시 해운대구 행정의 요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구청의 입지 조건은 해운대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만한데, 이 일대를 '구남(龜南)벌' 혹은 '구남들'이라고 했다. 구남로 역시 이 '구남벌'에서 명칭을 딴 것이다.

구청 앞에는 해운대 온천이 있다. 이 온천 역시 원래 이름은 '구남 온천'이라고 했는데, 신라 하대의 진성여왕이 천연두를 앓았다가 여기서 온천을 하고 쾌차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온천의 존재가 거의 잊힌 상태였다가 개항기가 되면서 일본인들에 의해 다시 온천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1887년 의사 와다노 시게미즈[和田野茂光]가 온천 개발을 시작했으며, 1917년 일본식 온천여관인 해운루(海雲樓)가 건립되었으나 접근성이 낮아 동래 온천에 비해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1934년 동해남부선이 해운대를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온천마을이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1935년에 건립된 온천여관에는 온천풀장이 있어 유명했다. 해방 이후에도 해수욕장과 온천휴양지가 가까이 있다는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1984년 새로운 탕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운대 온천은 식염천으로 약간의 소금기를 머금고 있으며 수온은 45~63℃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부산 주변 지역에 많은 온천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수질과 수온 면에서 동래와 해운대의 온천을 이기는 곳은 없다. 부산 사람이라면 온천욕을 하기 위해 굳이 먼 곳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해운대 온천 모습 • 국립해양박물관

구청 근처에는 해운대시장(혹은 해운대 전통시장)이 있다. 원래 이 일대 전체가 시장이었는데 현대식 상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구청 앞에서 구남로까지 200m 남짓한 외길만이 시장 풍경을 유지하고 있다. 구청 쪽과 구남로 쪽 입구에는 '해운대 전통시장'이라고 적인 기둥이 세워져 있다. 해가 갈수록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과 기념품 가게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조금이나마 지역 기반의 전통시장다운 풍경이 남아 있다.

4. 달맞이고개 넘어 송정 가는 길

달맞이고개와 해월정

구청 쪽 해운대시장 앞에서 해운대구 마을버스 2번을 타고 달맞이언덕을 올랐다. 우성빌라트 정류장에서 내리면 해운대 풍경을 마주 보면서 달맞이길을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 있고, 혹은 반대로 청사포와 송정 방면으로도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달맞이언덕' 혹은 '달맞이고개'라는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필자는 산자락은 '달맞이언덕'으로, 고갯길은 '달맞이고개'로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달맞이언덕은 '와우산(臥牛山)'이라는 이름의 산자락에 해당하는 언덕이다. 와우산은 이름 그대로 산 모양이 소가 누운 것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인데, 청사포 뒷산에 해당한다. 달맞이고개는 달맞이언덕의 중턱 바닷가를 따라 이어지는 고갯길로, 해운대에서 달맞이고개로 넘어가면 청사포 입구를 지나 송정 방면으로 연결된다. 이 길은 굽이굽이 열다섯 번 꺾인다고 하여 '15곡도(曲道)'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길이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 '달맞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해운대구지』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한다. 어느 양반집 도령이 와우산에서 나물을 캐는 처녀에게 반하여, 송아지로 변신하여 처녀 집에서 하루를 묵었다. 다시 사람

달맞이고개의 해월정

으로 변한 도령은 다음 정월 대보름에 만나자고 처녀와 약속 하였다. 대보름날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달맞이고개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 '달맞이동산'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1983년 조성된 곳이다. 거기서 바닷가 방면으로 높이 솟은 곳에 해월정(海月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안내판을 보니 1997년 조성되었다고 한다. 해월정은 달맞이고개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아침에는 일출, 낮에는 바다, 밤에는 달구경을 할 수 있다.

달맞이언덕에는 달맞이고개 산책로도 좋지만 크고 작은 화랑이나 미술관이 있고, 『여명의 눈동자』로 유명한 김성종 작가의 추리문학관이 있으며, 분위기 좋은 식당과 전망 좋은 커피집 등 조금 여유를 가지고 즐길 만한 곳들이 많은 장소이다.

해월정에서 달맞이길을 따라 계속 해운대 방면으로 내려오다 보면 수영만과 해운대 전경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몇 번이나 나온다. 그리고 다소미 공

원 맞은편에 산책용 숲길인 문탠로드(Moontan Road)가 있다. '달빛을 쬐는 길'이라는 뜻인데, 주변에 곰솔 군락지가 있어 바닷바람을 맞는 동시에 산림욕을 할 수 있다.

필자는 달맞이길을 따라 끝까지 가지 않고 미포로 향하는 지름길인 달맞이길104번길로 내려왔다.

'미포(尾浦)'는 와우산에서 소꼬리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포구마을이라 붙은 이름이다. 후술할 청사포나 송정 방면의 구덕포와 함께 '해운대 3포'로 꼽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횟집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미포에는 생선회 외에도 조개구이나 대구탕 등으로 유명한 집이 많다. 마을에는 미포 당산이 있어 3년마다 한 번 음력 10월 15일에 풍어제를 지낸다. 한편 미포항은 어항일 뿐 아니라 이기대와 오륙도, 신선대까지 운항하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미포가 유명해진 또 하나의 계기는 영화 「해운대」(2009)이다. 여기서 주인공 만식(설경구)이 일하는 곳이 바로 미포항에 있는 횟집이다. 영화가 대흥행한 이후 수소문하여 미포 만식이 집을 찾는 사람이 생겼을 정도였다.

청사포와 구덕포

청사포(靑沙浦)는 말 그대로 '푸른 모래가 있는 포구'라는 뜻이다. 마을 이곳저곳을 보니 '푸른 모래의 마을'로 마을을 이미지화하고 있었다. 지금은 청사포 해안은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데, 옛적에는 푸른 모래가 빛나는 모랫벌이 있었나 보다.

또 다른 유래로 원래는 '청사포(靑蛇浦)', 즉 '푸른 구렁이의 포구'라는 뜻의 마을 이름이었다는 설도 전하고 있었다. 지명에 푸른 구렁이가 들어간 까닭은 마을 수호신인 골매기할매에 얽힌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청사포 망부송과 당집. 망부송은 청사포마을 수호신인 골매기할매의 슬픈 이야기와 관련 있다.

어부의 아내였던 김 씨는 바다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바다가 보이는 바위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고 정성을 들였다. 그러기를 수십 년, 이를 애처롭게 여긴 용왕이 푸른 구렁이를 보내 김 씨를 용궁에 데려와 남편과 상봉시켰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마을에서 골매기할매로 추앙을 받게 되었고 김 씨가 심은 나무는 '망부송(望夫松)' 나무가 자라는 바위는 '망부암(望夫岩)'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망부송의 수령은 35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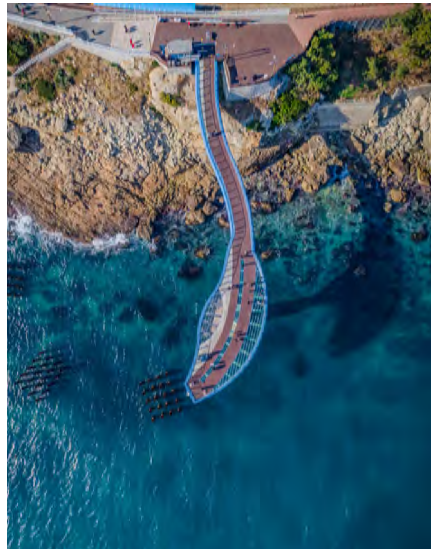
용왕이 보냈다는 푸른 구렁이의 정체나 용궁에서 부부가 상봉했다는 것이 무엇을 은유하는지는 따로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다. 푸른 모래의 포구도 운치가 있지만 골매기할매 전설도 좋은 스토리텔링 소재인 만큼 잘 살렸으면 좋겠다. 푸른 모래는 사라졌지만 망부송과 망부암은 지금도 남아 있지 않은가.

청사포는 행정구역 상 중2동에 해당하며 마을 앞으로 펼쳐진 바다에는

청사포항이 있고 뒤로는 와우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해운대에서 차량으로 청사포에 드나드는 길은 청사포 입구 교차로에서 해월정사 방향으로 난 고갯길 하나뿐이다. 교통 면에서 고립되어 있다 보니 예전에 청사포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의 모습이었고, 한적한 해변에서 회를 먹으러 오는 방문객이 찾는 곳이었다.

관광객들이 늘면서 마을의 경관도 점차 바뀌게 되었다. 필자는 청사포에 10년 만에 방문한 셈인데, 그새 청사포는 횟집촌이 있는 항구마을에서 SNS 시대에 걸맞은 포토제닉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방문객의 연령대도 한층 어려진 느낌이었다. 이렇게 마을이 번영하면 좋긴 하겠지만 혹시나 외지 사람이 차린 가게에 외지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가는 건 아닌지, 마을 토박이는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걱정이 살짝 들었다.

청사포에서 그린레일웨이 해안 길을 따라 북쪽으로 계속 가면 구덕포가 나온다. 그런데 청사포에서 구덕포 방면으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 바다를 향해 다리 같은 것이 불쑥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사포와 구덕포 사이에 있는 다릿돌전망대

청사포와 구덕포와 경계 지점은 '고두말' 혹은 '고두백'이라고 하는데, 이 근처는 기암괴석이 해안을 형성하고 있어 그 풍경이 장관이다. 고두말 근처에는 다섯 개의 암초가 나란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징검다리'라는 뜻으로 '다릿돌'이라고 불렀다. 2017년 다릿돌 부근 해안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 이름을 '다릿돌전망대'라고 했다. 이 전망대는 해안 길에서 72.5m나 뻗어 나와 있으며 해수면에서 약 20m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이다. 전망대를 지나 계속 북상하면 구덕포가 나온다. 구덕포는 미역 양식과 멸치 어업이 성한 어항이었는데, 현재는 점차 송정해수욕장의 외곽 지역이라는 느낌으로 변해가고 있다.

송정해수욕장과 죽도공원

송정해수욕장은 구덕포와 죽도 사이에 형성된 모래사장에 만들어진 해수욕장이다. 필자가 대학에 들어가던 무렵 송정은 해수욕장을 끼고 만들어진 교외의 관광지 마을이었다. 모래사장을 따라 민박집이 줄을 지어 있었고, 잡다한 기념품 가게나 조촐한 식당도 있었다. 펜션이라는 말이 일반화되기 전의 일이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이곳에 MT를 많이 온 것은 송정해수욕장이 상대적으로 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해운대나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부산 지역의 여타 해수욕장에 비해 지명도가 낮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사람이 덜 붐비고, 숙박비 등도 비교적 저렴했던 것이다. 그래서 타지 사람들은 해운대·광안리 갈 때, 부산 사람은 송정 간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 민박집이 즐비하던 곳에는 호텔과 펜션, 거창한 음식점과 최신 유행의 디저트 가게들이 들어서 있다.

필자도 대학을 다니던 시절 MT 명목으로 세 차례 정도 송정해수욕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엔 달리 즐길 거리가 없어서 민박집 방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백사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어슬렁거리며 걸어 다니는 게 다였다. 그러다 민박집에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친구를 한 명씩 팔다

송정해수욕장 전경. 1935년 7월에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송정 죽도 앞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1975) • 해운대구

리를 들고 나와 술 깨운다는 핑계로 바다에 집어 던지곤 했다.

죽도공원은 송정해수욕장 북동쪽 끝에 위치한 섬인데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섬 중턱에 난 산책로를 한 바퀴 돌 수 있고, 산책로 한쪽 끝에는 송일정(松日亭)이라는 정자가 서 있다. 송정, 특히 죽도공원 일대는 풍경이 좋아 데이트 코스로 유명했고, 멀리 신혼여행을 가지 않던 시절에는 여기서 신혼여행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금도 부산 인근에서 웨딩사진 출사를 많이 오는 곳 중 하나이다.

송정해수욕장은 1965년에 개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이미 해수욕장이 개장한 바 있다. 1935년 6월 21일 『부산일보』(현재의 부산일보와는 다른 일본인 신문) 3면에는 「새롭게 생긴 바다의 환락장, 절호의 송정해수욕장, 다음달 10일경부터 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를 통해 1935년 7월에 송정에 해수욕장이 개장한 것을 알 수 있다. 1935년 동해남부선이 포항에서 부산진까지 연결되었고, 이 열차 노선이 해운대-송정-일광(삼성역)-불국사-경주 등 명승지를 지나게 되면서 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여름철 피서 열차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이 해에 송정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장한 것은 아마 동해남부선 개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해수욕장으로 활용되다가 이후 전쟁 등을 겪으며 해수욕장 개장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 1954년 8월 10일자 2면에는 「바다로, 바다로, 13만 명 사람의 파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부산 지역의 주요 피서지가 송도-광안리-송정-신선대-감천 순으로 나오고 있다. 휴전으로부터 고작 1년이 지난 시기에 13만 명이 부산 지역의 피서지를 방문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당시 송도의 경우 한반도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이고 전국적인 유명세가 있었고, 광안리도 그에 이어 1950년대에 해수욕장이 개장한 터였다. 송정은 이 시기에는 해수욕장이 정식으로 개장하지 않았던 시기이고, 심지어 1954년 당시에는 부산시에 속한 곳조차 아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유명한 피서지였으므로 특히 부산 인근 지역의 피서객들이 몰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코스

남쪽 바다와 맞닿은 곳,

자연과 역사를 품은 공간을 걷다

부산시 남구 여행은 여러가지 매력이 있다. 직접 가볼 수 있는 대형부두와 아름다운 등대,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세계유일의 UN기념공원, 그리고 도시 어부와 해녀들이 살아가는 도시어촌이 어우러져 있다.

4 코스

제뢰등대 → 무민사 → UN기념공원 → 신선대 → 오륙도 → 이기대 → 부경대학교 박물관·백경탑 → 황령산 봉수대

남쪽 바다와 맞닿은 곳,
자연과 역사를 품은 공간을 걷다

부산은 동서로 긴 도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쯤 되는 곳에 남구가 돌출된 지형으로 삼면이 바다를 접한다. 해안을 따라 한 바퀴 돌면 남구의 답사가 완성될 수 있다. 동쪽으로는 광안리해수욕장으로 해안 길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부산역과 국제터미널이 있는 북항과 이어진다. 남쪽은 노래도 있지 않은가.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바로 오륙도가 있다. 남구를 한 바퀴 돌아봤다면 마지막에 황령산 봉수대에 올라 부산 앞 바다와 시내를 관망해보자. 가능하다면 낮과 밤을 모두 즐겨주시면 좋겠다.

부산시 남구 여행은 몇 가지 매력이 있다. 먼저 대형 부두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가 이웃하고 있고 바로 옆에 신감만부두와 감만시민부두가 불야성이다. 용호만매립부두에도 부경대 실습선과 탐사선이 정박하고,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여객선이 운영 중이다. 부두에는 등대가 있기 마련인지라 보기에도 아름다운 등대가 곳곳에 있다. 다음으로 전쟁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UN기념공원에는 한국뿐 아니라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과 가족들이 찾고 있고,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속의 어촌마을, 즉 도시어촌이 있다. 섶자리 그리고 오륙도 앞 바다 어장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와 해녀들이 횟집과 해녀촌을 운영하며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황령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남구 전경(2015) • 남구

1. 제뢰등대

100년간 부산항을 밝혀준 불빛

부산항에서 유일하게 일반에 개방된 감만시민부두

제뢰등대는 감만시민부두 내에 있다. 부산 어디에서 버스를 타던 제뢰등대 앞까지 가지는 못한다. 감만동 또는 감만현대아파트 정류장에 내려서 30여 분을 걸어야 한다. 걷는 동안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수없이 지난다. 순간 움질움질하며 긴장되기도 하지만 묵묵히 걸어가 본다. 버스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돌아 대로를 따라 5분가량 가면 삼거리가 나온다. 길을 건너 감만부두로 향해 가다 보면 머리 위로 부산대교의 육중한 콘크리트가 계속 이어진다. 화물차들이 들고나는 감만부두 게이트가 보이면 제뢰등대가 제법 가까이 있다는 말이다.

제뢰등대가 있는 감만시민부두 전경 • 김윤미

제뢰등대가 있는 감만시민부두는 동국제강의 대형 공장 건물이 보이면 입구에 들어선 것이다. 입구에서 5분을 더 걸어서 부두 끝까지 가야 한다. 만약 차를 가지고 간다면 주차장이 있다. 2022년부터 유로로 전환한 모양이다. 이것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다. 주차비는 유료이지만 다른 곳보다는 저렴하다. 30분은 무료이고 1일 주차는 1만 원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는 방송이 나온다.

감만시민부두는 부산항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에게 개방된 부두다. 부산항으로 오가는 대형선박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부산항의 야경을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낚시인들과 캠핑하는 사람들로 늘 붐볐다고 하는 곳은 철조망 문으로 잠겨있다. 주차장 오른쪽으로 보이는 넓은 부두 공간은 얼마 전부터 공식적으로 낚시와 캠핑을 금지했다. 주차장 주변과 제뢰등대가 있는 일부 공간에서 몇 사람들이 낚시하는 걸 볼 수 있다. 바다를 내려다보니 작은 물고기 떼가 움직인다. 철조망 문을 지나야 들어가는 부두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잠시 있는 동안 접안하고 출항하는 배는 없었다.

감만시민부두에서 부산항을 감상하기 좋은 곳이 있다. 주차장 한편에 바다를 보고 있는 정자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서 정자에 앉아 부산항을 잠시 감상해도 좋다. 뱃고동 소리도 들리고, 쌓여있는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도 이색적이다. 대형 화물선들이 부산항을 오고 가고, 도선사들이 부산항 물길을 안내하느라 분주하다. 부산역과 북항이 한눈에 보인다. 다시 부두 끝까지 이동한다. 붉은색과 검은색이 번갈아 칠해진 등대가 보인다. 등대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빛으로 길을 안내한다.

"어두운 밤이니 부디 밝게 밝혀주시기를"

1905년 6월 처음 불을 밝힌 제뢰등대는 부산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대다. 제뢰는 두견새 제(鵜)와 여울 뢰(瀨)자가 합쳐진 이름이다. 여울은 강이나 바다에서 깊이가 얕아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을 말한다. 여울은 안전한 뱃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산항을 들어서면 이 여울과 암초는 피해야 하는 법. 지금은 도선사들이 뱃길을 안내하고, 전자장치로 운항하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았다.

100년 가까이 부산항을 밝혀왔던 제뢰등대는 2001년 부산항 북방파제와 신감만부두 건설로 등대 주변이 매립되면서 기능을 멈추었다. 제뢰등대가 있는 곳 방파제 앞에는 바다 위로 솟은 바위들이 여러 개 있다. 매립 전 제뢰등대가 있었던 지형을 가늠해볼 수 있다. 매립 이후 해양수산부는 제뢰등대를 제거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두었다가 2006년 등대문화유산 제23호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

감만시민부두 끝에 서 있는 제뢰등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다. • 김윤미

제뢰등대 말고도 한국에는 100년이 넘는 등대가 전국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건립한 지 100년이 넘는 등대 열다섯 곳을 선정하여 '등대 스탬프 투어'를 시작했다. 동해의 독도등대, 부산의 영도등대, 서해안의 팔미도등대까지 완주하여 등대 여권에 15개의 스탬프를 찍는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등대 모형을 선착순으로 증정했다.

솔개해수욕장과 모래구찌 해안은 옛이야기

제뢰등대 주변 일대를 보고 있으니 100년 전 이곳은 어땠을까 상상해보게 된다. 지금은 대형 부두가 들어섰지만, 예전 이곳도 해안이 있는 바다였을 것이다. 부산시 남구청에서 발간한 『남구의 민속과 문화』에 보면 감만동에도 솔개해수욕장이 있었고, 모래구찌라 불리던 긴 해안이 있었다. 용당동과 감만동의 경계를 이루는 큰 골까지 소나무가 많아서 솔포 또는 솔개해수욕장이라 했는데, 현재는 호남정유가 들어서 있다. 옛날의 바닷가와 소나무들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지만, 솔개다리라 이름 붙인 육교 역할을 하는 다리만 남아있다.

감만동의 또 다른 해안은 일본인들이 모래구찌로 불렀던 곳이다. 하얀 모래가 많았던 이곳은 길이가 400m, 폭이 20m나 되는 모래사장이었다. 선착장으로 고기가 많이 들어와 횟집이 많기로 유명하여 모래구찌라 하면 횟집 마을로 통할 정도였다고 한다. 모래구찌를 중심으로 한 감만동 일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부산항 확장사업으로 매립이 추진되고, 새로운 부두가 축조되면서 옛이야기로만 남았다.

2. 무민사
왜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무민사를 찾아 골목 골목으로

제뢰등대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 제뢰등대에서 무민사까지 도보로 30분이 걸린다. 다리가 좀 아플 수 있지만, 버스가 없으니 걸어야 한다. 무민사는 최영 장군의 사당이다. 웹 지도에서 찾게 되면 무민사 또는 '최영장군 사당'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인근의 길들은 무민사로로 명명되어 있다. 제뢰등대로 오기 위해 하차했던 정류장으로 되돌아가다가 감만 통운 보세창고

무민사로 안내하는 첫 이정표 • 김윤미

와 금정정비소 사이의 2차선 도로로 꺾어서 언덕을 오른다. 세차장과 반도종합상사가 보이면 그 사잇길 골목으로 들어간다.

이제 골몰 골목을 지나야 한다. 무민사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곳곳에 있으니 화살표만 잘 찾으면 길을 헤매지 않는다. 사람 두 명이 서 있을 정도의 골목을 계속 가다 보면 중간중간 빈집들이 보인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풀이 무성하고 창문이나 벽면은 갈라지거나 곰팡이가 피어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넓은 터가 나온다. 무민공 쉼터라는 안내판이 있어 이곳이 마을공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운동기구도 있고, 벤치와 작은 정자가 있다. 쉼터를 지나 다시 오르막을 오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 무민사가 있는 곳이다.

최영 장군 사당을 왜 이곳에 세웠을까

무민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팻말이 있다. 무민사의 연혁을 새겨놓은 안내판도 있다. 그러나 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닫혀있다. 대문 창살 사이로 계단만 보인다. 팔각지붕의 한옥 건물 안에 최영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고, 최영 장군 유적비가 세워져 있다고 한다.

최영 장군을 모신 무민사(2022) • 남구

무민사는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무민공 최영 장군 사당보존회'에서 1년에 한 번 제례를 올

린다. 최영 장군은 1316년 출생한 고려 말기의 무인으로, 여러 차례 전장에 나아갔다. 특히 당시 가장 큰 국가적 문제였던 왜구를 여러 차례 무찔러 왜구의 잦은 침략을 차단했다. 왜구가 가장 먼저 상륙하여 침략하는 지점이자 가장 피해가 컸던 부산은 늘 왜구에 대한 경계와 걱정을 했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최영 장군 사당을 짓고 왜구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원했다. 부산에는 최영 장군 사당이 다섯 군데 있다. 감만동 무민사, 수영공원 무민사, 영도 최영장 비각, 자성대 부산진성공원, 기장 석산 당산이다. 그런데 기장은 최 장군으로만 알려져 있어 최영 장군인지는 확인이 어렵다.

왜 감만동에 최영 장군 사당을 짓고 제례를 올리는 것일까. 감만동은 감만이포(戡蠻夷浦)에서 유래한다. 만이(蠻夷)는 '오랑캐', 감(戡)은 '이기다' 혹은 '죽이다'라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오랑캐를 무찔러 이기다'는 의미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감만이포 지명을 없애고, 아카사키[赤崎]라고 바꾸어 버렸다. 흙 빛깔이 붉다고 하며 일본은 지명을 변경했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들이 패한 곳이자, 일본을 적으로 규정한 지명을 그냥 둘리 없었다. 게다가 1939년 일본군이 제당을 철거하고 나무를 베었다고 전한다. 해방 후 감만동이라는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시민들은 제당도 다시 건립했다.

무민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는데 마주한 빌라가 휑하다. 텅 빈 빌라에는 재개발을 앞두고 이사했으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 일대가 재개발구역이 되면서 마을이 어수선하다. 1970년부터 해안이 매립되면서 부두가 건설되고, 배후에는 대규모 수출입 보세장치장 또는 창고가 즐비하게 들어섰다. 이후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도시는 기능을 잃어갔다. 감만동은 현재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있는가 하면, 집을 허물어 공터가 된 곳도 있고, 빈집들도 곳곳에 있다.

3. UN기념공원

세계유일의 유엔묘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유엔을 기억하는 곳

무민사를 나와 다시 솔개다리 혹은 동항초등학교 정류장을 찾아서 버스를 기다린다. 101번, 남구6번 버스가 유엔교차로 인근에 정차한다. UN기념공원을 가기 전 유엔교차로의 참전기념탑을 보고 가려는 것이다. 유엔교차로에서 UN기념공원은 걸어서 5분 거리다.

유엔교차로의 참전기념탑 모습

UN기념공원의 전경. 오랫동안 유엔묘지로 불렸다가, 2001년 명칭이 변경되었다.

회전교차로 중앙에 서 있는 기념물과 각국의 깃발이 생경하다. 깃발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가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열여섯 개다. 중앙의 기념탑 가장 위에는 지구본이 있고, 이것을 각 국의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다. 참전 기념탑을 돌아 부산박물관이 있는 도로를 따라가면 UN기념공원 입구에 다다른다.

부산시민들 중에는 UN기념공원보다 유엔묘지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1951년 조성 당시는 '유엔기념묘지'였다가 2001년 UN기념공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이라면 유엔묘지에 한 번쯤은 소풍 간 기억이 있을 것이다. 도시 한가운데 묘지가 있는 것도 생소하지만, 그 묘지가 슬프고 어두운 장소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신기한 일이다. 한국에서는 묘지에 소풍을 가지 않으니 말이다.

UN기념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을 찾아야 한다. 여덟 개의 기둥에 한옥 형태의 지붕이 올라가 있는 건축물이 보일 것이다. 이곳이 입구인데 한국인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1966년 세워졌다고 한다. 입구에는 군인이 서 있지만, 긴장하지 말고 들어서면 된다. 공원이 크기 때문에 동선을 정

1966년 세워진 UN기념공원 정문

하고 가야 한다. 자칫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길을 헤맬 수 있다. 공원에 길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공원의 공간은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기에 천천히 모두 다 들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문을 지나면 광장이 나타난다. 벽면에 묘역 배치도와 안장자 현황이 새겨져 있다. 11개국 2,315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은 40기가 봉안되어 있고, 영국 999기, 튀르키예 462기, 캐나다 381기, 호주 281기다. 미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 후 유해나 유골을 미국으로 송환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묘지가 적다. 이와는 다르게 튀르키예와 영연방국가들은 사망하면 그 지역에 안장하는 것을 관습으로 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매년 5월이 되면 UN기념공원을 방문한다.

조금 더 걸어 들어 가면 건물이 두 개 나타난다. 먼저 생경하게 생긴 오른편 건물을 먼저 가보자. 유럽의 여느 작은 건물을 보는 것 같다.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모양 장식이 유리창으로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추모관임을 알 수 있다. 추모관도 정문을 설계했던 김중업의 작품이다. 1964년 세워진

공식적인 추모관으로 이곳에서 UN기념공원의 역사와 한국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12분간 상영된다.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튀르키예어, 프랑스어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다.

숙연한 마음으로 추모관을 나서면 또 다른 건물로 향할 수 있다. 이곳을 관리하는 관리처 사무실과 기념관이 있는 곳이다. 기념관으로 가는 이정표를 따라 오른쪽 문을 열면 하나의 큰 공간이 나온다. 한국전쟁 당시 최초로 사용되었던 유엔기가 정면에 세워져 있다. 전쟁 당시의 유엔군의 참전을 담은 사진이 참전국별 알파벳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국가 사진 아래 기념유품과 방문기념패 등이 전시되어 있다. UN기념공원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도 벽에 걸려 있다. 하나하나 글자를 읽고 사진을 보며 한국전쟁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된다.

UN기념공원의 역사와 한국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추모관

잊지 않겠습니다

UN기념공원은 크게 상징구역, 주묘역, 참전용사묘역으로 나뉜다. 공원의 가장 북쪽에 있는 상징구역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긴다. 상징구역은 참전 22개국과 대한민국 국기, 유엔기가 연중 게양되어 있으며, 상징적인 의미로 11개국 유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묘역이다. 두 번째 공간은 상징구역에서 남쪽으로 연결된 주묘역이다. 주묘역은 유해가 안장된 곳으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묘역이 있다. 세 번째 공간은 가장 넓은 녹지지역인 참전용사묘역이다. 2015년부터 한국전쟁 참전 후 생존했던 참전용사들이 사후 안장되어 나라별 구분 없이 날짜순으로 안장되고 있다.

세 구역을 이어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주묘역에서 참전용사묘역으로 가기 전 도은트 수로를 건너야 한다. 이 수로는 0.7m 폭에 110m 길이가 되겠다. 수로 안에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와 수련이 있다. 도은트 수로(Daunt Waterway)는 UN기념공원에 안장된 전사자 중 최연소자인 17세 호주 병사(J P DAUNT)의 성을 따서 지은 것이다. 이 수로는 삶을 의미하는 녹지지역과 죽음을 의미하는 묘역 사이의 경계에 있다.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은 참전용사 묘역의 한 가운데 길이다. 유엔군위령탑을 지나 남쪽 끝까지 난, UN기념공원의 마지막 참배 장소인 무명용사의 길이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유해를 찾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종이다. 이분들을 추모하고자 만든 공간이다. 열한 개의 계단, 열한 개의 분수대, 열한 그루의 소나무가 심겨 있다. UN기념공원에 안장된 11개국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분수대를 양쪽으로 열한 개씩 자리하게 하여 참전국 22개국을 상징하도록 했다고 한다. 무명용사의 길은 2008년 조성되었다.

턴투워드부산

UN기념공원에서는 매년 11월 11일에는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열린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2008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시작되었다. 2020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11월 11일 11시가 되면 UN기념공원에 안치된 분들을 향해 전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1분간 묵념을 한다. 처음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됐던 날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이제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잠시 그분들을 위해 묵념을 하게 된다. 감사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2022년 턴투워드부산 행사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참전용사 세 분의 안장식이 거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 감사의 메달을, 부산시에서 명예 시민증을 고인에게 수여했다. 그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UN기념공원에 전우들과 함께 잠들고자 한 고인들의 뜻에 따라 한국에 모셔지게 되었다.

UN조각공원과 평화공원

UN기념공원 바로 옆에는 두 개의 공원이 있다. UN조각공원과 평화공원이다. UN조각공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21개국의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하여 조성된 공원이다. 평화공원은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며 조성했다. 회의 참여 인사들의 방문지에 UN기념공원이 포함되자 시급히 만들어졌다. 시민들은 평화공원과 UN조각공원에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유엔묘지를 곁에 두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4. 신선대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무제등소공원에서 출발

UN기념공원에서 남구8번 마을버스를 타고 백운포 고개에서 내린다. 정류장에서 조금만 직진하면 회전교차로가 보이고, 넓은 바다도 동시에 눈에 들어온다. 네 개의 길로 이루어진 회전교차로에서 돌아 오른쪽 길을 따라 언덕을 계속 걷다 보면 정자가 나타난다. 바다를 계속 보며 신선대까지는 20분을 걷는다. 이곳이 신선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무제등소공원이다.

신선대 정상으로 가는 초입 • 김윤미

무제등소공원은 시민들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코스 중 하나다. 무제등소공원을 지나는 버스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 차량을 가져온다. 신선대를 경유해서 이기대 해안도로를 따라 한 바퀴 돌며 잠시 여유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 무제등소공원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쓰레기 소각장으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가까이 가기를 꺼렸던 장소다. 부산시 남구청은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다. 낮에 찾아도 좋은 곳이지만, 밤 야경을 보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제까지 무제등소공원만 가로등이 밝혀졌는데 지금부터는 신선대 정상까지 불이 켜지나 보다. 이곳을 찾은 날 신선대로 오르는 길가에 가로수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신선대로 가는 길은 큰 길과 작은 길로 두 개다. 왼쪽에 있는 작은 길은 한영처음만난기념비로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있는데, 이곳으로도 신선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인 만큼 가장 넓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포장된 길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신선대라는 큰 글씨가 새겨진 입석이 있는 길을 오른다. 신선대 정상까지는 10여 분이면 된다. 오르막을 조금 오르면 다시 내리막, 그리고 다시 급한 오르막이 나타난다. 숨이 약간 차오를 때쯤 정자를 만나게 된다. 일신정(日新停)이라는 정자는 잠시 쉬기에 좋다. 신선대 정상에 오르면 쉴 곳이 따로 없으니, 신선대를 여행하는 기분을 이곳에서 가만히 담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1797년 용당포에 도착한 영국인들

계속 오르막을 오르다 보면 태극기와 영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한영첫만남기념비까지 온 것이다. 1797년 신선대 아래 용당포에 영국 프로비던스호가 상륙했다. 영어를 처음으로 들은 용당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첫 만남을 그려보자면 서로 말을 건네지만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였을 것이다. 그래도 그 만남의 의미를 지금에 되새겨보고자 이 기념비가 섰다. 199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엔드류 왕자가 신선대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영국과 부산의 관계 기관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2001년 기념비가 완성되었다. 기념비 뒷면에 설립일과 관계 기관의 협력이 기록되어 있다.

2001년에 세워진 한영첫만남기념비. 그 뒤로 태극기와 영국기가 서 있다. • 김윤미

이 기념비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념비 앞면에 자세히 새겨져 있다. “1797년 10월 윌리엄 브로우던 함장과 승무원들은 영구 해군 소속 ‘프로비던스’호의 부속선을 타고 이곳 용당포에 상륙하여 주민들과 접촉을 가졌던 최초의 영국인들이었다. 이 기념비는 윌리엄 브로우던 함장의 부산 방문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부산항을 정밀하게 측량 관측했던 지점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뒷면에는 당시의 영국기록과 조선의 기록을 각인해 두었다.

신선대 정상에서 바라본 부산항과 영도 • 김윤미

신선대에서 부산항을 본다

신선대는 전국에 수없이 많다. 신선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곳이며 돌 바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산 남구의 신선대도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바위가 정상에 있다. 정상에 오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어찌 이리 부산항이 모두 다 보이는지. 일렬로 늘어선 오륙도와 오륙도등대, 조도와 영도의 한 면이 모두 보인다. 정상에는 무제등(無際燈) 해발 170m라고 새겨진 표식이 있어 이곳이 무제등이고, 그래서 무제등소공원이라고 이름 지었음을 알게 된다.

정상의 큰 바위에는 신선의 발자국과 신선이 탄 백마의 발자취가 있다고 전해진다. 통일신라시대의 문장가 고운 최치원도 신선대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신선대라는 글을 새겼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인지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신선대 정상에서는 신선대 앞 바다를 매립해서 들어서 신선대 부두가 한눈에 들어온다.

5. 오륙도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섬

오륙도에는 여섯 개의 섬이 있다

신선대에서 오륙도를 가려면 백운포고개 버스정류장까지 다시 가야한다. 5분 정도면 도착한다. 걷는다면 30분. 오륙도도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 주차장도 세 곳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주말이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된다. 오륙도에 도착하면 다섯 개 혹은 여섯 개라는 섬이 다 보이지 않는다. 겹쳐 보여서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 오륙도와 오륙도등대를 온전히 보려면 신선대가 가장 적격이다. 아니면 영도에서도 한눈에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본 오륙도(2022) • 비짓부산

볼 수 있다.

오륙도는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이라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등대섬에는 1937년 운영을 시작한 오륙도등대가 있다. 이곳은 해양보호구역이다.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 태종대와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륙도는 동해와 남해를 나누는 지점이란다. 오륙도스카이워크 아래 오륙도를 바라보는 해안산책길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오륙도 기준점에 대해 해운대 달맞이 고두말이 동해와 남해를 나누는 기점이라고 주장하는 기관들도 있다. 기관들마다 기준점이 다르니 논쟁이 계속 될 것이다.

오륙도선착장의 어부와 해녀, 그리고 방파제 위의 강태공

오륙도에 승객들이 다 내리면 마을버스는 버스회차장으로 간다. 그 길을 따라가면 바다를 메워 만든 넓은 선착장이 나타난다.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장에 가득하고, 방파제에는 낚시인들이 낚싯줄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다. 오륙도선착장에서는 관광객과 낚시인들을 태워 나르는 유람선도 운영한다. 오륙도 인근 바다를 한 바퀴 돌며 오륙도에 관광객과 낚시인들을 데려다준다.

선착장 한가운데는 큰 야외 천막이 처져 있다.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해녀복을 입은 채로 해산물을 내놓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려고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한다. 해산물은 굉장히 싱싱하고, 한입 베어 물면 바다의 향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전 해녀촌은 이기대 해안둘레길 중간 지점쯤 있었다. 해녀막사를 이용하여 앞 바다에서 물질했던 해녀들은 그곳에서 노천 식당을 운영했었다.

오륙도선착장에 있는 해녀촌 • 김윤미

오륙도스카이워크에서 바다 위를 걸어본다

오륙도선착장에서 다시 올라와 오륙도스카이워크로 가본다. 오륙도를 가

2013년에 개장한 오륙도스카이워크

까이 볼 수 있는 절벽에 지어 2013년 개장했다. 9시부터 18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무료다. U자형으로 15m가량 되는 유리판을 걸어가면 발아래 낭떠러지가 먼저 보인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시 망설여지지만, 용기를 내서 눈을 멀리 바다로 향하게 하고 끝 지점까지 간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 신기하다며 사진 한 컷을 남기게 된다.

스카이워크 안내판을 보면 이곳은 말의 안장처럼 생겼다고 하여 승두마로 불리다가 승두말이 되었다고 한다. 또 해녀들과 주민들은 잘록개라고도 부른다. 바다를 연모하는 승두말이 오륙도 여섯 섬을 차례대로 순산하고 나서 승두말의 볼록했던 부분이 잘록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파랑길관광안내소와 오륙도해맞이공원

오륙도와 첫인사를 나눴다면 이제 찬찬히 오륙도를 눈에 담아볼 시간이다. 해파랑길관광안내소에 들러 안내도를 하나 챙기자. 오륙도는 부산 갈맷길이 지나는 곳이고,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의 시작 지점이다. 갈맷길은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공모하여 만든 9코스를 이른다. 오륙도해맞이공원은 해운대로 향하는 2코스와 영도로 향하는 3코스의 시작점이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동해안을 따라 총 50개 코스로 이루어진 750km 길이다. 남파랑길은 부산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남해안을 따라 총 90개 코스로 이루어진 1,470km 길이다.

6. 이기대
도시의 자연공원 트레킹 코스

이기대 해안둘레길의 여정

오륙도에서 해안 길을 따라 이기대 해안둘레길을 시작한다. 마지막 지점은 용호별빛공원과 섶자리다. 전체 거리가 4.6km이니 1시간 30분 정도를 걷는다 생각하면 된다. 만약 힘들다면 자동차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마을버스를 타면 된다. 바위 절벽으로 난 길을 걷는 것이라 특별한 추

오륙도관광안내소 옆 이기대 해안둘레길 안내도 • 김윤미

억 하나를 더 만든다는 마음으로 출발한다. 오륙도를 등지고 이기대 자연마당을 지나 산길로 들어선다. 친절히 안내하는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된다. 이기대 해안둘레길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93년부터다. 군사작전 지역이었던 곳을 일부 군 주둔구역만 제외하고 개방했다.

자연마당에서 1.4km를 가면 농바위, 다시 1.7km를 가면 어울마당이란다. 한참 바다를 보고 가다 농바위전망대를 만났다. 이곳에서 오른쪽을 돌아보니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농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질 듯하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이기대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걷는다. 갑자기 넓은 마당이 눈 앞에 펼쳐진다. 어울마당이다. 여기에서 해맞이 행사도 하고, 군중들이 모여 저 바다를 배경으로 어울마당이 열릴 것이다. 어울마당 위에는 작은 가게가 있다. 출출한 사람들은 컵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다. 라면 하나에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따라 즐겁다. 예약하면 민박도 할 수 있다.

어울마당에서 다시 걷는다. 구리광산 안내판이 서 있다. 회사명은 용호광산이고, 이 회사에서 구리를 채취한 갱도가 이곳이다. 안내판 뒤로 깊게 팬 골짜기가 보인다. 구리를 채취한 갱도 입구다. 어울마당에서 구리광산과 관련한 경고판을 봤다. "이 일대는 폐광산의 채굴 갱도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 지역으로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니 펜스 내 출입을 금지하고, 보행로가 아닌 지역은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안전하고 즐거운 트레킹이 되도록 잘 지켜야겠다.

해녀들이 돌을 쌓아 거처로 삼은 해녀막사

광산 입구를 지나면 곧 해녀막사가 나타난다. 해녀들이 돌을 쌓아 거처를 만들었다. 해녀막사라고 크게 쓴 명패가 이곳이 해녀막사인줄 알게 한다. 대부분 벽면만 만들어서 덮개가 없는데, 이곳은 지붕을 갖추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했다. 길 한쪽에 앉아 먹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모두 오륙도선착장 해녀촌으로 옮겨갔다.

해녀막사에서 1km 정도 더 가면 동생말전망대가 나타난다. 광안대교와 광안리해수욕장, 해운대 마린시티와 달맞이고개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곧 용호별빛공원에 도착한다. 이기대의 마지막 코스라 생각하겠지만, 정말 이기대의 마지막은 섶자리다. 용호별빛공원도 섶자리에 만들어졌다.

섶자리에 장어구이 먹으러 오이소

용호별빛공원 입구를 나오면 바로 큰 건물이 하나 있다. 이곳에 용호어촌계가 있다고 하여 한번 들려보기로 했다. 어촌계는 어민들이 만든 조합으로 수협과 연결되어 있다. 용호어촌계는 섶자리, 백운포, 용당포, 오륙도의 어민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다. 회원은 71명이란다. 용호어촌계는 부산시 남구에 있는 유일한 어민조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립이 많이 진행되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다. 어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노령화도 한 이유이다.

부산에서 맛있기로 이름났던 소금도 이곳에서 생산된 적이 있었다. 400년간 이어졌던 이곳 염전에서 생산된 분개 소금이다. 분포 어촌마을의 염전은 1962년 택지가 되었다. 매립한 땅을 둘러싼 큰 도로는 이름이 분포로다.

섶자리 어민들이 모여 운영하는 횟집촌

분포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는 2001년 설립된 분포초등학교다. 사무실 밖으로 빌딩에 에워싸인 어민들의 선착장이 보인다. 그 옆으로 일자형의 용호만매립부두에 여객선이 정박하고 있다.

용호어촌계 사무실을 나와 어민 활어판매장으로 향했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어민들이 모여 횟집을 운영하는 곳이다. 장사를 시작하는 시간에 가면 장어구이 냄새가 일대에 진동한다. 본래 이곳 어민들은 상어잡이를 주업으로 했다. 상어는 민물장어나 갯장어를 먹이로 하는데 값이 저렴했던 갯장어를 주로 사용했다. 상어를 잡지 않는 지금은 갯장어구이가 이곳을 알리는 음식이 되었다.

어민 활어판매장 입구에는 섶자리마을 안내판이 있다. 섶자리는 단어부터 생소하다. 섶이 있던 자리라는 뜻이겠지. 안내문에 왜 섶자리인지 설명되어 있다. 섶은 바닷모래 바닥에서 자생하는 긴 풀이다. 이 풀이 숲을 이루면 물고기와 작은 생명체들이 기거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7. 부경대학교 박물관·백경탑

전국 유일의 해양수산 전문 대학박물관

이기대공원의 마지막 장소인 섶자리까지 돌아보고 부경대학교로 향한다. 용호만매립부두와 아파트 단지를 지나 10여 분 걸어가면 부경대학교 교내로 들어갈 수 있다. 5차선 대로를 지나 왼쪽에 난 작은 나무계단을 오르자 어린이집이 보인다. 왼쪽으로 꺾어 인문사회과학대학 건물로 향하다 건물 옆길로 쭉 직진한다. 학생식당과 편의점을 스쳐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측에 박물관이 있는 청운관을 찾을 수 있다.

청운관은 2021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했다. 외관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내부의 구조는 그대로다. 1층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박물관임을 표시하는 동그란 로고가 붙어있다. 로비에는 나룻배가 전시되어 있다. 원래 이곳에는 공룡이 전시되어 있었다. '부경사우루스'라고 명명했던 공룡의 뼈 골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러 일부러 부경대학교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부경대학교는 부산수산대학과 부산공업대학교가 1997년 통합되면서 출범한 학교다. 1941년 설립되었던 부산고등수산학교와 1924년 설립된 부산공립공업보습학교가 합쳐진 것이다. 이에 해양, 수산, 어업과 관련된 학과가

박물관이 있는 청운관 전경. 해양수산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국립부경대학교

한국에서는 가장 많다.

1984년 5월 개관한 박물관에는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자료를 발굴하고 전시하고 있다. 지금은 리모델링 중이지만, 내년에는 오픈할 예정이란다. 박물관 관계자는 부경대학교 박물관을 "고고·역사와 해양·수산 분야를 양대 축으로 하여 바다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전국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대학박물관"이라고 소개한다.

세 개의 전시실이 운영된다. 해양생물실, 해양민속실, 화석전시실이다. 해양생물실에는 바다와 관련된 어패류·포유류 등의 표본과 박제를 전시한다. 해양민속실에는 근현대에 사용된 각종 어구류를 전시함으로써 어구 사용법을 쉽게 전달하고 우리나라 근현대의 어구 및 어업 기술의 변천과 발달 정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화석전시실에는 해양 생물 화석을 통한 해양 생물의 출현과 진화과정을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부경대학교 박물관에는 실러캔스(Coelacanth)가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실러캔스는 전국에 단 두 곳만 보유하고 있는 매우 진귀한 자료다. 고생대에 살았던 물고기가 현재까지 모습을 바꾸지 않고, 그 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갑옷처럼 단단한 비늘과 다리 같은 원시적인 지느러미, 기름이 찬 폐를 가지고 있다.

백경탑과 백경동산

박물관을 나와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부경대학교 정문이 보인다. 1분 정도 정문을 향해 걸어가다 분수대와 정자가 있는 언덕이 나오면 왼쪽으로 꺾어 들어간다. 도서관과 농구장 사이의 길을 쭉 가면 백경탑에 도착한다. 백경탑 뒤에 있는 언덕은 백경동산이라고 부른다. 부경대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백경탑의 존재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백경탑이 있는 길을 지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지나다니던 학생들도 백경

원양어업 중 희생된 학생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백경탑 • 국립부경대학교

탑 앞에 서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알 수 없어 보인다. 별다른 이정표나 안내문이 없다.

백경탑은 원양어업을 나섰던 많은 학생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세워졌다. 탑 아래 선원들이 힘껏 그물을 당기는 모습이 백경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준다. 그 위에는 길게 늘어뜨린 닻이 달려 있다. 백경탑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백경탑 입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엄숙해진다. 백경은 흰수염고래로 소설 『모비 딕』으로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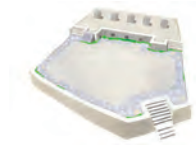
『어업학과 70년사』에 따르면 백경탑은 1971년 부산수산대학교 개교 30주년을 기념해서 건립된 것으로 원양어업에 나섰다가 희생된 젊은 마도로스를 기리는 탑이라고 한다. 백경탑이라고 이름한 것은 한국 원양어업의 본거지인 북태평양 바다를 처음 개척한 실습선 백경호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 학생들이 가난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원양어업에 나섰다. 1964년 대한조선공사에서 건조한 백경호에 승선한 선원들은 1966년 10월 한국 최초로 북태평양 원양어업 시험조업에 성공했다. 북태평양에서 잡은 명태와 오징어는 국민들의 먹거리가 되었다.

원양어업의 도약이 마련되자, 학생들은 북태평양뿐 아니라 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파도는 험난했고, 바다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후배들은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세상을 힘차게 헤쳐 나가겠다는 의미로 백경탑을 세웠다. 선배들의 정신을 다시 고쳐세우기 위해 2011년 5월 15일 어업학과 설립 70주년을 맞아 이곳으로 이건(移建)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8. 황령산 봉수대

조선시대 통신 네트워크



황령산에 오른다

부산시 남구의 해안을 다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황령산을 향한다. 황령산 정상에 올라서면 동서남북으로 부산의 전경을 거의 다 볼 수 있다. 황령산을 등산하는 코스는 여러 개다. 이중 황령산 봉수대로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는 청수탕 정류장이나 신원아파트 정류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부경대학교 정문에 있는 정류장에서 남구1번, 혹은 남구10번 마을버스를 타면 된다. 정류장에 내려 30~40분가량 등반하면 봉수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곳도 그렇지만 황령산 봉수대로 가는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벚꽃이 피는 봄에는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다. 평소에도 일상을 벗어나고픈 많은 사람들이 황령산을 찾는다. 이번에는 드라이브 코스로 황령산을 올랐다.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에서 내려 자동차 도로를 따라 걷는다면 두 시간 정도 소요된다. 금련산역에서 자동차로 봉수대 주차장까지는 15분 이내에 충분히 도착한다. 가는 길에 간이 전망대가 몇 곳 있는데 들른다면 시간은 더 걸릴 것이다.

부산을 한눈에 담다

황령산 하면 야경과 벚꽃길이 유명하다. 해가 질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노을을 기다려 보자. 생각지 못한 부산의 멋진 야경이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11월 3일 '황령산전망대 노을&달빛걷기' 축제를 열었다. 도시철도 2호선 금련산역에서 황령산전망대까지 8km로 2시간 30분 거리를 걷는 행사이다. 단풍 든 가을에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밤 산행을 즐기기는 좋은 때라 참여하는 시민이 많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황령산에 오르면 부산의 아름다운 곳곳의 전경들을 볼 수 있다. 황령산 전망대마다 보이는 부산이 다르다. 광안대교 방면, 서면 방면이 있으니 다 가보자. 부산시는 2021년 이곳에 동서남북 파노라마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면 방향으로 케이블카도 설치될 것이라고 하니 황령산 봉수대의 전망이 완전히 바뀔 예정이다. 높이 500m의 전망대는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 부산의 랜드마크로 삼겠다고 한다.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나 보다.

황령산 정상석

봉수대로 이어진 통신망

황령산 봉수대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장산에 있는 간비오산 봉수대와 더불어 1425년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봉수대라고 전해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어졌던 것을 1976년에 복원했다. 봉수대는 불과 연기로 시급한 상황을 알렸던 중요한 군사시설이었다.

황령산 봉수대는 아궁이와 굴뚝이 다섯 개다. 불이 지펴지는 봉화 개수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평상시에는 한 개, 왜적이 해상에 나타나거나 적이 국경에 가까이 나타나면 두 개, 왜적이 해안에 가까이 오거나 적이 변경에 가까이 오면 세 개, 적이 아군의 배와 전투를 벌이거나 국경을 침범하면 네 개, 왜적이 상륙하거나 전투가 벌어지면 다섯 개의 신호를 올렸다. 그런데 안개, 구름, 비 등으로 봉화를 올리지 못하면 봉수를 지키던 봉수군이 다음 봉수대까지 전력 질주하여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힘들었겠다 싶다.

황령산 봉수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봉수대 중 하나이다.

5
코스

부산의 축소판 영도,
우리네의 해양 문화를 음미하다

영도는 섬이다.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주 큰 섬이다. 육지와 가까워서 섬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따름이다. 그래서 영도는 어디에서든 바다가 보인다. 먹거리도 많고 전망이 환상적인 카페도 많으니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에 있다.

5 코스

어묵 (삼진어묵) → 영선동 패총기념비 → 국립해양박물관 → 동삼동 패총전시관 → 동삼 어촌마을 → 태종대 → 영도해녀 문화전시관

부산의 축소판 영도,
우리네의 해양 문화를 음미하다

영도는 섬이다.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주 큰 섬이다. 육지와 가까워서 섬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따름이다. 그래서 영도는 어디에서든 바다가 보인다. 해안을 따라 일주하면 다채로운 바다를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 시간이 된다면 걸어서 영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가장 좋다. 걷는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영도이기 때문이다. 먹거리도 많고 전망이 환상적인 카페도 많으니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에 있다.

영도를 제대로 여행하려면 섬을 한 바퀴 돌아본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다. 영도다리에서 시작해 마지막에 영도다리로 돌아오는 코스다. 영도다리는 영도대교의 애칭이다. 영도대교는 다리가 열리는 도개형으로 오후 2시가 되면 15분간 다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때 자동차들이 다리 끝에서 줄을 서 기다리는데 이것도 진풍경을 선사한다. 영도대교 앞에는 영도구청에서 1991년 세운 도개식영도대교기념비가 있으니 그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영도에 들어섰다면 영도의 주인인 영도할매는 알고 가야 한다. 영도할매는 영도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산신이다. 영도의 중심이 되는 봉래산에 할매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신성하게 여긴다. 영도할매는 친숙하기도 하고, 영도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영도할매를 주인공으로 '신귀한 식당'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제작되었다. 영도할매는 망자가 이승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식당을 열고, 찾아온 망자들은 자신의 사연을 풀어낸다. 영도할매를 만나는 또 한 곳은 카페다. 카페에서 '영도할매빵'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선물 세트로 판매한다.

영도대교(영도다리)에서 바라본 영도 전경 • 영도구

1. 어묵(삼진어묵)

바다가 건네준 선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가게

영도대교를 건넜다면 15분가량 걸어야 한다. 대교사거리를 지나 3분 정도를 더 직진하다 왼쪽 골목길 태종로99번길에 들어서서 300m가량 발걸음을 옮기면 삼진어묵이 나온다. 부산 어딘가에서 버스를 탄다면 영도 봉래시장 정류장에 하차하면 바로다.

영도 여행을 어묵으로 시작한다. 어묵은 부산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왜 영도에서 어묵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그것은 영도에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제조 가공소'가 현재 남아 있어서다.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기네스북 100선'을 선정했다. 삼진어묵이라는 상호로 시작한 공장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옛 공장 터에 새 건물을 짓고 어묵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과 체험장을 운영한다. 물론 어묵도 판매하고, 맛볼 수 있다. 어묵을 만들고 요리도 해보고 싶다면 어묵 체험장을 찾아가면 된다. 해운대에도 고래사에서 운영하는 어묵 체험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길.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 제조 가공소인 삼진어묵 건물

삼진어묵 본관은 무료주차장을 운영한다. 주차장을 지나 건물 1층으로 들어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넓은 매장이 손님들을 맞이한다. 어묵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진열된 어묵을 보다 몇 개를 골라본다. 아직 따뜻한 어묵을 사다가 길 건너 삼진주가로 갔다. 이곳은 손님들이 어묵을 먹고 갈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전자렌지, 접시, 가위 등 필요할 것 같은 도구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부산오뎅', 100년의 역사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을 묻는다면 결코 어묵을 빼놓을 수 없다. "부산하면 ○○ 아닌교?"에 들어갈 정답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어떻게 요리를 해도 맛있다. 구워도, 삶아도, 튀겨도, 졸여도, 쪄도, 그냥 먹어도 맛있다.

어묵하면 왜 부산일까. 부산이 어묵으로 유명한 건, 부산이 바다 도시이기 때문이다. 부산 앞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을 공급받아 싸고 신선한 재료로 어묵을 만들 수 있었다. 한국인들이 어묵을 먹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 이주해온 때부터였다. 1907년 부산에 처음으로 일본인이 어묵 공장을 세웠고, 1920년 통영에도 어묵 공장이 건립되면서 어묵이 만들어졌다. 그래도 지금 어묵하면 부산을 지칭하는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에 부산의 어묵 공장이 대단지를 이루며 생산을 했기 때문이다.

1936년 부산데파트 자리에 동광동시장이 들어서고 그곳에 일본인들이 여러 어묵 공장을 세웠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인들은 돌아갔지만, 어묵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이 어묵을 만들어냈다. 한국전쟁 이후 어묵은 전성기를 맞이했다. 전쟁 이후라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에 어묵은 영양가가 높고 값싼 먹거리가 되었다. 성장하던 부산의 어묵 시장은 1990년대 침체기에 들어갔다. 대기업에서 어묵을 제품화하면서 경쟁이 되지 못했다.

어묵의 무한 변신

이제 어묵은 간식에서 문화와 역사가 되었다. 부산의 대표축제가 된 어묵축제는 매년 장소를 달리하며 열린다. 어묵은 부산 곳곳에서 만들어져왔기 때문이다. 서민의 먹거리였던 어묵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당당히 음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어묵이 이렇게 변신한 것은 2010년부터였다.

어묵의 제2 전성기를 이끈 것은 어묵 사업을 물려받은 2세대, 3세대들이 혁신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제조와 유통과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했다. 어묵은 이제 단순하지 않다. 어떤 재료와도 조화를 이루고, 모양과 색깔도 각양각색이다. 어묵 베이커리가 시도되자 카페와 레스토랑의 분위기 속에서 어묵을 즐기게 된다. 어묵은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 고급스러운 한 끼 식사가 되었다.

어묵은 이제 한국인들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어묵이 세계화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경영자들의 노고가 가장 컸고, 여기에 부산시와 정부가 나서서 어묵 산업화에 힘을 실어준 덕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원 사업단에 부산의 어묵을 선정하고 5년간 예산을 지원했다. 그 결과 부산어묵전략식품 사업단이 구성되었고, 이 사업단은 부산 낙동강 하구에 있는 장림포구에 위치해 있다.

물떡을 아세요

오뎅탕은 다들 한 번쯤 먹어봤을 것이다. 어묵을 넣고 끓인 국물이 있는 요리다. 어묵 사이로 낯선 식재료 하나가 들어간다. 바로 물떡이다. 물떡이 무엇인고 하니, 어묵 길이와 비슷하게 가래떡을 적당히 잘라서 넣어둔 것이다. 부산에서만 먹는 음식이다.

오뎅탕의 물떡

영도의 먹거리, 커피와 고구마

어묵 말고, 영도에서 뭘 맛봐야 하냐고 묻는다면 커피와 고구마를 추천한다. 커피와 고구마는 해양 문화의 교류 과정에서 얻은 산물이다. 영도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오는 바다 광경을 보며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해보는 것도 좋겠다. 대형규모를 자랑하며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카페, 컨테이너로 만든 카페, 목욕탕을 개조한 카페, 수영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텅 빈 큰 창고 하나를 아기자기하게 꾸민 카페도 있다. 커피 맛은 물론 좋다. 디저트도 그러하고.

고구마는 왜 영도에서 먹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재배지가 영도이고, '조내기 고구마'라 불린 역사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이다. 조엄이라

는 사람이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대마도에서 종자를 가져와 영도에서 시험 재배해 성공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고구마보다 작았다고 하는데,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에 가면 조내기 고구마의 역사를 알 수 있다. 기념관 카페에는 '영도 조고매빵'이라고 부르는 고구마 모양의 빵을 선물로 사 갈 수 있다. 고매크림라떼, 영도꿀고매라떼는 기념관의 시그니처 메뉴다. 조내기 고구마를 건조해 상품화한 제품도 전국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영도에서 축제도 즐겨보자

영도에 왔으니, 영도의 해양 문화를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축제도 한번 가보자. 가장 먼저 소개할 축제는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부산항축제, 영도구청에서 개최하는 영도다리축제다. 부산항축제는 세계적인 항구도시인 부산의 역사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2008년 시작되었다. 영도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과 북항에 있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체험 행사로 구성된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배를 타고 부산항을 탐방하는 것이다. 대형 해군함정과 해경함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색적인 경험을 안겨준다.

2022년 제30회를 맞이한 영도다리축제는 10월에 있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녹여낸 역사문화축제다. 1934년 건립된 영도다리(영도대교)는 근대산업사의 현장이었던 영도를 떠올리는 연결장치인 셈이다. 한편으로는 아픈 현대사를 대표하는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나기를 약속했던 장소였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가며 점을 보다 보니 점집이 생기고 그곳은 점바치골목이 되었다.

2. 영선동패총기념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신석기인들이 살다

삼진어묵 본관에서 영도대교 방향으로 5분가량을 걷다 대교사거리에서 멈춘다. 많은 차량이 분주하게 오가는 곳에서 부산은행을 찾아야 한다. 그 앞에 조개 그림과 영선동패총이라는 글이 쓰여진 기념물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작은 비석도 함께 있을 것이다. 영선동패총기념비다. 다들 무심히 지나치는 곳에 영도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기념비 앞

영선동패총기념비와 기념물

면에는 "패총(조개더미)이 발견된 곳"이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1990년 12월 영도구청에서 "1933년경에 패총이 발견된 곳으로 신석기시대의 유물인 토기, 석기, 골각기, 조개팔찌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이 비를 세운다"고 각인되어 있다.

1933년 수습된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일부 보관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유물은 '토기 융기문 발'이다. 보물 제597호로 지정된 이 토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윗부분의 주구, 즉 주전자의 부리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액체를 따르는데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기 윗부분의 V자형 점토 띠 장식이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이 토기를 보존 처리 후 2018년 유물 공개전을 열었다.

영선동패총기념비 앞에서 상상을 해 볼 수밖에 없다. 영선동패총은 1931년 영도대교 공사를 시작하면서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운 영선동패총기념비만 유적지임을 확인해 준다. 패총이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가 쌓여 생긴 것인데 그 속에는 사람들이 쓰던 여러 가지 유물이 썩지 않고 잘 남아 있다. 당시에 사람들이 뭘 먹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보물이다.

매립된 영선동 앞 바다

영선동은 영도에서 가장 먼저 마을이 형성된 곳이지만, 일제강점기 매립을 통해 남항동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해안에 위치한 마을이 아니게 되었다. 때문에 패총이 있는 곳은 해안가이어야 하는데, 영선동패총이 있었던 자리는 바다와 거리가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만 보인다.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

영도는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평평한 땅이 별로 없었다. 현재의 지형이 된 것은 바다를 많이 매립했기 때문이다. 매립된 곳 중 영선동패총기념비와 관련된 장소는 '석말추', '매강추'였다. 석말추는 남항동의 옛 지명으로, 이 지역 앞바다에는 큰 돌이 있었는데 썰물 때는 돌 끝이 조금 보였다가 밀물 때에는 보이지 않은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강추는 현재 한진중공업 자리다. 한진중공업이 들어서기 이전 봉래동과 청학동 사이는 얕은 여울 바다였다. 매립되기 전 이곳 일대의 바다는 수심이 얕은데다 너비가 좁아 조류가 세차게 흘렀다 한다.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여울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곳의 지명이 매강추이다. 이 일대 바다에는 '매강추 어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어장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 한다.

석말추의 현재 이름, 남항동

영도 주민들은 인근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해왔고, 지금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선동패총기념비를 보고는 가장 가까운 어촌마을을 찾아가 보고 싶어졌다. 영선동 앞바다였던 석말추는 이제 남항동이라는 땅이 되었다. 남항동에 어민들이 배를 정박하고 잡은 물고기를 하역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남항을 가보기로 했다.

영선동패총기념비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도시 속의 어촌을 발견할 수 있다. 큰길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5분가량 걸어가면 남항사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우측으로 꺾어 큰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잠시 걸어본다.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눈앞에 작은 항구가 보일 것이다. 직사각형 모양의 항구에 빼곡히 배가 정박해 있다. 남항이다. 남항은 남항동에 있는 항구다. 남항동

본디 석말추라 불렸던 남항 전경. 남항이 건설되면서 남항동이 만들어졌다.

은 남쪽에 있는 항구라는 뜻으로 육지의 시점에서 영도는 남쪽이고 이곳에 일제강점기 항구가 건설되면서 붙여진 행정명이다.

천천히 걸어서 남항을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남항어촌계이라는 팻말을 걸어 둔 건물을 찾아가 보았다.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옆의 작은 컨테이너가 남항어촌계 사무실이다. 이곳은 어부와 해녀들의 공간이다. 1층은 어민들의 휴게실로 이용하고, 2층은 사무실이지만 상주하는 직원은 없다. 새벽에 어업을 나갔던 어민들은 오후가 되면 모든 일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며 일과를 마무리한다. 남항어촌계는 전복이 특산품인데, 해녀들이 물질해서 전복을 많이 채취하는 편이다.

어촌계는 1972년부터 조직된 어민들의 공동체로,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했다. 영도는 두 개의 어촌계가 어촌마을을 대표한다. 영도 북쪽과 서쪽 마을을 결집한 남항어촌계, 영도 동쪽과 남쪽 마을의 공동 조직인 동삼어촌계다.

3. 국립해양박물관

바다를 알면 세계를 안다

바다를 보고, 바다를 읽고

영선동패총기념비를 둘러보고 국립해양박물관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버스를 타야 한다. 걷기에는 거리가 있다. 영도경찰서 정류장까지 걸어 나가 66번이나 186번 버스를 타고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이동한다. 차를 가지고 간다면 주차장이 넓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 시간 주차 비용은 2,000원이고, 이후는 추가 비용이 산정된다.

버스에서 내리면 넓은 부지와 큰 건물이 맞이해준다. 먼저 박물관 내부를 봐야 할 것 같아 주 출입문인 정문을 찾았지만, 정문은 닫혀있고 부출입구로 입장하라는 안내문이 있다. 부출입구로 가는 길에는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푸드코트가 운영 중이다. 푸드코트 위층에는 레스토랑이 있다. 바다 전망이 정말 좋은 곳이라 분위기를 즐기기에도 적격이다. 물론 요리도 맛있다.

부출입문을 들어서면 넓은 로비에 안내소가 있다. 그 뒤에 위치한 해양도서관은 해양과 관련된 도서들로 가득 차 있다. 입구 왼쪽 벽면을 따라 박물관의 전시 역사를 알 수 있는 책들이 펼쳐져 있다. 전시 도록, 구술생애사 시리즈, 학술대회 총서, 번역 총서 등이 제작 시기별로 놓여 있다. 해양 문화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것을 계획

국립해양박물관 전경

하고 준비한 해양박물관 사람들의 노고도 느껴졌다.

해양도서관은 해양 관련 도서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이 제일 큰 자랑거리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 또 하나 있다. 읽고 싶은 책을 골라 도서관의 가장 안쪽으로 가면 편안한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다. 의자는 두 개의 유리 벽면으로 수변공원과 부산항을 병풍 그림처럼 보여준다. 바다를 상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배경이다.

해양도서관 • 김윤미

해양도서관을 뒤로하고 계단을 오르면 2층으로 갈 수 있다. 2층은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특별전시관이 있다. 어린이박물관으로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간다. 맞은 편은 특별전시실인데 전시 기간에만 열린다. 특별전시는 매번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되어 전시를 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찾게 된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터널식 대형 수조에 바다 거북이가 헤엄치고 있는 수족관이 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보인다. 왼쪽에는 커다란 배가 전시되어 있다. 조선통신사들이 탔던 배를 복원한 것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의 대표 전시물이다. 배 옆으로 3층 전시실 입구가 개방되어 있었는데, 상설전시관 공사로 막혀 있다. 3층과 4층의 상설전시관은 아쉽지만, 전시물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라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단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하늘공원에 가보기로 했다. 이곳도 야외 기획전시를 하는 곳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시원한 바닷바람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나무 계단을 따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부산항이 한눈에 보인다. 망원경을 설치해둬서 좌우로 움직이며 눈

으로 보지 못했던 생생한 장면을 자세히 한참을 보았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나의 바다, 우리의 미래'라는 컨셉으로 해양 문화, 해양 역사·인물, 항해 선박, 해양 생물, 해양 체험, 해양 산업, 해양 영토, 해양 과학 등 해양의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역삼각형 모양의 외관은 물방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건물은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었다.

국립해양박물관 야외전시장

하늘공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야외 상설 전시를 보기 위해 부출입문을 나섰다. 주차장에 전시된 돌고래 급 잠수정을 보고 빨간색과 녹색의 등부표(燈浮標)를 지나 아라파니호에 도착했다. 수변공원을 따라 잠시 걷다 보면 등롱을 만나게 된다. 1998년 설치한 부산항 남방파제등대에서 사용하던 것을 2014년 부산항대교 건설로 철거되면서 등롱만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이전 설치했다. 몇 걸음 더 나가면 한국인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강동석의 요트 선구자Ⅱ가 당당하게 서 있다. 그 바로 옆에는 '원양어업 진출 기념비'가 강인한 자태를 느끼게 한다. 한국 원양어업의 시작은 1957년 지남호가 부산항을 출발하여 인도양으로 출항했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60주년이 되는 해에 기념비를 건립했다.

원양어업 6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원양어업 진출 기념비 • 부산시

4. 동삼동패총전시관

해양교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패총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동삼동패총전시관까지 걸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20분 거리다. 버스를 타면 세 코스를 와서 한국해양대학교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동삼동패총전시관은 한국해양대학교 입구에 위치한다. 주차장은 차량 두 세 대를 세울 수 있다.

동삼동패총전시관 전경

동삼동패총전시관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담한 로비에 안내소가 만들어져 있다. 왼쪽으로 난 입구부터 관람을 시작한다. 제1전시실에는 전국의 신석기 유적을 소개하고, 동삼동패총 발굴 경과를 사진으로 보여준다. 영도에는 영선동패총, 청학동패총, 동삼동상리패총, 동삼동패총, 조도패총이 발견되었다. 이 중 동삼동패총만 온전히 유적을 유지하고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전시실 마지막 공간에는 패총 유적을 그대로 옮겨 한 벽면을 가득 채웠다. 동삼동패총 퇴적층 일부를 경화처리하여 전시한 것이라고 한다. 그 아래 비밀 전시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서랍에는 조개, 토기, 뼛조각 모형이 있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했다.

조개가면과 흑요석

제2전시실에는 동삼동패총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동삼동패총전시관에서 대표적인 유물은 조개 가면이다. 한국에서 이곳만 유일하게 발굴된 유물이라는데, 조개를 보면 미소가 절로 생긴다. 눈 두 개와 큰 입이라고 생각되는 구멍이 뚫려있다. 조개의 크기는 손바닥보다 작다. 마을 제사나 축제 때 의례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조개로 만든 팔지도 1,500여 점이나 발굴되었다. 동삼동패총에서만 발견된 또 다른 유물은 그물모양이 찍힌 토기다. 당시 그물을 사용해 어업에 종사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동삼동패총에서는 흑요석이 발견되었다. 용암이 굳어서 된 흑요석은 단단하여 여러 가지 석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흑요석은 한국에 없는 암석이라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한다. 일본 규슈지역에서 제작한 조몬토기도 발견되어 동삼동패총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본과 교류를 활발히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삼동패총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의 조개 가면

전시관 관람을 마치고 정문 반대쪽으로 난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면 왼쪽에 넓은 잔디밭이 있다. 이곳이 동삼동패총이 묻혀 있는 자리다. 8,000년 전 시작되었다는 신석기 문화부터 현재까지의 타임머신이 저 속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 모습은 너무나 달라졌지만, 어업을 한다는 삶의 방식은 그대로인 것이다.

동삼동패총은 1930년대 일본인에 의해 최초로 발굴된 이래 사적 제266호로 지정되어 있다. 패총은 신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 동삼동패총은 4,000여 년에 걸쳐 형성되어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여러 차례 발굴을 진행한 후,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 동삼동패총전시관을 개관했다. 영선동패총, 조도패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발굴 전 이미 훼손된 반면 동삼동패총은 발굴 후 그 자리를 그대로 덮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들어선 조도패총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이 2007년 '조도패총 유적지'를 기념한 비석을 세웠다. 동삼동패총전시관에서 1km를 직진해서 쭉 걸어가면 해사대학 건물과 마주친다. 우측으로 돌아 50m가량을 더 가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비석이 우뚝 서 있다. 영도와 조도의 지형을 그리고 그 안에 이 비석을 세우게 된 배경을 써두었다. 29기 항해기관학과 졸업생들이 졸업 30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하며 세웠다. 그 덕분에 조도에 패총이 있었다는 흔적을 하나라도 남기게 되었다.

영도에는 영도 속의 섬으로 조도가 있다. 조도(朝島)는 아침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치섬으로 현재 부른다. 한국해양대학교가 들어서면서 방파제를 건설하여 조도를 영도와 연결시켰다.

2007년 세워진 조도패총 유적지

1973년 조도가 한국해양대학교의 신축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유적지 대부분 오래전에 많이 소실되었고, 공사 중 유실되기도 해서 유적의 규모와 성격은 불투명했다. 조도패총 위에 한국해양대학교가 들어서면서 조도에 있던 패총유적 중 일부와 유물은 동삼동패총전시관으로 옮겨졌다.

5. 동삼 어촌마을
도시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생동감 넘치는 하리항

동삼 어촌마을은 동삼동패총전시관과 이어져 있다. 동삼동패총전시관 정문이 아닌 반대편 문으로 나와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바다를 향해 만들어진 작은 광장이 있다. 광장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동삼동패총이 묻혀 있는 잔디밭이다. 담장을 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바

동삼 어촌마을 전경

깥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가면 동삼 어촌마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동삼하리항 공영주차장이 있어 차량을 가지고 와도 주차 문제는 없다. 버스를 탄다면 하리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마을에 들어서면 수족관마다 생선과 해삼물이 담겨 있는 횟집촌이 방문객들의 미각을 자극한다. 왼쪽으로 돌아가면 '부산시수협 동삼어촌계 동삼어촌체험 휴양마을'이라고 크게 이름 붙여진 에메랄드빛 바다색으로 외관을 한 건물이 있다. 1층은 동삼어촌체험장, 2층은 동삼어촌계 사무실이다. 그 앞으로 펼치진 항구가 하리항이다. 하리항에는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선상 낚싯배와 낚시인들을 태워 나르는 여객선도 한편에 대기하고 있다. 하리항에서 동쪽을 보면 고층 아파트 단지가 생경한 경관을 제공한다.

동삼동(東三洞)은 동쪽에 세 개의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리, 중리, 하리마을로 구성된 동삼동은 영도 땅의 절반을 차지한다. 영도 주변 바다는 많은 고기들이 모여들어 천혜의 어장을 이루었다. 동삼 상리는 웃서발, 동삼 하리는 아래서발이라고 했다. 서발은 어장(漁場)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은 과거에 있었던 모래나 갯벌 해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동삼동 일대는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마을의 어민 대부분은 옛날부터 이어온 어업방식, 즉 원시 어로를 유지한다. 동삼동패총의 유적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신석기시대부터 어업을 해왔다. 지금은 도시로 변해버린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업을 이어가고 있다.

어촌마을이 살아가는 법

동삼어촌계 사무실은 이전 몇 차례 방문했었다. 어촌마을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 왔지만, 어촌생활은 생소했다. 동삼어촌계 사무실에는 어촌계를 총괄하는 어촌계장 1인, 행정 사무장과 체험마을 사무장 각 1인이 근무하고 있다. 하리항에 있는 동삼어촌계는 상리마을, 중리마을, 하리마을의 어업인들이 조직한 것으로 수협과 연결된다.

동삼 어촌체험 휴양마을. 1층은 동삼어촌체험장, 2층은 동삼어촌계 사무실이다.

어민과 해녀로 구성된 동삼어촌계는 매달 25일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어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한다. 어민들이 고령화되고, 어민 수도 줄어드는 데다 도시 속에 있는 어촌이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하리항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을 만날 수 있다. 어민 수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선원과 어업을 함께 하고 있다.

전복, 넙치, 감성돔 등 어린 물고기를 매년 영도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도 이 회의에서 결정한다. 치어들이 무럭무럭 자라 영도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물고기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심는 등 바다 목장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깨끗한 바다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화사업도 진행한다.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무단으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리마을의 해녀들

하리항에서는 해녀들을 만날 수 있다. 동삼동패총전시관에서 바다로 난 광장으로 나왔을 때 왼쪽에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다. 컨테이너 밖에 쳐진 줄에 해녀복이 여러 벌 걸려 있어 이곳이 해녀들의 탈의실이자 작업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해녀들도 동삼어촌계의 계원이다. 부녀회를 조직하고 회장도 선임한다. 영도는 제주도에서 출항한 해녀들이 정착한 곳으로 약 100년의 해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현재는 1세대와 2세대를 이어 3세대가 조업하고 있다. 영도에 등록된 해녀는 약 60여 명이지만 실제 활동하는 해녀는 훨씬 적다고 한다. 나이가 들고,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수산물도 감소하다 보니 아쉽게도 물질을 쉬거나 중단한 분들이 많다.

물질은 고된 작업이다. 부녀회장님은 그래서 해녀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몇 년 뒤에는 동삼동에서 해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바다로 물질을 나가거나 야외 장사를 하지 않는 날에는 대부분 병원에 다닌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몸이 많이 상한 탓이다.

해녀들은 봄에 해삼, 전복, 성게를 채취하고 7~8월에 말똥성게를 잡는다. 한 달 중 바다 물질이 가능한 15일만 바다에 들어간다. 안전을 위해 2개 조로 나눠서 1주일씩 물질을 하고, 1주일은 채취한 해산물로 장사를 한다. 하리항의 해녀들이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고 싶다면 태종대 내에 있는 태원자갈마당으로 가면 된다.

하리 해녀들의 작업장

동삼 어촌체험 휴양마을

동삼 어촌체험 휴양마을 1층에는 어촌체험장이 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진생선살로 어묵만들기, 해초 비누만들기 체험은 사전에 단체 신청을 하면 체험이 가능하다. 대학교와 연계해 '태종대 곰피식초'를 개발하기도 했다. '동삼 어촌체험 휴양마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고, 마을의 일상이 담긴 정겨운 사진들도 볼 수 있다.

하리항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시를 즐긴다. 바지형 해상 낚시터에

서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손쉽게 낚시를 즐길 수 있다. 얼마 전 지인은 가족들과 생전 처음 낚시라는 것을 체험하러 이곳에 왔다. 아무것도 준비해 올 것이 없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정말 그냥 갔다. 필요한 것은 동삼어촌계 유어장 사무실에서 구입하고, 배에 올라 낚시터로 향했다. 다들 낚시는 처음이었지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며 신기해했다. 잡은 고기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단다. 바다는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울 수 있으니 겉옷을 꼭 챙기고, 햇볕에 오랫동안 있어야 하니 모자와 선크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낚시터에는 화장실과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다.

전문 낚시객들을 위한 유람선도 운영한다. 하리항에서 인근 무인도인 생도, 나무섬 등으로 전문 낚시객들을 데려다준다. 물론 약간의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 선상낚시도 즐길 수 있다. 하리항에는 여러 척의 낚싯배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고기도 많이 잡고

하리항에 가면 오감으로 어촌마을을 만날 수 있다. 음력 3월 2일이면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가 열리는데, 어촌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마을 사람들의 행사로 시작한 풍어제는 이제 시민들도 참여하는 축제가 되었다. 풍어제는 1964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이어왔다.

동삼어촌계의 풍어제는 동해안별신굿을 이른다. 부산부터 강원도까지 동해안의 어촌마을에서 풍어를 빌며 행했던 전통문화다. 1985년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동해안별신굿은 마을 어른들이 지내는 동제와 달리 세습 무녀들이 의식을 진행한다. 3~5월, 9~10월 사이에 대부분 행해진다.

6. 태종대
갖가지 이야기가 숨어있는 보물섬

부산에는 태종대가 있다

하리항에서 태종대까지는 1km 거리로 걸어서 15분 정도 소요된다. 하리항 입구에서 버스를 타면 두 개 정류장을 지나므로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하차해서 5분을 걸어야 태종대 입구에 도착한다. 태종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라 버스 주차장을 따로 갖추어둘 만큼 주차장이 넓다. 차량을 가지고 와도 불편함이 없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태종대를 방문한다면

태종대공원 입구

태종대공원 안내도 • 김윤미

차량을 가지고 태종대를 돌아볼 수 있다. 차량 한 대당 2,000원의 요금을 내면 오후 11시까지 태종대 관람이 가능하다. 성수기인 6~8월 오후 8시부터 차량이 입장할 수 있다.

태종대 입구에는 태종대라고 각석된 '태종대유원지비'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태종대 관광안내소에서 태종대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받아 눈으로 둘러보는 것도 좋다. 태종대 입구에서 오르막을 잠시 오르면 넓은 광장이 나타난다. 4.3km의 산책로를 걸어보는 것을 권하고 싶지만, 힘들다면 다누비 열차가 있다. 15분 간격으로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부산 사람들에게 혹은 부산이 아닌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산하면 떠오르는 곳을 물으면 어디라고 할까. 해운대 혹은 태종대가 아닐까. 태종대가 이렇게 관광지가 된 것은 1970년대였다. 1967년 건설교통부가 유원지로 고시하고 뒤이어 1969년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태종대유원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4년이었다. 지금도 해안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출입할 수 없다. 태종대(太宗臺)는 신라 태종무열왕이 방문했다는 데서 유래하지만, 태종대를 방문하는 사람은 이러한 설화보다는 해안 절경과 다양한 식생이 자라고 있는 울창한 숲을 먼저 느끼게 된다.

자갈마당에 펼쳐지는 해녀들의 밥상

태종대 산책로를 한 바퀴 돌면 다시 다누비 열차가 있는 광장에 이른다. 윗길과 아랫길이 있으니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지만, 이번에는 다누비 열차가 지나는 코스대로 아랫길을 선택한다. 5분가량 가다 보면 태원자갈마당 이정표가 나온다.

태종대 근처에는 자갈마당이 세 곳 있다. 태종대에 들어가기 전 감지자갈마당이 있고, 태종대 안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태원자갈마당과 등대자갈마당이 있다. 대부분의 해변이 모래사장인 데 반해 이곳은 조약돌이 깔린 작은 해변이라 새로운 경치를 느껴볼 수 있다. 자갈 위로 파도가 치면서 쓸려 내려가는 소리가 이색적이다. 자갈마당에서는 유람선도 탈 수 있는데,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돌며 바다에서 바라보는 영도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준다.

태종대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 감지자갈마당부터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감지자갈마당은 조개구이촌이 형성되어 늘 사람들이 붐빈다. 감지해변을 가로질러 얕은 구렁을 올라가는 감지해변 산책로도 가볼 만한 길이다. 자연학습장이 만들어져 있어 천천히 걸으며 감지해변을 감상해볼 수 있다.

태종대 입구에 들어서면 만나는 태원자갈마당은 동삼어촌계 해녀들의 노천가게다. 몇 명이 되지 않는 해녀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교대로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한다. 기둥만 세운 천막 아래 돗자리를 깔고 자그마한 상에 해

산물을 차려 내어준다. 바다 앞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향이 담긴 해산물을 한입 베어 물면 제대로 바다가 느껴진다.

태원자갈마당에서 산책로를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영도등대를 보게 된다. 영도등대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는 곳에 등대자갈마당이 있다. 이곳은 태원자갈마당보다는 노상 식당이 크게 펼쳐져 있다. 태원자갈마당은 일부러 찾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등대자갈마당은 영도등대를 오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누구든 발길을 향하게 된다.

자살바위의 유명세를 지운 전망대

태원자갈마당에서 해녀들의 식당을 만났다면 다시 도로로 긴 계단을 올라와야 한다. 도로를 따라 전망대까지는 전체 해안산책로의 중간 지점이니 2km는 족히 걸어야 한다.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광장으로 돌아가서 다누비 열차를 타는 것도 방법이다. 전망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두 아이를 안은 어머니 조각상이 보인다. 모자상이라고 이름 지어진 작품인데 이곳이 자살바위로 유명했던 슬픈 사연과 관련이 있다.

전망대에 있는 모자상

모자상 뒤로 원형의 건물은 100m가량의 절벽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1970년대 이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해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려고 왔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 자살바위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태종대 관리소에서는 이곳에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품어주는 석상을 세웠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인 어머니를 보면서 제발 마음을 고쳐먹기를 바랐다고 한다.

전망대 안으로 들어가면 드넓은 바다가 보인다. 바다 가운데에 작은 돌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일명 주전자 섬이다. '주전자 같이 생겼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정식 명칭은 생도다. 생도는 우럭, 감성돔 등의 고급 어종이 잘 잡히는 곳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성지다. 이곳으로 갈 수 있는 배가 동삼동 하리항에서 출발한다.

영도등대와 신선대 바위

전망대에서 200m가량 거리에 영도등대가 있다. 나무계단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야 한다. 산책로 외에 숲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영도는 지뢰가 매설된 곳이 많다. 제거를 계속하고 있지만 많은 수가 남아있다고 한다. 5분가량 바다를 향해 가면 '해기사 명예의 전당'이 나온다. 해양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위한 기념탑과 열네 명의 해기사 및 해군 제독의 흉상이 있다.

바다로 난 계단을 더 가면 영도등대가 모습을 보인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반원에 뾰족한 원불이 걸린 조형물이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다. 무한의 빛이라는 작품명은 바다와 하늘, 태양과 동백꽃을 상징하며 뾰족한 침은 등대의 빛을 상징한다. 이 작품을 지나면 영도등대와 항로표지관리소가 있는 곳에 도착한다. 영도등대는 1906년 목도등대란 이름으로 설립된 부산 최초의 유인등대다. 2004년 등대가 노후하여 포항 등대박물관으로 일부를 이건하

영도등대 전경.
인근에 있는 신선대를 포함하여, 이 어간은 명승 제17호로 지정되었다.

고, 지금은 새 등대가 부산항을 밝히고 있다.

등대 아래에는 See&Sea 갤러리라는 전시 공간이자 공연 공간이 있다. 바다로 난 계단을 더 가면 짧은 터널을 지나게 되고 해녀촌이 보인다. 이곳이 영도자갈마당이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하니 조심해야 한다. 해산물 한상을 받아 들고 바위 위에 만들어 놓은 평상에서 먹고 있자니 그야말로 '신선놀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영도등대에서 우측 해안 절벽을 보면 평평한 두 개의 바위가 보인다. 한 곳은 신선대(神仙臺) 또는 신선바위, 신선암(神仙岩)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러한 명칭인 붙여진 것은 옛날 이곳에서 신선들이 놀았다고 하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또 다른 너럭바위 위에는 망부석이라 이름 붙인 바위가 우뚝 솟아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왜구에게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던 부인이 돌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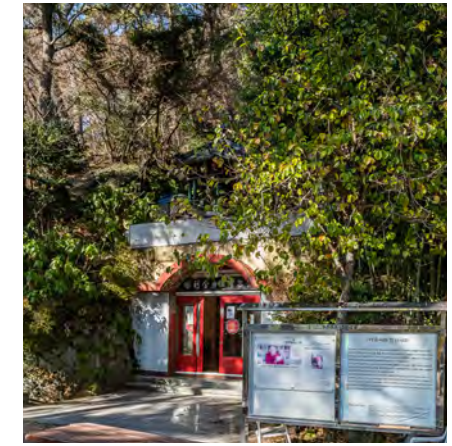
영도등대와 신선대가 있는 이곳은 2005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7호로 지정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으로 된 해식절벽, 그리고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루어 한 폭의 그림과 같다.

태종사, 그리고 일본군 시설

영도등대에서 태종사까지는 걸어서 10분이 좀 넘게 걸린다. 태종사는 수국축제로 유명하다. 세계 각국의 수국을 수집해서 약 30종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태종대는 공립공원인데 개인 사찰이 있는 것이 신기했다. 부산시에서 태종대를 유원지로 조성하기 이전인 1972년 창건했다고 한다.

태종사에는 대웅전, 산신각, 진신사리탑이라는 종교 의례 건물이 있다. 이 중 진신사리탑 건물이 독특한 구조다. 입구에 들어서면 콘크리트 두께에 놀라게 된다. 다각형의 공간은 천장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여러 개의 굴뚝이 만들어져 있다. 지하 벙커같이 견고하고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느낌도 온다. 사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한다. 일본군의 군사시설이었다고 추정된다.

태종사 건너편에도 일본군의 군사시설로 짐작되는 시설물이 있다. 태종사에서 큰길로 나오면 편의점이 있고 그 뒤편에 위치한다. 오솔길을 따라 계곡으로 내려와 개울을 건너면 해가 들지 않는 곳에 콘크리트 건축물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여기저기 파란 이끼가 잔뜩 끼어있고, 입구는 벽돌을 쌓아 들어갈 수 없게 해두었다. 2013년 문화재청에서 조사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영도 일대에는 이 외에도 일본 군사시설의 잔해들이 곳곳에 있다고 한다.



태종사 진신사리탑

7.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숨비소리'가 뭐예요?

영도해녀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태종대에서 영도해녀문화전시관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면 된다. 1006번을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그 외는 갈아타고 부산남고교삼거리에서 하차한다. 큰 도로를 건너고 해녀벽화거리를 지나 5분 정도면 영도해녀문화전시관에 도착한다.

해녀벽화거리를 지나며 해녀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표현한 벽화를 보게 된다. 채취한 해산물을 한 가득 안고 있는 해녀, 물질 후 밖으로 나온 해녀들이 불을 쬐며 둘러앉아 있는 모습, 물속에서 바다속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물질하는 해녀, 물 밖으로 먼저 나와 테왁을 끌어안고 바닷속에서 아직 물질하고 있는 친구를 기다리는 해녀 모습도 있다.

해녀벽화거리를 지나오면 3층의 영도해녀문화전시관이 자태를 드러낸다.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입구에서 가장 먼저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은 해녀상이다. 해녀상은 제주도에서 제작하여 이곳에 기증했다고 한다. 제주도와 영도의 인연이 그만큼 깊다. 제주도의 해녀 문화는 201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전경. 1층은 해녀촌, 2층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해녀촌이다. 멍게, 돌멍게, 소라, 해삼, 고동이 수족관에 가득하다. 멍게와 돌멍게는 달랐다. 돌멍게는 생긴 모습이 낯설다. 돌멍게는 멍게보다 바다향이 아주 진하다. 설명은 어려우니 먹어봐야 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전시관이다. 천정에는 물질하는 해녀상이 바다를 유영하고 있다. 그 아래 물질하는 사진과 해녀들의 얼굴 사진이 세워져 있다. 한 가운데 자갈마당에는 물질하고 해안으로 나오는 해녀, 잡은 해산물을 빨간 통에 담고 있는 해녀, 해산물을 손질하고 있는 해녀들 사진과 모형이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입었던 옷도 전시되어 있고, 해녀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영상실에서 볼 수 있게 해두었다.

숨비소리를 들려주는 코너도 있다. 해녀들은 바다 깊은 곳,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곳에 맨몸으로 들어간다. 오랫동안 숨을 참다 물질이 끝나면 바다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뱉는다. 이 숨소리는 거칠고 깊고 클 수밖에 없다. 생명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큰 한숨을

숨비소리라 한다.

해녀의 역사를 소개한 코너를 보면 제주 해녀들 이야기가 적혀있다. 해녀는 제주에서 생겨난 직업이다. 제주 해녀들은 다른 지역으로도 멀리 물질을 나갔다. 이것을 출가 물질이라 불렀는데, 영도에도 제주 출신의 해녀들이 왔다. 영도 사람들에게 물질을 가르쳐주며 제주도 해녀들은 영도에 살기 시작했다. 제주 출신이 영도에 많다 보니 영도에는 제주은행이 있다. 다른 지역 이름을 붙인 은행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흔하지도 않다.

성게김밥을 먹어봤는가

영도해녀문화전시관이 있는 곳은 중리항이다. 빨간등대가 중리항의 항구를 지키고 있다. 한편에는 '중리노을전망대'가 있으므로 해 질 무렵에 이곳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석양을 감상해 보는 것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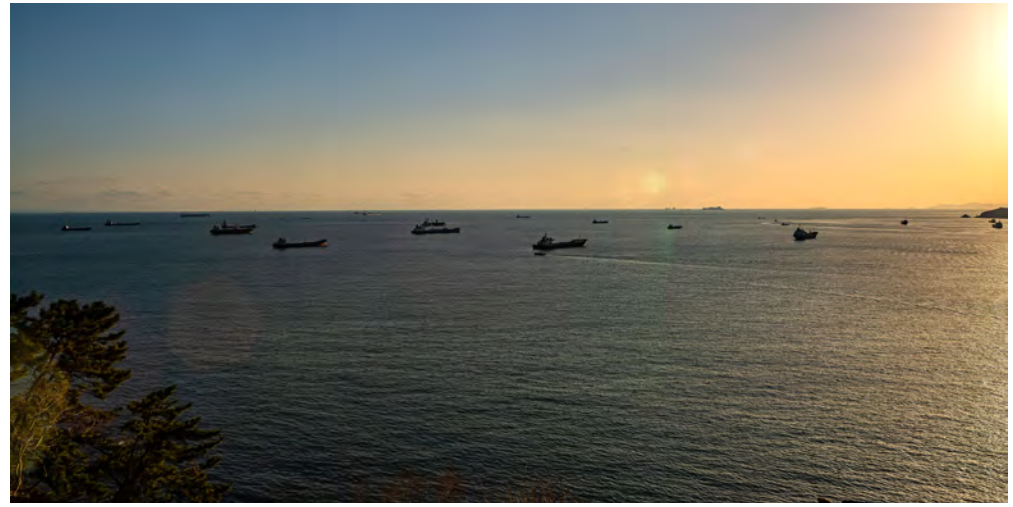
영도 동삼동에는 하리와 중리항에 해녀들이 있다. 하리의 해녀들은 태종대 내의 자갈마당에서 야외 식당을 펼치고 있고, 중리의 해녀들은 중리항에서 장사를 했다. 그러다 영도해녀문화전시관 1층에 해녀촌이 만들어지면서 이곳에서도 해녀들이 모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중리 해녀들의 야외 식당은 영도해녀문화전시관으로 옮겨졌다.

1층에서 여러 가지 해산물 중에서 먹고 싶은 것을 고른다. 사람들이 많다면 전부 한 접시씩 맛보면 좋을 테지만, 혼자와도 선택할 메뉴가 있다. 해산물 한 상을 받아 전시관 앞 테라스에서 맛보는 사람들도 있고, 해안가로 나와서 돗자리를 깔고 태양을 맞으며 먹기도 한다. 성게가 잡힐 철에는 김밥과 성게를 맛볼 수 있다. 일명 성게김밥이다. TV에도 여러 번 방영되어 유명세가 있는 탓인지 사람들이 제법 찾는다.

영도에서 석양을 만나면

아침부터 영도 여행을 시작했다면 이제 해가 질 시간이다. 영도해녀문화전시관에서 석양을 보기 위해서는 흰여울문화마을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걸어서는 30분이 넘게 소요되니 흰여울문화마을까지 단숨에 가려면 버스를 타는 것이 좋겠다. 부산남고등학교 정류장에서 출발해 백련사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흰여울문화마을의 시작이자 끝 지점인 흰여울전망대는 높은 절벽에 있다.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도 저 멀리 보인다. 해가 질 무렵에 이곳에 서 있다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볼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큰 배들이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근처의 바다 위에 정박해있는데, 이것이 또한 장관이다. 이것을 묘박지(錨泊地)라고 한다.



영도 앞바다의 묘박지 풍경

6
코스

물길이 접하는 길목,
낙동강 어귀에서 바다와 만나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있는 사하구와 남해를 품은 서구 바다는, 서쪽으로 낙동강 하구의 하단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부민포에 이른다. 옛적에는 그사이에 크고 작은 포구와 어촌이 형성되었고, 해안 관방의 요지로서 다대포나 서평포 등 군사 진지가 자리 잡은 곳이었다.

6 코스

장림포구 → 다대포 해수욕장 → 다대진성 터 → 응봉 봉수대 → 감천항 → 송도해수욕장 → 천마산 석성 봉수대 → 남부민방파제

물길이 접하는 길목,
낙동강 어귀에서 바다와 만나다

사하구와 서구는 현재 각각 독립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한 몸처럼 지내어 온 곳이다. 삼국시대에 대증현(大甑縣)에 속했고 통일신라 경덕왕 때 대증현이 동평현(東平縣)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동평현은 처음에 동래현의 속현이었다가 고려 현종 때 양주(梁州, 현재의 양산)의 속현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고려 시기 동평현이 낙동강을 통해 양산과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조선 전기에 동평현은 다시 동래현의 속현이 되었고, 1547년(명종 2)에 동래현이 동래부로 승격되면서 동평현은 동래부에 흡수되어 동평면이 되었다. 18세기에 사하구와 서구 지역은 사천면(沙川面)에 속하게 되었다. 사천면은 사하구·서구·사상구 및 중구와 북구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천면은 상단(上端)과 하단(下端)으로 구분되었는데, 현재의 사하구와 서구는 모두 하단에 속하였다. 1866년(고종 3) 상단과 하단은 각각 사상면(沙上面)과 사하면(沙下面)으로 독립하였는데, 이때도 사하구와 서구는 함께 사하면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하면의 일부는 부산부가 되고 일부는 동래군에 남게 되었는데, 1942년에 완전히 부산부로 편입되었다. 해방 후 직할시가 되면서 서구가 되었고, 사하구 지역에는 사하출장소가 생겼다. 서구에서 사하구가 분리된 것은 1983년의 일이니, 아직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셈이다. 이것만 보아도 사하구와 서구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지형적으로 보아도 사하구와 서구는 구덕산과 천마산, 감천만을 공유하고 있다. 또 어업의 측면에서 보면 남해안에 있으면서도 낙동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사하구와 서구의 바다는 서쪽으로 낙동강 하구의 하단포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부민포에 이른다. 옛적에는 그사이에 크고 작은 포구와 어촌이 형성되었고, 해안 관방의 요지로서 다대포나 서평포 등 군사 진지가 자리 잡기도 했다.

근대가 되면서 사하구와 서구의 해안에는 다대포항, 감천항, 부산남항 등 거대한 항만이 자리 잡게 되었다. 구불구불한 옛 해안선은 사라지고 매립된 땅에 직선의 부두가 만들어졌다. 낙동강하굿둑은 강물의 유입을 막아 자연 환경을 바꾸고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포구마을의 모습도 크게 바뀌었다. 어떤 곳은 여전히 많은 어선이 드나들고 있지만,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혹은 관광지가 들어서서 어촌의 모습을 잃기도 하고, 철조망으로 바다와 격리되기도 하고, 심지어 바다가 메워져 육지가 되기도 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마을의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하구와 서구의 산천과 사람들의 옛 모습을 그려보고, 현장에서 그들이 겪었던 변화의 흔적을 살펴보았다. 또 지금도 여러 곳에서 변화가 진행 중임을 목격했다. 사하구와 서구 사람들이라면 어떤 변화를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 미래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1. 낙동강 하구의 네 포구 이야기

낙동강 하구의 네 포구와 장림포

사하구의 낙동강하굿둑 이남에서 다대포에 이르기까지는 네 개의 포구가 있다. 이를 북쪽에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하단포 - 장림포 - 보덕포 - 홍티포 순서가 되는데, 현재의 포털사이트 지도를 보아도 물길이 움푹 들어가 있으므로 네 포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여행은 장림포(長林浦)에서 시작한다. 장림포는 장림천 하구에 위치한 포구마을이다. 강변에서 원삼국시대 무렵의 패총이 발견되었고, 삼국시대의 토기편도 발굴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장림 지역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들어와 산 것으로 보인다. 1469년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따르면 이곳에 염전이 있었다고 한다.

수군진인 다대(포)진이 현재 다대포 쪽으로 이전되기 전에는 장림포에 위치했는데, 그래서 '고다대(古多大)'라는 지명이 전하기도 한다. 또 『충무공전서』에는 부산포해전 바로 전날인 10월 4일, 장림포에서 우리 수군이 일본군에 맞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1953년에는 장림동과 구평동 일대에 음성나환자촌이 들어서기도 했는데, 1966년 장림국민학교가 개교하자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이 나환자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바람에 나환자 자녀들은 별도 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1970년에는 마을 주민들이 나환자촌을 습격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산복도로와 대티터널 공사로 인한 철거민들이 장림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였고, 1972년 신평·장림공단이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를 확대하여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와 상가가 형성되면서 현재의 경관을 가지게 되었다.

장림동은 크게 세 개의 마을로 구성되는데, 장림천 유역을 안장림, 봉화산 근처를 바깥장림(혹은 외장림)이라고 하며, 안장림 남쪽에 보덕포가 있다.

대체로 현재의 장림1동에 해당하는 안장림은 장림 본동마을로, 장림포구를 끼고 있는 어촌으로, 개항기 이후부터 김 양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장림천 하구에는 지금도 장림포구가 있는데 장림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김 양식을 하거나 혹은 낙동강 하구의 섬인 장자도·진우도(진호도) 등에서 숭어·꽃게·전어·뱀장어·도다리·넙치 등을 어획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어촌 분위기는 크게 퇴색되었다.

장림2동에 있었던 바깥장림은 원래 농지였다가 부산 시내에서 다대포로 가는 도로(다대로)가 뚫리면서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된 것이다. 이곳에는 예전에 감나무가 많아서 감나무골이라는 지명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공장과 주택가,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을 뿐이다.

장림천은 대부분 복개가 되어 있는데, 하구가 정비되면서 현재 보림초등학교 근처부터는 노출되어 있다. 장림천 하구는 과거 각종 폐수가 흘러들어오는 곳이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1990년 이곳에 장림 하수처리장이 들어섰는데, 2006년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장림천 하

장림포구 전경(2022). 일명 부네치아라고도 한다. • 비짓부산

구에는 호우 시 빗물을 받아내기 위해 장림유수지가 있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이곳에 폐수를 여과하여 흘려보내는 저류조를 만들고, 수문을 통해 오염수가 바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지 않게 그리고 이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2014년 장림생태공원으로 개장하였던 것이다.

장림포구 일대는 2012년부터 '포구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이 정비되었다. 포구 경관이 정비되어 기존의 포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책로·기념품 상가·각종 편의시설·주차시설·예술조형물·전망대 등이 차례로 들어섰다. '부산의 베네치아' 줄여서 '부네치아'는 이곳을 일컫는 별명이 되었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부네치아가 된 장림포구에 도착하니 포구에는 어선들이 죽 늘어서 있고, 한쪽 구석에 수리조선소의 건선거와 크레인이 보인다. 포구 좌우로 늘어선 알록달록한 건물이 우선 눈에 띄는데, 아래쪽은 어구 창고를 꾸민 것이고, 위쪽은 상점이다. 포구 남쪽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어묵 공장이 여럿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서 직접 어묵 등 수산물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장림포구 남서쪽 끝에 부네치아 선셋전망대가 있다. 말 그대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인데, 낙동강 하구와 김해평야 방면으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져 있어 꼭 낙조 시간이 아니라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 전망대 1층에는 특산품 판매점, 2층에는 사하구 지역의 어업이나 수산물 가공 등에 대해 소개하는 홍보관이 들어서 있다.

보덕포와 홍티포

장림포구에서 남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보덕포(保德浦 혹은 補德浦)가 나온다. 장림동을 이루는 세 마을 중의 하나로, 보득포·부득포·버득포·비득포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곳은 예전에 한적한 어촌이었으나, 2002년 바다를 매립하여 무지개공단을 건설하면서 포구는 사라지고 마을도 옛 모습을 잃었다. 다만 육지로 들어온 물길 주변으로 난 도로나 다리에 '보덕포길'이나 '보덕1·2교' 등의 이름이 붙어 있어 마을의 옛 기억을 전한다.

보덕포를 지나면 장림1동에서 다대1동으로 접어든 것이다. 여기서 걸어서 20분 정도 남쪽으로 가면 홍티포[虹峙浦]에 이르게 되는데, 주변이 삭막한 공장지대지만 도보 내지는 자전거 여행객을 위한 데크길이 깔려 있다. '홍티[虹峙]'는 한자 그대로 '무지개 고개'라는 뜻인데, 홍티에서 아미산을 넘어 다대포로 가는 고갯길의 이름이라고 한다. 홍티마을을 '무지개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근의 무지개공단 역시 여기서 이름을 딴 것이다. 어촌이 거의 사라진 보덕포와 달리 홍티포에는 제법 많은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다. 이 지역의 홍치(홍티)어촌계에서는 주로 김 양식이나 숭어·가자미·도다리 등을 어획하고 있다고 한다. 포구 뒤쪽 공장지대 너머 아미산 자락에 주민들

홍티포 근처에 있는 홍티아트센터

이 사는 마을과 경작지가 있다.

필자는 가끔 홍티포 근처의 홍티아트센터에서 전시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홍티아트센터는 부산문화재단 주관으로 2013년 3월 개관한 문화공간이다. 앞서 이곳은 설치미술을 중심으로 매년 상·하반기 예술인들을 선정하여 주거 및 작업공간을 대여해주고 있다. 작가들의 주거 및 작업공간은 예술센터 인근의 홍티예술촌이라는 별도의 건물이 있고 '홍티끄티'라는 전시 공간도 있다. 예술센터의 전시 공간에서는 거주 작가들의 작품을 릴레이 전시하거나 교류전을 통해 해외 예술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아트센터 건물뿐 아니라 주변에 홍티문화공원이라고 하여 녹지 공간을 형성하고 야외에 조형물을 전시하여 삭막한 공장지대 한가운데 휴식 같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2. 다대포해수욕장과 구름 지는 몰운대

다대포해수욕장과 해변공원

홍티에서 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저 멀리 노을정이 보인다. 다대포해수욕장 일대는 낙조(落照) 명소로 부산 시내서도 손꼽히는 곳이지만, 특히 저녁노을을 감상하기 좋은 서쪽 끝에 정자를 세워둔 것이다.

노을정 조금 못 미쳐서 아미산전망대로 올라가는 아미산 노을마루길이 있다. 아미산전망대는 2011년 개관하였으며 아미산 자락이 남서쪽으로 뻗은 끝자락에 있다. 전망대 건물 내부는 전시관과 매점이 들어서 있고, 건물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 풍경 • 정영현

외부로 긴 비탈길이 나 있어 꼭대기에서 주변 경관을 둘러볼 수 있다. 전망대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면 다대포 사람은 자기들만 이런 걸 보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이다. 여기서는 북쪽으로 낙동강 하구, 서쪽으로 가덕도와 부산신항, 동쪽으로는 몰운대까지 볼 수 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길이 900m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예전부터 여름 물놀이객이 많이 방문하던 공간으로 1970년에 개장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낙동강하굿둑 건설로 모래 유입이 중단되어 모래사장이 점차 깎여나가고 낙동강 하구의 공업지대에서 폐수가 방류되어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해수욕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래사장 안쪽에 해변공원이 조성되었다. 해변공원 일대에는 숲과 잔디밭 사이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물길 위로 다리가 놓여 있다. 모래사장과 해변공원에는 다양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낙조분수가 조성되어 다대포의 명물이 되었다. 여름에 물놀이를 위해 다대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도 있지만,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1872년 군현지도』 속 「다대진지도」의 몰운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구름 지는 곳, 몰운대

몰운대(沒雲臺)는 다대포해수욕장 동쪽에서 바다를 향해 비죽이 나와 있는 반도이다. '구름이 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반도의 끝이 두 개로 갈라져 각각 곶을 이루고 있는데, 보통 서쪽에 있는 것을 몰운대, 동쪽에 있는 것을 화손대(花孫臺)라고 한다. 몰운대는 『1872년 군현지도』의 「다대진지도」와 「서평진지도」에도 두 개의 곶으로 갈라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대동여지도』에는 이체자로 '沒雲坮'라고 표시되어 있다. 조선 전기에는 '몰운도(沒雲島)'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퇴적이 쌓여 반도가 되었다고 한다. 예전 사진을 보면 아미산과 몰운대 사이에는 잘록한 모래톱만이 있었는데, 해변공원이 조성하면서 연결되는 부분의 폭이 넓어졌다. 또 이 부근에는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된 다대동패총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몰운대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다. 산책로라고 하지만 지형상 전체적으로 경사가 있고 화손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등산을 각오해야 한다.

몰운대 입구에서 동헌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몰운대 시비(詩碑)가 있다. 이 시는 1607년(선조 40) 부임한 동래부사 이춘원(李春元)이 지은 것이며, 비석은 1999년 사하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세운 것이다.

몰운대 시비. 몰운대 입구에서 다대진 동헌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

다대포첨사의 집무 공간이었던 다대진 동헌

다대진 동헌(多大鎭東軒)은 다대진(多大鎭, 다대포진 혹은 다대포첨사영이라고도 함)의 총책임자인 다대포첨사(多大浦僉使)의 집무 공간이었던 건물인데, 이곳으로 옮겨 지어진 것이다. 1895년 군사제도가 개편되면서 다대진이 철폐된 이후에는 1904년 개교한 다대포실용학교의 부속 건물로 사용되었다. 다대포실용학교는 현재 다대초등학교의 전신이며, 다대초등학교가 이전한 이후에는 그 터에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서 있다. 동헌 건물은 1970년 다대초등학교 운동장을 정비하면서 몰운대로 이전되었는데, 이때 '다대포 객사(客舍)'라고 잘못 기재되었고, 1972년 시(市) 지정문화재로 등록될 때도 '객사'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대포 객사'라고 불리다가 이후 이 건물이 동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현재는 '다대진 동헌'으로 정정되었다.

동헌 건물은 현재 단층 누각 같은 형태로 복원되어 있는데, 첨사의 집무 공간이었다면 원래는 벽체와 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옛 사진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건물의 명칭이 적힌 현판을 보니 '수호각(睡虎閣)'이라고 적혀 있다. 한자를 풀이하면 '잠자는 호랑이'라는 뜻이니 '지금은 얌전히 있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운공순의비

동헌 근처에 공원 관리사무실이 있고 오른쪽으로 정운공순의비(鄭運公殉義碑)로 가는 길이 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운공순의비가 있는 반도 서쪽 끝부분(몰운대)은 현재 군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운공순의비는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녹도만호 정운(鄭運, 1543~1592)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그는 1570년 무과에 급제하고 1591년(선조 24)에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좌수영 관할의 녹도만호가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을 맞아 이순신의 우부장으로서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등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한산대첩에서 이어진 부산포해전에서 일본군의 탄환에 맞아 순국하였다. 1796년(정조 20)에 정조는 새로 편찬된 『충무공전서』를 읽다가 정운의 활약과 충절에 감탄하여 병조판서를 추증하고 그의 8세손인 정혁(鄭爀)을 다대포첨사로 임명하였다. 이 비석은 첨사가 된 정혁이 1798년(정조 22)에 세운 것으로, 정운 장군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다대진지도」·「서평진지도」의 몰운대 부분에는 '비각(碑閣)'이라고 작은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정운공순의비의 비각을 나타낸 것이다.

발을 돌려 화손대로 향하였다. 동헌 근처에서 남쪽으로 몰운대전망대로 가는 길이 있고, 거기서 서쪽으로 한참을 가야 화손대가 나오는데, 어느 정

도 등산을 각오해야 한다.

'화손대(花孫臺)'는 한자를 풀이하면 '꽃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유래에 대한 전설이 있을 법한 지명인데 확인할 수 없었다. 화손대는 다대팔경(多大八景) 중 하나로 '화손낙조(花孫落照)'가 꼽힐 정도로 유명한 경승지이다. 다만 '화손낙조'는 화손대가 낙조를 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화손대 너머로 지는 낙조가 아름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화손대 역시 군사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1997년 이후부터 출입이 허용되었다. 그래서 해안 이곳저곳에 포대나 망대 같은 시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개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현재는 사진 촬영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

다대포를 비롯한 부산 지역의 해안 경계가 삼엄했던 이유는 바다를 통해 북한 간첩들이 잠입했기 때문이다. 1983년 12월에는 다대포에서 간첩선이 발각되어 격침되고 두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해수욕장 주변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이 철조망은 군 병력이 철수한 이후에도 남아 있다가 2002년에 대부분 철거되었고, 2007년에 나머지 부분이 철거되었다. 그래도 옛 포대 시설 근처에는 아직 녹슨 철조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손대에서 다대포 동측 해안으로 가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다대포 동측 해안'은 다대포해수욕장과 다대포항 사이에 있는 해변인데, 몰운대 입구의 교통표지판에 그렇게 적혀 있다. 인근 어구(漁具) 가게 주인에게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물어보니 "여기도 다대포해수욕장입니다"라고 하는데, 해수욕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공간이다. 또 여기보다 동쪽에 다대포항이 있으니 '다대포 동측 해안'이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 다대진과 서평진

다대포진과 윤흥신 첨사

다대포진은 조선 시기에 다대포에 있던 수군 진지이다. 조선시대 삼남 지방의 수군은 원래 경상좌·우도, 전라좌·우도, 충청도, 이렇게 총 다섯 명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줄여서 水使)가 관할하였다. 수군절도사영은 각도의 수군절도사가 직접 통솔하는 본영으로, 줄여서 수영(水營)이라고 한다. 부산의 수영이라는 지명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이라 유래한 지명이다. 수군절도사영 아래는 첨사(僉使)가 지휘하는 첨사영이 있는데, 부산 지역의 경우 부산진첨사영이 대표적이다. 첨사영 휘하에는 만호(萬戶)가 지휘하는 만호영이 있었다.

조선 초에는 장림포에 부산진첨사의 휘하의 다대포만호영이 있었다. 조선 전기 어느 시기에 다대진은 현재의 다대포로 이동하였다. 중종 대에 영도에 나타난 왜구(倭寇)를 막아낸 공으로 다대포만호영은 다대포첨사영으로 승급되었고, 정3품의 첨사가 임명되어 계급상 종3품 첨사가 임명되는 부산진보다 상위에 놓이게 되었다.

1592년 음력 4월 14일 부산진을 함락한 일본군은 곧이어 인근의 서평진과 다대진을 공격하였다. 서평진은 다대진 휘하의 만호영으로, 부산포에서

다대포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당시 다대포를 지키는 첨사는 윤흥신(尹興信, ?~1592)이었다.

윤흥신은 중종 대의 권신 윤임(尹任)의 다섯째 아들이다. 을사사화 때 윤임이 제거당하면서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노비가 되었다. 선조 때 아버지 윤임이 복권되면서 노비 신분이 풀린 윤흥신은 무과에 급제하여 무인이 되었다. 1592년 다대포첨사로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윤흥신은 몰려드는 일본군에 맞서 고군분투하였으나 전사하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4년(선조 37) 윤흥신은 선무공신 녹권(宣武功臣錄券)에 원종 1등 공신으로 올랐고, 이후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1757년(영조 33) 동래부사로 부임한 조엄(趙曮)은 충렬사(忠烈祠)에서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및 그와 함께 순국한 사람들에 대한 제사를 모시고 있으나 윤흥신은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엄은 1761년(영조 37)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윤흥신의 충절을 포상할 것을 청하였다. 또 1763년(영조 39)에는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갔을 때 다대포 전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를 명무군관(名武軍官) 이해문(李海文)과 아들 조진관(趙鎭寬)에게 들려주었다.

이해문은 일본에서 돌아와 다대포첨사가 되었으며, 1765년(영조 41)에 윤흥신이 순절한 곳이라 전해지는 다대포 객사 동쪽에 윤공단(尹公壇)을 세웠다. 또한 조진관은 윤흥신의 충절을 기리는 비문을 지었다. 1772년(영조 48)에 조엄은 상소를 올려 임진년을 맞이하여 윤흥신을 동래 충렬사에 합사할 것을 청하였고, 이해부터 충렬사에서 배향하게 되었다. 1854년(철종 5) 연말에 암행어사 박규수(朴珪壽)가 윤흥신을 병조판서로 추증할 것과 시호(諡號)를 내릴 것을 건의하였다. 왕이 이를 허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윤흥신이 병조판서로 추증받은 것은 분명한데, 어떤 시호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으니 아쉽다.

① 첨사윤공흥신순절비와 ② 순난사민비, ③ 의사윤흥제비

윤공단은 「다대진지도」에서도 객사 동쪽에 그려져 있는데, 1970년 동헌이 옮겨질 때 같이 이전하여 현재는 옛 다대진보다 조금 위쪽(윤공단로 112)에 조성되어 있다. 조엄의 아들 조진관이 쓴 비문은 1841년에야 동래부사 홍종응에 의해 '첨사윤공흥신순절비'로 세워지게 되었다. 순절비 좌우로는 윤흥신의 동생 윤흥제를 기리는 의사윤흥제비(義士尹興悌碑)와 임진왜란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순난사민비(殉亂士民碑)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열네 기의 선정비(善政碑) 등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들 비석은 대부분 윤공단을 정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다대진지도」에 그려진 다대포 당산도 현재 윤공단 영역으로 이전되어 있다. 당산이 있던 자리는 현재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항역 근처, 라파요양병

원이 있는 곳(다대동 1074번지)이다. 당산을 옮기게 된 배경이 특이한데, 개화파였다가 친일파로 변절한 박영효(朴泳孝, 1861~1939)가 묏자리로 다대포 당산 터를 사들여 이곳에 묻힌 것이다. 그런데 1958년에 후손이 무덤터를 팔고 시신을 화장하여 선산으로 옮기고 말았으니, 박영효가 다대포에 매장된 기간은 20년이 못 된다.

임진왜란이 종식된 이후 다대진은 무너진 시설을 대대적으로 복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서평진은 다대진으로 합쳐졌다가 훗날 원래 터 근처에 복구되었다. 1654년(효종 5)에는 다대진첨사가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하였는데, 국가의 목장을 관리하는 직무였다. 또 1751년(영조 27)에는 국방 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대진첨사로는 변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무관들만 부임하도록 했다.

1895년 군제개혁으로 다대진은 철폐되었다. 한동안 버려져 있던 다대진은 1904년 개교한 다대포실용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다. 다대포실용학교는 1940년대에 다대포공립국민학교에 흡수되었다. 1952년에 다대국민학교, 1996년 다대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다대초등학교는 200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그 터에는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서 있다.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다대진의 범위는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다대포항을 이루는 항만 전체에 해당한다. 유아교육진흥원 건물은 객사가 있었던 자리이며, 그 외에 동헌과 내아(內衙, 수령이 거주하는 공간)를 비롯한 관아 건물과 각종 창고 건물, 윤공단 등이 있었다. 주변에 성곽이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려 있는데, 각 문에는 문루가 있어서 동문에는 패인루(沛仁樓), 서문에는 영상루(迎爽樓), 남문에는 장관루(壯觀樓), 북문에는 숙위루(肅威樓)가 있었다. 또 남문과 서문 사이에는 간문(間門)이 있었다.

해변에는 동서로 선소(船所, 배를 관리하는 곳)와 선창(船艙, 배를 대는 곳)이 있었

『1872년 군현지도』 속 「다대진지도」의 다대진과 그 주변 지역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는데, 「다대진지도」에서 동쪽 선소를 '서평 선소'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서평진지도」에서 서쪽 선소에 '다대 선소'라고 표기하고 있다. 즉, 동서의 선소와 선창은 각각 다대진과 서평진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좌우의 곶에는 주변 바다를 감시하기 위한 장대와 야망대가 세워져 있었다.

다댓개와 낫개

다대포는 다대동에 위치하고 있다. '다대(多大)'라는 지명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다타라[多多羅 혹은 多多良]'라는 곳이 다대포를 지칭한다는 설이 있고, 『삼국사기』 자비마립간 대의 기록을 보면 "왜인이 양산 지역을 침공하여 답달(畓達) 등지에 성을 쌓았다"라고 요지의 기록이 있는데, 이 '답달'이 '다대'의 어원일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다대포가 처음에 장림 지역에 있었다는 설도 있으므로 '답달'이 지금의 다대동 일대를 가리키는 말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현재의 다대2동 지역에 다대포첨사영이 있었는데, 여기가 다대본동마을이다. 지역 사람들은 다대포항 근처를 '다댓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첨사영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곳은 부산 시내에 손꼽히는 어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다대포항에서는 중·소형 어선들이 방어, 전어, 참가자미, 아귀, 붕장어 등을 주로 어획하고 있으며, 특히 방어가 이곳의 대표적인 어종이다. 또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해녀들도 물질을 하고 있다. 다대포 어항 문화축제가 매년 11월경 개최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몇 년간 개최되지 않기도 하였다. 항구 주변에는 수산물 공판장이 있고 수산시장이 열리고 있다.

다대포항의 동쪽 끝으로 가면 선박 수리시설이 있고, 그 앞으로 포구의 동쪽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곳을 마주하게 된다. '야망대(夜望臺)'라는 곳이다. '야망대'는 이름 그대로 '밤에 망을 보는 곳'이라는 뜻인데, 옛 기록이나 다대포 주변의 고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대진지도」나 「서평진지도」에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사용 망루 역할을 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야망대에 대해 '밤에 멸치 떼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어군탐지기가 없던 시절에 연안에서 멸치 어업에 종사할 때도 활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낫개는 한자로 '나포(羅浦)'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그 유래는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멸치잡이에 그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羅'를 '그물'로 해석하기도 한다. 관용적으로 다대포항과 이곳을 아울러 '다댓개와 낫개'라고 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낫개는 다대포에서도 특히 멸치 어업이 성한 곳이었다. 야망대에서 멸치 떼를 발견하면 낫개에서 멸치를 잡았다고 한다. 또 낫개에서는 '후릿그물[地曳網]'이라는 방식으로 멸치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부르던 노동요인 「다대포 후리소리」가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잡아 온 멸치는 주로 멸치젓으로 가공하였다. 1960년대까지는 해변에 물놀이객이 찾아와 '낫개해수욕장'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바다가 매립되고 대명목재라고 하는 큰 목재회사가 들어섰다. 낫개 앞바다는 저목장으로 활용되어 통나무들이 둥둥 떠 있는 곳이 되었다. 대명목재가 떠난 터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옛 어촌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낫개의 해안은 현재 다대포항의 일부분으로 국제여객부두가 있었고 크루즈 선착장이 있기도 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응원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국제여객부두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주변 풍경이 조금 낯익은 것 같기도 한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낫개에는 만경봉호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통일아시아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국제여객부두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말았다.

응봉 봉수대와 세 개의 서평진

아미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필자는 윤공단으로 돌아가 그 뒤편 길을 통해 응봉 봉수대에 오르는 길을 택하였다. 봉수대 주변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꽤 높은 화구가 복원되어 있다. 한쪽에 아궁이가 있는데 그 속으로 기어들어 가니 굴뚝 위로 동그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이 봉수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 확인되며, 제2로 봉수의 출발점이자 다대포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동지도』에서도 다대포 위쪽에 '응봉(鷹峯)'이라고 봉수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구평동(舊平洞)은 조선 전기에 수군 진지인 서평진(西平鎭, 혹은 西平浦)이 있었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현재 구평동 바닷가 대부분은 두송반도를 따라 만들어진 매축지이고, 옛 마을은 구평동 행정복지센터와 구평초등학교 언저리의 비탈에 있었다. 구평동에는 근래까지도 토성이 남아 있었고, 여기서 신라의 토기 조각이 발견되었으므로 신라시대부터 군사 요지로 활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평진은 원래 다대진 휘하의 작은 요새에 지나지 않았으나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이 발생한 후 진관제(鎭管制)를 개편할 때 만호영으로 개편되었다. 서평진은 임진왜란 때 초토화되어 다대진에 합쳐졌다가 1668년(현종 9)에 원래 서평진 터에서 남쪽으로 2리(약 800m) 떨어진 곳에 복원되었다. 이때 지어진 서평진 일대에는 '성포(城浦)' 혹은 '성개'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구평아파트 언저리로 추측된다. 이후 서평진은 다시 다대진 내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808년 편찬된 『만기요람』에 따르면 "서평포는 1592년(선조 25)에 다대포에 합쳤다가 옛 진[舊鎭]으로 옮겼다가 선창이 풍랑에 무너져 다대포로 도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응봉 봉수대. 제2로 봉수의 출발점으로 다대포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였다. • 정영현

1872년에 제작된 군현지도 중 하나인 「서평진지도」를 보면 그 안에 세 개의 서평진이 그려져 있다. 조선 전기에 서평진이 있던 곳에는 '서평옛터[西平古基]'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남쪽에 '구서평(舊西平)'이 그려져 있으며, 다대진 근처에 당시의 '서평진'이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 '서평진'으로 그려진 진지는 다대진에서 고개 하나 너머에 있으며, 야망대와 두송반도 사이에 있으므로 낫개 근처로 추정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서평진지도」에 그려진 ① '서평옛터'는 조선 전기 을묘왜변 이후 만호영이 된 서평진으로, '구서평'에서 북쪽 800m 정도이므로 구평초등학교 언저리로 보인다. ② '구서평'은 다대진에 합쳐졌다가 1688년에 옛터의 2리 남쪽에 복원된 서평진이다. ③ '서평진'으로 표시된 곳은 구서평의 선창이 무너져 다대포 근처(낫개로 추정)로 옮겨진 서평진이다.

『1872년 군현지도』 속 「다대진지도」의 서평옛터, 구서평, 서평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후기에 오일장이 번성할 무렵,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장터 중 하나가 구평동 지역의 독지장(禿旨場)이었다. 독지장은 현재는 남아 있지 않으나 1770년에 저술된 『동국문헌비고』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으나 교통로를 통해 보면 위 지도에서 '서평옛터'로 표시된 지역, 즉 구평초등학교 근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지장은 1·6장으로, 하단장(5·10)과 부산장(4·9), 왜관조시(3·8), 읍내장(2·7) 등과 연계하여 오일장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또 하단장을 통해 들어온 소금이나 다대포에서 생산된 멸치젓 등이 매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4. 감천항과 송도해수욕장

감내포에서 감천항으로

구평동을 지나온 버스는 감천삼거리를 거쳐 감천로로 들어섰다. 감천삼거리는 괴정에서 감천동으로 들어오는 감천동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차로이다.

감천동(甘川洞)은 '감내골'이라는 우리말 지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부산지명총람』에서는 이 유래에 대하여 '감내'는 곧 '검내'이며, 청동기 유적의 발굴과 관련하여 이곳이 '신의 마을[神邑]'이었던 데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감천동에는 청동기 유적이 발굴되어 여섯 곳의 고인돌과 간돌칼 등이 출토된 적이 있으므로, 적어도 청동기시대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1740년에 만들어진 『동래부지』에 감천리를 찾을 수 있으며, 『1872년 군현지도』 속 「다대진지도」나 「서평진지도」에도 현재 위치에 '감천리(甘川里)'가 표시되어 있다.

감천동은 크게 해안가의 감천1동과 천마산 자락의 감천2동으로 나뉜다. 감천동은 원래 감천 본동마을인 감천1동을 중심으로 '감내포'라고 불리는 어촌이었다. 감내포는 두송반도와 천마산 자락 사이에 형성된 감천만에 있

1950년대 감천만 일대 모습 • 부산시

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감내포에서는 주로 멸치 어업을 하였다고 한다.

감천1동에는 현재 천마산 자락에 산신당, 감천초등학교 근처에 하당 등의 당집이 있다. 필자가 감천1동을 방문했을 때 하당과 당산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당산나무는 수령 400년의 늙은 팽나무(포구나무)이며 큰 길가에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팽나무 앞에는 당집이 있고, 그 주변에는 '감천동 팽나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에는 정자가 세워져 있고 정자 뒤로 마을의 옛 사진이 타일 위에 인쇄되어 병풍처럼 벽을 이루고 있었다. 공원 잔디밭에는 연자방아와 함께 넓적한 바위가 놓여 있는데, 이 바위는 사실 감천동에서 발견된 여섯 개 고인돌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공원 내로 옮겨둔 것이다.

1950년의 항공사진을 보면 감천만의 북동쪽에 포구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감천만 일대에는 감내포 외에도 서쪽에 구평동을 이루는 두 포구마을(서평옛터와 구서평)이 있고 동남쪽에는 암남반도 서편의 포구마을인 모지포가 보인다.

또 여름철에는 피서를 위해 물놀이객이 감천 앞바다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1950년대 무렵에 감천은 부산에서 꽤 인기 있는 피서지였다.

처음으로 마을 풍경을 크게 바꾼 것은 발전소였다. 1962년 현재의 감천사거리 근처에 감천화력발전소가 들어섰다. 2001년 한국 남부발전 부산천연가스발전본부를 개소하였고 2004년에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준공하였다. 감천1동의 랜드마크처럼 되어버린 여덟 개의 굴뚝은 바로 이 발전소의 굴뚝이다.

이후 거대한 항만인 감천항이 들어서면서 감천만 일대의 여러 어촌의 풍경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부산항에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고철·양곡·시멘트 등 전용 부두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1978년 북항의 보조 부두로 감천항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사업은 1979년에서 1999년에 걸쳐 민관의 합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감천만의 용두암 자리에 중앙부두가 건립되었고 동쪽의 감천동과 암남동 일대에 1~4부두, 서쪽의 구평동 일대에 5~7부두와 관공서 부두가 건립되었으며, 다대포항 역시 다대부두로서 감천항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감천항 인근에는 냉동창고나 시멘트 사일로(Silo), 컨테이너나 골재 야적장, 그리고 수입된 원재료를 1차 가공하기 위한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감천항 동쪽으로 난 원양로를 따라가다 보면 평지를 마련하기 위해 암남반도를 이루는 산줄기 이곳저곳에 깎아내어 수직의 절벽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해안을 따라 매립지가 들어서서 자연의 해안선은 이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변화가 고작 2~3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니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혈청소'와 암남공원

암남공원 근처에는 '혈청소(血淸所)'라고 불리었던 수출우역검역소(輸出牛

疫檢疫所)가 있었다. 수출우역검역소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9년에 처음 설립되었고, 1911년에 수출우역검역소에서 우역혈청제조소(牛疫血淸製造所)를 설립하였다. '혈청소'라는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검역소에서는 일본으로 수출될 소가 우역(牛疫, 소가 걸리는 감염병)에 감염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곳이고, 우역혈청제조소는 우역을 연구하고 백신을 만드는 기관이다. 해방 후 우역혈청제조소는 1949년에 가축연구소로 이어졌고, 1962년 수출우역검역소는 국립동물검역소로 개칭되었다. 1998년 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합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합쳐졌고, 2011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우역혈청제조소라는 명칭을 쓰지 않게 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부산 지역의 연로자들에게 이 시설은 아직까지 '혈청소'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혈청소'에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세워진 '축혼비(畜魂碑)'라는 비석이 있다. 우역을 연구하다 보니 많은 실험용 소들이 죽어 갔는데,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비석에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일살다생(一殺多生)"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하나가 죽어 다수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일살다생'은 일본 불교 정토진종 대곡파(大谷派)의 경구라고 한다. 대곡파는 중구 신창동에 있는 대각사의 전신인 동본원사 부산별원을 설립한 종파이다.

암남공원은 암남동이 있는 암남반도 남쪽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암남동(岩南洞)은 조선시대에는 '암남리(岩南里)'였는데, '아미산(혹은 아미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암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암남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암남동패총이 발견되었는데, 신석기시대 말기의 것으로 보인다.

암남공원은 1972년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내부에 군사시설과 동물검역소가 있어 민간에 개방되지 않았다. 1996년에 부분 개방하였고, 1997년이

옛 수출우역검역소, 일명 혈청소 전경(1926)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되어서야 완전히 개방하였다. 암남공원은 총면적이 55만 3,277㎡에 달하며,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과 다양한 수종(樹種)의 숲 사이로 여러 갈래의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체를 둘러보는 데 대략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책로 외에도 암남공원 입구 근처에는 동섬까지 연결된 용궁구름다리가 있고, 암남공원의 서쪽에는 조각공원이 있고, 정상부에는 희망정(希望亭)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남쪽 끝에는 두도전망대가 있다.

암남공원 남단과 두도를 연결하는 다리는 놓여 있지 않고, 대신 절벽 위에 두도전망대가 설치되어 아름다운 두도의 풍경을 감상하도록 하고 있다. 2027년에는 전망대와 두도를 잇는 출렁다리가 놓일 예정이라고 한다.

두도(頭島)는 암남반도 남쪽 끝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 솟아 있는 섬인

두도전망대에서 본 '두도(頭島)' • 정영현

데, 우리말로 '대가리 섬'으로 불리는 것을 한자로 옮긴 것이다. 두도는 1872년 제작된 「다대진지도」에서 '다과도(多寡島)', 「서평진지도」에서 '다가도(多加島)'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모두 '대가리 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암남공원과 두도는 부산지질공원의 일부이기도 해서 약 8천만 년 전인 후기 백악기의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그 중 두도에서는 공룡의 발자국이나 싸움 흔적, 공룡알 둥지, 공룡 배아(胚芽, 알 속의 있는 미성숙 개체), 새와 식물 화석 등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암남공원 내 해상케이블카 탑승장인 스카이파크(Sky Park) 근처에는 움직이는 공룡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암남공원로를 통해 송도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암남공원 입구에서 5분 정도 걸어 나오면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 기념석과 안내판을 발견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전쟁 당시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고, 뉴질랜드군(軍)은 SS올몬드라는 군함을 타고 1950년 12월 31일 부산에 도착하였다. 참전 이후 1957년까지 약 6,000명의 뉴질랜드군이 한국에 복무하였는데, 뉴질랜드군의 첫 군사 캠프가 송도였다. 그래서 2001년에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 용사회에서 기증한 기념석을 이곳에 세운 것이다. 기념석은 마치 바다거북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듯한 형상인데, 팻말을 보니 이름이 'The Turtle Rock'이다.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 기념석 • 정영현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은 암남동에 있는 한국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이다. 송도(松島)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자생하였던 거북섬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거북섬 옆의 언덕으로 소나무가 울창한 송림산에서 나왔다고도 한다. 1913년 부산부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송도유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송도유원(松島遊園)'이라는 이름으로 해수욕장을 개장하였다. 거북섬에는 '수정(水亭)'이라는 휴게소가 들어섰는데, 육지에서 보트를 타고 섬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해수욕장에는 점차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도 피서를 즐

1920년대 후반 송도해수욕장 • 부산박물관

기러 오게 되었다. 송도해수욕장의 명물 중 하나인 해상 다이빙대가 설치된 것은 1927년의 일이라고 한다.

해방 후에도 부산을 대표하는 피서지로 송도가 첫손에 꼽혔다. 1964년에는 거북섬에서 출발하여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현재 송도폭포 위에 있는 언덕까지 이어지는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어 송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육지에서 거북섬까지는 구름다리가 놓였다. 거북섬 뒤쪽 언덕의 송림공원에는 노송이 우거지고 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었고, 신혼여행을 오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객이 몰려들자 바닷물은 점차 오염되었고, 백사장도 점점 좁아지면서 송도의 해수욕장 기능은 약화되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의 장소도 해운대나 광안리에 내주고 말았다. 더구나 1987년 태풍 셀마 때

2022년 송도해수욕장 전경 • 정영현

다이빙대가 유실되었고,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경관이 크게 훼손되었다.

서구는 2000년부터 5년여간 송도해수욕장 일대에 대대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해상 다이빙대를 다시 설치하였는데,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었다. 2016년에는 거북섬을 통해 바다전망대로 가는 송도구름산책로를 개설하기도 했다.

송도케이블카는 1988년 노후화와 운영난으로 운행이 중단되었다. 그러다 29년 만인 2017년에 민간사업자에 의해 다시 케이블카가 다니게 되었다. 옛 케이블카의 이동 거리는 400m였으나, 이번에는 송림공원에서 암남공원까지 1.6km에 이르는 거리를 왕복하게 되었다.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때는 해수욕장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현재는 송도해수욕장의 명물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5. 천마산과 옛 부민동 지역

천마산의 석성 봉수대

천마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가장 편한 등산로는 마을버스를 타고 감천고개 정류장에서 내려 감정초등학교 옆길로 올라가는 것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 도착까지는 필자의 걸음으로 30분이 조금 못 되게 걸렸는데, 다행히 중간에 쉬어갈 정도로 힘든 구간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천마산 정상, 석성 봉수대에 도착했다.

천마산(天馬山)은 서구와 사하구 사이에 솟아 있는 산이다. 천마산은 1740년에 제작된 『동래부지』에는 '석성산(石城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근대 자료부터는 다들 '천마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부산지명총람』에서는 이곳에 나라의 말을 기르는 목마장이 있어서 붙은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어진 지 그리 오래된 이름이 아닌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 천마산 조각공원 근처에 '천마바위'라고 하여 발자국같이 움푹한 자국이 여럿 있는 바위가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여기서 천마가 발을 굴러 일본 쓰시마로 건너갔다고 한다.

'석성산'의 유래에 대해서는 돌로 쌓은 석성 봉수대에서 유래한 설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봉수대를 처음 쌓았을 때 '황령산 봉수대'나 '남산 봉수대'처럼 봉수대에 산 이름을 붙였을 것이고, 봉수대에서 산 이름이 유래하는 경우는 '봉대산'이나 '연대봉' 같은 식의 이름이 붙기 마련이라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과거에 석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이 산에 석성 혹은 수(戍, 방어를 위해 세운 작은 요새)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천마산 석성 봉수대 • 정영현

석성 봉수대는 326m 높이의 천마산 꼭대기에 있는 봉수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니 조선 전기에는 없었던 듯하고, 1740년에 제작된 『동래부지』에서는 "석성산은 동래부의 남쪽 40리(약 16km)에 있고 옛날에는 봉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구봉으로 옮겨져 있다"고 했다.

산 정상에는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고, 봉수대 및 산 정상 근처를 보니 이곳저곳에 성처럼 석벽들이 보인다. 현재 정상에 있는 봉수대 화구 및 주변의 석벽은 원래 남아 있던 것이 아니고 산악회에서 쌓은 것이었다. 원래는 봉수대의 기단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봉수대가 있는 천마산 정상의 전망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훌륭했다. 정

상 직전의 통신탑 근처에서는 서쪽 방면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산 아래로 감천항의 전경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구평동과 다대포, 심지어 낙동강 하구를 넘어 가덕도와 부산신항까지 시야가 닿았다. 정상에서는 시야가 남쪽과 동쪽이 트여 있었는데 묘박지(錨泊地, 선박이 보급이나 집결을 위해 임시 정박하는 곳)에서 영도, 부산항, 우암반도, 그리고 오륙도까지 볼 수 있었다.

부산남항의 관문, 남부민방파제

천마산에서 등산로를 따라 초장동으로 내려갔다. 남부민동에 대해서는 이름만으로도 부민동의 남쪽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부민동과 남부민동 사이에는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초장동이라는 마을이 존재한다.

부민동(富民洞)의 명칭은 어촌이었던 '부민포(富民浦)'에서 이어진 것이다. 포구 이름이 '부민(富民)'인 것은 부산포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어업에 종사했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선 전기에 부산을 한자로 '富山'이라고 표기했던 흔적이 이 마을의 지명에 남은 것이다. 부민포의 역사가 그만큼 길었던 것일까? 부민포는 대구와 청어를 주로 잡는 어촌이었다고 한다.

초장동(草場洞)은 조선 후기에는 동래부 사하면 부민리(富民里) 일부였는데, 조선 후기에 부민리 지역을 '구초량(舊草梁)'이라고 부르고, 원래 빈터였다가 왜관이 생긴 곳을 '신초량(新草梁)'으로 불렀던 것을 보면, 원래 '초량'은 부민리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의 초량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던 것 같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부민리는 부민정(富民町)이 되고 남부민정·초장정·토성정·부용정·아미정 등이 분리되었다. 초장정에는 1~3정목(丁目)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각각 초장동 1~3가(街)가 되었다. 나중에 초장동 1가와 2가는 토성동에 흡수되고 3가가 현재의 초장동으로 남게 되었다. 초장동의 명칭은 이 근처에 목마장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초장동에 목마장의 말꼴을 마련하는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남부민동은 초장동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민동에서 분리된 마을이다. 남부민동 바닷가는 부산남항의 내항이 이어져 있다. 남부민동 대림수산 앞 해안에는 육지에서 영도를 향해 남부민방파제가 길게 뻗어 있다. 남부민방파제의 공식 명칭은 '남항서방파제'로 길이는 400m 정도이며 끝에는 하얀 등대가 있다.

남부민방파제는 1926년부터 1939년에 걸쳐 이루어진 남항 매축 사업의 일환으로 1931년에 축조되었으며, 남쪽으로부터 남항으로 들어오는 파도를 막아내기 위한 용도였다. 남항 내항의 유일한 방파제로 100년 가까운 세월

'남항서방파제'라고도 불리는 남부민방파제와 하얀등대 모습 • 정영현

이 지난 지금까지 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망이 좋아 관광객들이 부산 남항과 바다 건너 자갈치시장이 보이는 풍경을 즐기고 풍경 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제석곶성과 당산

제석곶(帝釋串)은 우리말로 '제석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승학산에서 발원해 내려오는 물줄기가 제석곶 계곡을 타고 흘러 괴정천에 합류한다. 이 지명은 이곳에 제석단(帝釋壇)이 있어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제석단은 '당리 제석할매당'이라고 하는데, '당리(堂里)'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제석단은 낙동초등학교 옆 마을회관 겸 경로당 한쪽 벽면을 제단이 차지하고 있다. 그 앞에는 당산나무인 팽나무가 가지를 펼치고 있다. 경로당에 계신 노인에게 물어보니 이쪽은 할매 당산이고 산 위에 할배 당산이 있다고 하였다. 남아 있는 자료가 부족한 탓에 예전에 기우제를 지냈다는 제석단과 지금의 제석할매당이 동일한 곳인지 확신을 가지기 힘들었다. 어쩌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제단의 위치나 모시는 신격(神格)에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제석곶에 대해서는 문헌 기록이 존재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는 "제석곶 석성(石城)이 있는데 정덕(正德) 경오년(1510) 왜구의 침입(삼포왜란)이 있었을 때 고립되어 수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수(戍)를 없앴다"라고 되어 있다. 『대동지지』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까지만 석성으로 방어되는 군사시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오해야항의 목장이나 봉수대와도 같은 시기에 가까이 있었으므로 서로 왕래했을 가능성도 큰 것 같다.

당리 당산나무 • 정영현

현재 제석곶 일대는 채석장으로 지형이 바뀌었고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해 옛 모습을 찾기 힘들다. 예전에 채석장이 있었던 상류 지역까지 아파트가 올라와 있다. 요즈음 제석골 계곡은 등산객들에게 당리 방향으로 올라가는 승학산 등산로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 구내에서부터 승학산 등산 안내도를 찾을 수 있다. 2014년에는 제석골산림공원이 들어서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7
코스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다. 이 섬이 오래전부터 부산은 아니었다. 1989년 김해 가락·녹산과 함께 부산 강서구에 편입되기 전까지 창원(진해) 생활권이었다. 한편,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가덕도는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서 조선시대부터 줄곧 군사지역이었다.

7 코스

외양포마을 → 가덕도등대 → 대항 새바지 인공동굴 → 대항 포진지 인공동굴 → 연대봉 봉수대 → 천성진성 터 → 가덕진성 터 및 척화비 → 눌차 정거마을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다. 영도보다 대략 1.5배 크다. 이 섬이 오래전부터 부산은 아니었다. 1989년 김해의 가락·녹산과 함께 부산 강서구에 편입되기 전까지 창원(진해) 생활권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웅천현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로도 오랫동안 창원군 천가면이었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가덕도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장항유적에서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최대 규모 무덤이 발굴됐고, 대항과 외양포에는 패총을 남겼다. 두문 고인돌을 통해 청동기시대부터 가덕도에 정치세력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성북 고분군은 5~6세기 가야시대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인물과 집단이 남긴 무덤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에 천성진과 가덕진이 설치되면서 그 주변으로 큰 마을이 형성되어 각각 천성면과 가덕면이 되었고, 나중에 둘을 합치면서 천성과 가덕 앞 글자를 따서 천가면이라 하였다. 부산에 편입된 후에는 천가면을 천가동으로 바꿔 행정동명으로 사용해오다가 가덕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995년에 가덕도동으로 변경하였다. 법정동으로는 동선동, 성북동, 눌차동, 천성동, 대항동 등 다섯 개가 있다. 이 섬은 특히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로서 조선시대부터 줄곧 군사지역이었다. 일제시대 일본군이 주둔한 이래 최근까지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역사 유적의 훼손이 비교적 덜해서 답사여행에 제격이다.

내가 가덕도에 처음 간 건 1992년 여름 친구들과 캠핑하러 가면서였다. 일행 중 누군가가 부산과 멀지 않은 곳에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 있다고 해서 별다른 정보도 없이 무작정 짐을 싸서 길을 나섰다. 58번 시내버스를 타고 진해 용원선착장에 내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가덕도행 도선에 오르던 설렘을, 그날 밤 억수같이 퍼붓는 비로 인해 물이 줄줄 새는 텐트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던 기억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엊그제마냥 생생하게 가지고 있다. 그사이 가덕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부산신항 건설과 거가대교 개통으로 이제는 섬이 아닌 육지에 가깝다. 앞으로 부산신공항마저 들어선다면 완전히 모습이 변할 것이다. 내가 맡은 답사여행의 첫 코스로 가덕도를 택한 이유이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덕의 역사 유적을 찾아 떠나보자.

1. 아픈 역사를 간직한 외양포 포진지 마을

첫 여정, 외양포로 가는 길

가덕도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에 속하니 당연히 부산 시내버스가 가덕도까지 들어간다. 강서구 마을버스도 가덕도를 운행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덕도 일대를 둘러보려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노선이 적은데다 배차간격이 길어 배차시간표를 반드시 체크해가며 움직여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배를 타야만 가덕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예전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감지덕지다. 부산신항의 건설 이후 신항과 가덕도를 잇는 연륙도로와 연륙교가 2009년과 2010년에 차례로 개통되어 가덕도가 육지화되면서, 가덕도 주민들과 육지를 연결하던 유일한 발이었던 도선의 운항이 중단되었다. 이제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배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가덕도에 들어가기 전 육지의 끝인 녹산산업단지 10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가덕대교가 나타난다. 가덕대교를 건너 가덕도에 진입한 후 거가대교를 향해 달리다가 톨게이트 직전에서 천성·대항 방면으로 빠져야 한다. 만약 여기서 빠지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거제도 구경을 하는 수가 있다. 자동차전용도로(거가대로)를 빠져나와서 오른쪽 천성 방면이 아닌 왼쪽 대항 방면으로 고갯길(연대봉생태터널)을 넘어가면 대항 로터리가 나오는데, 직진해서 다시 고개(외양포생태터널) 하나를 더 넘어야 비로소 첫 목적지인 외양포에 도착한다.

가덕도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이후로도 천성이나 대항 등 섬 내 내륙 지역은 여전히 배편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섬 안의 일주도로가 정비되면서 교통 사정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래도 외양포까지 반듯한 길이 놓인 건 불과 몇 년 전(2018년)이다. 외양포에 도착하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되지만 바다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포구 바로 앞의 너른 공터(외양포주차장)에 주차해도 된다. 둘 다 주차요금은 따로 받지 않는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520번 시내버스나 강서1번 마을버스를 타고 대항마을에 내려 1.2km 남짓 고갯길을 20분 정도 걸어서 외양포로 갈 수가 있다.

외양포는 마을 전체가 일본군 부대였다

가덕도 남단의 외양포는 이 섬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어촌마을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만(灣)이 그 이름처럼 바다 바깥을 향하고 있는 외양포(外洋浦)는 가덕도의 대항(大項) 바깥쪽 목이라 하여 본래 외항포(外項浦)라 불렀으나, 현재 공식 명칭은 외양포이다. 외항포가 외양포로 이름이 바뀐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도 일본군이 들어온 이후 군사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바뀐 게 아닐까?

우리나라 동남쪽 영토의 첫 관문이자 대한해협에서 진해만으로 들어오는 수로의 길목이 바로 이곳 외양포이다. 일찍이 방어와 공격기지로서의 군사 전략적·지리적 가치가 뛰어난 외양포에 눈독을 들여오던 일본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에 포대 진지를 구

외양포 역사자료 • 강서구

축하고 포진지를 운용하기 위한 각종 군사시설을 건설했다.

원래 외양포에는 6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은 이곳을 군용지로 강제수용하여 주민들을 쫓아내고(형식적으로 보이지만 매입 절차는 거친 듯하다) 190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지구축공사를 진행한 끝에 1904년 12월 일본군 4사단 포병대대 제2중대가 처음 주둔하였다. 이후 진해만 앞바다 저도에 있던 대대본부를 외양포로 옮겨왔고, 러일전쟁의 전환점이 된 쓰시마해전 직전인 1905년 4월 21일 '진해만요새사령부'로 확대 편성된 부대가 5월 7일부터 외양포에 주둔하였다. 러일전쟁이 끝나고 조선 병합을 목전에 둔 1909년 8월 30일 진해만요새사령부가 마산으로 이전하면서 외양포에는 포병 1개 중대만 배치되었지만, 해방될 때까지 여러 차례의 보수 공사를 거듭하면서 일본군 군사시설로 활용되었다.

외양포는 마을 전체가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비교적 포대 진지의 원형이 그대로 잘 남아있다. 마을 안에는 포진지뿐만 아니라 사령관실과 관사, 사무실, 무기고 등 군사시설로 추측되는 일본식 건물이 다수 남아있다. 외양포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니 아담한 포구가 한눈에 들어온다. 주차장이 마을 입구와 맞닿아 있어서 곧장 마을로 들어갈 수 있다.

외양포 마을의 독특한 모습

모든 군부대 입구에는 '이것'이 있다. 그렇다. 바로 '위병소'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대항낚시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이 외양포를 찾은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긴다. 이 건물이 당시의 위병소였다. 즉 군부대 정문인 셈이다. 원래는 1905년 진해만요새사령부의 '헌병부'로 사용한 건물로서 정면 11.8m 측면 7.2m의 규모에 다다미방, 창고와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는 증축되어 변형된 상태이지만 기본 골격은 옛날 그대로다. 헌병대이다 보니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도가 없다. 1911년부터는 위병소로 사용되었다.

마을 안으로 난 길은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이다. 이 마을의 집들은 거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를뿐 모든 집이 단층이다. 벽은 검은색 나무판자를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서 세웠다. 일본집의 특징인 비늘판 벽이다. 지붕 역시 모든 집이 맞배 형태의 삼각 지붕을 하고 있으며, 누운 파도 모양의 일본식 기와를 얹었다. 원형 그대로의 벽과 지붕을 한 집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대체로 함석 슬레이트로 보수한 집이 많다. 창문 형태 역시 하나같이 전형적인 일본식 눈썹지붕을 하고 있는데, 햇볕이나 비를 막기 위해 창문 위로 처마를 내어 작은 지붕을 얹었다.

마을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 흔한 사각형 평지붕이나 콘크리트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여느 시골 마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이곳의 시간은 100여 년 전에 멈춰 있는 것일까? 외양포는 일제시대 내도록 일본군 부대였고, 해방 이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전체가 국방부 소유로 귀속되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주민들이 추첨을 통해 건물과 전답을 국가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형식으로 다시 살기 시작한 마을, 그래서 등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국가 소유의 집과 마을이기 때문에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 등의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살고 있어 지금도 일제시대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을만이 가진 진짜 독특한 모습은 모든 집에 담장이나 울타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가 군부대 내의 시설들이었기에 어쩌면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적 공간인데 무척 흥미롭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그만 바닷가의 평지에 자리한 마을, 높거나 튀거나 하는 위화감 주는 건물 하나 없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풍경이다.

헌병부 건물 앞 이정표가 서 있는 갈림길 바로 뒤로는 길을 따라 길쭉한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아마도 이 마을에 있는 집들 중에서 가장 원형이 잘 남아있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원래 어떤 건물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딱 보는 순간 병사들 막사라고 생각했다. 길쭉한 건물 형태나 앞뒤로 마주 보며 규칙적으로 난 창문을 보면 영락없이 그냥 옛날식 내무반이 떠오른다. 마을 안에는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되었던 다른 건물이 있고, 거기에는 '병사(兵舍)'라 적힌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왜 이 건물에는 그냥 '일본식 가옥'이라 적힌 안내표지판이 서 있는 것일까?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외양포마을 일본식 가옥 • 서용태

일본군 포진지의 첫인상

이 건물을 지나 50~60m 정도 곧장 걸어 들어가면 이 마을 답사의 하이라이트인 포진지가 나온다. 포진지는 안으로 엄폐되어 있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입구에 '외양포 포진지 역사안내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럴 일은 없다. 안내소 벽면에는 '역사의 시간에 머물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 마을 자체가 그렇지만 이곳 포진지는 그야말로 역사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안내소 앞의 옛날 화장실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한다. 터만 남아있고 건물은 없는데 큰일 보는 데가 여섯 칸이 있고, 각 칸 아래로 콘크리트 줄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놓았다. 아마도 이 줄기초 위에 나무판으로 가림막을 세웠을 것이다. 당연히 재래식 화장실이라 각 칸칸마다 용변을 받는 구덩이가 있다. 앞쪽으로는 작은일 보는 데가 5m 길이로 벽처럼 서 있다. 병사들이 쭉 늘어서서 콘크리트 벽에 대고 오줌을 싸면 그 밑에 파인 홈으로 흘러가는 옛날식이다. 보고만 있어도 옛 생각이 절로 났다.

포진지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안내소 옆에 있는 비석 같은 커다란 돌멩이에 새겨진 글자를 읽어보자. 읽으셨나? 세로로 '司令部發祥之地(사령부발상지지)'라 적혀 있다. 그 오른쪽엔 작게 '명치38년(1905년) 4월 21일에 부대편성 명령이 내려지고, 같은 해 5월 7일에 부대가 외양포에 상륙하였다'라고

두 줄이 적혀 있다. 이왕이면 뒷면도 보자. 세로로 한 줄 '소화11년(1936년) 6월에 세우다'라고 적혀있다.

사령부 발상지 표석 • 서용태

이곳의 내력이 새겨진 표석으로, 마을 안 밭에 처박혀 있던 것을 여기로 가져다 놓았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위치의 맞은편에 덩그러니 우뚝 서 있어서 한눈에 바로 들어왔는데, 안내소를 만들면서 자리를 옮긴 모양이다. 기단도 맨시멘트 덩어리라 볼품이 없어졌다. 마침 문화유산해설사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표석 앞뒤로 유심히 살펴보는 나를 보고는 말을 건네길래 위치를 왜 옮겼는지 여쭤봤다. "거 뭐 자랑거리라고. 차마 치워버리지는 못하니 잘 안 보이게 해둔거라요"

이 표석을 지나면 안쪽이 갑작스레 넓어지며 마침내 포진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네모반듯한 폭 약 20m, 길이 약 80m 크기로, 산과 이어져 있는 동쪽의 경사면은 깎아서 자연적으로 옹벽을 만들고, 남·북·서쪽 경계는 인위적으로 축대를 쌓았다. 포진지를 둘러싼 축대는 높이가 5m 정도 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흙으로 다져 마치 토성(土城)이나 둑처럼 만들었다. 특히 축대 위에 흙을 덮은 뒤 대나무와 잔디 등을 심어서 외부에서 포진지 내부를 짐작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엄폐시켰다. 만약 이 안에 물이 차 있다면 영락없이 네모난 저수지라 여길 정도로 위장 실력이 완벽하다.

대포 방향의 의문, 어딜 향해 쏘려고?

포진지 안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두 개의 둥그런 포좌(砲座)가 있는 포대(砲臺)가 눈에 들어온다. 육중한 280㎜ 유탄포가 놓여있던 자리다. 포대 측면에는 남쪽 축대와 이어진 9.8m×10.5m 크기의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 정면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다시 꺾여 들어가는 2중 출입구에 아치형 천장을 하고 있으며 지붕은 흙으로 덮은 독특한 구조의 탄약고이다. 특히 시멘트와 모래에 외양포 해안에서 가져온 몽돌 자갈을 배합한 콘크리트 자재를 써서 포를 발사할 때 생기는 소음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가 떨어져 나간 벽면 사이사이에 박혀 있는 자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일본군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띈다.

탄약고 옆에 다시 포대가 있고, 그 옆에 또 탄약고가 있으며, 그 옆에 또 다시 포대가 있다. 그리고 그 옆인 동쪽 옹벽 아래에 탄약고가 하나 더 있다. 즉 총 여섯 문의 포를 운용할 포대 세 개소와 세 동의 탄약고가 설치된 것이다. 외양포 포대의 전략적 목표가 부산과 진해만을 방어하는 데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포들은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함에 대한 방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답사 내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어째서 여섯 문의 포가 일제히 남쪽을 향해 일렬로 배치된 걸까? 포진지의 동쪽은 국수봉이, 남쪽은 남산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수봉 중턱에 관측소가 있어서 적함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고, 관측소에서 적함의 위치를 계산해서 포진지에 무전으로 알린다고 하지만, 과연 이동하는 적함을 조준할 수 있었을까? 포탄의 무게만 217kg인 거대한 포를 적의 위치도 모른 채 당시의 조악한 무전에만 의존해서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적함이 발견되기만 하면 산 넘어 망망대해를 향해 묻지마 포격을 가하려고 한 것인가? 사거리가 7.8km에 달한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만, 그야말로 무모하다.

포진지 도면 및 내부 군사시설 • 강서구

반면에 진해만으로 향하는 서쪽은 온전하게 열려 있어서 이곳으로 접근하는 적함은 공격이 용이하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만약 진해만으로 들어오는 적함을 상대하기 위함이라면 어째서 포대가 진해만 방향이 아닌 남쪽의 산을 바라보고 배치되어 있느냐 말이다. 물론 포가 회전이 가능하니 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도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역사의 시간에 머물다

포대 맞은편 북쪽 축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적벽돌로 문과 창을 꾸민 동굴 같은 아치형의 구조물이 두 곳 있다. 일본군 병사들이 사용했던 병사(兵舍)로 추정되며 각각 가로와 세로 6m×5m(약 9평) 규모이다. 해방 후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림집으로 사용해서 한쪽 구석에 아궁이로 보이는 구조가 남아 있다. 포진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이 시설물 안에 외양포와 관련된 각종 설명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재생되는 포진지 관련 영상물도 있다. 여느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듯이 이곳 천장에도 온갖 낙서들이 요란하다. 이런 데까지 와서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심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포좌 뒤의 돌계단을 따라 축대 위로 올라가면 새롭게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놓아서 꽃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포진지를 나와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사령관실, 하사관실, 병사, 무기고 등으로 사용되던 20여 동의 집들이 옹기종기인 듯 드문드문인 듯 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 특이하게도 집을 반으로 갈라서 좌우의 지붕과 벽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 집들이 많다. 왜 그런지 이유가 짐작이 가는가? 이 집들은 애초에 군사시설로 쓰기 위해 만든 건물이라 옛날집 치고는 규모가 비교적 크다. 집의 규모가 크다 보니 해방 이후 마을에 들어온 주민들이 한 집에 두세 가구씩 입주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지붕 아래 몇 가구가 따로 또 같이 살면서 각자 사정에 맞게 조금씩 손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굴곡진 세월을 제 몸에 아로새긴 이 집들은 이제 외양포마을의 역사를 증언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마을은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고 심지어 그 흔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이 마을 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우물을 찾는 일이다. 작은 마을이지만 마을 안에는 얼마 전까지도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우물이 여러 개 있다. 붉은 벽돌 기둥과 지붕을 한 우물, 기둥만 서 있는

외양포 포진지 건물 배치도와 남아있는 건물 모습 • 강서구

우물, 지붕도 기둥도 없는 우물이 이제 더는 사용되지 않고 길가에 버려지듯 낡은 집들 사이사이에 숨어 있다. 작은 마을이라 모든 집들을 꼼꼼하게 둘러보아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근대도시 부산의 원형이 일본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부산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이다. 하지만 의외로 부산에는 일제 침략을 후세에게 교육할 만한 유적이나 장소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의 외양포는 일본군이 주둔하던 군부대를 토대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그 흔적도 비교적 잘 남아있다. 그래서 외양포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자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큰 곳이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가덕도등대

철조망 너머 바다 절벽 위의 새하얀 등대

외양포를 둘러싸고 있는 국수봉 일대에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관측소 외에도 화약고와 산악 보루 등 일본군 포진지와 관련된 군사시설들이 있다. 대부분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터와 석재 구조물 일부만 남아있다. 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군사시설들을 안내자 없이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 이번 답사에서는 '패스' 하자.

국수봉에 군사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쁜 동백 군락지도 있고, 100년이 넘은 멋진 등대도 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동백 군락지와 등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반드시 군부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가 있다. 출입 허가 없이 무턱대고 찾아갔다간 필시 낭패를 당하니 이곳을 답사하려면 적어도 방문 일주일 전에 가덕도등대(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051-971-9710)에 전화해서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시설 보수나 군부대의 훈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간단한 출입 신청서만 작성해서 보내면 출입 허가가 되니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는 않다.

등대 출입은 해군의 출입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갈 수 없다. 외양포주차장 입구에서 국수봉 쪽으로 난 좁

가덕도등대의 전면과 측면 • 서용태

고 가파른 산길을 따라 차로 10여 분을 가야 한다. 산길 입구에 철조망 문이 있는데 예전에는 군인들이 직접 문을 지켰지만 지금은 무인 감시카메라가 대신하고 있다. 인터폰으로 방문 사유를 얘기하면 확인 후 문을 열어준다. 산길에 들어선 후 다시 철조망 문 두 개를 차례로 더 지나면 초소가 나온다. 근무하는 군인에게 신분증과 군사보안 서약서를 사인해서 건넨 후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등대를 만날 수 있다. 출입제한 지역이라는 압박감 때문인지 등대까지 가는 짧은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등대와 첫 만남은 감격스럽다. 가덕도 남단 맨 끝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해안절벽 위에 새하얗게 빛나는 신·구 등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단층의 네모반듯한 옛 등대는 생각보다 작지만 그래서 더 아기자기 이쁘다. 1899년 마산항이 개항하고 1905년 러일전쟁으로 진해만요새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이곳을 드나드는 선박이 많이 늘어나자 등대를 건설하게 되었다.

1909년 12월 25일 점등을 시작한 가덕도등대는 동서양의 건축 양식이 어

등대 현관 캐노피의 오얏꽃 문양 • 서용태

우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벽돌로 지은 건물의 버팀기둥 상부 형상이 고딕건축의 첨탑을 떠올리게 하고, 함석을 덮은 지붕 바깥에 두른 난간과 외벽 창문의 장식은 르네상스풍으로 만들었다. 현관에는 삼각 지붕의 캐노피를 달았는데 목재 기둥과 장식에 전통적인 의장 요소가 보이며, 특히 조선 황실의 상징인 오얏[李]꽃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 등대의 가장 큰 특징은 등탑과 부속 건물이 일체형이라는 데 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탑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이 보인다. 등탑 높이가 다른 등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현관 계단에서 고개를 들면 불을 밝히는 램프부가 눈앞에 바로 보인다. 해안절벽 위 높은 지대에 지어졌으니 등탑을 높게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현관 왼쪽에 나무 마루를 깐 제법 널찍한 사무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직원 숙소가 있다. 숙소 침실로 쓴 방은 다다미가 깔려 있고, 가운데 미닫이 문을 달아 두 칸으로 나누었다. 이불과 옷을 넣어두던 벽장과 나무 살에 종

위에서 본 가덕도등대의 지붕과 등탑 • 서용태

이를 바른 방문은 전형적인 일본식이지만, 창문은 위아래로 여닫는 서양식이다. 침실 뒤로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으며, 그 옆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커다란 무쇠 가마솥이 걸린 공간이 있다. 외딴 등대라 수도시설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 목욕물을 데운 용도라고 한다. 실내를 다 둘러보고 나니 등대지기의 일상이 머릿속에서 고스란히 그려졌다.

옛 등대와 새 등대의 동거

잔디가 깔린 자그마한 등대 앞마당에 꽃과 나무가 심어져 아기자기 이쁘다. 며칠 전 새끼를 낳았다는 강아지 한 녀석이 잔뜩 경계하며 짖으니 마당에서 낮잠 자던 서너 마리가 덩달아 짖어댄다. 옛 등대 옆에는 2002년 새로 지은 등대가 있다. 최신형으로 만든 높이 40m의 등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돌돌 말린 계단을 걸어서 등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볼 수가 있다. 계단을 빙빙 돌며 오르는데 다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기보다는 어지러워서 혼이 났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바다 경치는 도무지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 등대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독자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으니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꼭 가덕도등대에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옛 등대는 새 등대가 완공된 2002년까지 현역으로 사용했다. 등대 건설은 당시 소관부서였던 대한제국 탁지부 등대국에서 맡았지만, 설계와 시공은 일본인 기술자 몫이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유럽의 건축 양식이 섞인 구조가 된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서구의 건축 양식, 건축 재료, 장식 기법 등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다른 건축물들이 대부분 원형이 크게 훼손된 데 반해 가덕도등대는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건축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돋보이는 문화유산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12월에는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되었다.

다만 114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이고 바닷가에 위치한 탓에 주기적인 보수가 필수적이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침실 바닥의 다다미는 모두 걷어냈고 제습기 여러 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목재들도 썩어가고 페인트는 곳곳이 일어나 있었다. 2022년 9월부터 연말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한다니 다행이다. 2009년 12월 '가덕도등대 100주년 기념관'을 개관하여 등대의 역사와 가덕도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숙박 체험도 할 수 있다. 경쟁률이 워낙 높아 선정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비밀'이다!!

3. 대항 인공동굴의 운명

새바지 해안절벽의 인공동굴

가덕도 남쪽에 위치한 대항은 허리가 잘록해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만(灣)을 이루고 있다. 대항 입구 회전 로터리에서 서쪽(거제 방면)으로 가면 대항 포구이고, 동쪽(부산 방면)으로 가면 새바지 해변이다. 새바지는 샛바람, 즉 동풍을 고스란히 받는 곳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덜한 반대편에 포구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바닷바람 거센 새바지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른 1944년 중반 이후 일본군의 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일본군부는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해안 경비를 강화하였다.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도 미군의 공습과 상륙작전을 대비하여 부산과 주변 해안에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 대항 새바지 해안절벽에 인공동굴을 판 것이 그때였다.

인공동굴은 대항 새바지 포구의 방파제 바로 옆으로 돌출된 절벽에 있어서 찾기가 어렵지 않다. 일본군은 이 절벽 바위에 여러 개의 동굴을 뚫었다. 동굴의 넓이와 높이는 1.5~2m, 길이는 10~15m 정도이며, 일자 동굴, T자 동굴, 복식 동굴 등 모양과 형태가 다양하다. 내부가 십자형으로 얽혀 있을 정도로 긴 동굴도 있고, 절벽을 완전히 관통하여 반대편 몽돌해변과 연결된

낙석 사고로 폐쇄된 대항 새바지 인공동굴 입구 • 서용태

동굴도 있다.

해수면에 가깝게 인공동굴을 구축한 것을 보면 공습의 대비는 물론이고 은폐·엄폐된 동굴에서 해안으로 접근하는 미군 상륙정과 상륙부대를 공격하기에 적합한 다목적 동굴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국수봉의 보루 진지와도 상호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그런데 뚫다가 중단된 동굴도 있고, 부대의 실전 배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구축 도중에 태평양전쟁이 끝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항 인공동굴은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어 구축한 한 서린 역사 공간이다. 대항마을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북쪽의 탄광 노동자들을 데려와 인공동굴을 만들었다고 한다. 인공동굴은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지형상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구축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2017년부터 어두운 과거 역사의 흔적에서 오늘의 우리를 찾는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장소로서 이곳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대항 새바지 인공동굴을 답사할 수가 없다. 2021년 2월 커다란 돌덩이가 동굴 입구로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상 우려 때문에 동굴을 폐쇄하여 출입이 가로막혔다. 독자 여러분이 답사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면 연두색 철조망 울타리 너머의 동굴 입구만 간신히 보게 될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아마도 지금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대항 인공동굴을 보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꼭 여기에 공항을 지어야 하나

대항 새바지 인공동굴이 1년 이상 폐쇄된 채 별다른 조치 없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곳이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이기 때문이다. 공항 건설로 어차피 없애야 할 공간이니 관리주체인 강서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구청 관계자는 "여전히 인공동굴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곧 철거될 시설물에 많은 예산을 들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새바지몽돌해변 전망 좋은 언덕 위에 초대형 카페가 문을 열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그 주변으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멋들어진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이제 기정사실로 되었으니 곧 철거될 터인데 어찌 저리 돈을 퍼붓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보상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라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흔적인 인공동굴도, 내 첫사랑 연인과의 추억이 깃든 아름다운 몽돌해변도, 새로 지은 저 건물들도 곧 사라질 운명이다. 무엇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이곳 전체가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바뀐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나는 가덕신공항 건설이 못마땅하다. 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망가진 자연은 회복이 결코 쉽지 않다.

새바지 반대편 대항포구 북서쪽 해안절벽 위에도 여러 개의 인공동굴이 있다. 진해 해군기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대항포구는 안으로 깊게 파인 만이어서 외부에서 쉽게 파악하기 힘든 지형이기 때문에 해안 방어의 최적지였다. 일본군은 이곳에 해수면으로부터 약 8m 높이의 해안절벽 암반을 뚫어 인공동굴을 구축하였다. 해수면 가까이 구축된 새바지 인공동굴과 달리 구축한 것을 보면 둘은 용도가 달랐다. 동굴 안에는 야포와 중화기를 은밀하게 배치하여 진해만으로 진입하는 미군 비행기와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포진지를 설치했다. 이곳에는 각기 입구가 다른 포진지 동굴 세 개가 안에서 횡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가 무려 175m에 달한다. 두 개의 동굴이 더 있지만 구축하는 도중에 전쟁이 끝나서 미완성인 채로 남았다.

폐쇄된 새바지 인공동굴과 달리 대항포구의 포진지 인공동굴은 여전히 개방되어 있으니 이곳으로 답사를 가보자. 강서1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인 대항방파제 정류소에 하차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항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해안로를 따라 대항포구 북쪽 끝까지 가면 된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어서 걷기에 부담이 없다. 강서구는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52억 5,000만 원을 들여 동굴을 정비하고 대항포구 끝에서 인공동굴 입구까지 데크를 깔아 해안산책로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해안절벽을 따라 높게 깔린 데크를 걷다 보면 이내 거대한 야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동굴 입구에 이른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강제 동원되어

1. 대항 포진지 인공동굴 입구와 해안 데크길　2. 인공동굴 내부 • 이상 서용태

굴을 파던 조선인들과 결사 항전에 내몰린 일본군 병사들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는 모형과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강서구에 산재해 있는 일본군 시설들에 대한 안내 패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전쟁의 비극에 대한 교육적 장소로도 손색없다. 게다가 동굴 내부의 통로를 따라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와서 관광지 느낌도 풍긴다.

한편, 대항포구 포진지 인공동굴도 주변 암반에서 나온 크고 작은 돌멩이가 동굴 주위로 떨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강서구는 혹시 모를 사고를 막고자 올해 5월 낙석방지망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되고는 있지만 새바지 인공동굴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공항 건설이 시작되면 완전히 철거될 상황이라 근원적인 안전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4. 가덕도 꼭대기 연대봉 봉수대

임진왜란 발발, 왜군을 최초로 발견하다

> 가덕진 첨절제사 전응린과 천성보 만호 황정 등의 긴급 보고에 의하면, 응봉의 봉수감고 이등과 연대 감고 서건 등이 와서 고하기를 "오늘(4월 13일) 신시(申時, 오후 3시~5시)에 왜선이 몇십 척인지, 대략 보이는 것만도 90여 척이 본토를 나와서 경상좌도의 추이도(사하구)를 지나 부산포로 향하는바, 까마득하여 그 수를 상세히 헤아려 볼 수는 없었으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장계(전황 보고서)를 모아 쓴 『임진장초』(국보 제76호)에는 이순신이 경상우수사 원균으로부터 이러한 공문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592년(선조 25) 음력 4월 13일, 대마도를 출발해 부산포로 향하던 왜군의 배들이 가덕도 앞바다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당시 가덕진과 천성진은 경상우수영의 해상 방어 최전방 진지였다. 위 이순신의 장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덕진 휘하의 천성진 관할 아래에 있던 연대봉의 봉수대에서 임진왜란의 발발을 알리는 중대한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봉수대는 국경을 침입하는 외적을 발견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관측소이자 전쟁의 긴급함을

횃불과 연기로 알리는 통신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군사시설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입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보고한 곳, 바로 그 가덕도 봉수대가 이번 답사지이다. 모든 봉수대는 그 기능상 주변이 탁 트인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다. 가덕도 봉수대 역시 가덕도에서 제일 높은 곳인 연대봉에 위치해 있다. 해발 고도 459m의 연대봉은 가덕도의 중앙부에 있는 섬 내 최고봉으로, 북동쪽에는 응봉(252m)이 있고, 북서쪽에는 웅주봉(339m)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국수봉(269m)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산지의 중심이다. 가덕도의 지형은 연대봉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연대봉의 동쪽은 산 정상에서 해안까지 급경사로 이어지며, 서쪽은 구릉성 사면이 완만하게 해안으로 이어져 해안을 따라 농경지와 취락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외양포, 대항, 천성, 두문 등 가덕도의 자연마을들은 대부분 서쪽 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답사인가 등산인가

이 역사적인 현장에 가려면 약간의 수고를 감내해야만 한다. 수고라고? 혹시 등산을 좋아한다면 수고라기보단 오히려 재미가 플러스 되겠다. 봉수대가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차편으론 갈 수가 없고 무조건 걸어서 올라가야만 하니 말이다. 연대봉에 오르는 길은 크게 세 갈래가 있다. 북쪽의 동선마을이나 남쪽 대항 새바지에서 오르는 길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길은 대항 고개(지양곡)에서 출발하는 길이다. 천성에서 대항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잘 정비된 지양곡주차장이 있으니 여기에 주차하면 된다. 주말이면 차가 꽉 차기 일쑤라서 조금 일찍 길을 나서거나 평일을 이용한다면 주차하는데 다소 여유가 있을 것이다. 주차비는 무료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면 520번을 타고 지양곡 정류소에서 하차하면 된다. 다만 배차 간격이 1시간~1시간 30분이니 시간표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주차장을 나오면 출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뒤로 너른 마당에 쉼터 벤치와 안내소가 있다. 연대봉 가는 등산길에 화장실이 없으니 미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안내소 맞은편에는 백재덕 흉상이 있다. 백재덕(1925~1988)은 가덕도 천성마을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운 인물이다. 연대봉 봉수대와 그리로 가는 길 초입의 참전용사 흉상 사이에는 수백 년 간극이 있지만 국방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계기가 됐다. "여기서 연대봉까지 오르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내소에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다. "보통 40~50분 정도, 천천히 가도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안내소 옆 표지판을 보니 1.55km만 올라가면 된다. 더구나 현 위치는 해발 150m다. 출발과 동시에 산을 3분의 1가량 올라온 셈이다.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 곳곳에 이정표가 있어서 수시로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등산로라기보단 산책로에 가깝다. 조금 걸으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나온다. 아마도 가덕도가 오랫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고, 배로만 들어올 수 있는 섬이어서 귀한 삼림자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팔각형의 정자가 나타나면 반 넘게 온 것이다. 정자에 앉아 물 한 모금하시길 권한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왔던 길과는 사뭇 다른 험난한 길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사도 상당히 가팔라질 것이고, 잘 정비된 산책길이 아닌 거친 돌길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하니 위안이 된다. 다시 길을 나서 연대봉까지 100m 남았다는 이정표 앞에 이르면 산 정상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제 돌과 바위 위로 난 험한 길 사이로 굵은 밧줄이 나타날 때쯤이면 숨이 넘어갈 듯

연대봉 정상 표지석과 뒤로 보이는 외양포 국수봉 • 서용태

연대봉에서 본 거가대교와 거제도 • 서용태

헉헉대겠지만 이게 마지막 관문이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스레 밧줄을 잡고 돌길을 오르니 야호~~ 드디어 정상이다.

가덕도 사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봉수대

사실 짧고 굵은 등산 코스라는 얘길 많이 들어서 살짝 긴장했지만, 실제로 막판에 몹시 힘이 들었지만, 막상 정상에 오르고 보니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눈 앞에 펼쳐진 장관(壯觀)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연대봉 발아래 대항포구와 새바지 해변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거가대교를 따라 거제도가, 북서쪽으로는 진해만의 여러 섬들과 마산 방향의 경관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몰운대와 마주하는 동쪽으로는 다대포 해안과, 그 사이에 낙동강을 따라 1,300리를 굽이쳐 떠내려온 모래가 만든 섬인 진우도·신자도·장자도·대마등·백합등 등이 생성되어 있다. 북동쪽 가까이로는 명지 신도시와 을숙도가 나타나고 멀리로는 금정산, 백양산, 승학산, 천마산, 태종대가 차례로 펼쳐져 있다. 그 너머로 날씨가 좋아서 시계가 활짝 열린 덕분에 해운대의 마천루들까지도 선명하게 보였다. 무엇보다 남동쪽으로 일본의 대마도가 제법 선명하게 확인되니,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출몰을 최초로 알린 관측지가 왜 이곳이었는지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알게 된다.

연대봉 표지석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 뒤에 있는 봉수대를 살펴봤다. 생김새는 여느 봉수대와 다르지 않은데, 다 허물어진 것을 1996년에 복원한 것이라 한다.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제대로 고증하고 복원했는지 모르겠다(복원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봉수대의 북쪽은 부산신항만과 녹산국가공단의 매립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서쪽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왜의 수군 주력을 격멸한 안골포해전이 벌어진 장소이며, 또한 왜관과 왜성이 있던 제포(내이포)와 웅천이 있는 역사적 장소이

가덕도 연대봉 봉수대 • 서용태

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숲이 무성하여 연대봉 봉수대에서는 북쪽 방면으로 조망이 가려져 있어서 살짝 아쉽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연대봉에 봉수대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봉수대가 설치되어 연대봉이 되었다는 것이다. 연대봉(煙臺峰)은 봉홧불과 그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시설(연기나는 대)이 있는 봉우리라고 하여 붙은 명칭이다. 즉 봉수대와 관련된 이름으로, 봉수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원래의 이름을 알 길이 없다. 이왕 임진왜란과 왜군 얘기를 시작하였으니 다음 답사지로 이동해 조금 더 해보려 한다. 산에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등산 초보더라도 겁내지 말고 꼭 연대봉과 봉수대에 오르길 강력히 추천한다.

5. 천성진과

이순신

가덕도에 수군 진영을 설치하다

임진왜란 발발 50여 년 전인 중종 39년(1544)에 이런 기록이 있다.

> 가덕도 축성사 방호의가 일을 끝내고 "이제 가덕에 성을 쌓았으나, 배를 감출 곳이 없으므로, 항구에 돌을 던져 넣어 바다와 같게 높이고, 그 위로 나무 울짱을 만드니, 그 안에 배 1만 척을 감출만 합니다"라고 임금께 아뢰었다.
>
> - 『중종실록』 39년 9월 26일자

조선 중종 때 가덕도에 성을 쌓고 항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조선 초 남해안을 중심으로 왜구의 약탈에 시달렸다.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에 읍성을 쌓아 관민을 보호하고 해안 방어를 위해 수군 진영을 설치하는 등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한편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급기야 '햇볕정책' 카드를 꺼냈다. 대마도와 가까운 포구를 개항하여 왜인들이 거주하거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이른바 '재팬타운'을 건설하여 그들을 회유

하기로 한 것이다.

1407년(태종 5) 진해 웅천의 제포(내이포)와 부산포를 개항하여 왜관을 설치하자 왜인들은 이제 약탈이 아닌 이곳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아 고기잡이나 무역 같은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나섰다. 제포와 부산포를 찾는 왜인들이 늘어나고 약탈이 줄어들자 1426년(세종 8) 울산 염포를 추가로 개항하여 삼포(三浦)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리 만무하다. 더구나 언어와 풍속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그 정도가 더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삼포의 왜인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다가 급기야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발발했다. 삼포 왜인들의 폭동은 오늘날의 계엄사령부 격인 비변사를 설치하면서까지 총력을 기울여 어렵사리 진압되었으나 다시금 평화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왜인들이 언제 다시 폭동을 일으킬지, 약탈에 나설지 불안한 가운데 가덕도 부근에 수군 진영을 만들고 군사를 배치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가덕도는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여 km 떨어져 있고, 왜구들이 남해안과 낙동강 수로를 따라 본격적으로 노략질하기에 앞서 전열을 가다듬던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1518년 1월 경상병마절도사 조윤손이 "가덕도에 진을 설치하면 왜인들이 자주 다니는 경상도 바닷길의 요충을 점거하는 것이고, 진에 주둔 병력이 많지 않더라도 왜인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다"고 주청한 이후 수십 년 동안 가덕도 수군 진영 설치 논의가 계속되었다. 1538년 8월 우의정 김극성은 "가덕도가 바다 가운데 있어 다른 지역의 군이 급히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진을 설치하더라도 두 개의 진을 세워야 하며, 두 진의 병사도 1,500명 이상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병전인 단병에 능한 왜인들이 쳐들어 온다면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우리 병사들이 섬에 갇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섬의 특성상 보급품 비리도 발생할 수 있다"며 진 설치를 반대했다.

찬반 양측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1544년(중종 39) 4월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이 일어나자 가덕도 방어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면서 결국 종3품 무관 수군첨절제사가 관할하는 본진인 가덕진과 속진인 천성만호진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위 『중종실록』의 기사는 가덕진과 천성진에 수군이 주둔할 수 있는 성을 쌓은 후 바다 쪽으로 돌덩이를 채워 군선을 보호하는 시설을 함께 조성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본진인 가덕진을 먼저 답사하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우리는 지금 직전 답사지인 연대봉 봉수대에서 내려오는 길이니 가까운 천성진을 먼저 답사하는 것이 경로상 유리하다.

고지도를 통해 본 천성진성의 모습

연대봉을 내려와서 지양곡주차장에 주차한 차를 타고 천성진성까지 가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내리막길이라 사부자기 걸어가도 전혀 부담 없는 거리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520번 시내버스나 강서1번 마을버스를 타고 서중마을 정류소에 하차하거나 2000번 급행버스를 타고 천성 정류소에 내려 천성마을 외곽에서 천성진성을 찾아갈 수 있다. 아니면 천성항까지 가서 마을 안 골목길로 천성진성에 가도 좋다. 어느 방면이든 버스에서 하차 후 천성진성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지만, 마땅한 이정표도 없고 멀리서는 성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초행이라면 단번에 찾아가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안내문 하나 없이 입구도 출구도 없고 오로지 터만 남은 천성진성을 찾아

가니 성터 안의 땅 일부는 마을 사람들이 전답으로 이용하고 있고 일부는 그냥 버려져 있는 듯했다. 천성진이 폐지된 이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벽은 허물어져 내렸고 성 안에 있던 시설 또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일부 구간의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서 이곳이 옛 천성진성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모습만으로는 천성진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옛 지도를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다.

『1872년 군현지도』 속 「천성진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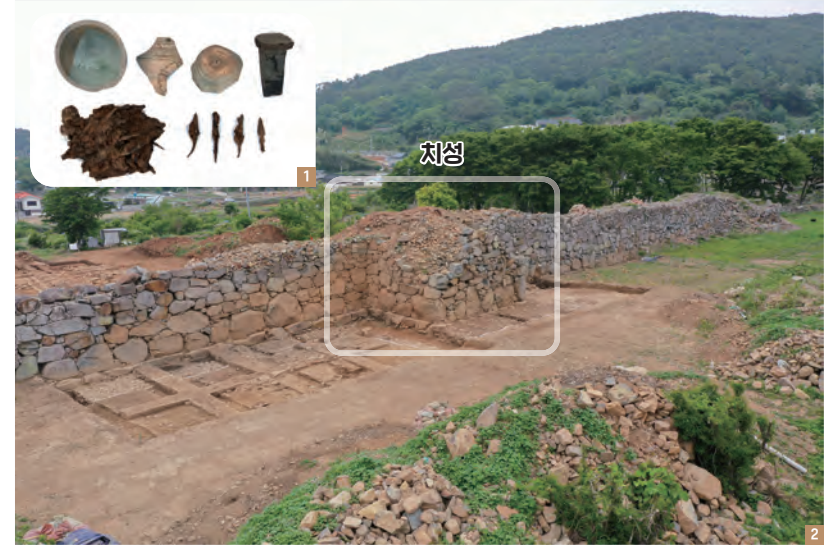
1866년(고종 3) 병인양요와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같은 외침을 겪은 이후 조선 정부는 국방과 치안을 위해 지방의 실정과 전국 각 군현 및 군사시설에 대한 파악이 시급한 과제였고, 그 일환으로 1871~1872년에 걸쳐 전국적인 차원에서 군현지도를 제작하였다. 『1872년 군현지도』 속 「천성진도」는 이때 만들어진 지도 가운데 하나로, 천성진과 주변 지역을 묘사한 고지도 중에서 가장 자세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측면, 특히 해안 방어가 강조된 지도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천성진 성곽이 크게 확대되어 중앙에 그려져 있으며, 동서남북의 4대문과 함께 성곽의 내부에는 각종 관아 건물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주변의 봉수대와 군사시설도 그렸다. 남쪽 해안 곶(串)의 돌출된 곳 안쪽으로 군선을 보호하는 석축 시설과 선창이 그려져 있고, 배의 모습도 보인다. 1871년의 『영남읍지(嶺南邑誌)』에는 천성진에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군사시설 외에도 서문 밖에는 민가를 상당히 밀집되게 그려 취락의 규모가 컸음을 표현하였다. 천성진의 방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까닭에 동쪽을 상단으로 잡아 그린 것이 특이한데, 지도 하단의 천성진 서쪽 방향에 거제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는 지도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상단에는 통영, 거제, 가덕진 등의 주변 지역과의 거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지도를 보완하고 있다. 고지도 얘기를 이리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천성진성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이다. 옛 지도를 봤으니 이제 실물을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천성진성은 계속 발굴조사 중

천성진성은 성벽 높이 3.5m, 너비 4.5m이고, 둘레 약 960m 규모에 직사각형의 평면 형태이다. 서쪽, 남쪽, 북쪽에는 옹성(甕城,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쌓은 반원형의 작은 성벽)을 갖춘 성문터가 확인되며, 연대봉 아래인 동쪽에는 성문터가 보이지 않고 대신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다. 성문의 좌우와 성벽이 꺾인 지점에는 성벽 밖으로 치성(雉城,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측면에서 사살

천성진성 터(사진 중앙부)와 천성항 • 부산박물관



1. 천성진성 발굴조사 출토 유물 2. 천성진 성벽과 치성 • 이상 부산박물관

하기 위해 돌출시켜 쌓은 성벽)을 설치하여 방어력을 높였으며, 성벽 외곽으로 해자(垓子, 성 방어를 위해 성벽 주위를 둘러싼 연못)를 돌렸던 흔적이 있다. 그야말로 방어시설로 손색이 없는 구조이다. 천성진성을 축조할 때 가덕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웅천, 김해, 함안 등 일곱 개 지역 군민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중장비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뼈마디가 저리는 느낌이다.

1989년 3월 10일 부산직할시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된 것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22년 올해에도 2월부터 5월까지 부산박물관에서 5차 발굴조사를 진행했는데, 상당한 학술적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내가 이곳을 답사한 6월 초는 발굴조사가 막 끝난 후라 주변이 상당히 어수선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천성진성 중심부 750㎡에 대한 것으로, 남해안 수군진성 최대 규모의 계단지와 성곽 위에 세운 장대 기능의 건물터 등이 새롭게 드러났다.

남해안 수군진성에서는 보기 드문 너비 5.5m의 대형 계단지는 관아로 추정되는 곳 배후에 위치하며, 6m 높이의 성문 위 성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다. 거제 사등성, 하동읍성 등 남해안 일원에 축조된 조선시대 성곽의 계단지 대부분이 너비가 1.5~2m에 불과하니 무려 그 서너 배에 달한다. 또한 계단지와 이어진 치성 위에서는 장대 기능의 포루(鋪樓, 치성 위에 설치한 누각) 터와 주춧돌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곳은 천성진성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가덕도와 거제도 사이의 진해만을 넓게 관망하는 위치로서, 왜적의 침입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앞의 계단을 통해 포루에 신속히 올라 장졸들을 통솔하는 장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

다. 특히 1544년에 천성진성이 축성됐다는 사실을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가정18년'(嘉靖十八年, 1539년) 명문 암막새 기와를 비롯한 다양한 기와 조각들, 쇠 화살촉, 분청사기·백자 조각 등 다수의 유물이 발굴되었는데, 명문 기와뿐만 아니라 다른 유물들도 모두 조선 전기의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18년 명문 기와 등 조선 전기의 유물이 발굴된 것은 1544년 최초 축성 당시의 성곽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사실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직접 상륙했던 성이기 때문이다. 즉 이순신 장군의 수군 함대가 이 천성진성을 교두보 삼아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부산포해전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산의 유일한 이순신 유적'인 것이다. 부산포해전을 치르기 위한 중간 발진기지로서 천성진이 아니었으면 부산포해전의 큰 성과는 없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 유적으로서의 천성진성이 부산의 역사·문화적 자산으로 잘 보존돼 부산시민들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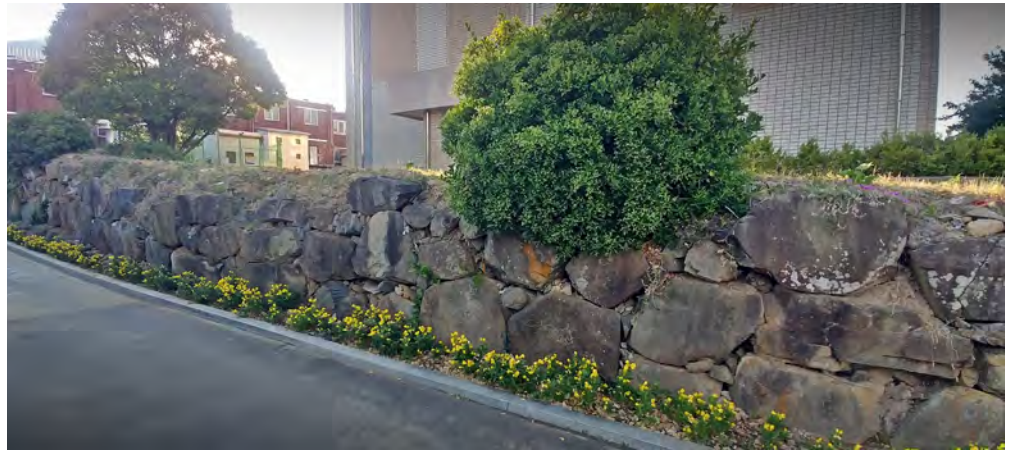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발굴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정비사업이나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천성 지역은 엄청난 변화를 겪을 예정이다. 대항에 신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대항마을 사람들과 시설들 대부분이 천성마을으로 옮겨올 것이고, 공항 배후지로서 새로운 시설들과 사람들이 천성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폐교된 천성분교 주변으로는 지금도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구를 새롭게 만들고 길을 정비하고 공원을 꾸미고 멋진 집들과 이쁜 가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지어지고 있다. 과연 천성진성 복원이 가능할까? 어쩌면 사라지고 없을 대항 지역 역사유적을 아쉬워하며 천성의 역사유적이 더더욱 빛을 발할지도 모르겠다.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미래의 대항처럼 내 기억 속 천성항과 이 마을도 미래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이 너무 서글프다.

6. 가덕진성과 대원군 척화비

가덕진은 어떤 모습이었나

이제 천성진과 같은 시기에 축성된 본진인 가덕진을 찾아 성북 쪽으로 가보자. 가덕도의 입구에 해당하는 성북은 대항이나 외양포에 비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 버스도 비교적 자주(?) 다니는 편이고, 강서1번 마을버스 뿐만 아니라 2000번 급행버스나 520번 시내버스가 모두 성북을 지나 간다. 승용차를 이용한다면 성북IC에서 빠져나온 후 오른쪽 동선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천가초등학교를 찾아가면 목적지에 도착이다.

아니 우리는 지금 가덕진성을 찾아가는 중인데 목적지가 초등학교라고? 맞다. 천가초등학교에 도착했다면 목적지에 제대로 온 것이다. 천가초등학교와 덕문중학교 일대가 옛날 가덕진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덕진성 터 안팎으로 학교와 집들이 꽉 차 있어서 성벽과 관련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눈썰미가 있는 독자라면 천가초등학교와 덕문중학교 담벼락에서 어렵지 않게 가덕진성 성벽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가덕진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질 않지만, 성벽 위에 학교 담장이 놓인 까닭에 오히려 성벽이 보존된 셈이니 다행이다.



가덕진성 성벽(천가초등학교 담장) • 서용태

가덕진은 남북으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천가초등학교와 덕문중학교가 가덕진성의 남측 부분에 해당한다. 나머지 절반인 북측 부분은 민가와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성의 경계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앞의 천성진에서처럼 고지도를 통해 원래 모습을 떠올려 보자. 『1872년 군현지도』 속 「가덕진도」는 조선시대 가덕진과 주변 지역을 묘사한 지도 중 가장 자세한 지도이다. 가덕진 성곽은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쌓았지만 「가덕진도」에서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성곽을 그렸다. 또한 실제 방위와 정반대로 가덕도의 북단을 아래쪽에, 남단을 위쪽에 그렸다. 동서남북 네 곳의 성문을 그리면서 동문을 남쪽으로 향하도록 그린 것도 특이하다. 가덕진이 동쪽으로 바다를 향해 열려 있고 나머지 세 방향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동문이 남문 역할, 즉 정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던 것 같다.

성곽 내부와 성 밖에는 수군첨사진의 위용에 걸맞게 각종 관아 건물이

『1872년 군현지도』 속 「가덕진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 동문 주변으로 민가를 상당히 밀집되게 그려 취락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표현하였고, 민가 외곽으로 논과 밭을 구획한 경지도 그렸으며, 동문에서 바닷가까지 붉은 선으로 주 도로를 표시했다. 가덕진성은 수군 진영의 기능뿐만 아니라 뭍의 읍성처럼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가덕진도」를 통해 관청 및 군사시설이 민가와 접해 있는 성곽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창이 왜 거기서 나와?

가덕진은 1592년 임진왜란 때 천성진과 함께 함락되어 안골포로 이전되었다가, 1656년(효종 7)에 성곽을 재정비하여 진이 복구되면서 다시 가덕도로 돌아왔다. 이후 240여 년 동안 유지되다가 1895년 군제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2006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사각형의 성곽은 총길이가 약 800m이고, 높이는 2.3m 정도의 규모이다. 성곽 사방의 중앙 상부에 성문 자리와 옹성이 확인되며, 성 밖으로 10m 폭의 해자를 설치한 흔적도 볼 수 있다. 성 동쪽의 병기 공장이 있던 곳에서는 칼, 창, 화살촉 등이 수습되었다.

성 내부가 협소하여 「가덕진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군사시설은 성문 밖에 두었다. 특히 눈여겨볼 시설은 '선창'이다. 수군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군선이 정박하는 핵심 시설인 선창이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가덕대로 성북IC를 나와 오른쪽 길로 들어서야 가덕진성이 있던 동선마을이 나오는데, 왼쪽 길로 가면 선창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선창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가덕진도」에서 볼 수 있는 선창의 위치가 생김새나 지형 등을 볼 때 대략 지금의 선창마을과 일치하는 것 같다. 예전에 배로만 가덕도에 들어갈 수 있던 시절에도 성북·동선마을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창마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내려야 했다. 성북이란 지명도 가덕진성 북쪽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가덕진성 북문에서 선창까지의 거리가 대략 1.5km에 이른다. 가덕진의 수군 병사들이 성 내에서 선창까지 오가며 훈련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고, 유사시 시급하게 군선을 타고 전투에 나서기에도 불리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과 선창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 추측건대 동선만 안쪽은 수심이 얕고 뻘이 있어서 배를 대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또한 가덕진은 단순한 수군 진영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으므로 마을 안에 읍성처럼 성을 쌓은 게 아닐까?

「가덕진도」에는 해안의 선창에 군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1871년의 『영남읍지(嶺南邑誌)』에는 가덕진에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 후기 수군 진영 군선의 편제는 기본단위가 대형 전투선인 전선 1척, 소형 무장선인 병선 1척, 사후선(何侯船, 전투함이나 무장선에 부속되어 정찰 등에 활용한 비무장 소형 군선) 2척이고, 필요한 경우 중형전투선인 방선 1척을 첨가하였다. 가덕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는 다른 수군 진영에 비해 군선의 수가 2배에 이르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가덕진도」에는 전선 2척, 병선 2척, 사후선 4척이 그려져 있어 이 지도가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성과 선창 사이에는 어변정(禦變亭)이 그려져 있다. 어변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수군 진영의 포구 진지로서 군관과 화포를 배치하여 해안 감시초소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장수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기도 했고,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곳이 선소(船所)였다는 것이다. 즉 배를 만들고 관리하던 조선소를 겸했다.

이곳에 척화비가 있다니!

이 지도에서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어변정 옆에 그려져 있는 척화비이다.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후 그해 4월에 서울과 각지의 도회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던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나는데, 「가덕진도」에 척화비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회가 아닌 군사 요충지에도 척화비를 건립

가덕진 척화비와 공덕비 • 서용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 속의 이 척화비가 지금도 남아있을까? 정답은 '남아있다'이다. 그러면 척화비를 보러 가보자. 그런데 지도만 보고 옛날 선소가 있던 장소를 찾아가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놨기 때문이다. 거기가 어디냐고? 척화비가 바로 천가초등학교 안에 있으니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천가초등학교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왼편에 나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웅장한 고목이 버티고 서 있고, 그 아래에 비석이 여럿 서 있다. 그중 오른쪽 끝에 있는 비석이 바로 주인공 척화비이다. 원래는 지도에 나와 있는 장소에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지며 땅속 어딘가에 파묻혀버렸다. 그러던 것을 건축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1995년 12월 지금의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 오랜 세월 땅속에서 잠들어 있던 비석 치고는 보존 상태가 매우 좋다. 140여 년이 지났음에도 글자 한자 한자가 또렷하다. 땅속에 잠들어 있던 게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척화비는 프랑스(병인양요)와 미국(신미양요) 두 서구 열강의 침략 직후에 흥선대원군이 백성들에게 외세의 침략을 배격하고 각성시키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화강암 몸통에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열두 자가 세로로 두 줄 크게 새겨져 있고, 그 왼편에 '우리들 만대 자손에게 경고하노라(戒我萬年子孫)', 또 그 옆에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丙寅作辛未立)'라는 글자가 각각 여섯 자씩 두 줄 새겨져 있다.

전국 각지의 척화비는 1884년 임오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된 이후 대부분 파괴되었다고 한다. 가덕도 척화비도 그때 땅속에 파묻어 버린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남아 우리 앞에 떡하니 서 있으니 반갑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척화비까지 세우며 나라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던 140여 년 전 바람 앞의 등불 신세의 조선을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하다. 척화비 옆에는 가덕진을 지키던 수군첨사들의 공덕비 셋도 함께 있다. 척화비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한군데로 모아둔 것이다. 학교 안이 곧 옛날 가덕진성 안이니 자리를 잘 잡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좋으니 일석이조다.

재작년에 태풍으로 인해 남아있는 가덕진 성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보수공사가 진행됐지만 땜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었는데, 가덕진성이 비지정문화재여서 전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나 복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바다 한가운데 섬인 가덕도엔 태풍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 불어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체계적인 보수 및 복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7. 섬 안의 섬 눌차 그리고 정거마을 벽화

국수봉 할매와 할배

가덕도에는 크고 작은 몇 개의 섬이 딸려있다.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작은 바위섬들이지만 눌차도는 다른 섬들과 달리 규모도 크고 육지와 가까운 가덕도 입구의 섬이라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섬 안의 섬인 눌차도 안에는 큰 마을이 넷 있다. 부산신항에 접해 있는 항월마을, 성북 선창마을과 바라보고 있는 외눌마을, 눌차만 가장 깊숙한 곳의 내눌마을, 그리고 동북쪽 끝자락에 이번 답사지인 정거마을이 있다. 눌차도라는 이름은 섬의 지세가 완만하고 낮게 누워 있는 모습이라 지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길쭉한 형태의 섬이고 양쪽에 두 개의 낮은 봉우리가 있어서 얼핏 보면 마치 두 개의 섬처럼 보인다. 주봉은 동쪽에 있는 국수봉(해발 138.9m)이다.

국수봉? 어째 이름이 낯설지가 않다 했더니 외양포에도 같은 이름의 국수봉이 있다. 왜 가덕도에는 이름이 같은 국수봉이 둘일까? 가덕도 주민들은 외양포는 할배국수봉, 눌차는 할매국수봉으로 부른다. 부부 국수봉인 셈인데, 외양포 국수봉은 전장에 나가 싸워온 남성을 말하고, 눌차 국수봉은 전장을 지원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국수(國守)'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덕도 남북 양 끝단의 두 국수봉이 섬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수호신인 것이다.

눌차 국수봉에는 국수당이 있다. 마을 수호신인 국수봉 할매를 모신 제당이다. 이 할매가 남자를 보호해 주고 키워 주는 신이라서 아들을 갖고 싶은 사람이나 아들을 나라의 재목으로 키우고 싶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 지금도 눌차 주민들은 국수당에서 매년 정월 초하루에 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빈다. 어촌에서 지내는 풍어제는 만선과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1~2월에 동해에서 자란 대구가 산란하러 가덕도에 찾아오니 시기적으로도 맞물린다(요즘은 대구 개체 보존과 어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알을 이곳에서 방류한다고 한다). 한편, 국수봉 반대편의 낮은 봉우리에도 할배사당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곳이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눌차왜성의 장수 지휘소인 천수각 자리라는 사실이다. 이 할배가 왜군 장수를 깔고 앉아있다 생각하니 쌤통이다.

가덕진성에서 정거마을로 가는 방법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성북마을과 선창마을을 지나면 나오는 천가교를 건너는 방법이다. 천가교는 다리가 둘이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좁은 철제 다리 옆에 사람만 다닐수 있는 더 좁은 다리가 나란히 붙어 있다. 천가교를 건너 계속 길을 따라 섬을 완전히 감아 돌면 항월마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섬 끝까지 더 들어가야 비로소 정거마을이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동선마을 앞 해안을 따라 오른쪽(동쪽 다대포 방면) 끝까지 가면 동선 방조제가 나오는데, 이 제방 도로를 건너면 눌차도이다. 방조제를 지나서 왼쪽(서쪽 부산신항 방면) 길로 눌차만을 따라가면 내눌마을과 외눌마을이 차례로 나오고, 천가교를 지나면 앞서 설명한 길과 이어지니 그대로 길을 따라가면 된다.

가덕도 숭어와 눌차 굴 양식

가덕도는 자연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험난한 '길목'이었다. 역사의 길목이라는 장소성에 대해선 앞에서 설명했고, 자연적으로는 가덕도가 태풍의 길목이어서 거의 매년 직간접적인 태풍 피해를 본다. 하지만 자연은 험난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 풍성함도 안겨주었다. 가덕도 해안은 파도가 적은 내만이면서 수심이 깊고 조류 흐름이 원활해 물이 깨끗하다. 또한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길목이라서 숭어와 대구 등의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특히 가덕도 숭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육질이 부드럽고 향긋한 단맛이 일품이어서 임금님 수라상에도 진상되었다고 한다.

가덕도 숭어보다 더 유명한 건 굴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굴, 대구 등을 이곳 토산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굴이 풍부했다. 가덕도는 담수 유입량이 적당하고 플랑크톤 번식에 필요한 영양염류가 풍족해 굴 생장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각 지방 읍지(邑誌)를 엮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에 의하면 성종 24년 경상도 웅천(熊川)에서 굴을 먹고 스물네 명이 사망했고, 뒤이어 연산군 2년에도 웅천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당시의 웅천은 가덕도와 맞은편 진해만 일대이다. 아마도 패류독소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데, 옛 기록에 사망사건이 언급될 만큼 이 지역에선 오래전부터 굴을 먹어왔다는 증거가 되겠다. 이런 이유로 1923년에 가덕도 눌차 갯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굴 양식 실험에 성공했다.

눌차 굴 양식장과 조개껍데기 더미 • 서용태

'1904 흐르는 섬 가덕도' 벽화 • 서용태

눌차도 주변 바다는 온통 굴 종패 양식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닷가 앞으로는 길 옆에도 집 옆에도 여지없이 줄로 꿰어놓은 가리비 껍데기가 쌓여 있다. 배출되는 굴 껍데기를 갯가에 쌓아둔 것이 자연스레 매립되면서 육지가 됐다는 마을 주민의 말처럼 그야말로 굴 천지다. 가덕도 굴 양식은 밧줄이나 말목, 뗏목 등에 어린 굴(굴 종패)이 붙은 가리비 껍데기를 매달아 바다로 내리는 수하식이다. 한때는 전국 굴 종패 70~80%를 가덕도(눌차)에서 생산할 만큼 명성이 대단했지만, 지금은 치패(稚貝)만 길러 대부분 통영과 전남 등지의 굴 양식장으로 보낸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 눌차 곳곳에는 생굴을 파는 집들이 많으니 굴 제철인 겨울에 방문한다면 꼭 한번 들러 보시라. 바다 향 가득 머금은 싱싱한 생굴은 맛도 좋지만, 아연 성분이 많아 특히 '男子'에게 좋다고 한다. 좋은데 참 좋은데

어떻게 좋은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곤란하니 그냥 드셔 보길!! 이 좋은 굴을 부산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가덕도 바다가 주는 선물이다.

정거마을 벽화마을 생태마을

가덕도 끝자락 외양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 드디어 마지막 답사진인 정거마을이다. 눌차 국수봉 아래 정거마을은 외양포와는 반대편의 가덕도 끝자락이다. 이 마을은 여느 어촌마을과 달리 바다가 움푹 들어간 만이 아니라 불쑥 튀어나온 곶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먼바다로 고기잡이 나가는 어선들은 풍랑이 심할 때면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바닷길 길목인 여기서 닻을 내리고 기다렸다고 해서 '닻걸이 마을'이라고 불렀다. 정거마을의 한자 이름 '정거리'는 닻 정(碇) 혹은 머무를 정(停)에 걸이를 한자로 음차한 거리(巨里)에서 온 것이다.

이 마을은 지금 정거마을, 정거생태마을, 정거벽화마을, 정거마을 문화거리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주민 대부분이 어업이나 굴 종패 양식업을 하는 이 마을은 환경부가 선정한 전국 생태보전지역 습지생태체험 시범마을 다섯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부산광역시 커뮤니티뉴딜시범지역 사업장에 선정된 후 60여 세대의 집 담벼락에 어촌 향기가 가득한 독특한 벽화들이 그려졌다. 그래서 다양한 이름이 새로 생긴 것이다. 강서1번, 강서17번 마을버스가 마을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각각 하루 세 차례씩만 운행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버스 정류소 앞에 작은 주차장이 있어서 자동차로 갈 수도 있지만 진입로가 좁아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비켜줘야 한다. 비교적 대중교통이 편리한 성북마을에서 걸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거벽화마을 입구 • 서용태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흰 벽에 검은 글씨로 새긴 '1904, 흐르는 섬 가덕도'라는 문구가 반긴다. 가덕도의 역사성, 장소성, 현재성을 모두 함축하는 작명 센스가 돋보이는 문구다. 마을은 생각보다 아담하다. 차가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줄지어 선 집들의 담벼락에도 대문에도 길바닥에도 벽화가 가득한,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다.

벽화들은 대부분 눌차 주민들의 생활상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림 하나하나가 다 정겹다. 그런데 한편으론 아쉽다. 관청의 발주를 받아 하나의 업체에서 모든 벽화를 제작한 탓에 벽화들이 통일성이 있지만 개인적으론 재미가 덜한 느낌이다. 더구나 그려진 지 10년이 지나다보니 많은 그림들이 바래고 삭아서 쇠락해가는 시골 마을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았다. 마을 안에 작은 방파제와 등대가 있었다. 마침 해가 지고 있었는데 바다 위 굴 양식장 사이로 떨어지는 석양에 부산신항의 육중한 크레인들과 컨테이너선들이 겹쳐 들어왔다. 오버랩되는 둘 사이에 가덕도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되는 듯해서 몹시도 안타까웠다.

8
코스

부산의 젖줄 낙동강,
그 속에 남겨진 유통과 상업의 자취

낙동강은 부산의 젖줄이다. 전근대 시기부터 이곳의 경제와 문화를 발달시킨 원동력이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영남지방의 물산과 세곡 등의 운송로로 이용되었다. 근현대를 지나면서는 낙동강 수운에 더해 경부선이 강을 따라 부설되어 유통과 상업이 더욱 번성하였다.

8 코스

구포왜성 → 북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구포은행 → 구포역 구포만세 테마거리 → 구포다리 → 삼락재첩거리 → 하단포구 (황포돛배)

부산의 젖줄 낙동강,
그 속에 남겨진 유통과 상업의 자취

압록강과 두만강에 이어 한반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며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인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하여 경상북도 봉화·안동·예천·상주·구미·칠곡 그리고 경상남도 밀양·양산을 지나 김해 대동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 서쪽은 서낙동강이 되어 녹산수문을 지나서, 본류는 낙동강하굿둑 갑문을 지나서 각각 남해로 흘러간다. 그 길이가 무려 513.5㎞에 이른다.

이 강이 처음부터 낙동이라 불린 건 아니었다. 삼국시대에는 황산하(黃山河)·황산강(黃山江)·황산진(黃山津)으로 불렸고, 고려시대 이후에 가서야 낙동강·낙수·가야진(伽倻津) 등으로 불렸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낙수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낙동강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낙동(落東)이란 '가락(駕洛)의 동쪽'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낙동강은 가락국의 땅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란 뜻이다. 이름에서 낙동강이 가야와 신라의 자연 경계였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은 영남지방의 대동맥으로서 삼한시대부터 이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발달시킨 원동력이 되었고, 고려·조선시대에는 영남지방의 물산과 세곡(稅穀, 세금으로 걷은 곡식) 등의 운송로로 이용되었다. 근현대를 지나면서는 낙동강 수운에 더해 경부선이 강을 따라 부설되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유통과 상업이 활발했다. 낙동강 하류의 구포는 부산과 경남을 사이에 두고 번영을 구가했다. 하굿둑이 건설되기 전까지 이 강의 시점과 종점으로서 하단의 위세도 대단했다. 하구의 을숙도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유명하다. 구포와 하단 사이의 낙동강에서 무시로 잡았던 재첩은 오랫동안 부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지나간 옛 영광이 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그 흔적들을 찾아 떠나보자.

북구와 강서구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예로부터 낙동강은 부산의 젖줄이자 핏줄로 불리었다. • 북구

1. 구포왜성, 여기저기 잘려 나가다

사통팔달 요충지에 쌓은 왜성

도시철도 2·3호선 덕천역에 내려 10번 출구로 나와 큰길(금곡대로) 따라 화명동 방면으로 5분쯤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덕천지구대가 나온다. 지구대와 독일 벤츠자동차 영업점 사잇길로 꺾어 들어가면 정면에 구룡사라는 절이 보이는데, 이번 낙동강 코스 첫 답사지인 구포왜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구룡사가 구포왜성 입구와 이어져 있으니 그냥 경내로 들어서면 된다. 전철역에 내려서 걷는 약간의 수고를 아끼려면 시내버스를 이용해도 좋다. 덕천지구대 바로 앞이 15·59·111·121·300번 시내버스 정류장(구룡사)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해도 부산실내빙상장·북구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임진왜란 발발 후 파죽지세를 구가하던 왜군은 명의 참전과 조선의 반격으로 동남해안 일대로 퇴각하여 강화교섭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 주둔을 위해 왜성을 쌓았다. 왜성은 부산을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의 전략적 요충지에 쌓았는데 주로 본국과의 연결이 용이하고 방어에 유리한 해안 근처의 낮은 산 정상에 위치했다. 이에 더해 내륙과 이어진 낙동강 수로의 확보 및 차단을 위해 낙동강 하류인 김해·양산·구포 등지에도 왜성을 쌓았다.

정유재란 시기까지 왜군의 본거지는 부산이었다. 부산에 주둔한 왜군이 장기전 태세를 갖추면서 전쟁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에 왜장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부자(父子)가 낙동강 수로의 길목이자 호남지방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한 김해 죽도에 왜성을 쌓았다. 임진왜란 당시의 낙동강 본류는 지금과 달리 서낙동강이었다. 동시에 조선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그 주변에도 여러 개의 지성을 함께 쌓았다. 구포왜성은 이때 쌓은 죽도왜성의 지성 중 하나로 왜장 고바야가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 다치바나 무네시게[立花宗茂] 등이 김해와 양산 사이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 쌓았다.

구포왜성은 금정산 자락인 의성산 정상에 있다. 의성산은 산이라기보다는 금정산이 서쪽으로 뻗어 나와 구포와 낙동강에 접한 해발 75.7m의 낮은 능선이다. 저 옛날 신라 장수 황용이 왜구의 침략에 맞서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어서 '의성(義城)'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왜구를 막아내 의로운 성이라 불리던 곳에 왜구의 후손인 왜군이 성을 쌓은 것이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구포왜성은 또한 구포의 옛 이름인 '감동진(감동포)' 뒤에 자리하여 감동포성이라고도 불린다.

감동포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다. 남북으로 각각 사상·사하와 양산으로 이어지며, 동쪽으로는 만덕고개를 넘어 동래와,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건너 김해와 이어진다. 지금도 옛 감동포가 있던 곳 부근으로 남해고속도로가 동서로 지나가고, 경부선이 남북으로 지나간다. 또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며, 부산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덕천역이 자리하고 있다. 구포왜성은 서쪽의 죽도왜성과 북쪽의 양산왜성(호포왜성 및 증산왜성)으로 이어져 낙동강과 주변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에 자리를

구포왜성 아래 구룡사에서 본 옛 감동진 일대.
남해고속도로가 낙동강을 가로지르고 있다. • 서용태

잡았다. 동래로 넘어가는 만덕고개의 동향을 살필 수가 있고,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배를 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시 본성인 죽도왜성과도 손쉽게 연계할 수가 있다. 왜군들이 이런 기가 막힌 곳에 그들의 성을 쌓았으니 내심 얼마나 든든했겠는가.

북구의 상징 거북이와 구포

부산실내빙상장에 주차를 하고 구포왜성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남해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곳으로는 구포왜성에 진입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위로 멋진 구름다리가 놓여서 손쉽게 구포왜성에 갈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4월에 지어진 이 다리의 이름이 '북이희망교'이다. 거대한 다리의 상판이 흡사 거북이 등 같이 생겼고, 하늘을 향한 아치형의 교량 상부 구조물이 파란색으로 칠해져서 마치 거북이가 희망을 안겨다줄 것처럼 보인다.

혹시 북구의 캐릭터를 아는가? 거북이를 형상화한 '북이'이다. 왜 거북이가 북구의 캐릭터냐고? 북구의 시작이자 중심지가 구포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포를 한자로 쓰면 龜浦이다. 지명에 '龜(거북 구)' 자가 들어간 것은 옛사람들이 구포쪽으로 뻗은 금정산의 한 줄기를 보고서 마치 낙동강을 향하여 머리에 돌을 이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과 같다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포의 형상을 멀리서 바라보면 거북이의 머리와 몸체를 그대로 빼닮았다. 물론 기찻길과 다리와 빌딩들이 놓이기 전의 얘기이다.

북이희망교 입구에는 두 개의 비석이 있다. 하나는 '행군수심후능섭수덕불망비(行郡守沈侯能燮樹德不忘碑)'이고 다른 하나는 '구포동화재의연기념비(龜浦洞火災義捐紀念碑)'이다. 신라 통일 이후 9주 5소경 체제를 구축하면서 양주(지금의 양산)가 설치된 이래 조선시대까지 구포는 양산의 관할이었다. 구포가 부산에 편입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다. 그러니 구포에 양산군수 심능섭의 공덕비가 세워진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비석은 1827년 구포 지역 유림들이 박석골 암반 위에 세운 것으로, 한동안 별 관련성이 없는 부산근대역사관 앞에 놓아두다가 2021년에 이곳으로 다시 옮겨 놓았다.

본격적으로 구포왜성 답사를 시작하기 위해 북이희망교를 건넜다. 다리가 남해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까닭에 다리 위에 서면 발아래로 차량들이

북이희망교와 비석들 • 서용태

쏜살같이 달리는 모습이 아찔하지만, 이내 한눈에 들어오는 낙동강과 그 너머 김해로 쭉 뻗은 고속도로와 드넓은 김해평야가 시원하게 느껴졌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구룡사다. 앞에서 말한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룡사 경내를 거쳐 들어온다면 이곳으로 연결된다. 그러고 보니 이 절의 이름에도 거북이가 등장하니 여기는 온통 거북이 천지다. 오른쪽 길이 구포왜성 올라가는 길이다. 북이희망교가 놓인 이후로는 주민들이 산책길로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길이 잘 나 있다. 조금만 올라가면 거대한 불상이 서 있는 너른 마당이 있고, 불상 오른쪽으로 또 조금만 가면 드디어 왜성의 남측 성벽을 만날 수 있다.

일본식 성의 전형 구포왜성, 그러나 …

현재까지 남아있는 31개의 왜성 가운데 접근성으로만 친다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부산진왜성(자성대)을 제외하고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 구포왜성은 접근성만 좋은 게 아니다.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다. 최대 10m에 이르는 높은 성벽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다. 성벽의 형태는 전형적인 일본식 성으로 비스듬히 경사지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혀지게 쌓았고, 모서리 부분은 직사각형 대형 석재를 가로와 세로로 어긋나게 쌓아서 견고하게 만들었다. 성 안에는 장수의 지휘소인 천수각이 있던 자리가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부산진왜성과 더불어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쌓은 일본식 성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1972년 6월 26일 부산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다.

성의 최상단부인 천수각 자리로 가려면 성벽을 반 바퀴 돌아 북측 성벽으로 들어가야 한다. 북측 성벽은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하다. 평평한 곳은

구포왜성 남측 성벽 모습 • 서용태

대부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각종 작물이 심겨 있다. 더군다나 여기저기 곳곳에 무덤들이 아무렇게나 조성되어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사방에 온통 널린 무덤들을 어림잡아 세어 보니 거의 백에 가까운 수다. 이쯤이면 공동묘지라 할만하다. 그런데 무덤들이 하나같이 관리가 되어있지 않고 비석도 없다. 이곳엔 언제부터 무덤이 있었을까? 알 길이 없다. 곳곳에 나붙은 분묘연고자를 찾는다는 현수막과 표지판들이 무덤 안에 잠들어 있는 망자들에게 재차 저승행을 알리는 듯하다. 구포왜성 남서쪽 성벽 아래의 구룡사를 비롯해 북쪽 성벽 아래에는 수월사, 동남쪽 성벽 아래에도 덕화사라는 절이 있다. 언덕같이 작은 의성산 기슭에 절이 이리 많으니 필시 저 무덤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포왜성은 중심부를 여러 겹의 성곽이 에워싸고 있는 윤곽식(輪郭式)으로 축조됐다. 원래 이 성은 거북이 형태의 의성산 북쪽 높고 넓은 몸통 부분에 본성(내성)이 있고, 남쪽의 낮고 좁은 머리 부분에 외성이 있었다. 하지만 남해고속도로가 거북이의 목을 자르고 지나가면서 내성과 외성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지금 우리가 답사하고 있는 곳은 본성에 해당한다. 성의 서쪽이

낙동강에 접해 있어 배를 댈 수 있었으나 경부선 철도와 양산으로 가는 국도 35호선이 건설되면서 강변쪽의 성도 잘려 나갔다. 동북쪽으로도 의성로가 생기면서 이제 구포왜성은 사방이 찻길로 둘러싸인 고립된 형상이다.

거북이 머리 부분의 외성은 남해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본성과 분리되었지만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2005년 외성 자리에 부산실내빙상장·북구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서 이젠 그 흔적조차 사라졌다. 공사 과정에서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발굴조사를 통해 일본 전국시대 조리 용구와 중국 명나라 청화백자 조각,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기와 조각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래서 부산실내빙상장에 별도의 유물전시실을 마련하여 발굴조사 출토 유물과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무덤 유물 40여 점을 함께 전시하였다. 이외에도 구포왜성의 모형을 제작하여 전시하였고, 임진왜란과 왜성의 역사적 내력도 소개하였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유물전시실이 문을 닫았다. 리모델링 내용은 무엇인지, 언제 다시 문을 여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북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였지만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다. 무관심 속에 이대로 방치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구포왜성은 양산의 호포왜성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금정산 서쪽 기슭 낙동강과 양산천이 합류하는 호포에 자리잡은 호포왜성은 국도 35호선 건설로 일부 파괴되고 이후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창을 건설하면서 파괴되어 지금은 성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왜성도 엄연히 우리의 역사적 유산이다. 수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이렇게 잘려 나가고 파묻히고 그러다 사라진다. 최근 부산시가 구포왜성 일대에 '덕천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개발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체가 2025년까지 15층 높이의 아파트 여러 동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2. 구포은행,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구포의 상업 발전이 학교 설립으로 이어지다

낙동강은 지리적·문화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때론 국경으로 다양한 경계 역할을 했다. 경계는 단절과 소통이라는 상반된 두 개념이 공존한다. 고대 신라와 가야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교류하고 대립했다. 경남 양산에는 물금읍이 있다. '물금(勿禁)'이란 말은 서로 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가야와 신라 양국 사람들이 이 지역을 서로 자유롭게 왕래한 데서 지명이 유래됐다. 마치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의 화개장터에 하동 사람 구례 사람 다 같이 모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다. 낙동강은 물금을 지나고 이내 동·서낙동강으로 갈라지는데 그 분기점 바로 아래에 구포가 있다. 구포 역시 물금처럼 가야와 신라의 경계였고, 강과 바다 양쪽 모두로 통하는 지점이다. 동래(부산)와 김해와 양산 세 지역의 교차점이기도 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 구포에서 만났다.

구포는 내륙 수운과 해양 수운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오래전부터 영남 지방에서 모아들인 세곡과 물자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들이 설치되었다. 개항 이후에는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일본 공산품이나 수산물이 구포에 모아져서 낙동강을 통해 내륙으로 보내졌고, 반대로 낙동강으로 실어 온 내륙의

농산물이 구포를 거쳐 부산항으로 보내졌다. 1905년 경부선 개통은 구포에 더욱 활기를 불러일으켰다. 기차역이 생기면서 낙동강 수운에 육상 교통까지 연결되어 이제 구포는 낙동강 권역의 최고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내륙에서 온 물건과 상인, 그리고 부산에서 온 물건과 상인이 구포에 모이니 자연스럽게 쌍방 사이에서 거래하는 중간상인인 객주가 많이 생겼다. 이 시기 구포 객주들은 활발한 상업활동을 통해 상당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의 유력 인사로 성장한 일부 상인들은 단지 돈을 버는데 머물지 않고 이제는 지역의 유지로서 근대적인 학교와 은행 설립에도 투자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당시의 학교는 근대적인 생각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은행은 상인들의 상업 자본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06년 11월 전 주사 윤상은(尹相殷), 전 참봉 박형전(朴馨詮), 전 군수 이경화(李敬和) 등이 구포에 학교를 세울 것을 제창하자 지역 유지들이 자진하여 찬조금을 내어놓으면서 1907년 10월 15일 구포사립구명학교(지금의 구포초등학교 전신)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는 일제가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침탈을 가속화하던 시기였다. 이에 민중계몽과 실력양성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이 잇따랐다. 구포는 상업이 성행하였고 바다와 내륙을 이어주는 교통이 발달한 곳이어서 국내외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던 곳이다.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가 신학문을 가르칠 학교의 설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 탄생

구포의 유지들은 학교 설립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았다. 1905년 단행된 화폐(재정)정리사업 이후 조선 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일본 자본과 경쟁하기 위한 상업자본의 확보였다. 상업자본 조달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의 설립이었다. 은행경영은 성숙한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심 과제이기도 했다.

구포사립구명학교 개교식(1907) • 부산근현대역사관

학교 설립 때처럼 이번에도 윤상은이 앞장을 섰다. 윤상은은 부산 근대화의 선각자인 박기종의 사위였고, 아들인 윤인구는 나중에 부산대를 설립하여 초대 총장을 지내는 등 대를 이어 부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윤상은을 중심으로 구포의 유지들과 인근 지역의 상인·지주들은 1909년 1월 15일 구포시장에서 구포저축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약 한 달 뒤인 2월 11일 67명이 합자하여 자본금 25만 원으로 '구포저축주식회사(구포저축)'를 설립하였

다. 구포저축은 우리나라 사람이 설립한 최초의 지방금융기관이었다.

구포저축은 대부업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새로운 「회사령」과 「은행령」에 따라 은행업을 할 수 없게 되자 1912년 6월 23일 자본금 50만 원의 '구포은행'으로 전환하였다. 그해 9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구포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으로 기록된다. 뒤이어 부산상업은행(1913년 4월), 동래은행(1918년 8월), 주일은행(1918년 6월) 등이 부산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구포저축에서 구포은행으로 전환 민족자본 형성의 실패

구포저축에서 구포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상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영업의 범위가 구포 지역을 넘어 부산으로 확대되었다. 영업 방향이 구포 지역의 발전에서 도시의 상업 이윤을 공유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자 1915년에는 '경남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점을 아예 부산 초량으로 이전하였다. 은행 경영진 역시 구포 사람이 아닌 부산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이것은 구포를 중심으로 한 민족자본의 기반이 부산의 일본 자본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일본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자본을 키우려 했던 구포저축의 애초 목표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했다.

이후 주일은행을 합병하는 등 한동안 잘나가던 경남은행은 1920년대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경영 악화를 겪다가 결국 1928년 대구은행에 통합되어 경상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점도 대구에 두게 되었다. 이마저 1941년 한성은행과 통합되고, 1943년 또다시 동일은행과 통합하여 조흥은행이 되었다가 2006년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옛 구포은행(경남은행) • 부산근현대역사관

이토록 사연 많고 파란만장한 구포저축(은행)의 흔적은 지금 남아있을까? 설립 당시 구포은행 본점의 주소지가 부산부 좌이면 구포리 362번지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영업하던 장소는 이 지번에서 조금 더 남쪽에 위치했다. 안타깝게도 1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의 은행 건물이 남아있지는 않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다른 은행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바로 우리은행 구포지점이다.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과 KTX 구포역 사이 육교에서 8차선 금곡대로를 따라 사상 방면으로 1분만 걸으면 만날 수 있다. 대로변에 있고, 시내버스 구포역 정류장 바로 앞에 있으니 찾아가기가 아주 쉽다.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2층짜리 은행 건

옛 구포은행이 있던 자리로, 현재는 우리은행 구포지점이다. • 서용태

물을 만나게 되니 다소 허탈하다. 이 건물 입구의 머릿돌에는 1980년 10월 10일이라고 준공 날짜가 적혀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 건물에서 옛 구포은행의 흔적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실망하기엔 이르다. 머릿돌 맞은편에 "우리은행 구포지점은 1912년 9월 21일 개점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입니다"라고 적혀있는 동판 명패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위에는 2018년 구포은행이 '위대한 북구 유산'에 선정됐다는 작은 명패도 붙어 있다. 완전 허탕을 치진 않았으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그래도 뭔가 아쉬워 건물 뒤로 돌아가 보니 주차장만 있다. 허무함 가득 안고 돌아섰는데, 부산근현대역사관에 가면 구포은행 설립의 주역인 윤상은과 관련된 자료가 몇 점 있으니 나처럼 아쉬운 독자들은 부산근현대역사관을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3. 구포역과 구포만세 테마거리

부산역 버금가는 구포역

구포은행의 자취를 뒤로하고 지척에 있는 구포역으로 향했다. 구포역 가는 방법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구포역은 1905년 1월 1일 개통한 경부선의 기차역으로 지어졌다. 경부선이 비록 일본의 침략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부설되었지만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경부 축의 여객 및 화물 수송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고, 남한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주요 도시를 연결해 시간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구포역은 1903년 11월 1일 완공되었으며 경부선이 개통되던 1905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구포역을 통해 일찍부터 낙동강 수운으로 통행하던 밀양, 대구 등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산과도 더욱 가까워졌다. 부산역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열차는 구포역에 정차하여 서부산권 승객들을 태웠다. 서부산 주민 외에 동래나 김해·양산 주민들도 대구, 대전, 서울 등지로 가기 위해서 주로 구포역을 이용했다. 그래서 구포역은 오랫동안 부산역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구포역이지만 개통 이후 여러 차례의 대대적인 보수로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80여 년 만에 새

로 지어야 했다. 지금의 구포역은 기존 건물을 헐고 1985년 12월 30일에 새로 준공한 것으로, 건축면적 1,521㎡의 2층 건물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경부고속철도(KTX)가 개통하면서 2004년 4월 1일부터 구포역에도 KTX가 정차하였다. 이에 맞춰 2005년 11월에 대대적인 증·개축 공사가 완료되었고, 2005년 10월에는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이 개통되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하지만 2010년 11월 1일 KTX 2단계 구간의 개통으로 경주역과 울산역이 개통되면서 KTX의 정차 횟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이전보다 운행 편수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완공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내가 평일 낮에 찾아간 탓도 있겠지만 구포역을 오가는 사람이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적었다. 역전 상가들도 문 닫은 곳이 많았다. 구포역이 예전의 활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구포역 광장을 차지하고 있는 비둘기들과 삼삼오오 모여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보니 쉽지 않겠단 생각이 들었다.

1. 옛 구포역(1970년대) • 북구·낙동문화원　2. 구포역과 광장(2022) • 서용태

최악의 철도 사고

구포역과 주변 상권의 쇠락은 곧장 안타까운 기억으로 연결된다.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17 열차의 기관사는 구포역을 약 700~800m 남겨두고 선로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급하게 비상제동을 시도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 육중한 쇳덩이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 결국 기관차와 발전차, 객차 3량 등 총 5량의 열차가 탈선·전복되면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78명이 목숨을 잃었고 19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넘어서는 최악의 철도 사고였다.

사고 현장은 한국전력이 고압전력케이블의 매설을 위해 열차 선로 밑을 관통하는 지하전력구 공사를 하던 곳으로, 공사를 맡은 삼성종합건설이 철도

1993년 발생한 구포역 열차 사고 현장 모습 • 부산역사문화대전

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발파 작업을 실시하여 선로를 받치고 있던 흙더미가 매몰되어 커다란 구덩이가 생긴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구덩이 위에 레일만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진입하였으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어이없게도 이 끔찍한 사고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고책임자를 면죄해 주다시피 하였다.

막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었어야 했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웠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성수대교 붕괴(1994.10.21)와 삼풍백화점 붕괴(1995.06.29) 등 대형 사고가 연달아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이따금 구포역을 찾았었지만 별 생각 없이 그저 지나쳐 갈 뿐이었다. 답사를 목적으로 찾은 구포역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했다. 역사 현장 답사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몸소 체험하게 해준다.

구포장과 만세운동

구포역 앞 거리가 말끔하다.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상점의 간판들도 모두 통일되어 있었다. 비록 오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래서 오히려 호젓하게 거닐며 주변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가 있었다. 가로등에 붙은 도로표지판에 '구포만세길'이라 적혀있다. 그러고 보니 3·1운동 때 구포장터에서 있었던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이 길을 정비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한 모양이다. 길 곳곳엔 구포장터 만세운동 안내문과 관련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벽에는 그날을 재현한 그림들이 멋지게 그려져 있다. 거리 곳곳이 포토존이라 아무렇게나 대충 찍어도 사진이 잘 나온다. 구포역에서 구포시장으로 향하는 1km 남짓한 구간의 만세길을 걸으며 구포의 옛 시간을 더듬어 보고 옛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느껴보자.

구포는 교통의 요지이고 물류의 중심지라서 일찍부터 장이 섰다. 구포시장의 기원은 조선시대 '감동장(甘同場)'으로 400여 년의 역사를 가진다. 원래 감동포구에 있다가 낙동강 제방 건설로 인해 1932년 현재 위치로 옮겼는데, 그 역사만큼이나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다. 지금은 상설시장이지만 매월 3일과 8일에는 전통적인 오일장이 함께 열린다. 장날에는 무려 1,500여 개의 점포가 서서 북새통을 이룬다. "샛바람 바람 받아 하단장 너무 추워서 못 보고, 골목골목 부산장 길 못 찾아 못 보고, 나루 건너 명호장 배삯 없어 못 보고, …… 이장 저장 다 다녀도 우리 구포장이 제일일세!" 구포 지역에 구전되는 「장타령」의 한 구절로, 구포장에 대한 자부심이 엿보인다. 이 자부심은 구포장터 만세운동에도 맞닿아 있다.

1919년 전국으로 확대되던 3·1운동의 소식이 구포 지역에도 전해져 3월 29일 구포장터에서 1,200여 명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준비 단계부터 일반 민중들이 주동이 되었으며 시위 양상 또한 매우 격렬하였다. 일본 경찰은 군중을 향해 발포까지 하면서 무력 진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검거자들이 속출하였다. '구포장터 만세운동'은 42명이나 옥고를 치른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학생이나 유림이 주축이었던 타 지역과 달리 농민, 상인, 노동자 등 서민 대중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매년 3월이면 부산지방보훈처와 북구청이 주최하고 낙동문화원과 북구교육청이 주관하는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린다. 2006년 3월 18일 구포역 광장에서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지역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일제에 항거한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는 데 의의가 있다. 1995년 8월 15일에는 구포다리 앞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제방 위(북구 구포동 1065번지)에 '구포장터

1. 구포만세운동 재현 행사 • 북구　　2. 구포국수 체험관 • 서용태

3·1운동 기념비'를 설치하였다.

테마거리를 가득 메운 그림과 조형물 사이를 걷다 보니 그날의 함성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몇 발짝 걷지 않았는데 배가 고파온다. 테마거리 중간쯤에서 맞닥뜨린 구포국수 체험관(제면소)이 눈에 들어와서인가 보다. 전통을 자랑하는 소울푸드 구포국수는 한국전쟁 무렵 구포장터 일대에서 생산해 피란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소중한 음식이다. 구포역에서 시작된 테마거리는 기찻길이 지나가는 굴다리에서 끝이 나고, 굴다리를 지나면 바로 구포시장 입구다.

구포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 시설 현대화가 상당히 잘 되어있다. 최근에는 넉넉한 주차빌딩도 새로 지었는데, 개시장이 있던 자리이다. 예전에는 철창에 갇혀 도축을 기다리던 살아 있는 개들과 도축된 개고기가 진열된 가판대 앞을 차마 눈뜨고(코 또한 막지 않고) 지나가기가 힘들었지만 이젠 그럴 걱정이 없다. 지붕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비가 와도 문제없다. 시장 구경은 언제나 재밌다. 가는 날이 장날이면 재미는 배가 된다. 보는 재미 먹는 재미 사는 재미, 독자 여러분들도 이 좋은 시장 구경을 놓치지 마시길.

4. 구포다리를 기억하나요

구포와 대저의 입장 차이

1682년 구포에 조창(漕倉, 세금으로 걷은 곡식의 수납·보관 창고)이 설치되었다. 구포의 옛 이름인 감동진에 설치되었다 해서 '감동창' 혹은 낙동강 최남단에 있다고 해서 '남창'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시대 경상도에서 거둬들인 세곡은 낙동강을 통해 조창에 모여서 남해 연안을 따라 전라·충청도 해로를 거쳐 서울로 옮겨졌다. 조창이 설치된 이후 감동진은 상주의 낙동진과 함께 낙동강 물류의 중심지로 번성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동 나루터 인근에 시장이 서고 개항 이후에는 경부선 구포역과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계 지방은행인 구포은행이 설립되는 등 구포 지역의 물류·상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높아져만 갔다.

반면에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구포와 마주 보고 있던 대저 지역은 문제가 많았다. 낙동강과 서낙동강 사이의 삼각주 지역에 있는 대저는 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대저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 가까운 구포에 다녀오려면 나룻배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런데 배를 기다리거나 강을 건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가 오는 날엔 강물이 불어나 배의 운항이 중지되기 일쑤였다.

구포를 오가는 데 따른 불편과 불만이 날로 커지자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구포와 대저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특히 매년 장마 때면 교통이 두절되어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대저(대저가 속한 김해를 포함하여) 사람들은 다리 건설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주민 대표가 여러 차례 경남도청에 들어가서 건의하는 등 다리 건설에 팔을 걷어붙인 대저와 달리 구포 쪽의 반응은 시원찮았다. 낙동강에 다리가 놓이게 되면 낙동강을 이용한 물류에 의존하던 구포는 잃을게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화물이 구포를 경유하지 않고 부산으로 직송되어 구포의 상업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결국 김해 측의 끈질긴 요구에 응한 경남도청은 다리를 건설하기로 하고 1930년 9월 13일 착공에 들어갔다. 경남도청 입장에서도 다리를 놓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다리를 통해 부산과 경남을 잇는 교통이 편리해진다면 원래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이 1925년 부산으로 이전한 후 도청이 경남의 맨 끄트머리인 부산에 소재하는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1932년 5월 8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낙동교 공사 진척」이란 기사를 보면 "부산진-김해 간 교통량 및 물동량 증가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낙동교 완공의 그날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의 열의가 대단하다"라고 하여 김해 주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구포다리 건설로 나타난 변화

1933년 3월 7일, 대저와 김해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건설된 구포다리의 준공식이 대저 들판에서 이루어졌다. 원래는 준공식을 구포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공사비도 부담하지 않고 다리 건설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구포에 대한 대저 사람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포다리는 공사 기간 2년 6개월에 동원된 노동자만 연 7천7백 명, 공사비도 당시 돈으로 70여만 원(圓)이 소요되었다. 당초 공사비 일부를 김해와 구포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구포면장이 단번에 거절하여 김해만 비용을 댔다.

1950년대 구포다리 모습 • 부산역사문화대전

당시 양측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구포다리 개통을 앞둔 1932년 어느날 부산 구포면과 김해 대저면 전 주민이 다리 위에서 줄다리기 시합을 위해 한데 모였다. "지는 쪽이 조명등 전기료를 내는 겁니다" 다리 위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리 건설을 두고 지역경제 쇠퇴를 우려했던 구포 사람들과 적극적이던 대저 사람들이 구포다리 난간 위에 가설된 조명등의 전기료 부담을 두고 한판승부를 벌였던 것이다. 결과는 구포면 주민들의 승리. 하지만 패배한 대저 지역 청년들이 몰려와 조명등을 부숴 버렸다고 한다. 두 지역 사이의 불신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일화이다.

구포다리 개통 후 구포는 상업 경기가 다소 쇠퇴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경부선 철도에 더해 구포다리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육상교통의 요지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구포다리는 오랫동안 부산과 중서부 경남 및 호남을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였다. 또한 김해평야의 풍부한 농산물들이 이 다리를 통해 구포역으로 이송되어 기차에 실려 서울 등 전국으로 보내졌다. 한국전쟁 때는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전략적 기능을 한 다리였고, 1960년대 이후에는 사상공단과 김해, 창원 등지의 산업 물자 수송로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다리였다.

이 다리는 원래 이름 '구포교'보다 '낙동장교'라고 더 많이 불렸다. 낙동강에 건설된 최초의 다리이자 길이가 무려 1,060m에 이르러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우려와 달리 구포와 대저가 다리로 인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니 자연스럽게 두 지역 사람들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이처럼 구포다리는 부산과 경남의 산업·경제·문화·정치를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상징적인 다리였으며, 한 해 뒤인 1934년에 준공된 영도다리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다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다.

노후화, 붕괴 그리고 철거

구포다리는 지반이 약한 낙동강 하류 퇴적지형에 건설한 탓에 노후화가 빨리 진행됐다. 특히 1959년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태풍 '사라'는 치명적이었다. 교각의 침하가 진행되어 10년간 보수공사가 이뤄졌으며, 1987년부터 2.5t 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기도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구포다리 위아래로 낙동교와 제2낙동교가 건설되어 남해고속도로와 지선이 지나가면서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 12월 31일에 기존의 구포다리를 대체하는 현대식 구포대교가 개통하였다. 새로 건설된 구포대교는 폭 30m의 왕복 6차선 교량으로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길이가 1,596.9m(다리길이 954m)이다. 이로써 구포다리는 승용차 전용 교량 및 인도교로만 사용되었다.

태풍 매미로 인한 구포다리 교각 붕괴(2003) • 북구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에 따른 구포다리의 철거 논란이 여러 차례 빚어졌다. 결정적으로 2003년 9월 14일 부산을 할퀴고 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19번째 교각이 유실되고 15m에 달하는 상판 4개가 무너져내리면서 다리의 기능을 상실했다. 부산시는 붕괴 직후 곧바로 철거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역사·문화적인 이유로 철거에 반발하면서 보존을 주장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었다. 2004년에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확인(E급)되었고, 2005년 9월 17일에는 22번째 교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상판 17m가량이 추가로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계속 방치되다가 완전히 철거가 이루어진 것은 다리의 기능을 상실한 지 5년만인 2008년 연말이 되어서였다.

이제 구포다리는 자기 임무를 모두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역해서 그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답사할 대상이 사라지고 없으니 답사코스에 구포다리를 포함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구포다리를 답사코스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제시대에 건설되어 부산 사람들과 부산의 근현대를 함께 경험하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꿋꿋이 제 역할을 해온 이 다리

1970년대 구포다리와 재첩잡이 모습 • 낙동문화원

에 서려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되새기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부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다리가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2007년 건설된 부산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다리와 구포대교 딱 가운데에 옛 구포다리가 있었으니, 아쉽지만 강둑에 올라(3호선 구포역이나 강서구청역에서 내리면 강둑으로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눈으로 다리를 그려보는 것으로 답사를 대신하자.

5. 낙동강 재첩국과 삼락재첩거리

재첩이 재첩인 이유

"재칫국 사이소! 재칫국"

1960~80년대 부산의 아침 골목골목 울려 퍼지던 '재첩국 아지매'의 소리. 고작 9음절의 이 짧은소리는 글로 아무리 표현하려 해도 절대 온전히 구현해 낼 수가 없다. 음의 고저와 박자, 특히 '사이소'에서 늘어지게 뽑았다가 뒤의 '재칫국'에서 짧고 강하게 끊어치는 아지매들의 소리는 글이 아닌 진짜 소리를 들어야만 그 참맛을 알 수 있다. 부산 토박이들은 다들 공감할 것이다. 중독성 그득한 정겨운 이 소리가 요즘은 자취를 감췄다.

재첩국 행상 • 사상생활사박물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 재첩은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먹어 온 조개류이다. 재첩은 단백질이 많기로 소문난 두부보다도 더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인해 영양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낙동강 하구는 바닷물과 강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 모래가 많이 퇴적되고 수심이 얕아서 재첩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재첩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번식력이 좋아 하룻밤에 부인(첩)을 두 번 본다고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실제로 낙동강 하구의 명지, 하단, 엄궁에서부터 사상, 구포를 넘어 물금, 원동에 이르기까지 널리 채취했을 정도로 생장분포가 광범위했고 개체수도 많았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것이 번식력까지 강해 지천으로 널린, 그야말로 낙동강이 주는 축복의 식재료였다. 하지만 선조들이 그리 즐겨 찾던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마도 작은 크기로 인해 손질하기가 까다롭고 살이 적어서 요리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많은 양이 필요한 번거로움 때문으로 보인다.

재첩은 19세기 이후 상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행상들이 간단히 허기를 채우거나 간편한 먹을거리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주요 식재료로 본격적인 어획을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부터다. 부산 사람들은 재첩을 가막조개라고도 불렀는데, 낙동강 재첩이 새까맣고 반들반들 윤기가 돌아 특히 일본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이후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밀려온 가난한 피란민들과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이 즐겨 먹으며 대중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별다른 재료 없이 재첩만으로 국물을 우려내 먹는 음식이라 간편식으로 인기가 많았다.

재첩국 행상 아지매의 출현

재첩국은 밥 한 그릇 뚝딱 말아 후루룩 마시듯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값도 싸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 출근 준비로 바빠 밥상을 차리기 어려운 아침, 전날 과음이라도 했다면 해장이 절실한 아침,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재첩국 아지매의 소리보다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

낙동강 재첩 고르기 모습 • 사하구

> 나는 열일곱 때부터 재첩 잡았는데 해방되기 전부터 잡았지. 나는 재첩 시작할 때부터 잡았어요. 내가 잡을 때 여 사람들도 어쭈 다 잡았을 낍니다. 그때 재첩 잡으면 국 장사들한테 팔았어. 왜정시대에도 국 장사가 있었어. 머리에 이고 댕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산 가서 팔고 그때 마이 했어요.

덕두마을에서 재첩잡이를 했던 1924년생 김허남 할아버지의 기억이 생생하다. 위 증언에 의하면 재첩국 행상은 1940년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

인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첩을 즐겨 먹었고 장어와 더불어 복날 제철 음식으로 재첩이 각광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제시대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재첩국을 많이 찾았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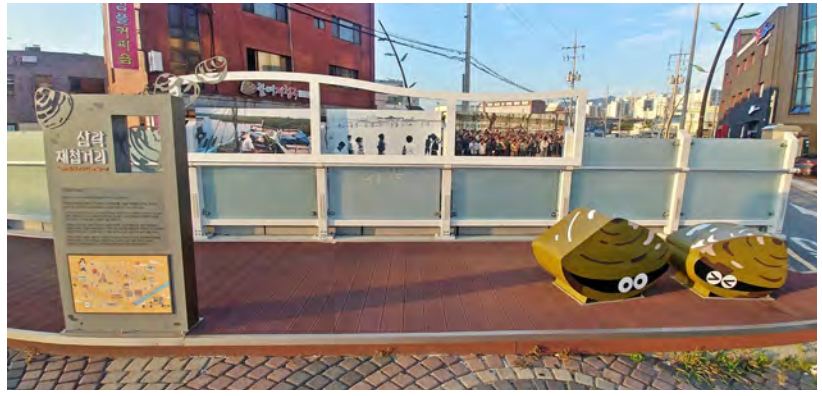
상업이 발달한 구포를 제외하고 산업화 이전의 하단, 엄궁, 삼락 등 낙동강 동쪽의 강변 마을은 농토가 적었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했다. 재첩국 행상이 일찍부터 형성됐고 부산으로의 판로가 넓었기 때문에 어업 중에서도 재첩잡이를 많이 했다. 특히 하단이 재첩국의 본산지로 각광받았다. 재첩국의 주 공급원이었던 행상들이 가장 많이 오갔던 대티고개는 '재첩고개'라고도 불렀는데, 대신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은 물론이고 재첩국이 숙취 해소에 제격이라 완월동 등 유흥가 주변 지역에서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하단과 부산 중심가를 잇는 대티고개에 재첩국 아지매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나는 어린 시절 대티고개 아래에서 자랐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재첩 국물 가득 든 커다란 양철 '바께쓰'를 머리에 이고 손에는 재첩 알맹이가 든 바께쓰를 들고 고개를 넘던 아지매들의 삶의 무게를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낙동강 재첩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남자들은 재첩을 잡고 여자들은 재첩국 장사를 하는, 즉 마을 주민 다수가 재첩으로 생계를 꾸리는 재첩마을로 변화되기도 했다. 일부는 강게를 잡아서 간장게장을 팔기도 했고 갈대로 빗자루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사상 일대에 대규모 공단이 건설되면서 낙동강으로 폐수가 유입되고, 결정적으로 1980년대 들어 하굿둑이 건설되면서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재첩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결국 1987년 낙동강하굿둑이 완공된 이후에는 낙동강 재첩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재첩이 잡히지 않으니 재첩국 아지매들도 행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재첩국집도 하나둘 문을 닫았다. 물론 재래시장에 가면 여전히 재첩국을 파는 곳이 있고, 부산 곳곳에 영업을 하고 있는 재첩국집이 있다. 그런데 그 재첩은 낙동강 재첩이 아니라 대부분 하동에서 사 온 섬진강 재첩이다. 재첩의 본고장에서 아류(?)를 역으로 들여오는 셈이다. 명지의 일부 어민들이 하동에서 가져온 재첩 종패를 식재하여 양식함으로써 낙동강에 재첩이 다시 나온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걸 낙동강 재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은 '재첩' 하면 모두 '하동 섬진강'을 떠올린다.

재첩거리의 조성

부산 사람들에게 재첩국 아지매와 재첩국은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했던 추억이 깃들어 있어서 사라져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자. 부산에서 제대로 된 재첩국을 맛볼 수 있는 '삼락재첩거리'에 가면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구는 낙동강 재



삼락재첩거리 입구 • 서용태

첩의 옛 명성을 살리고자 2000년에 낙동대로1530번길 일원을 삼락재첩거리로 지정했다.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재첩거리로 가보자.

도시철도 2호선 모라역 3번 출구로 나와 사상로를 따라 낙동강 방향으로 5분 남짓 걸으면 삼락천 은수교라는 다리가 나온다. 이 다리 앞이 삼락재첩거리이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삼락재첩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재첩국집 앞에 주차하면 되겠다. 막상 재첩거리에 도착하면 다소 당황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명색이 재첩거리인데 영업 중인 재첩국집이 불과 넷밖에 안 된다. 그중에는 상호가 하동재첩국도 있어 서글프다. 이것이 낙동강 재첩의 현주소라니.

그래도 낙동강 재첩의 명성을 살리고 부산 유일의 재첩국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상구가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있는 듯했다. 입구의 안내 표지판이 재첩거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재첩 모양의 아담한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유리 펜스를 활용해 옛 삼락재첩거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 몇 장을 전시해 놓았다. 또한 영업 중인 재첩국집 네 곳의 간판도 개성 있게 디자인하여 새로 달았다. 무엇보다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서 다채로운 재첩 음식들을 직접 맛볼 수 있다.

이곳에서 재첩국을 주문하면 비빔밥과 고등어조림이 함께 나온다. 비빔밥의 매콤함과 고등어조림의 짭조름함이 다소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재첩국과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국물은 리필이 가능하고 숭늉과 누룽지도 덤이니 7천 원(2022년 상반기 기준)의 행복을 만끽하시라. 부산 사람들이 재첩국을 많이 찾게 되면 그 관심들이 낙동강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져 재첩이 귀환하는 날이 앞당겨질지도 모르겠다. 한편, 사상구립박물관인 '사상생활사박물관'에도 재첩의 자취가 있으니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겠다. 2호선 덕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6. 낙동강 황포돛배 종착지 하단포구

하단의 성장과 쇠락

칠백리 낙동강이 끝나는 곳, 그래서 이름도 '아래치' 혹은 '끝치'라 불리던 하단(下端)은 지리적으로 강과 바다를 모두 끼고 있어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기로 유명했다. 특히 포구가 발달하여 조선 후기에는 낙동강 수운을 통해 운반된 영남 내륙의 세곡과 물자가 남해안과 서해안을 통해 서울 등지로 보내지기 전의 기착지로서 물류의 중심지로도 번성했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에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물자가 하단포구에 집하되어 내륙으로 운송되었다. 또한 김해평야는 물론이고 멀리 삼랑진, 왜관, 상주 등지의 쌀도 하단을 통해 부산항으로 보내졌다. 하단포구에 사람과 물자가 모이니 당연히 장도 섰다. 하단장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오일장으로 인근 어민들이 잡은 싱싱한 생선과 명지·녹산의 소금, 대저의 채소를 비롯하여 온갖 물건을 가득 짊어진 장사치들로 넘쳐났다.

개항 후 하단에는 정미업 및 쌀 도·소매업이 발달했고, 특히 객주업이 크게 번성하여 구포와 함께 낙동강 하류 물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렇게 상업항으로 성장하여 잘나가던 하단이 몇 차례의 변곡점을 거치며 그저 그런 동네로 전락하게 된다. 첫 번째 변곡점은 철도를 놓으려다 실패한 일이다.

박기종 • 부산박물관

부산 근대화의 선각자인 박기종은 부산항과 하단포를 잇는 길이 6㎞의 철도를 부설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1898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철도회사인 부하철도회사(釜下鐵道會社)를 설립하고 곧바로 측량 등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한 하단의 객주와 낯선 쇠말(기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단 주민들이 철도 부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기종은 사재를 끌어들였지만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설상가상 일본이 부산항과 구포를 연계하는 경부선 건설에 나서면서 결국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

경부선이 완공된 후 열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으로 물류 체계가 바뀌면서 화물 가득 실은 배들이 분주하게 오가던 하단포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기차역이 있는 구포로 물류가 쏠리게 되었다. 만약 박기종의 계획대로 됐다면 경부선이 지금처럼 부산진-가야-사상-구포 노선이 아니라 중앙동-괴정-하단-사상으로 놓였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당시 철도 부설을 반대했던 하단 사람들은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다. 하단은 1930년대에 연이어 치명타를 맞게 된다. 1933년 구포다리가 개통한 이후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나루터의 기능마저 약화되어 단순히 명지와 을숙도를 오가는 배들의 도선장으로 전락했고, 이어서 1939년에는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서(이 내용은 다음 코스에서 상세히 다룬다) 이제 하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외면하는 지역이 되었다.

하단포구와 황포돛배

하단포구는 원래 구덕산 옆 시약산 싸릿골에서 시작해서 괴정동과 당리동 일대를 가로질러 낙동강으로 흐르던 괴정천 하구에 있었다. 하지만 낙동강하굿둑이 건설되면서 포구 일대가 매립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되었다. 하단오거리(또는 1호선 하단역)에서 신평 방면으로 큰길(하신중앙로)을 따라 700m 정도 직진하면 가락타운 3단지가 시작되는 지점에 햇님공원이라는 어린이놀이터가 나오는데, 이곳이 원래 하단포구가 있던 자리이다. 지금은 주변이 온통 아파트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어서 포구였던 사실을 알기 어렵지만 놀이터 한쪽에 '하단포비'가 커다랗게 세워져 있어서 이곳이 예전에 포구였음을 알게 해준다.

1. 하단포비 2. 하단포구의 황포돛배 • 이상 서용태

놀이터 앞길(동매로)을 따라 낙동강변 쪽으로 250m 더 가면 지금의 하단포구가 있다. 아파트 숲속에 둘러싸여 외부에선 보이지도 않는 이 자그마한 포구에 들어서면 정박하고 있는 배들 가운데 특이한 배 두 척이 눈에 들어온다. 유명한 낙동강 황포돛배다. 낙동강에는 1970년대 후반까지 황포돛배가 다녔다. 하단포 나루터에는 50여 척의 황포돛배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낙동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곳곳에 건

설되면서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었다. 남아있던 돛배마저 1980년대 중반 합성수지(FRP)선이 보급되고 낙동강하굿둑이 건설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황포돛배는 조선시대에 낙동강 상류와 하류를 오가며 쌀과 소금을 실어 나르던 소형 한선(韓船, 우리나라 전통 배)으로 돛을 황토물에 담가 염색을 하기 때문에 색이 누렇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平底船) 구조에 길이 25~35자(7.5~10.5m) 정도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황포돛배는 낙동강 하류에서부터 물 깊이가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류까지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배 바닥이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강의 깊이에 따라 배 바닥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강바닥의 바위나 모래에 배가 걸리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다.

하단 도선장의 추억

황포돛배는 낙동강을 건너는 주민들의 교통수단이기도 했다. 하단장에 나온 명지·녹산 주민이나 을숙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하단포구의 도선장(하단선창)에서 이 돛배를 탔다. 승객을 태운 나룻배는 하단을 출발해서 을숙도 선착장을 거쳐 을숙도와 일웅도 사이의 샛강을 가로질러 명지로 오갔다. 오랜 세월 이 지역 사람들의 충직한 발이었던 돛배지만 근대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하단 도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돛단배에서 엔진을 장착한 큰 배로 도선이 교체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샛강에 매년 모래가 쌓여 수로가 점차 좁아지고 낮아져서 무겁고 큰 동력선 운행이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에덴공원 너머 동산유지 공장(지금의 을숙도초등학교와 SK뷰 아파트) 건너편으로 도선장을 옮기고, 샛강 수로가 아닌 일웅도 북쪽을 지나 명지로 가는 뱃길로 도선을 운행했다. 하지만 도선 운행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대티터널이 개통되고 괴정에서 하단을 지나 구포까지 이어지는 낙동로가 정비되면서 하단 도선장은 기능을 차츰 잃어 갔다. 겨우 이름만 남은 도선장도 1980년대 들어 낙동강하굿둑을 건설하면서 그 일대가 매립되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자리가 이전한 도선장이 있던 위치이지만, 찾아가 본들 아무런 흔적도 없다. 이제 하단돛배나 도선은 5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의 추억으로만 아련하게 남아있다. 젊은 부산시민들은 아예 기억이 없다. 을숙도도 명지도 대저도 모두 차를 타고 편하게 다닐 수가 있으니 굳이 배를 찾을 이유가 없어졌다.

1970년대 옛 동산유지 앞 하단도선장 • 사하구

9
코스

삼각주가 만든 공간,
서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다

강서 지역은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 지형 위에 있어 다른 곳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다. 행정상의 관할은 부산·양산·김해를 넘나들었고, 경계 또한 수도 없이 다시 그어졌다. 부산이면서도 부산과는 다른 서낙동강만의 역사와 특색을 찾아 답사여행을 떠나보자.

9 코스

대저수문 → 대저수리조합 터 → 양덕운 가옥 → 낙동강칠백리 식당 → 신평마을 비행기 격납고 → 죽도왜성 → 녹산수문 → 김상휴·홍재철 영세불망비 명지염전 터 →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삼각주가 만든 공간,
서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다

강서 지역은 낙동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 지형 위에 있다. 이 지역은 아주 옛날에는 김해만(灣)의 앞바다였다. 수로왕의 부인 허황옥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야(김해)에 왔다는 설화는 적어도 이 대목에서만큼은 완전 허구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강 대부분은 조석(潮汐)의 작용이 강해서 하구에 삼각주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 낙동강은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인만큼 상류에서부터 많은 양의 토사가 강물에 쓸려 하류로 내려왔고, 가덕도와 다대포 반도가 커다란 만을 형성하고 있어서 토사가 먼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며, 무엇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동남해안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규모의 삼각주가 발달할 수 있었다.

바다와 접한 낙동강 하구에 강물의 유속이 감소하면서 중상류로부터 유출된 흙과 모래가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서 삼각주가 만들어졌다. 주기적인 강의 범람으로 이 삼각주 위에는 새로운 물길이 생기고 없어지기를 반복했다. 낙동강 물길은 이 삼각주로 인해 동낙동강과 서낙동강으로 갈라진다. 서낙동강과 동낙동강 사이로는 평강천이 흐른다. 평야에 난 강이라서 평강(平江)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삼각주를 세로로 길게 가르며 흐른다고 해서 동·서 낙동강과 더불어 삼차수(三叉江)로도 불렸다. 삼각주 사이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지류들도 생겼다. 그렇게 세로와 가로로 흐르는 강물들 사이에 대저도, 명지도, 덕도, 을숙도 등 여러 섬들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강서 지역 대부분이 원래는 바다였고 그 위에 새로이 만들어진 섬인 것이다.

이러한 삼각주 지역이라는 지형적 배경으로 인해 강서 지역은 다른 곳과는 다른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주민들은 자연환경의 제약을 극복해가며 억척같이 살아왔다. 행정상의 관할은 부산·양산·김해를 넘나들었고, 경계 또한 수도 없이 다시 그어졌다. 부산이면서도 부산과는 다른 이 지역만의 역사와 특색을 찾아 답사 여행을 떠나보자.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지형을 바탕으로 형성된 강서 지역의 전경 •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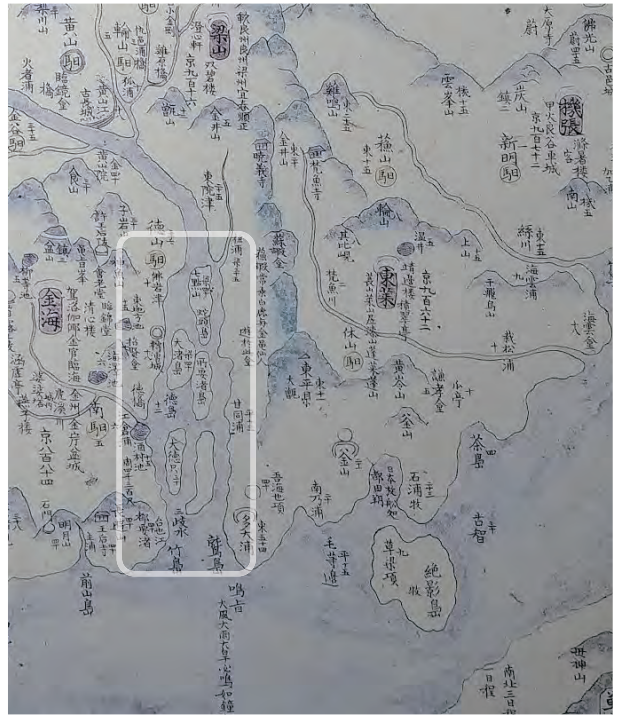
1. 대저의 유래와 대저수문

대저가 왜 대저일까?

삼각주의 형성은 하천과 바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자연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지형이다.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지형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몇십 년 후에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어느 정도 바뀌기야 하겠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듯하다. 무슨 근거로 이리 말하는지 궁금한가? 우선 '대저'라는 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자.

대저는 한자로 '大渚'라 쓴다. 저(渚)는 물가(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또는 모래섬이라는 뜻의 한자다. 즉 대저는 '큰 물가' 또는 '큰 모래섬'이란 뜻이다. 대부분의 삼각주가 그렇듯이 이 지역도 지대가 낮은 범람원이어서 연례적인 홍수 피해지역이었다. 홍수 때면 단일 유로를 유지하던 낙동강이 하구에 이르러 모래섬들 사이사이로 자유롭게 물이 넘쳐흘러 여러 개의 지류로 갈라졌다. 이런 곳에 누가 집을 짓고 살겠는가? 홍수로 다 떠내려갈 곳에 말이다. 그래서 이 지역 대부분은 오랫동안 갈대가 밭을 이룬 황무지로 남아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홍수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은 풍부한 농업생산력을 지녔다. 홍수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비옥한 충적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둘 이곳 대저로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대저 일대에는 애초에 김해만의 일곱 개 작은 바위섬이었을 칠점산이 있었고, 또한 낙동강이 동서로 갈라지는 물받이 지역인 탓에 퇴적물이 자연제방을 형성해서 침수 피해가 그나마 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 자연제방과 칠점산 주변에 하나씩 마을을 만들고 농경지를 꾸려 나갔다. 그리고 이 마을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대저라 불렀다. 말그대로 큰 물가의 큰 모래섬에 만들어진 마을이 대저인 것이다.



『동여비고』(1682년경)의 「동래부·기장현」. 동·서 낙동강의 구분이 없고, 강서구(네모 표시 안)는 여러 개의 섬으로만 되어 있다. •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덜했을 뿐이지 상시적으로 범람과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대저 번덕마을(강서고등학교 옆)에는 활인정이라는 곳이 있다. 조선시대 어느 때 이 마을이 물에 잠기자 사람들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마을의 당

산나무인 팽나무 위로 피신해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린 이 팽나무 옆에 정자를 짓고 활인정(活人亭)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지금은 정자도 사라지고 그 팽나무도 천수를 다해 죽고 없지만,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새로 심어 당산나무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저 사람들에게 홍수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대저에 수문을 만든 이유

대저는 조선시대까지 구포와 마찬가지로 양산에 속했다가 구한말인 1906년부터 김해에 속했다. 그러다 1978년에 가서야 비로소 부산에 편입되었다. 일제시대에 부산으로 몰려든 일본인들은 근교인 삼랑진, 진영 등지의 농토를 사들이는 한편 비옥한 삼각주 충적지인 대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김해평야 조성에 들어갔다. 치수 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생길 광활하고 비옥한 농토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이 사업의 관건은 홍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었다. 낙동강은 대저섬을 한가운데 놓고 동서로 갈라져서 양쪽으로 흘렀다. 만약 강물이 양쪽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흘러간다면 섬이 물에 잠기는 일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동·서낙동강 중 하나의 입구를 막아 강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원래 낙동강의 본류는 서낙동강이었지만 대저 지역을 온전한 평야로 만들려면 본류를 동낙동강으로 하고 서낙동강을 지류로 만드는 것이 유리했다. 또한 강을 완전히 막게 되면 평상시의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갑문 형식의 수문을 설치한다면 평소에는 강물이 흐르도록 하고, 홍수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닫아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 수문은 부수적으로 낙동강을 이용하는 배들의 출입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대저수문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수문 설치와 함께 범람을 막기 위한 낙동강 제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방 중간중간에도 배수갑문을 설치해서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1934년 3월, 김해 대동과 대저의 경계지점이자 동낙동강과 서낙동강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에 총길이 16m, 높이 7m의 수문 세 개가 연달아 설치된 대저수문이 완공되었다. 이 사업은 1926년부터 1937년까지 장장 12년간 진행되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주도하여 대농지를 확보하고 기존의 쌀농사를 대신할 수 있는 수익성 높은 대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측량사업도 함께 진행되었다.

새롭게 재탄생한 수문

수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가보자. 구포시장이나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또는 강서구청역에서 125번, 70번 버스를 타고 대저수문 정류소에 내리면 된다. 편하기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유가 된다면 강서구청역에서 강둑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3km 거리니까 30~40분 정도 강바람을 쐬며 주변 풍경을 눈에 담으면서 걷는 맛이 괜찮다.

도착하면 도로 양쪽에 마주 보고 선 하늘색으로 칠해진 다소 아담한 크기의 수문이 맞이할 것이다. 수문 몸통에는 큰 글씨로 '대저수문'이라고 적혀있는데 예전엔 '대동수문'이라 불렀다고 한다. 수문 위로는 왕복 6차선 다리가 놓여있고, '대저교'라 적힌 동판이 다리 입구에 박혀있다. 이 다리도 예전에는 '대동교'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해보다 부산이 큰 도시여서인지, 대저가 대동보다 유명해서인지, 아니면 관리주체가 강서구청이라 그런건지 아무튼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저수문은 1987년 12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했다. 준공 당시에는 사람의 힘으로 핸들을 돌려서 수문을 열고 닫는 수동식이어서 조작이 불편하고 개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수문을 재가설하면서 전동식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상당히 편리해졌다. 이때 수문 위에 놓인 대저교도 총연장 40m, 폭 20m 규모의 왕복 6차선 다리로 재가설하였다. 또한 서낙동강 안쪽에도 수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대저교 상하행 양쪽으로 사각 누각 형태의 수문 기계실 둘이 마주 보고 서 있게 되었다.

대저수문과 대저교 전경 • 부산역사문화대전

수문 근처에는 '대저수문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잔디마당이 탁 트인 강변의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어 가볍게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고, 체력단련시설도 조성되어 있어 부담없이 운동을 할 수도 있다. 낙동강에 제방을 쌓아 직강화하는 공사는 일제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산업화 시기를 거쳐 1980~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하천부지를 정리하여 농경지 및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낙동강 일대 지형은 그 결과물이다. 시대환경이 바뀌었다. 이제는 낙동강 하류에 둑을 쌓고 땅을 메워 부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시대이다.

2. 대저수리조합, 보존이냐 철거냐

수리사업? 수리조합? 무얼 고친다는 건가??

대저 일대의 김해평야는 일제시대에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조선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다. '심을 식(植) 백성 민(民) 땅 지(地)' 즉 일본 백성을 조선에 옮겨 살게 하는 것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가장 큰 이유이다. 19세기 말부터 산업화를 추진하던 일본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으로의 농업이민을 장려했다. 조선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이민은 주로 일본 농촌 마을 전체가 조선으로 이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무턱대고 자국민을 낯선 곳에 이주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선에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뒤라야 일본인들이 마음 놓고 이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국민의 대규모 이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선의 토지 확보와 수확량 증대에 일본 정부가 앞장섰다. 1910년대 조선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의 산미증식계획이 바로 그 일환이었다. 또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 농업기업가를 이용하여 광범한 토지를 침탈하는 한편 수리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

수리(水利)사업은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리조합이란 농지에 대한 관개용 저수지나 제방의 축조·관리, 토지개량사업, 수해 예방사업 등을 목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직한 법인체를

옛 대저수리조합 사무동 건물(2014). 한국농어촌공사 부산지소로 사용하다 2022년 철거되었다. • 부산역사문화대전

말한다. 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전북 군산)의 설립을 시작으로 주로 일본인들의 토지침탈이 심했던 지역에서 대규모 수리조합이 설립되었다. 1916년 설립된 대저수리조합도 그중 하나였다. 이후 수리조합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1920년대 말이 되면 조합 수가 196개로 크게 늘어났다. 수리조합은 해방 이후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지금의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일이 1908년 12월 8일이라고 되어있다. 이날은 옥구서부수리조합이 설립된 날이다.

대저수리조합 건물과 비석들

대저수리조합은 찾아가기가 아주 쉽다.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 2번·5번 출구로 나와서 강서구청 옆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구청 바로 뒤 대저로 길가에 딱봐도 옛날 면사무소 건물처럼 생긴 파란색 삼각 맞배지붕의 단층짜리 건물이 보인다. 건축적인 특색이 없는 평범한 그 시대의 관공서 건물 스타일이다. 그래서인지 건물 자체보다 마당에 있는 커다란 비석이 더 눈에 띈다. 사람 눈높이 정도의 3단 기단 위에 아무 장식도 없는 2m짜리 직사각형 화강암 비석이 놓여 있는데, 전면에 세로로 '대저수리공사기념비(大渚水利工事記念碑)'라고 크게 적혀 있다. 대저수리조합 창립과 이 지역 수리공사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1917년에 경남도지사 명의로 세운 비석이다. 전면 왼쪽에는 작은 글씨로 경상남도지사 아무개가 모월 모일 세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누군가가 정으로 쪼아 일본인 도지사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왜 지웠을까?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일제 당국의 행정적·금융적 지원 아래 대지주(특히 일본인 대지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리사업으로 농업생산성이 높아져 이전보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이익의 대부분은 당연하게도 대지주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일제와 결탁한 대지주들은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배제된 중소지주와 자소작농에게 과다하게 수세(水稅)를 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도 전가시켰다. 그래서 수리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하던 1910년대 초반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대저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일본인 도지사

대저수리공사기념비 • 부산역사문화대전

이름을 지운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 비석 맞은편에 또 다른 비석이 있다. 반듯한 형태가 아니라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느낌의 이 비석은 안타까운 사연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22일 오전에 김해비행장에서 이륙하던 미군 제트비행기가 이곳 수리조합 건물 지붕 위로 추락하여 근무중이던 직원 일곱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비석은 그때 사망한 일곱 명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비석 몸돌에 '대저수리조합순직직원위령비'라 적혀 있고, 받침돌에 사망자의 직위와 이름이 적혀 있다.

위령비 옆에는 '복구비'가 보인다. 원래 있던 건물은 대저수리조합의 사무실로 쓰기 위해 1927년에 지은 것으로, 현재 건물은 사고 이후 미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1955년에 복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비석들이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수리조합 건물은 계속 볼 수 있을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 건물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저 지역의 낙후와 활성화 프로젝트

대저수리조합 앞으로 난 길이 대저로인데 이 지역 사람들은 '신장로'라 부른다. 신작로를 잘못 쓴게 아니다. 신장로는 구포다리의 대저 쪽 접속도로로 만들어졌다. 구포다리는 1933년 개통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라서 낙동장교라고 불렀다. 이 길은 그때 새롭게 생긴 신작로이지만 낙동장교에 이어진 길이라 해서 신장로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구포다리에 이어진 이 길은 대저에서 제일 번화한 길이었다. 하지만 구포다리가 철거되고 강서구청 앞으로 새 구포대교가 놓이면서 지나가는 차와 사람이 줄어드니 상권도 점차 쇠락해졌다. 강서 지역의 개발 바람과 낙동강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드넓던 농경지는 거대한 공원과 건축물들로 변모하고, 농사짓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 이제는 빈 점포만 늘어가고 오가는 사람의 발길도 확 줄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신장로 활성화 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대저수리조합 건물은 '강서도시재생열린지원센터'로 탈바꿈하여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사무실 건물 뒤편에는 창고 건물이 하나 있다. 원래 비료창고로 지어졌지만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럽던 것이 지금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일제시대의 건축방식으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에 양철 외피를 입힌 이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천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붕을 받치는 삼각 트러스트가 맨살을 드러내고 있는데, 건축공학적 구조물이지만 이채로운 미적 장식물로도 손색이 없다. 대들보에는 '단기 4289년(1956년) 10월 25일 오후 5시'라는 상량문(上樑文, 집을 지을 때 날짜와 축원 등을 적은 글) 글귀가 선명하다. 지어진지 60년이 지나면 건축문화유산의 자격이 주어지니까 이 창고 건물도 일단 조건은 갖췄다.

부산문화재단과 강서구청은 2016년과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과 공동으로 각각 <서낙토리>, <들락날락 감성돔>이라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비료창고는 그때 '1956 감성돔'이란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각종 전시와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회의나 교육의 장소로도 사용된다. 마을 사람들에게조차 의미 없어진 장소가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이다. 당시 나는 직접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덧붙여 대학원생 시절 지도교수를 따라 대저수리조합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옛 문서들을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스캔하던 기억이 아련하다.

대저수리조합 비료창고 내부. 리모델링 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되었다(2018). • 서용태

그런데 이제 진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공간이 될지도 모르겠다. 강서구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기존의 활동을 전면 중지한 채 총사업비 195억 원(국비 30억·시비 55억·구비 110억)으로 대저수리조합 부지에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저의 근현대사를 오롯이 간직한 대저수리조합 건물과 비료창고 등을 헐어버리고 이를 대신할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서는 데 대해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낙후된 대저의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이 건물들의 역사성을 고려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옛 기억과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을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역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축적한 과거의 흔적을 간단히 걷어내는 것으로 개발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덧붙이는 글>
이 책의 원고를 다듬는 과정에서 2022년 가을에 다시 찾아간 대저수리조합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강서구청은 결국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장 가림막 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사무동과 창고동이 모두 철거되고 없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3. 대저의 근대건조물, 적산가옥(일식가옥)

대저에 적산가옥이 많은 까닭은?

'적산가옥' 뭔가 어감이 이상하다. 붉은 집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적(敵)의 재산(産)인 집'을 말한다. 우리에게는 해방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일컫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패전국 일본의 재산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권에 관한 건」에서는 일본인 재산은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사실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승전국이 패전국 정부의 재산을 접수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전쟁과 관련 없는 패전국 국민의 사유재산을 일괄 몰수하는 조치는 국제법에도 어긋났다. 우리는 과거의 아픈 역사 때문에 일본에 좋지 않은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모든 일본 사람들이 전쟁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조선 사람을 착취한 것도 아니었다. 악랄한 빌런들이 많았지만, 그냥 친근한 이웃도 분명 존재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

르겠지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저수리조합이 설립되고 김해평야가 조성되면서 이 지역에는 일본 사람들이 다수 들어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데 마을 어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 패망 당시 여기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저 주민들이 부산의 부두까지 데려다주었기 때문에 성난 조선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부두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한다. 대저 일대가 일제의 식량 수탈과 무관하지 않은 지역임을 고려한다면 다소 의외의 이야기다. 반면에 일본인 지주 밑에 있던 조선인 마름이 마을 주민들에게 혹독하게 대하다가 두들겨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저에는 지금도 일본인들이 당시에 짓고 살았던 가옥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다. 대저 일대가 개발의 광풍에서 한발 비켜난 낙후된 지역이라 오히려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적산가옥-귀속재산-일식가옥-근대건조물

대저1동 신촌·번덕·당리마을 일대에는 2015년 기준 스물아홉 채의 적산가옥이 남아 있었다. 아마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적산가옥이 남아 있는 곳이 대저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매년 하나둘씩 헐려 나가서 지금은 정확히 몇 채가 남아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금 남아 있는 집들도 낡고 내버려져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처럼 된 곳이 많고, 증·개축으로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 도무지 정체를 알기 어려운 집도 많다. 열 채 정도가 계속해서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중에서도 낙동강칠백리 식당을 비롯하여 양덕운 가옥, 문용대 가옥, 이기문 가옥, 이동철 가옥 등은 지어질 당시의 본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 있고 보존상태 또한 꽤 좋다.

그런데 이 집들의 이름이 어째 좀 묘하지 않은가? 분명 적산가옥이라고 했는데 한국인 집주인 이름이 붙어있으니 말이다. 미군정에 의하여 접수된 적산가옥은 1946년 6월부터 민간에 불하(공공재산의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미 불하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산이 정부에 이양되었다. 이때 미군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적산을 귀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이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였다. 그리하여 적산가옥들이 한국인 소유가 되었으니, 대저의 저 집들에도 한국인 새 주인의 이름이 붙은 것이다.

적산가옥은 일제 잔재청산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수정동 정란각이나 군산 여미랑처럼 일제시대 건축유산 일부가 카페나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금은 의미가 변형되어 일제시대에 지어진 주택을 일컫는 일종의 건축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요즘은 적산가옥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일식가옥(일본식 가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부산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를 제외한 부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에 부산대 인문관, 동아대 석당기념관, 하얄리아부대 장교클럽, 초량 백제병원, 낙동강칠백리 식당, 양덕운가옥 등 여섯 개의 '부산근대건조물'을 지정하였다. 여섯 개 중에서 두 개가 대저의 일식가옥이다. 대저에 있는 모든 일식가옥을 둘러보기가 어려우니 우리는 부산근대건조물로 지정된 두 곳을 우선 답사하기로 하자.

사라져 가는 대저 일식가옥들

양덕운 가옥(공항로1309번길 96-15)은 강서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찾아가

양덕운 가옥 정원 조경수와 본채 모습 • 서용태

기가 쉽다.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 2번 출구로 나와 정면으로 난 길을 따라 500m 직진하면 강서고 정문이 나온다. 학교 담장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후문과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옛 일본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멋진 정원과 집이 바로 보인다. 1930년에 지어진 양덕운 가옥은 대저에서 가장 큰 일식가옥이며 보존상태 또한 원형에 가깝게 아주 좋다. 일본 사람들은 정원 가꾸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 집 정원도 소나무, 사철나무, 동백나무와 갖가지 꽃들로 잘 가꿔져 있다. 처음의 일본인 집주인뿐만 아니라 나중의 한국인 집주인도 정원에 많은 정성을 쏟아 부은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저에서 가장 큰 일식가옥이라는 명성이 무색하지 않게 이쁜 정원 뒤로 당당하게 자리 잡은 집의 자태가 예사롭지 않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봐도 비늘판 벽에 겹처마와 눈썹지붕을 한 전형적인 일본 주택의 외형이다. 2층 구조로 된 눈썹지붕은 일본에서도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의 양식이다. 마루에는 바람을 막기 위한 덧문과 돌출 창도 달려있다. 아마도 이 집을 처음 지은 사람이 일본 북부 지방에서 이주해 온 모양이다. 집을 지을 때 일본식 기와와 목재 등 당시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재들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 마음에 드는 자재가 없었던 건지, 일본에서 자재를 직접 공수해 왔다고 한다. 아쉽게도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대개의 일식가옥은 거주용 본채에 창고 등의 용도로 쓰는 부속 건물이 딸려있다. 양덕운 가옥 역시 마당 한쪽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 배를 보관했던 창고로 사용되었다. 이 집 말고도 대저의 다른 일식가옥들이 하나같이 배 창고를 달고 있다. 곡창지대인 대저 일대는 일제시대 때부터 배 농사로도 유명했다. 양덕운 가옥 뒤편도 예전에 배 농장이었다. 지금은 대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보다는 '짭짤이 토마토'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당시에 대저 배는 '구포 배'란 이름으로 전국에 팔려나가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예전에 처음 이 집을 답사할 때만 해도 파밭이던 바로 옆 땅에 지금은 빌라 여러 동이 쭉 들어서 있다. '근대건조물'이라 써붙인 명패가 무색하게 이 집과 빌라가 나란히 선 모습이 기괴하다.

대저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주로 배 농사를 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집단으로 이주해 왔다. 그래서 양덕운 가옥 주변으로 많은 일식가옥들이 있다. 비록 대부분 원래의 모습을 잃고 변형이 되었지만, 천천히 이 일대를 걸으며 숨바꼭질하듯 일식가옥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저마다의 특색을 발견해내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이동철 가옥 • 서용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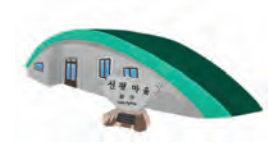
다음으로 갈 곳은 낙동강 칠백리 식당(공항로1347번길 36)인데 양덕운 가옥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강서고나 양덕운 가옥에서 대저수

낙동강칠백리 본채와 부속 건물. 2022년 현재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 • 서용태

문 방면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남해고속도로가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굴다리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괜찮다. 굴다리를 지나면 공장들이 줄지어 있고, 오른쪽 강변 방향으로 몇 발짝만 가면 공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일식가옥 하나가 외롭게 버티고 있다. 1926년에 주택으로 지어진 이 집은 1990년대 들어 '낙동강칠백리'라는 이름의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 규모나 외형이 양덕운 가옥과 비슷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해서 근대건조물로 함께 지정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식당이 문을 닫아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붕이 주저앉고, 목재들이 썩어 가고, 유리창 곳곳이 깨져 있고, 정원에 잡풀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마당에는 주변 공장들에서 짐들을 함부로 적재해 놓았고, 몰래 내다 버린 쓰레기들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근대건조물 명패라도 없었으면 폐가나 다름없다. 보전해야 할 귀중한 근대문화유산이라며 근대건조물로 지정만 하면 다인가?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답답하다.

4. 신평마을 비행기 격납고 그리고 죽도왜성



비행장 옆 신평마을의 유래

보통의 강 하구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태평양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제는 부산의 수영강과 낙동강 하구에 군용 비행장을 건설했다. 낙동강 하구 드넓은 평야지대인 대저에 건설한 군용 비행장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공군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해운대 센텀시티와 벡스코 일원에 있던 군용 비행장은 해방 이후 수영비행장(벡스코 앞 교차로를 지금도 수영비행장(수비) 삼거리라고 부른다)과 부산국제공항 등 민간공항으로 사용되다가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 1976년 8월 대저로 이전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꿨다. 대저에 수영만의 공항이 옮겨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백년 전 서낙동강과 대저섬 사이를 가르며 흐르는 평강천 주변은 온통 갈대밭이었다. 1900년 언저리부터 대저 서쪽 평강천의 모래톱에 사람들이 들어와 갈대밭을 일구며 정착해 마을을 이루고 이울등이라 불렀다. 지금의 대저2동 울만리 일대로, 일제시대에는 평소(平素)마을이라 했다. 그런데 일제가 1940년 이곳에 해군 함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떠나야만 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랄까. 평소마을을 떠난 지 그리 오래지 않아 해방이 되면서 강제로 이주당하여 뿔뿔이 흩어졌던 주민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인근에는 해방 이후 고국으로 귀환한 동포들이 모여서 새로 만든 신흥(新興)마을도 생겼다. 하지만 일본군이 쓰던 비행장을 계속해서 한국군이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급기야 국방부는 1961년에 공군비행장을 확장하기 위해 두 마을을 하나로 합쳐버리고 농사짓던 많은 땅을 비행장 부지에 편입시켰다. 이때 신흥마을과 평소마을이 합쳐져서 지금의 신평(新平)마을이 된 것이다. 대저에 비행장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이 마을의 사연이 참으로 기구하다.

이 집이 비행기 격납고였다니!!

김해국제공항의 서북쪽, 공군 제5전술비행단의 담장과 이웃한 신평마을에는 몹시 특이한 볼거리가 있다. 신평마을은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이나 강서구청역에서 강서11번 마을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면 된다. 다만 배차 간격이 한 시간이라 감안하고 움직여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구포대교를 건너 대로를 따라 김해 방향으로 가다가 경전철 대사역 앞에서 좌회전하여 남쪽으로 4km 직진하면 로터리(득천사거리)가 나오는데, 공항 쪽으로 좌회전해서 좁은 길(1차선이라 교행이 안 되니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로 들어가면 된다. 마을버스 종점에 내리면 제일 먼저 '신평마을'이라 적힌 커다란 표지석이 반긴다.

신평마을 입구의 표지석 • 서용태

> 평강천 물굽이에 피땀으로 일군 삶터 정든 땅 이울등을 떠났다가 다시 모여 희망찬 새동네 일궈 평화롭게 살리라. 아침 안개 저녁비 강변엔 별이 뜨고 밭이랑 손길 모아 복된 땅 북돋우던 조상님 고마운 은덕 길이 새겨 잘 가꾸리

표지석에 적힌 글귀를 읽다 고개를 돌리니 '국방부 국유토지 사용허가지역'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경고문 표지판이 마주 보고 서있다. 마을 동쪽으로는 공항 활주로와 바로 맞닿아있다. 끝없이 이어진 높다란 콘크리트 담장, 그 위의 철책과 감시탑이 붉은 글씨 경고문에 더해지니 군사시설이란 사실이 절로 실감되었다.

그리 크지 않은 마을에 집들이 듬성듬성 있고, 집보다는 비닐하우스가 훨씬 많다. 비닐하우스 위에는 하나같이 초록색 천막이 덧대어져 있다. 아마도 군사시설 인근이다 보니 위장막의 역할을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마을 한가운데로 곧게 난 입소신평길을 따라 걸으며 눈으로 대강 마을을 한 바퀴 휙 둘러보는데 밭 한가운데 퍼런색(?) 아치(돔)형 낮은 지붕을 한 독특한 건축물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찾았다 빙고!! 이 마을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정체는 '비행기 격납고'이다. 일제가 대저에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만들었던 훈련용 비행기('아카돔보'라 불리던 잠자리 비행기) 격납고들이 이 마을에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비행기 격납고를 개조해서 '굴집'이라

부르며 가정집과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예전에는 마을 주변으로 20여 개의 격납고가 있었는데 공항을 확장하면서 대부분 헐리고 지금은 네 개만 남았다고 한다.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 보니 안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기계들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굉음을 내고 있다. 격납고를 장갑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가정집으로 쓰는 건물과 사무실 건물까지 함께 붙어있어서 제대로 살펴보기가 어려웠다. 마을에 다른 세 개의 격납고가 아직 더 있으니 숨은그림찾기하듯 다시 입소신평길을 따라 걸었다.

격납고 굴집 둘러보기

잠시 후 공항 담장이 직각으로 꺾이는 지점의 감시초소 바로 앞에 제대로 된 격납고 굴집이 나타났다. 완만하게 곡선을 그린 지붕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격납고의 측면은 아치형 지붕이 2단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 비행기 몸통이 들어가는 앞의 지붕은 크고 넓게 만들고, 꼬리 부분이 들어가는 뒷쪽의 지붕은 작고 낮게 만든 것이다. 반원 형태의 정면은 마치 군대의 옛날 막사처럼 생겼다. 크기는 대략 정면 20m, 측면 12m, 높이 4m 정도이며, 양옆으로 낮고 길게 벌어져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는 없었다.

격납고 굴집 측면 • 서용태

개 두 마리가 낯선 나를 보며 사정없이 짖어대니 멀리서 다른 녀석들이 덩달아 짖는다. 개 짖는 소리를 따라 공항 담장 쪽으로 100m가량 가니까 젖소 축사를 지키는 강아지가 짖고 있었다. 운 좋게도 축사 바로 뒤에 격납고가 있었다. 더 운 좋게도 격납고가 비어있어서 내부도 볼 수가 있었다. 나무 울타리가 쳐진 걸 보니 얼마 전까지도 이 안에 소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미군 B-29 폭격기의 폭격에 대비해 무려 60~70c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을 두른 격납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워낙 튼튼하게 지어져서 마치 자연 동굴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굴집이라 부르는 이유를 내부를 보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격납고는 왕릉의 봉분처럼 흙을 다져가며 크게 쌓아 올린 뒤 그 위에 갈대로 만든 돗자리를 깔고 굵은 자갈을 섞은 콘크리트를 부은 후,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으면 속에 채운 거푸집 역할을 한 흙을 파내어 완성했다.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 요새처럼 만들었으니 지은 지가 8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튼튼하다.

격납고 굴집 전면 • 서용태

신평마을은 국방부 소유의 땅에 자리하고 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토지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으며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신평마을 비행기 격납고는 부산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자산이고 근대건축물이다. 하지만 주택, 공장, 축사 등으로 사용되면서 잘 보존된 것도 있고 방치되다시피 한 것도 있다.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언제 헐려버릴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 대정읍의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와 밀양 상남면의 격납고는 등록문화재 제39호

제주알뜨르비행장 격납고 • 제주관광공사

와 제20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밀양의 격납고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훼손되기 전에 보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죽도왜성과 조선 도공

죽도왜성이 신평마을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이왕이면 찾아가 보는 게 좋겠다. 신평마을을 나와서 서낙동강 강동교를 건너 우회전하면 잠시 후 가락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온다. 차로 5분 남짓, 도보로는 대략 30분 정도 걸린다.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농협하나로마트 옆길로 200m 정도 언덕을 올라가면(거리는 짧지만 경사가 심하다) 문수암이라는 작은 절이 있다. 절 입구 오른쪽의 대나무가 울창한 숲길로 들어가면 해발 40m 오봉산(혹은 가락산) 정상부에 자리한 죽도왜성 성벽이 이내 모습을 드러낸다. 원래 섬이었던 이 산에 대나무가 많이 자라서 죽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성을 죽도왜성이라 하였다.

왜장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부자(父子)가 낙동강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1593년 7월에 쌓은 죽도왜성은 구포왜성의 본성이다. 8코스의 구포왜성을 답사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나베시마는 임진왜란 때 100명이 넘는 조선 도공(도자기 기술자)을 잡아간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게 한 장본인이라 하겠다. 그는 도공들을 자신이 다스렸던 일본 규슈의 아리타 지역으로 데려가 아리타를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도자기 생산지로 만들었다. 당시 끌려간 조선 도공 이삼평은 아리타 도자기의 신 혹은 도조(陶祖)로 추앙받고 있다(사가현 아리타시에는 그를 모신 '도산신사'와 '도조이삼평비'가 있다).

죽도왜성은 서낙동강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김해 대동에서 명지에 이르는 뱃길의 동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주변으로 높은 봉우리가 없어 김해평야 일대를 사방으로 조망할 수가 있다. 성의 동쪽 아래로는 강과 맞닿아서 배를 댈 수도 있었다. 답사를 가서 죽도왜성 입구에 서보면 대저와 김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천혜의 요새라 부를만하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죽도왜성에서 본 서낙동강과 대저 일대 • 서용태

5. 명지 염전과 녹산수문

명지 일대는 소금밭이었다

직장인 샐러리맨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이다. 현대에서 말하는 Salaryman은 옛날 로마시대에 소금(Salt)을 병사들의 월급(Salarium)으로 지급한 데서 유래했다. 월급으로 받았을 만큼 귀한 대접받던 소금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소독제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부제 등으로 중요하게 쓰였다. 무엇보다 소금은 사람의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더구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동서양을 불문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다. 특히 국가에서는 재정으로 충당하기 위한 염세(鹽稅, 소금세)확보와 안정적인 소금 생산을 위해 염전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우리나라의 경우 염전 하면 대부분 서해안을 떠올리겠지만 남해안, 그중에서도 낙동강 하구에 오래전부터 염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번 답사의 주인공은 명지와 녹산 염전이다. 낙동강 하구 삼각주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다. 상단을 대표하는 섬이 대저도라면 하단을 대표하는 섬은 명지도(명호도라 부르기도 했다)이다. 대저와 명지는 땅의 쓰임새로나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로나 여러모로 달랐다. 대저는 행정상 오랫동안 구포와 함께 양산에 속했고,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반면 김해에 속했던 명지는 바다와 맞닿아있어서 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대신 염전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일찍부터 소금을 생산하는 일을 생업으로 하고 살았다.

소금이 국가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만큼 염전의 조사와 관리는 조정의 커다란 관심사였다. 1424년(세종 6)에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를 보면 김해에 염전 다섯 개가 있다고 했고, 1454년(단종 2)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염소(鹽所, 소금 생산지) 두 곳이 김해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아마 이것이 명지 염전에 관한 최초의 공식 기록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명지 염전은 낙동강 수운을 통해 영남 전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호남·호서 지방과 멀리 함경도까지 보낼 정도로 규모가 크고 유명했다. 명지도 바로 옆의 녹산과 지금의 르노자동차 공장이 있는 신호도에도 염전이 넓게 분포했다. 대체로 이 일대의 염전을 통칭해서 '명지 염전'이라고 한다.

명지 공염장과 자염

명지 일대의 염전이 국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조선 후기 영조 때였다. 가뭄과 흉년으로 온 나라가 시달리고 있던 1731년(영조 7) 그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가 명지 염전에 공염장을 두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공염(公鹽)이란 국가에서 소금 생산과 판매를 직영해서 그 이윤을 국가재정에 이용한 제도를 말한다. 공염제 시행에 반론이 거셌으나 영조는 경상도관찰사를 지낸 박문수가 명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명지에 공염장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는 명지도 안에 '자염최성(煮鹽最盛)'

『동여도(19세기 중엽)』 속 「동래부·기장현」. 명지도 안에 '자염최성'이라 적혀 있다.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자염이 가장 번성한 곳이라는 뜻으로, 명지에서 자염을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전통적인 소금생산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어 바람과 햇볕으로 물과 유해 성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천일염과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모아 가마에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자염이 그것이다. 조선 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염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자염 방식도 바닷물을 가두기 위한 염전이 필요하다. 명지 염전은 제방을 쌓아 수로를 만들어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고이게 한 것이 특징이다. 염전 바닥에서 소금 결정이 붙은 흙을 긁어모아 짠물을 걸러낸 후 가마로 끓여서 소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자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가마에 불을 지필 땔감이다. 명지 염전에는 땔감으로 거제도에서 고송(枯松, 말라죽은 소나무)

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었고, 또한 낙동강 하구에 지천으로 널린 갈대밭이 중요한 땔감 공급원이었다. 명지에 공염장을 설치하게 된 주된 이유가 바로 원료의 확보가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일제시대 자염 생산 모습 • 부산박물관

정부는 명지 염민(鹽民, 소금을 생산하는 백성)들에게 땔감과 식량 일부를 지급하고 소금 생산기간 동안 잡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생산된 소금의 절반을 수취하였다. 처음에 1년만 실시하려던 명지 공염장은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계속해서 운영되었다. 이에 명지 공염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 1745년(영조 21) 김해 대동 낙동강변에 산산창(蒜山倉)을 설치했다. 대동이라는 위치와 창고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산산창은 순전히 명지와 녹산의 염전을 위해 설치한 정부 기관이었다.

하지만 공염장 운영의 재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관리들의 부정이 끊이지 않았고 염민들에 대한 수탈과 수군의 횡포 등 폐단이 심각했다. 결국 이로인해 공염제는 1819년(순조 19) 산산창과 함께 폐지되었다. 공염제가 폐지되었어도 명지 염전의 소금 생산은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지에서 생산하는 소금에 의존하기도 했지만, 이곳 주민들 또한 염전 외에는 달리 먹고 살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녹산수문 건설과 명지 염전의 쇠락

1876년 강화도조약에 따른 개항은 명지 염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과 대만 등지에서 천일염이 들어오면서 1907년 무렵부터는 서해안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자염도 땔감 대신 점차 석탄을 들여와서 소금을 생산하게 되었다. 1907년 편찬된 『염업조사』를 보면 명지에 37개의 염전이 있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염전을 소유한 지주 중에 일제시대 부산의 3대 자본가로 유명한 오이케 츄스케[大池忠助]가 있어서 일제강점 이전부터 명지 염전에 일본 자본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명지 염전에 천일염보다 더 큰 치명타를 안긴 것은 1930년대 들어 녹산수문을 건설한 일이었다.

이 지역의 범람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 조선시대부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방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서낙동강 하류에 본격적으로 제방을 축조한 것은 이 코스 첫 답사지인 대저수문 꼭지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26년부터 1937년까지 제방 축조와 함께 낙동강을 직선화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범람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대공사의 이유가 홍수 예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해평야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강 상부에 수문을 건설해도 명지·녹산 방면으로 유입되는 짠 바닷물을 막지 못하면 서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녹산수문을 대저수문과 동시에 건설해야만 했다.

녹산수문의 옛 모습(촬영 시기 미상) • 강서구·낙동문화원

녹산수문(좌)과 녹산포구(우). 노적봉 너머로 명지신도시가 보인다. • 서용태

1931년 착공한 녹산수문과 하굿둑이 1934년 4월에 완공되었다. 녹산 성산마을과 노적봉 사이에 높이 4m, 너비 10m의 25톤짜리 수문 10개가 연달아 설치되었다. 이로써 대저와 녹산 사이의 서낙동강이 일종의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김해평야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녹산수문 위를 지나가는 녹산교도 함께 만들어 하단에서 진해로 가는 국도 2호선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녹산수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하굿둑 수문으로, 새만금 방조제의 원조라고 할 만큼 시설 공학적·문화적 가치가 높으며, 김해평야를 이루게 한 중요한 농업문화재로서도 보존할 가치

가 매우 높다.

1992년 6월 배수 용량을 보강하기 위해 노적봉에서 명지쪽으로 녹산 제2수문을 만들면서 기존의 녹산수문은 녹산 제1수문으로 개칭되었다. 이때 4차선의 제2녹산교도 추가로 놓았다. 답사를 하려고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녹산1·2수문 사이 노적봉에 조성되어 있는 녹산수문공원에 주차를 하면 되고(주차비 무료), 대중교통은 하단에서 강서7·12·16번 마을버스를 타고 노적봉 능엄사 정류장(녹산수문공원 입구)에 내리면 된다. 녹산수문 위 녹산교를 걸어 녹산 포구가 있는 성산마을에 가면 녹산수문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을숙도의 하굿둑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당한 위용이 만만찮다.

녹산수문 위에서 노적봉 너머 명지를 바라보니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다. 갈대밭과 염전 위에 세워진 도깨비 같은 신도시다. 녹산수문과 제방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일대의 많은 염전이 사라졌다. 또한 녹산수문은 명지를 농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놓았다. 낙동강 관개시설이 정비되면서 염전이 하나씩 밭이 되고, 주민들은 밭에 파를 심었다. 유명한 '명지 대파'의 탄생이다. 다른 이유로도 이곳 염전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며 서해안 염전의 천일염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염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럼에도 1960년대까지 명지 염전은 명맥을 유지하며 소금을 생산했다.

염전은 어디가고 비석만 덩그러니 남아

명지는 지금 오션시티, 에코델타시티, 국제신도시 등의 조성으로 섬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이곳이 영남 최대의 염전 지역이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연상되지 않는다. 2019년에 염전 터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수백 년 동안 지역의 중요한 경제 터전이었던 염전의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부산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역사성을 가진 것이 명지 염전이다. 염전에서 파밭을 거쳐 신도시로 변모해 가는 명지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보전할 방도가 무엇이 있을까?

이곳이 염전이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옛 명지파출소(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옆) 입구의 커다란 나무 앞에 오래된 비석 둘이 서 있다. '순상국 김공휘상휴 영세불망비(巡相國金公諱相休永世不忘碑)'와 '순상국 홍공재철 영세불망비(巡相國洪公在喆永世不忘碑)'이다. 1824년과 1841년에 각각 세운 두 비석은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김상휴와 홍재철이 명지 염민들이 소금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푼 공덕을 기리는 것이다. 과연 이 비석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흔한 문화재 안내문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비석 아래에 낡아서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설명문이 있기는 하다)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명지에는 신도시답게 랜드마크라 할만한 건물이 더러 있으니 이 비석들을 그리로 옮겨 명지 염전을 널리 알리는 방법이 있겠다. 여의치가 않다면 안내문이라도 서둘러 설치하기를 바란다.

김상휴·홍재철 영세불망비 • 서용태

6. 을숙도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을숙과 일웅이 하나가 된 섬

을숙도를 모르는 부산 시민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섬이지만 조선 후기에 편찬된 고지도를 보면 낙동강 하구에서 을숙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섬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모래섬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우도, 신자도, 장자도, 대마등, 백합등, 도요등 등이 근래에 새롭게 섬이 되었는데, 현재진행형이라 불과 몇십 년 후의 모습을 알기 어렵다. 을숙도가 지도에서 확인되는 시기는 일제시대인 1916년 무렵이지만 아직 이름조차 없는 섬이었고, 1950년대 제작된 지형도에서는 하단도(下端島)로 표기되어 있다. 을숙도라는 이름은 1961년 지명 정비 때 비로소 정해지게 되었다.

을숙도 바로 위에는 샛강을 사이에 두고 일웅도가 있었다. 요산 김정한 선생이 1966년에 발표한 『모래톱 이야기』의 주 배경이 되는 '조마이섬'이 이 일웅도를 모델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일웅이가 을숙이와 살림을 차렸는지 낙동강하굿둑이 건설되면서 을숙도와 합쳐져 지금은 하나의 섬이 되었다. 낙동강하굿둑 북쪽 지역이 예전 일웅도였다고 보면 된다.

'새[乙]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淑] 섬'이라 하여 을숙도란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을숙도 일대에는 138종 10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여 1966년에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로 지정되었다.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지만 뭔가 이상하다. 이름이 지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부터 이 섬은 도저히 물이 맑을 수가 없었다. 을숙도에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설립된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이곳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섬이었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분뇨(똥오줌)와 쓰레기들이 어디로 갔을까? 정답은 을숙도이다.

부산시 분뇨 처리의 역사

일제시대 부산부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자 부민들이 배설하는 분뇨도 비례해서 넘쳐났다. 처음엔 남부민동 앞바다에 버렸지만 송도에 해수욕장과 휴양지가 조성된 이후 새롭게 분뇨를 처리할 시설이 필요해졌다.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다가 괴정과 하단이 낙점되었다. 일본인 밀집 거주지에 가까워서 수거에 용이한데다 똥냄새는 대티고개 너머에 사는 조선인 몫이었으니 최적지였다. 1937년 부산부는 분뇨처리장 등의 건설 예산 38만 엔을 조선총독부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이듬해에 시설 공사를 진행해서 1939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수거한 분뇨를 대티고개 분뇨투기장(제1저류조, 고갯마루와 1호선 대티역 중간 지점)에 버리면 모아둔 분뇨가 시멘트로 만든 하수구를 타고 하단 분뇨처리장(제2저류조, 하단오거리 본병원 부근)에 저장되었다. 여기에 저장된 분뇨는 하단포구 옆을 지나 낙동강 한가운데까지 50m 넘게 길쭉하게 뻗어나간 송분관(분뇨관)을 통해서 강에 버렸다. 일명 '하단 똥다리'로 불리던 분뇨관 끝에는 대저, 명지, 멀리는 삼랑진 등지로부터 작은 분뇨선(똥배)들이 와서 비료로 쓰려고

1977년 당시의 하단 송분관 • 사하구

분뇨를 받아 가기도 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선 낙동강이 아닌 '낙똥강'이라 불렀다. 이후 1970년대까지 40여 년 동안 부산 시내에서 나온 분뇨를 가득 실은 똥차가 매일매일 대티고개를 넘어 괴정에 모여들었다. 분뇨투기장 근방에는 한여름에도 악취로 모든 창문을 닫아야만 했으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1960년대에 을숙도에서 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비료로 쓰기 위해 소규모 분지(糞池, 똥오줌을 받아 두는 구덩이)를 조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1970년대 들어 하단번영회가 비료로 쓸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을숙도 경작지에 1,000평의 대규모 분지를 만들자 부산시는 아예 부산에서 나온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시설을 1972년부터 짓기 시작했다. 1979년 11월까지 총면적 4만 평에 14만5천kℓ의 어마어마한 양의 분뇨를 저장할수 있는 산화분지(널찍하고 평탄한 곳에 구덩이를 파서 분뇨를 부어 자연처리)를 조성했고, 1976년에는 송분선(送糞船, 분뇨를 운반하는 배)을 대기 위해 을숙도 선착장을 설치했다.

을숙도는 이미 1966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천연은 고사하고 똥천지라니. 하긴 똥과 천연이 사뭇 어울린다. 부산시는 1992년 6월부터 을숙도 분뇨해양처리장을 통해 분뇨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런던협약」으로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2006년 3월에 비로소 을숙도의 분뇨처리시설이 폐쇄되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철새도래지 을숙도에 애초부터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을 조성한게 잘못이었다. 을숙도는 1987년 낙동강하굿둑이 완공된 후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되다가 1993년부터 또다른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어 부산에서 배출된 쓰레기들로 산을 이루게 되었다. 가히 철새의 낙원이 아니라 똥과 쓰레기로 뒤덮인 섬이 을숙도였다.

생태계 복원, 에코센터 건립

개발과 성장이 우선이던 20세기가 저물어가면서 을숙도의 과거에 대해 성찰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부산시에서는 2000년부터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2012년 12월까지 사직야구장의 37.8배에 해당하는 총 1,907천㎡ 규모의 을숙도 생태복원을 완료하였다. 낙동강하굿둑 남단이 모두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2007년 6월에 건립되었다. 이름의 에코는 당연히 생태, 환경, 자연 등을 의미하는 Eco이다. 에코센터 가는 방법은 쉽다. 하단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전경 • 서용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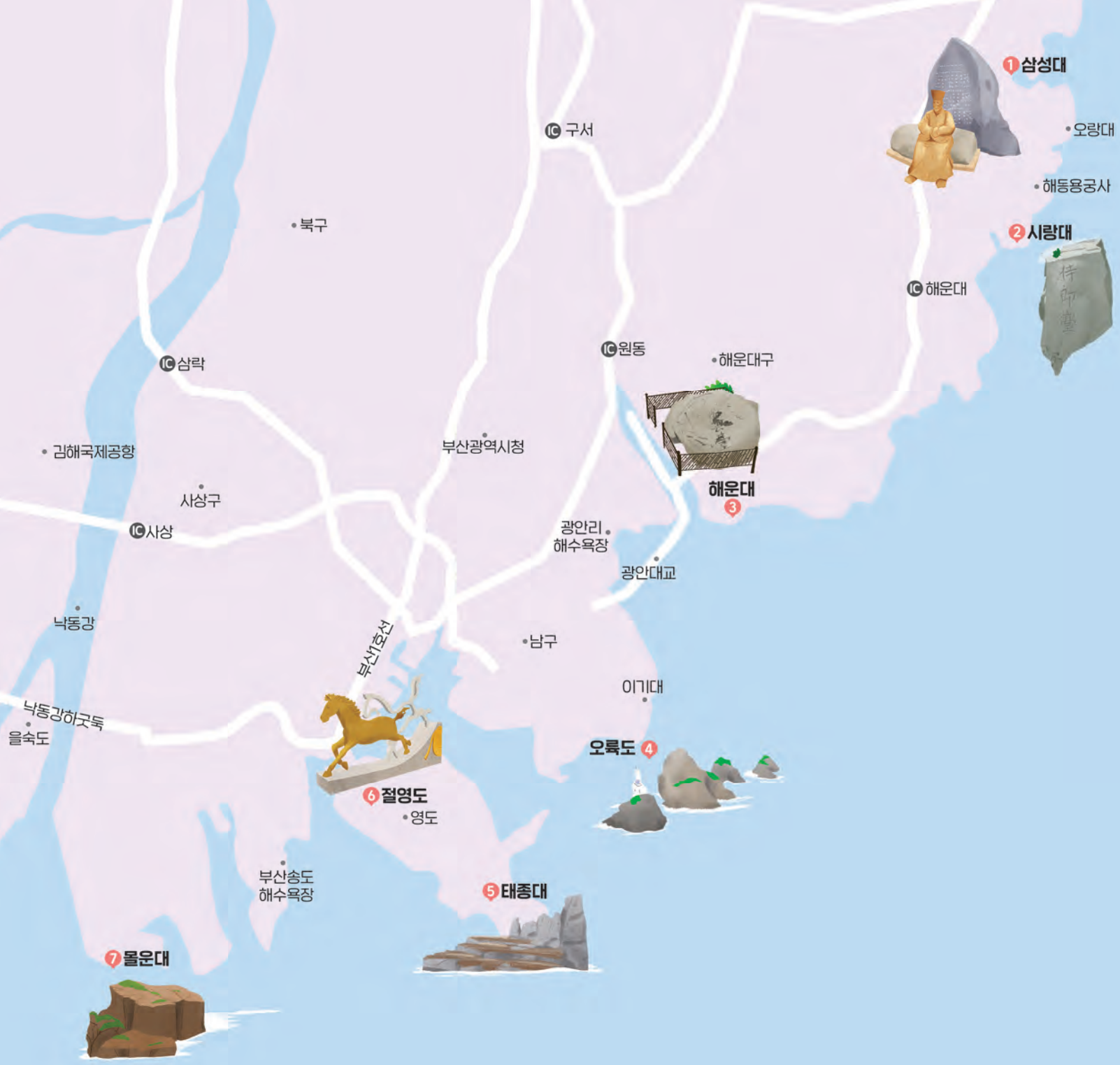
에서 명지나 녹산 방면으로 가는 아무 버스나 타고 을숙도(생태 공원/문화회관) 정류소에 내린 후 육교를 건너면 바로 생태공원 입구다. 주차장 시설이 잘 갖춰져 자동차 이용에도 부담이 없다. 에코센터 관람은 무료이며, 망원경이 비치되어 있어서 철새를 관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을숙도의 흑역사를 살펴봤으니 그 흔적을 찾아가 보자. 에코센터 입구의 탐방안내소에서 강변 길을 따라 남쪽으로 1.2㎞ 쭉 내려가면(도보 약 20분) '메모리얼파크'가 나온다. 특별할 것 없는 작은 공원처럼 보이지만 이곳이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이다. 주차장 한쪽 모서리에 콘크리트 벽처럼 생긴 특별한 구조물이 있는데,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의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 콘크리트 일부를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어 메모리얼파크라 이름 지은 것이다. 이 콘크리트 덩이가 없었다면 아무도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는지 모를 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다.

다시 남쪽으로 을숙도대교 아래를 지나 1㎞ 정도 내려가면 2012년 6월 건립된 '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이 있다. 이 건물은 밖에서 보면 정체를 알

1. 메모리얼파크 2. 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 • 이상 서용태

기 어렵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전 분뇨처리장을 리모델링 한 곳이기 때문이다. 복원의 의미를 간직하기 위해 분뇨처리시설의 일부 구조물을 멋들어진 정원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이 독특한 정원은 2013년도 부산시 아름다운 정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원을 둘러보면서 여기가 과거 똥들이 가득 찼던 곳이라 생각하니 머릿속에서 구린내가 났다. 실제로는 냄새가 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말고 들어가보시라.



10
코스

동해와 남해를 함께 품은 해양도시,

부산의 바닷길 자연유산 문화해설

부산은 한반도 동해의 남쪽 부분과 남해의 동쪽 부분을 함께 가진 천혜의 해양도시다. 부산의 바닷길 명승지 중에는 유독 '~대(臺)'가 많은데, '대'란 약간 높직하고 평평한 땅이란 뜻의 돈대(墩臺)나 높은 건물을 뜻하는 누대에 붙는 말이다. 부산의 여러 자연유산은 갖가지 사연과 여운남는 문학 작품을 남겨주었다.

동해와 남해를 함께 품은 해양도시,
부산의 바닷길 자연유산 문화해설

부산은 한반도 동해의 남쪽 부분과 남해의 동쪽 부분을 함께 가진 천혜의 해양도시다. 조선시대에 국정을 위해 각종 정보를 모아둔 『만기요람』(1808)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대략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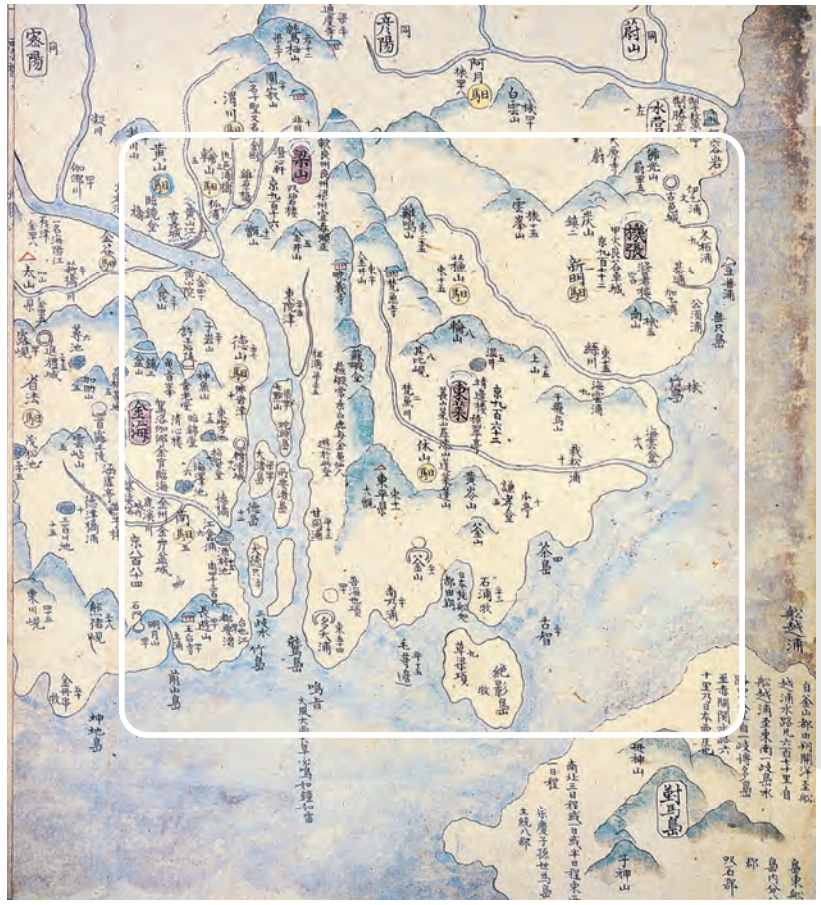
동해의 해안은 함경도 경흥 조산의 남쪽에서 서남쪽을 향해 비스듬히 나아가면 경성(鏡城)에 이르고, 함경도 남부의 덕원에서 동남쪽으로 비스듬히 나아가면 장기와 울산에 이른다. 울산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다가 서쪽으로 돌아 동래의 해운대에 이르는데, 대개 동해의 연안은 서남해와 달라서 구부러진 곳이 적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성룡(柳成龍)이 명나라 장수에게 보낸 답장에는, 동해는 경상좌도에서 강원도를 거쳐 함경도에 이르기까지가 다 바다에 접한 지역이고, 남해에 비하여 섬이 없으며 물결이 급하여 배가 통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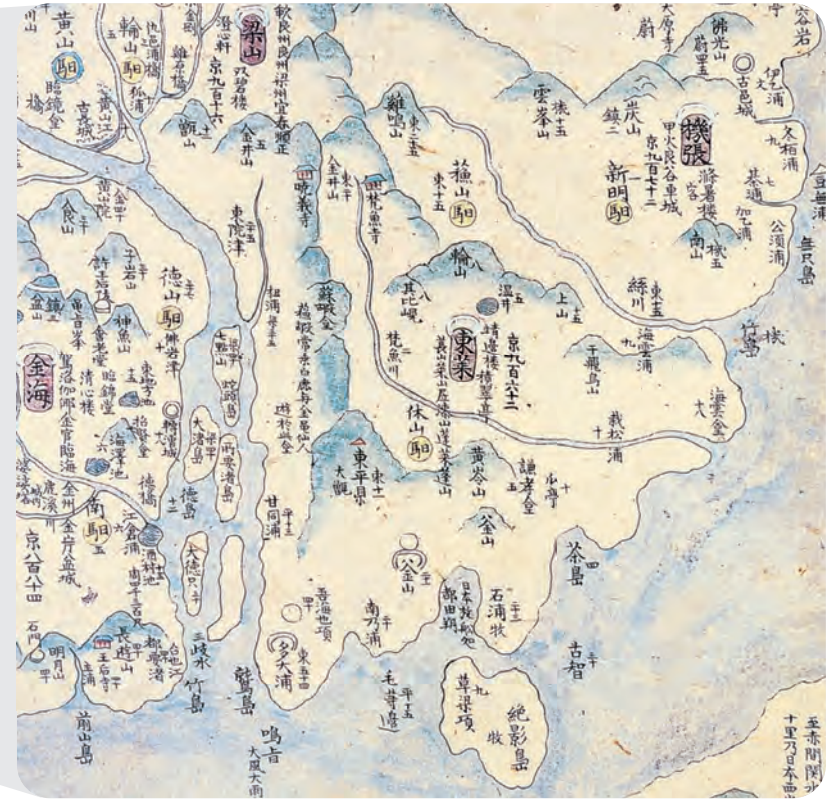
남해안은 경상도 동래의 남내포(南乃浦)에서 전라도 광양(光陽)에 이른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내포는 동래현의 남쪽 20리에 있으며, 물을 막고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인 어량(魚梁)이 있다 했다. 『대동여지도』의 위치 표기로 볼 때, 남내포는 현재의 남포동 일대이다. 바다의 물길은 서쪽으로 가다가 곧 남쪽으로 돌아서 순천, 해남에 이른다.

동래에서 해남에 이르기까지 지면이 해면으로 깊이 들어간 곳으로 동래현의 다대포와 몰운대, 웅천(熊川)의 안골과 신문 등 여러 곳을 들었다. 부산 앞바다는 뱃길이 순탄하고 다시 15리쯤 가면 절영도가 있어 왜관과 마주하고, 또 20리쯤 가면 오리지도(五里之島)가 있고, 거기서 20리쯤 가면 곧 수영의 선창(船廠)으로 통영에서 육로로 3일 길이다. 수로를 통해 서쪽으로 10리쯤 가면 고리도(古里島)가 있고 또 15리쯤 가면 몰운대가 있고, 또 가덕대해(加德大海)가 있다고 했다. 오륙도는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가 바닷속에 잠겨있는데 동쪽에서 보면 봉우리가 여섯이고 서쪽에서 보면 다섯이다. 그 셋째 봉우리에 명나라의 장수 만세덕(萬世德)의 비가 있다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다.

1995년에 양산군 동부의 다섯 개 읍면이 기장군으로 분리되었다가 이후 부산광역시에 편입, 동해의 남부 지역과 남해의 동부 지역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부산의 자연 명승은 더욱 많아졌다.

부산의 바닷길 명승지 중에는 유독 '~대(臺)'가 많다. '대'란 약간 높직하고 평평한 땅이란 뜻의 돈대(墩臺)를 뜻한다. 어원적으로 대는 높게 만들어진 네모꼴 건축물, 즉 누대를 일컫는다. 고문자에서 '대'자를 분해해 보면, 윗부분에 생략된 고(高)와 아랫 부분의 지(至)를 합하였으니 높은 평지를 뜻한다. 자형이 조금 변해 지금처럼 되었고, 사람들이 높은 곳 끝까지 올라가 사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높고 평탄하게 만든 누대(樓臺)를 말했다. 요즘은 더 확장하여 대를 무대·플랫폼 등 그렇게 생긴 물체, 정부의 관서나 정치 무대를 비유하는 데까지 쓰기도 한다.





『동여비고』 속 「동래부·기장현」의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 •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1. 세 성현의 전설을 간직한 **삼성대**(三聖臺)

윤선도, 특유의 결기로 최고 권력과 맞서다

삼성대는 일광읍 삼성리 삼성마을 남쪽 해변 일대의 작은 둔덕을 말한다. 윤선도(尹善道, 1587~1671)는 기장 유배 시절인 1621년에 이곳에서 동생과 이별하면서 「증별소제이수(贈別小弟二首)」를 지었다.

고산(孤山) 윤선도는 어떤 이유로 기장까지 유배를 왔던가? 30세가 되는 1616년(광해군 8)에 윤선도는 일개 성균관 유생으로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이던 이이첨(李爾瞻), 박승종(朴承宗) 등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고, 이로 인해 바로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다가 1618년(32세)에 기장으로 옮겨왔다.

윤선도가 올린 상소는 이이첨 무리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인재 등용을 불공정하게 행함으로써 작게는 관리들이 벼슬을 위해 아첨하도록 하고 크게는 임금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권력을 제멋대로 농단한 이이첨을 베고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이들을 죄로 다스리라는 내용이었다.

상소를 보면, 그의 아버지 또한 윤선도의 행동이 정당함을 인정하나 그 행동이 당대 최고 권력과 맞서는 일이라 아들이 화만 입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성상께서는 깊은 궁궐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가 이토록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가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어질다고 여겨서, 의심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약 어질다고 여겨서 의심을 하지 않으신다면, 신이 비록 어리석으나 분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이첨의 네 아들이 모두 미리 시험 문제를 알아내거나 대리로 답안을 작성하여 과거에 오른 일에 대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 한 것을 보면, 이이첨 무리의 부정함을 엄단하지 못하는 왕까지도 준엄하게 비판하고, 내용도 지나치게 직설적임을 볼 수 있다. 인자하신 성상께서는 비록 신에게는 무거운 벌을 내리시더라도 신의 늙은 아비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도록 하시어, 길이 천하 후세에 충신과 효자들의 귀감이 되게 해달라고 피눈물로 간청한 것을 보면,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윤선도의 상소에 대해 승정원(承政院)과 삼사(三司)는 윤선도가 어진 이들을 모함하고 역적 김제남의 옥사를 뒤집으려 한다고 반론했다. 도리어 이이첨은 무신년 이래로 누차 국난을 만나 성상을 보위하고 유영경(柳永慶), 이홍로(李弘老) 등 역적을 토벌하고 간사한 논쟁을 배척한 충성과 절의의 인물이고, 효우와 청백을 갖춘 인물이라고 옹호한다. 물론 이형(李泂)처럼 임금께 윤선도의 충성스러운 말을 통촉하시어, 속히 이이첨의 국정 농단과 흉한 기염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삼사와 정원, 관학에서 악인을 편든 자들을 죄로 다스려 종묘사직을 돌보라고 간언한 사람도 소수 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의 추는 이미 이이첨에게로 기울어져 있었기에, 윤선도에게 속히 죄를 주어 공정한 도의와 엄한 법전을 보이라고 주청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윤선도, 눈물과 한숨으로 동생과 이별하다

윤선도는 유배지 기장에서 결국 아버지의 3년 상을 치른다. 그가 35세 때, 서울에서 동생 선양이 기장으로 내려와 납전해배(納錢解配), 즉 돈을 내고 유배에서 풀려나는 길을 찾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동생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뜻을 꺾을 것이라면 처음부터 상소를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래의 첫 번째 작품에는 납전해배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일이 낯 뜨겁다고 했다. 고산의 강직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윤선도는 37세가 되던 1623년 3월, 인조반정 직후에 대사면으로 해배되어 해남으로 돌아가 기거하게 된다. 동생과 삼성대에서 헤어질 때 지은 시는 『고산유고』에 전한다. 동생과 헤어지려니 눈물이 흘러 옷이 아롱져 보이고, 무정한 가을 해가 짧아 충분히 작별 인사를 나눌 수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새로 무덤길 가라면 몇 산만 넘으면 되겠지만	若命新阡隔幾山
세파를 따르자니 낯 뜨거워 어찌할까	隨波其奈赧生顔
헤어지려니 오직 눈물만 줄줄	臨分惟有千行淚
옷자락에 흩뿌려 점점이 얼룩지는구나	灑爾衣裾點點斑

내 말은 자꾸 달리고, 너의 말은 더디니	我馬騑騑汝馬遲
이 길을 차마 어찌 뒤따라오지 못하게 하리	此行那忍忽追隨
무정한 건 짧은 가을 해	無情最是秋天日
이별하는 사람을 위해 잠시도 머물러주지 않네	不爲離人駐少時

삼성대라고 부른 까닭은 세 명의 성현과 연관되어 있을 텐데, 정몽주나 이색 등 다양한 인물들을 거론하지만 기록을 통해 분명히 특정하긴 어렵다. 다만 1955년에 이 지역에다 정몽주 등의 발자취를 기릴 서원을 건립하자는 뜻을 담아 포은 정선생 유촉비(圃隱鄭先生遺躅碑,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65-1)를 남겼다. 윤선도의 시를 새긴 비석은 일광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데, 기장해안로를 중심으로 바다를 바라볼 때 해수욕장의 정중앙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1 지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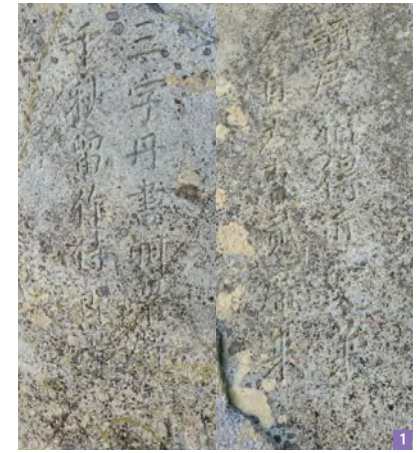
삼성대의 윤선도 시비. 일광해수욕장 부근에 있다. • 황병익

2. 신선들의 쉼터
시랑대(侍郞臺)

신선의 마을에서 유배 온 듯 살다

시랑대는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 남쪽에 있다. 해동용궁사로 내려가기 직전에 오른쪽 곁길로 나가 해변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볼 수 있는데, 늘 바람이 많이 불어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위에 시랑대라고 크게 새겨놓았고, 권적 등의 시가 남아 있다. 바위 옆 다른 자연석에는 '엄신영 제우영 차권시랑운(嚴信永 弟宇永 次權侍郞韻)'이라 새겨져 있다. 이는 기장군 출신인 엄신영이 1894년 홍문관 교리로 재직하는 동안 아우와 함께 시랑대에 들러, 아래에 소개하는 권적(權禴, 1675~1755)의 시를 보고 적은 것이다. 시랑은 신라와 고려시대 주요 관청의 차관급 벼슬에 해당한다.

귀양을 온 곳이 신선의 산에 가까운데	謫居猶得近蓬萊
나는 이조(吏曹)에서 이 자리로 왔다네	人自天曹貳席來
푸른 벽에 세 글자를 붉게 새겼으니	三字丹書明翠壁
천년이 지나도 시랑대에 남기를	千秋留作侍郞臺



1. 시랑대 권적의 시　2. 시랑대(侍郞臺)라는 권적의 명문 •이상 황병익

권적이 시랑대라 이름 붙였다. 자신이 1733년부터 정3품 당상관 이조참의(시랑)를 지내다 기장현으로 내려온 것을 두고 귀양을 온 것처럼 표현했다. 신세한탄을 하려는 마음보다는 이곳의 빼어난 절경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수사다. 귀양을 온 곳이 마침 신선이 사는 땅에 가까우니, 중앙이나 왕에게서 떨어져 있어도 아쉽지 않고 이 공간에 대한 자족감이 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잠깐의 휴식 중에도 백성들을 생각하다

기장현감을 지낸 손경현도 다른 바위에다 '학사암 을미중하 손경현(學士嵒 乙未仲夏 孫庚鉉)'이라고 새겨놓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손경현은 1894년(고종 31)에 부임하여 1895년 11월에 합천군수로 옮겨갔고, 중하(仲夏)는 음력 5월이니 1895년 6월경에 새긴 시이다.

시랑대 위 바위 한 층	侍郎臺上一層巖
하늘 받치듯 우뚝 솟아 빼어나네	屹若支天何出凡
상하 천년에 항상 거기에서	上下千年長在石
동남 큰 바다의 돛대가 되었구나	東南大海自任帆
백성이 애써 일구어 가을은 익어가고	民勤野壁秋將熟
작은 고을의 한가한 일도 이미 마쳤네	郡小官閑事已監
갑자기 우레가 쳐서 세상에 비 뿌리니	喧雷忽送人間雨
잠깐 사이 내 옷이 흠뻑 젖은들 어떠리	不妨須臾濕我衫

시랑대를 큰 바다의 돛으로 표현한 비유가 돋보인다. 공무를 마친 한가한 틈에 시랑대에 들러 갑작스레 비를 흠뻑 맞았다 했다. 백성들이 애써 농사지어 풍년을 이루었다 했는데, 손경현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뜻은 매우 특별해서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선정비를 새겨주었다.

> 고을이 피폐하여 고질이 되어 버려 좋은 수단으로도 고치기 어렵더니 손공께서 부임하여 훑어보신 뒤로 아전과 현민들 모두 편안해졌다네. 청렴하신 마음은 가을날 강물 같고 온화하신 성품은 봄철 햇볕 같다네. 산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덕택을 길이길이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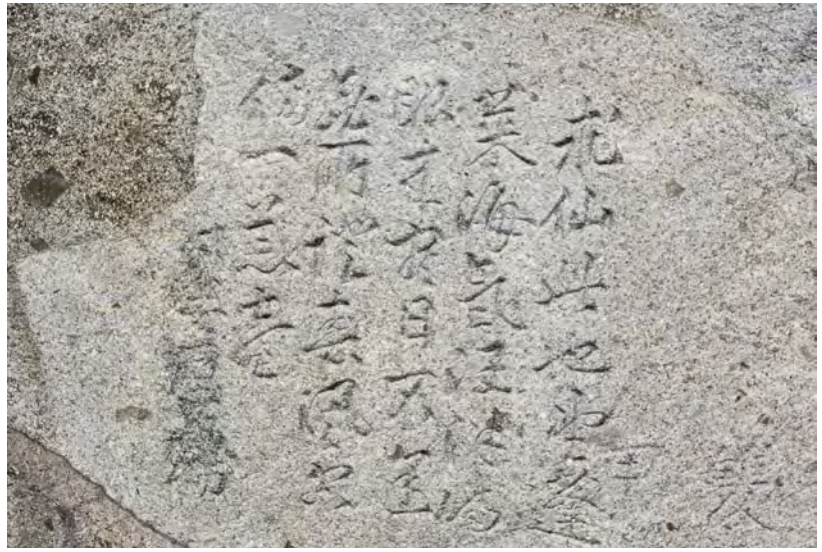
손경현의 선정비에, 피폐한 고을에 부임하여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청렴한 마음과 온화한 성품을 갖추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벼슬아치였기에 그 덕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했으니 시간을 넘어 정치하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바다에 뜬 배의 돛 모양으로 생긴 시랑대 • 황병익

시간을 초월한 서정 공간이 되다

신선 찾아 이곳에서 봉래산 바라보니	求仙此地望蓬萊
넓고 넓은 바다 기운, 눈에 가득 차는구나	海氣汪洋滿眼來
종일 기다려도 보고드릴 일 하나 없는데	盡日不逢無所證
봄바람 부는 황량한 대에 괜스레 기대어 섰네	春風空倚一荒臺

이후서(李厚瑞)의 시는 절제의 미학을 추구한다. 시랑대를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한 것은 권적의 시와 같고, 봄바람이 부는 시랑대에서 먼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나는 배가 무언가 소식을 전하지 않나, 기다리는 모습은 요즘 우리가 시랑대를 찾을 때 가지는 느낌과 흡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랑대 제룡단(祭龍壇) 위쪽에 새겨둔 이후서의 시 • 황병익

기우제 제단에 여인의 절규만 남다

이곳에는 「원앙대의 용녀」, 「원앙대의 비련」이라는 전설이 있다. 원앙대(鴛鴦臺)에서 기우제를 올렸으니 전설이 전하던 공간에 시랑대라 새겼다. 이 이야기는 매우 흡사하고, 내용의 일부만 조금씩 다르다. 앞의 전설에서는 원앙대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스님이 주인공이고, 뒤의 전설에서는 젊고 힘센 장사가 주인공이다. 여자 주인공은 각각 동해 용왕의 딸과 마을의 예쁜 처녀이다. 여인에 대한 욕망을 참지 못하고 겁간하여 임신을 하게 하는 설정도 비슷하다. 이후 둘은 밀월을 즐기지만 곧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동해 용왕은 용녀공주가 인간과 불륜을 범하여 원앙대에서 출산의 산고를 겪고 있다는 급한 전갈을 받았다. 크게 진노한 왕은 분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켰다. 용녀는 막 순산했지만, 탯줄도 못 끊고 성난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처절한 광경을 보고 있던 옥황상제는 재빨리 천마를 내려보내 용녀와 아기를 하늘나라로 올려서는 천상의 옥녀로 삼았다. -「원앙대의 용녀」 전설 中

처녀가 어머니를 찾는 애절한 소리를 듣고 젊은 장사는 그 길로 처녀가 살던 집으로 달려갔다. 그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용굴 속의 독룡은 처녀가 막 해산을 하여 탯줄도 끊기 전에 그 처녀와 아기를 한입에 삼켜 버렸다. -「원앙대의 비련」 전설 中

앞의 이야기에서는 용녀와 아기를 천상의 옥녀로 삼았으니 그나마 비극을 면하였지만, 뒤의 이야기는 독룡이 처녀와 아이를 삼켰으니 비극적 전설이다. 지금도 원앙대의 동굴에 파도가 치면 애절한 용녀(처녀)의 절규로 들려온다는 결말은 같다. 용궁사 앞에, 넘실거리는 파도로 인해 해안 동굴이 생기고, 용이 누운 듯 용바위가 형성된 일을 두고 생긴 전설이다. 성난 파도가 일렁일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두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지를 확인해 볼 일이다.

안전 관리를 받으며 바위에 새겨진 일부 시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많은 글자가 돌이끼와 비바람에 마모되어 읽어내기 어려워 세월의 흔적만 실감했다. 다만, 이곳에 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신선이 된 것 같다던 선조들의 표현을 바로 공감할 수 있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도 딱 좋다.

3. 부산의 대표 명소

해운대(海雲臺)

최치원 각석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다

부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소가 해운대라고 할 만큼, 해운대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해운대가 동래현의 동쪽 18리에 있다고 했다. 18리라면 대략 7.2km일 텐데, 지금 도로로 동래읍성에서 해운대 누리마루가 동남쪽으로 10km 정도에 있으니 방향과 거리가 근사치이다. 산의 절벽이 바닷속에 잠겨있어 그 형상이 누에의 머리와 같으며, 그 위에는 온통 동백나무와 두충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으로 덮여 싱싱하고 푸름이 사철 한결같다고 전하는데, 이른 봄철이면 동백꽃 잎이 땅에 쌓여 노는 사람들의 말굽에 차이고 밟히는 것이 3~4치나 되며, 남쪽으로는 대마도가 아주 가깝게 보인다고 했다. 동백섬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내려다보면, 지금도 이 묘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다. 동백섬 쪽에서 누에와 같다던 해운대의 생긴 모양을 살피고, 그때의 그 나무들이 여전히 잘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해운대라는 이름은 통일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 857~?)에서 비롯했다. 최치원의 자(字)는 고운(孤雲), 해운(海雲)인데, 그가 일찍이 여기에 대를 쌓고 놀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현재 누리마루에서 해수욕장 방향 절벽에 해운대라고 새긴 각석(刻石)이 있다. "동쪽으로 고운대(孤雲臺)를 바라보면, 바다에 푸른 봉우리 우뚝 꽂혔네. 잠깐 틈내어 구경하시면 평생 마음이 풍족하지요"라고 한 것을 보면, 해운대를 고운대로 부르기도 했음을 알 수 있고, 바다 옆 푸른 봉우리의 절경이 평생 마음에 남을 정도라 했으니 일찍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명승지로 손꼽혔음을 확신할 수 있다.

『삼국사기』 권46에는 최치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당(唐)에서 유학하다. 최치원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나이 12세가 되자 장차 배를 타고 당나라에 들어가 배움의 길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 아버지(이름은 견일이고 숭복사 창건에 참여하였다)는 "10년 안에 과거에 붙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가서 부지런히 힘쓰라"고 하였다. 치원이 당나라에 이르러 스승을 좇아 공부하였는데 게으름이 없었다. 건부(乾符) 원년 갑오(경문왕 14년, 874)에 예부시랑 배찬(裴瓚) 아래에서 한 번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최치원이 당에서 치른 시험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빈공과였다. 최치원의 아버지는 10년 이내에 합격하라고 주문했는데, 단 6년 만에 그것도 장원으로 합격했으니 그의 노력과 역량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향수를 달래고 언어에 적응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더욱 놀라운 결과인데, 남이 백을 할 때 자신은 천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성실하게 노력하는 천재는 이길 도리가 없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 과거를 치렀는데, 시험 때마다 신라와 발해의 유학생이 번갈아 가며 1등을 했다니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쾌거는 아닌 듯하다.

최치원이 외국인 대상의 과거에서 장원 급제했다고 해서 당나라의 요직

을 차지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는 고병(高駢)의 종사관으로 활동하다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키자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된 고병의 명을 받아 「토황소격문」을 썼다. 말하자면 난을 일으킨 황소에게 보내는 공문서인데, 그 내용을 발췌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그래서 내가 한 장의 글월을 날려, 거꾸로 매달린 듯한 너의 급한 사정을 구해 주려 하니, 너는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빨리 기미를 알아차려서, 자신을 위해 잘 도모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라. ……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려고만 한다면 곰과 범을 때려잡는 군사들을 한번 지휘하여 박멸(撲滅)할 것이니, 까마귀처럼 모여들어 솔개처럼 날뛰던 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쁠 것이다. 너의 몸뚱이는 도끼의 날을 기름칠하고, 너의 뼈다귀는 전차 밑에서 가루가 될 것이요, 처자는 잡혀 죽고 종족은 처형될 것이니, 배꼽에 불이 켜질 때를 당하여서는 아무리 배꼽을 물어뜯어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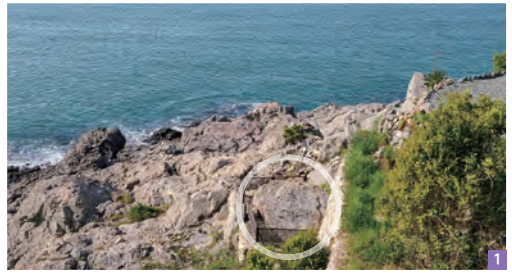
라고 했으니, 때론 황소를 회유하다가 때론 강하게 협박하기도 한다. 무리가 전멸하기 전에 빨리 기미를 알아차리고 잘못을 깨우치라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공으로 최치원은 당나라 황제에게 자금어대를 받았다고 하나 당나라 역사서에는 이 일을 대서특필하지 않았다. 다만 고려시대 이규보가 「백운소설」에 "황소에게 보낸 격문(檄文)은 비록 사적(史籍)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황소가 그 격문을 읽다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죽이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벌써 죽이기를 의논했다'라는 대문에 이르러서는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하니, 귀신을 울리고 바람을 놀라게 한 솜씨가 아니었다면 어찌 능히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겠는가!"라 하며 최치원의 문장력과 공로를 극찬하고 있다.

최치원, 외로운 혼만 남아 신선으로 떠돌다

최치원은 당나라 문장가들과 교류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당에서 높은 벼슬까지 이르지 못했고, 신라로 귀국해서도 성골이나 진골이 아닌 6두품 계층으로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려 신라 사회의 개혁을 촉구했지만, 골품제 사회라는 보수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효온은 「유해운대서(遊海雲臺序)」(『추강집』 권4)에, "당나라 왕실이 위태로워서 벼슬을 그만두고 신라로 돌아왔으나 마침 신라의 국운이 쇠퇴하고 세상의 도가 험난한 때를 만나자 드디어 마음 내키는 대로 자신을 숨기고서 자연을 사랑하며 즐겁게 노닐다가 평생을 마쳤으니, 그 자취가 깃든 곳은 가야산 해인사와 지리산 청학동과 창원부 월영대와 양산군 임경대와 동래현 해운대"가 그곳이라 했으니 해운대의 명성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강 남효온은 오래전에 해운대가 영남에서 경관이 제일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오랫동안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관람하고는, 큰 바다가 망망하고 수평선이 아득한 곳에 푸른 하늘에 뿌리박아 볼록 솟은 산이 있고 파도와 맞닿는 곳에 1,000명의 인원이 앉을 만한 푸른 바위 있으니 그곳이 바로 해운대라고 했다. 성종 18년(1487)의 일이다.

『수이전』에 전하는 「최치원」 이야기는 그의 자가 왜 외따로 떠도는 구름을 뜻하는 고운(孤雲)일지를 짐작하게 한다. 최치원이 중국 율수현 객관에 머물 때, 객관 앞 쌍녀분(雙女墳)에 들러 두 여인의 적적함과 원망을 위로하는 시를 지었더니, 그날 밤 죽은 여인들의 시녀가 찾아와 그에 화답하는 두



1. 해운대 앞바다와 각석 2. 해운대 동백섬에 핀 동백꽃 3. 최치원의 해운대 각석 • 이상 황병익

여인의 시를 전달하면서 시작한다. 밤에 쌍녀분에 묻힌 두 여인이 찾아와 하룻밤의 인연을 즐긴 다음 사라지면서, 인생의 쓸쓸함과 덧없음을 탄식한다는 이 이야기는 당나라에서나 신라에서나 최치원이 세상의 '인사이더'로 살지 못했음을 알려 준다.

부산을 찾은 문인들의 필수 코스가 되다

해운대를 소재로 쓴 한시는 매우 풍성하다. "바람이 부드러워 물결이 잔잔/ 터조차 없어진 황무한 대를/ 저기가 해운대라고 일러 주누나"(정포), "내 일찍이 해운대에 올라 먼 데를 바라보니/ 선달에 산다(山茶) 꽃이 나무 가득 피어 있었네/ 주인에게 알리노니 눈을 훨씬 높이 두면/ 마산(馬山)이 사마귀 같고 바다가 술잔 같을 걸세"(서거정)는 그중의 하나이다. 둘째 시에서 산다는 남쪽 바다 연안에 자생하는 동백의 별칭인데, 동백꽃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계속하여 핀다. 동래부사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해운대에 올라」도 빼놓을 수 없다.

구름 속에 치솟은 석대	石臺千尺勢凌雲
동해 멀리 굽어보니 티끌 한 점 없구나	下瞰扶桑絶點氛
저 바다 수평선은 마냥 푸른데	海色連天碧無際
갈매기 훨훨 날아 노을을 등지네	白鷗飛去背斜曛

최치원의 자를 딴 지칭을 떠나, 해운대 주변의 구름과 높은 석대, 티 없이 맑은 바다가 이루는 절경은 그 자체로 바로 해운대이다. 거기에 갈매기가 노을을 등지고 훨훨 날았으니,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다.

최치원의 해변을 잊지 못하다

해운대 동쪽 해변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다 가운데서 굴러 나와 물가에서 10보가량 되는 곳에 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끌어당겨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모래와 바위가 모두 부서져 길을 내고 있으니 이것은 바위가 스스로 굴러 나온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돌을 일컬어 '스스로 구르는 바위(自轉石)'라 칭했다. 신라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인 서기 157년에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바위에 실려 일본으로 가고, 일본인들이 이들을 비상한 인물로 여겨 왕으로 모셔진 일이 있다. 또 일본 이즈모 시(市) 외곽의 깊은 숲속에 있는 가라카마[韓竈] 신사(神社) 뒤편에 돌

배[岩船]가 있는데, 이 돌배에는 스사노오노 미코토가 이를 타고 와서 이 지방에 나무 심는 법과 철기 문화를 전했다고 적혀 있다. 현재 민락동 수변공원 앞에는 태풍에 떠내려 온 바위가 있다. 기록에 전하는 해운대 자전석도 비슷한 경로로 떠내려 왔을 것인데,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 돌을 찾아보는 일도 흥미로운 미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를 노래한 대중가요 중에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로 시작하는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1958)와 "하얀 모래밭에 사랑해란 글씨를 쓰며 영원히 날 사랑한다 맹세하던 그대, 널 널 널 사랑해"라는 가사가 특징적인 전철의 「해운대 연가」(2002)가 있고, 해운대 백사장 주변에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비롯한 노래비들이 많으니, 그 앞에서 노래를 들으며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일도 추천할 만한 일이다.

해운대 각석은 해운대 백사장의 오른쪽 끝에서 동백섬 방향으로 쭉 들어가면 누리마루 왼쪽 편 전망대 아래로 내려다보인다. 『동국여지승람』에 소개한 해운대 관람평은 이곳에서 숲과 바다와 절벽을 굽어보며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서면, 신라의 6두품으로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유학 생활과 벼슬살이를 하다가 신라로 귀국하여 사회 개혁을 외치다 밀려나 명승지를 떠돌던 최치원의 외로운 숨결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길 뒤쪽의 작은 언덕 최치원 동산을 오르면 그의 문학작품을 여럿 만날 수 있다.

4. 신비의 섬 **오륙도**(五六島)

돌아가는 배마다 눈물을 뿌리다

오륙도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일 것이다. 이 곡은 원곡 「돌아와요 충무항에」(김해일 노래)를 황선우가 개작하였다. 1975년 추석 조총련 동포들이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할 때 이 노래를 즐겨듣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알려졌고, 1984년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널리 불렸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메어 불러 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는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란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애환을 담은 「이별의 부산정거장」(1954, 남인수 노래)과 함께 부산을 애절한 이별의 공간으로 인식시켜주었다. 한반도 남단에 있는 항구도시이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뼈에 사무치는 이별이 얼마나 많았을까.

> 1597년 9월 23일, 내 어린 자식 용(龍)과 첩의 딸 애생(愛生)을 해변 모래에 떼놓고 왔는데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으악, 으악' 소리가 오랫동안 쩌렁쩌렁하다가 멈추고 말았다. 용은 (강항이) 서른에 비로소 낳은 아이

다. 태몽에서 새끼용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기에 용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물속에서 죽을 줄을 누가 생각했으랴!"라고 탄식한다. 뜬구름 같은 인생에 모든 게 미리 정해져 있건만 사람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며, 하늘까지 사무치는 울음소리에 파도 소리도 목메어 운다고 생각하니 더욱 슬퍼졌다. 그리고는 "살아있은들 무엇하며 죽은 것은 무슨 죄인가! 나는 평생에 뭇사람 중에 겁 많고 나약한 자이지만 이때만큼은 한시도 살고 싶지 않았다"

임진왜란 시기에는 또 어떨까. 강항이 임진왜란이 끝날 무렵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들아이 하나와 딸아이 하나를 해변에 떼놓고 배를 탔는데, 상황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배에 탄 부모를 찾아 바닷물로 들어오다 결국 파도에 휩쓸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간양록』에서 리얼하게 그렸다. 하늘까지 사무치는 울음소리에 파도도 목메어 우니, 이때만큼은 한시도 살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은 더욱 슬픔을 자아낸다.

서에선 다섯 동에선 여섯, 요술을 부리다

1740년에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 1687~1741)이 편찬한 『동래부지』에 따르면, 오륙도는 절영도, 즉 영도의 동쪽에 있다고 기록했다. 봉우리와 뫼의 모양이 기이하고 바다 가운데 나란히 서 있으니 동쪽에서 보면 여섯 봉우리가 되고 서쪽에서 보면 다섯 봉우리가 되어 오륙도라 이름 붙였다. 세 번째 봉우리에는 명나라 장수 만세덕의 비석이 있다. 바람을 타고 항해하던 시절에는 "동남풍이 크게 불어오므로, 네 척의 배가 일시에 돛을 올리고 쏜 화살처럼 달려간다고 했다. 신시(오후 4시경)에 수평선을 지나면서 수제(水祭)를 지내고, 제물은 수중에 흩어 넣었다. 오후 여덟 시경에 오륙도 앞바다에 이르니, 바람이 서북풍으로 변하였다.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 근근이 전진하여 영도 앞바다에 이르니, 예선 두세 척이 나오고, 부산포·개운포·두모포 세 곳의 우두머리가 마중 나왔다. 절영도 앞바다 배 안에서 잤다"는 기록이다. 유상필이 1811년(순조 11) 3월에서 7월까지 사신으로서 대마도에 다녀온 소회를 적었다.

오륙도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조수간만에 의해 침식되어, 보는 사람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개수가 다르게 보이는 아름다운 섬이 되었을 것이다. 이젠 오륙도에 오면, 떠날 때마다 배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돛을 달아 순풍을 기대하던 당시 사람들의 불안을 생각하고, 우리 역사의 질곡에서 이곳에서 만나고 이별하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오륙도의 등대를 바라보고,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원하던 명나라 장수 만세덕의 비석을 찾아보는 재미는 오륙도 관광이 주는 덤이다.

2008년 당시의 오륙도 •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5. 김춘추의 꿈
태종대(太宗臺)

김춘추, 통일의 열망을 남기고 떠나다

우리 역사에는 신라의 태종 무열왕과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있어, 명칭과 유래가 혼동된다. 고려 말의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원천석(元天錫, 1330~?)은 도움을 청하는 이방원을 피해 원주 치악산에 들어가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다. 이방원이 원천석을 찾아다니던 시냇가 바위를 후인들이 태종대라 불렀는데, 그 대는 치악산의 각림사 옆에 있다고 전한다.

한편, 부산 태종대는 신라 태종 무열왕, 즉 김춘추(金春秋, 604~661)와 관련이 있다. 『순암집』과 『동사강목』에는 신라 태종이 대마도(왜국)를 정벌할 때 어가가 머무르던 곳이라 하여 태종대라고 불렀다고 적었다. 『동래부지』에는 태종대는 동래부 남쪽 30리에 있는데, 절영도 동쪽 바닷물이 돌아가는데, 서쪽에 돌다리가 하나 있어 유람객이 겨우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에서는 신라 태종 무열왕이 활을 쏘아 후포(帿布)를 맞힌 곳인 까닭에 태종대라 했다고 전한다. 가뭄이 든 해에는 여기서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에, 신라는 조그마하고 구석진 땅인데, 육지로는 능히 고구려와 백제에 대적하고, 바다로는 왜국을 정벌하였으니, 그 병력의 웅대함이 삼국을 통일할 만한 기상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대에 해동의 온

땅덩어리가 섬나라 오랑캐, 즉 왜국에 곤욕을 당한 것을 치욕스러워했다. 위정자들은 의당 그 방어책을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방어책을 생각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제강점기를 겪었으니, 굴욕의 역사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교훈을 얻어 국가 안보를 튼실히 하는 지혜를 얻지 못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임금의 말방울과 용 깃발이 이 산에 머물렀다니	聖祖鑾旂駐此山
천년의 세월에도 용안 뵙는 맘은 비슷하리	千秋猶似拜龍顔
영령(英靈)의 생각에는 천하 군림할 뜻 있었으리니	英靈想在鈞天裡
한번 잡고 올라 풍류 음악 연주했으면	欲奏咸韶一上攀

이춘원(李春元, 1571~1634)은 1596년(선조 29)에 급제하여, 이듬해인 1597년에는 광양현감으로 남원을 포위한 왜군과 싸웠던 인물이다. 그가 태종대를 소재로 쓴 위의 시에는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김춘추의 원대한 꿈을 그렸고, 태종대에 이르니 그를 뵙기라도 하는 듯 마음이 설렌다 했으니, 무열왕의 높은 이상이 시공을 초월하여 통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생명선을 잇다

태종대 하면, 구비전승 「도선국사와 태종대」를 빼놓을 수 없다. 도선(道詵, 827~898)은 신라 말의 승려, 음양풍수설의 대가로, 『도선비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도선이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신라 헌강왕 1년(875)에 지금부터 2년 뒤에 반드시 고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송악에 태조(太祖) 왕건(王建, 877~943)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도선국사는 전국을 다

태종대 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24에 있다. • 황병익

니면서 산맥과 고장의 이름을 많이 지었고, 풍수지리의 원류로서 전국에 조금 허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절을 지었다. 그러나 도선국사는 태종대에만큼은 절이나 탑을 세우지 않고 길을 터놓았는데, 임진왜란 때 조선 땅이 초토화되지 않고(액운이)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까닭이라 전한다(태종사 스님, 구비전승). 이 말에 따르면, 도선이 이미 임진왜란의 발발을 예언했다는 것이니 그 정도의 예지력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태종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4월 22일 건설부에서 이곳을 유원지로 고시하면서부터이다. 1969년 1월 21일에는 당시 교통부가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70년 12월부터 총 4.3㎞의 태종대 순환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3년 만에 완공을 보고, 1974년 재정비한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한반도 남단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태종 무열왕이 지니던 기상과 도선국사가 보인 지혜를 되새겨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다.

6. 그림자도 끊긴다는 명마의 목장 **절영도**(絶影島)

영도의 명마, 명예의 전당에 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조에 따르면, 절영도는 동래현 남쪽 40리에 위치한다. 단종 원년에 기름진 땅에 풀이 우거져서 말치기에 적당하므로 목장을 쌓았는데, 둘레가 90리에 이른다고 했다. 고려 태조 7년 8월, 견훤이 사람을 보내 절영도에서 기른 말 한 필을 헌납하였는데, 뒤에 절영도 명마가 들어오면 백제가 망한다는 참언을 듣고는 후회하면서 2년 후에 다시 사람을 보내어 그 말을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자, 태조는 웃으면서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절영도의 말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만한 명마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신의 큰 공으로 태평을 누린다 하여	庾信鴻功享太平
윤중을 발탁하고, 논쟁을 막았다오	允中寵擢且休爭
해마다 벼 천 섬에 절영도 말 내려주니	千石歲租絶影馬
처와 손자가 그 은덕에 모두 감격했다오	妻孫俱感被恩榮

당나라 황제가 신라 성덕왕(聖德王, 702~737)에게 발해를 치라고 명할 때,

"옛 장수 김유신(金庾信)의 손자 김윤중(金允中)이 뛰어나서 장수로 삼을 만하다고 들었으니 그를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성덕왕이 김윤중을 대아찬으로 발탁했을 때, 왕의 친속이 이를 시기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경들과 함께 태평을 누리고 있는 것은 김유신의 공이다. 멀리 버린다면 선을 좋게 여겨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의리가 아니다"라고 하고서 마침내 절영도의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여기서도 절영도의 말은 명마로 통한다.

영도의 본래 이름은 절영도이다. 끊을 절(絶), 그림자 영(影), 섬 도(島)! 그러므로 절영도는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란 뜻이다. 여기서 그림자는 말의 그림자이다. 당시 영도에는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빠른지 달리면 그림자가 끊어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영도의 말 또한 그에 못지않았던 것이다. 영도가 명마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형상의 장점 때문이었다. 말은 소처럼 묶어 키울 수 없으므로 방목을 해야 한다. 만일 내륙에서 방목을 하면 말이 달아날 수도 있고, 주변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다. 영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없었다. 따라서 영도의 말은 가파른 산비탈에 마음껏 뛰어다닌 결과 튼튼한 다리를 가지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에서 목초를 먹이로 했으므로 영양 상태도 좋았으며, 바닷바람에 단련되어 털과 살갗도 윤기가 흐르는 명마의 위용을 자랑했다.

후삼국시대에 영도는 후백제의 땅이었다. 후삼국시대는 신라 하대에 왕권이 극도로 약화된 9세기 말 전후의 50년 정도를 말한다. 이 시기는 중앙권력이 쇠약해,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후삼국이 각기 세력 판도를 넓혀가고 있었다. 후삼국시대는 말이 후삼국이지 신라 정부는 현상 유지도 제대로 할 수 없던 형편이었으므로, 사실상 고려와 후백제의 양강 구도로 세력 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였다.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가 시작되면, 지방 세력들은 자의로, 혹은 힘의 열세로 인해 각기 어느 한쪽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영도가 후백제의 영역이었다는 것은 고려 초 부산의 역사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영도할매의 영험을 넘지 못하다

「영도할매의 영험」은 요즈음에도 공공연한 금기로 남아있다. 실감을 더하기 위해 토박이말을 그대로 싣는다.

> 내가 객지를 이래 다녀 보니까 대구에 살다가 영도를 갔는데 이사를 네 번, 세 번 영도를 갔는데, 거 생활을 해보니 직장생활도 괜찮고, 몸도 괜찮고, 돈이 좀 벌리더라고.
> 살만하니 살고. 영도 살다 돈 벌어가지고 떠나면 망한다 그래.
> 영도할매가 망하게 한다고 [웃음]
> 그래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내가 그랬어.
> "에이 안 되겠다. 그만두고 집에 가서 애나 보소" 하니까
> 그래 영도 나오고는 안 돼, 내가. 들으니, 영도할매가 영도 들어가면 돈을 벌게 해주고 영도 떠나면 망한다 그래.

그래서 요즘도 영도를 떠나려면 아예 영도할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가야지, 가시권 내에 있으면 할머니의 영험한 저주를 받아 실패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사회이니 믿거나 말거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쭈뼛서고 소름이 돋을 일이다.

영도는 해발고도 395m의 봉래산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부산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부산항대교가 육지와 연결해주고 있다. 영도 흰여울문화마을은 영화 「변호인」의 촬영 배경인 바다와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골목길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갖추었다. 영도를 배경으로, 한 어머니와 세 딸의 삶을 그려내는 「교토에서 온 편지」를 제작중이라니 기대가 된다. 이외에도 영화 「범죄와의 전쟁」, 「첫사랑 사수 궐기대회」 등 영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다. 남포동에서 영도대교를 지나 남항방파제나 남부외항 방향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흰여울문화마을을 거닐 수 있다.

흰여울마을 풍경 • 영도구

7. 탁 트인 충의의 공간 몰운대(沒雲臺)

탁 트인 바다, 포용과 관용을 노래하다

몰운대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으로, 우리나라의 제포와 부산포에 왕래하는 일본 배가 경유하던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몰운대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우부장 녹도만호 정운(鄭運, 1543~1592)이 선봉에 서서 싸우다 순절한 장소로 유명하다. 이순신이 여러 장수들을 모아 놓고 일을 계획할 때, 정운 및 이순신의 군관 송희립이 분발하여 죽기로써 스스로 진력하기를 원했던바, 그 말이 비분강개하였으므로 공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경남의 『난중잡록』 권2에는 1592년(선조 25) 8월 27일에 경상도와 전라도 수병의 모든 장수들이 가덕도에서 적을 치다가 녹도만호 정운이 죽고 우리 군사들이 퇴각하여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상촌 신흠과 다산 정약용의 시구에 공통적으로 몰운대 앞바다가 끝이 없다고 소회를 적었다. 권위(權暐, 1552~1630)의 "해운대는 몰운대에 이어져, 넓고 넓은 하늘과 땅 눈이 활짝 트인다. 만약 가슴 속이 이 정도로 크다면야, 이 세상 무엇인들 못 받아들이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몰운대 앞바다처럼 탁 트이어 넓어진다면 세상 그 무엇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상을 표현했으니, 자기 마음이 옹졸해질 때면 몰운대 앞바다를 찾아가 볼 일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 있는 돈대인 몰운대 모습 • 황병익

이다.

사하구에서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으면 금방 몰운대를 만날 수 있다. 몰운대는 낙동강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바다에서 바라보면 학이 날아가는 형상이란다. 이곳은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원지 서쪽 해안에 낙조전망대가 있다. 이전에는 군사작전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1997년 이후에 출입이 허락되어 지금은 곳곳에 데크길을 만들어두었다. 다대포해수욕장의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와 함께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몰운대의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면 더없이 좋은 관광 코스가 될 것이다. 다대1동 산144에 위치한 정운의 순의비(殉義碑)를 찾아 뜻을 새겨보는 일도 고급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황학대(黃鶴臺)가 있다. 이곳은 윤선도가 기장에서 6년간 유배생활을 할 때, 자주 찾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공간이기에 황학대 언덕에 윤선도의 동상을 만들어 기념하였다. 그 근처에는 부채처럼 활짝 펼쳐진 해송이 있는데, 마치 한 그루처럼 보이는 소나무가 다섯 그루인지 여섯 그루인지 숫자를 헤아려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다.

어사암(御史岩)은 기장군 죽성리 두호(豆湖)마을 남쪽에 있는 매바위를 일컫는다. 억울한 백성들을 보듬은 암행어사 이도재(李道宰, 1848~1909)와 그를 도운 기생 월매(月每)의 뜻을 기렸다. 1883년(고종 20), 부산포 창고로 양곡을 싣고 가던 조운선이 이곳 앞바다에서 난데없는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바닷물에 침수된 벼를 건져 먹자, 기장 관아에서 이들을 붙잡아 가서 가혹행위를 하고, 억울한 죄까지 뒤집어씌워 수탈하였다. 이도재는 환곡의 폐해 등 관아의 수탈과 비행을 발각하여 치죄하는 공을 세웠다(『고종실록』 권20). 어사암을 찾아가려면, 죽성성당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 근처 죽성리 두모포 풍어제 터라고 적힌 비석에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널찍한 해안 바위 쪽으로 가면 바위에 '이도재'와 '기생 월매'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는 매바위를 찾을 수 있다.

오랑대(五郞臺)는 일출 명소로도 유명하다. 기장으로 유배 온 다섯 친구들이 여기서 술을 마시고 즐겼다는 전설이 전한다. 오랑대 끝에는 인근 해광사에서 지은 용왕단이 있다. 용왕단은 거친 풍랑에 목숨을 잃은 어부들의 원혼을 달래고 그들의 극락왕생을 빌던 곳인데, 오랑대 제단에 오르면 바위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서 용왕님께 소망을 비는 느낌이다.

이기대(二妓臺)는 이기대공원로68에 위치한다. 기생 2인의 충절을 기리는 사연이 적장을 품고 물에 뛰어든 촉석루의 논개와 비슷하다. 용호만 유람선 부두 쪽에서 동생말-구름다리-해녀막사-전망대-이기대-치마바위-농바위를 지나 오륙도와 오륙도스카이워크, 선착장까지 해안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해두었다. 이기대는 광안대교와 함께, 2009년 1천만 관객을 동원한 「해운대」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1
코스

강의 품, 시의 길

마음의 물길이 강처럼 흘러 바다가 되는 곳

강의 역사와 문화는 노래로 불리고 문학으로 기록돼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경북 상주에서부터 부산의 을숙도 하구까지 이어지는 낙동강의 도저한 흐름은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던 대상이자 소재였다. 장구한 역사의 흐름이 기록된 부산의 강을 따라 걸어보자.

11 코스

낙동강 대저둑방 시화길 → 금수현 「그네」 노래비 → 이은상 「낙동강」 시비 → 배재황 「오막살이」 시비 → 「故鄕길」 시비와 조정환·이수강 독립지사 기념비 → 조지훈 「완화삼」과 박목월 「나그네」 시비 → 이주홍 「엄마의 품」 시비 → 을숙도 하구와 「모래톱 이야기」 표지석

강의 품, 시의 길

마음의 물길이 강처럼 흘러 바다가 되는 곳

강은 삶이다. 인간의 역사와 문명은 강과 함께 형성되어 왔다. 강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조건을 제공해 준다. 강을 중심으로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정주하게 되면서 인류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담은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다.

강의 역사와 문화는 노래로 불리고 문학으로 기록돼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경북 상주에서부터 부산의 을숙도 하구까지 이어지는 낙동강의 도저한 흐름은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던 대상이자 소재였다. 낙동강과 그 연안을 둘러싼 문학의 역사는 통일신라시대의 최치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옛 선비들 역시 낙동강 선상과 누각 등에서 뱃놀이를 겸한 '낙강시회(洛江詩會)'라는 문학모임을 열기도 했다. 최근 경북 상주에 개관한 낙동강문학관의 고문헌 자료에 따르면, 고려시대 백운 이규보부터 조선시대 계당 류주목까지 이어져 온 낙강시회의 전통은 700여 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남의 3대 누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 영호루, 의성 관수루, 밀양 영남루 등은 모두 낙동강의 물길이 이어지는 곳에 지어졌다. 우탁, 정도전, 이황, 김종직 등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곳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한 누정(樓亭) 문학이 피어나기도 했다.

낙동강의 문학적 전통은 근대 이후에도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조명희 작가가 창작한 소설 「낙동강」(1927)은 계급주의 문학운동을 통해 새로운 근대를 모색한 시도였으며, '낙동강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소설가 김정한의 「뒷기미 나루」(1969)와 「모래톱 이야기」(1966) 등은 낙동강 하류를 이야기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인 요산 김정한은 「항진기」(1937), 「옥심이」(1937) 등 초기작부터 낙동강과 그 연안의 이야기를 소설로 창작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한 민초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모래톱 이야기」의 배경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이다.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을숙도 조각공원에 「모래톱 이야기」의 표지석을 조성해 기념하고 있다.

부산의 문학은 장구한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는 강과 같다. 동시에,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취약한 이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포용한다. 마음의 물길이 강처럼 흘러 바다가 되는 곳, 부산의 강과 연안을 따라 함께 걸어 보자.

1. 시심(詩心)이 피어나는 강둑을 따라

부산에 '시화길'이 있다고? 대저둑방 시화길에서 만나자

낙동강의 물길을 따라 부산의 역사와 문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대저둑방이다.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에서 내려 구포대교 방향으로 10분 남짓 걸어가면 '대저둑방 시화길'을 만날 수 있다.

시화길이 있는 곳의 정식 명칭은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이다. 봄이면 벚꽃, 가을이면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산책 코스이다. 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벚꽃길과 시원한 바람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한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은 낙동강 제방의 공원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한 개의 노래비와 여섯 개의 시비가 있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낙동강 제방을 시민공원화하여 산책인들에게 정서 함양과 향토애를 고취하기 위해 1992년 강서구에서는 조경으로 철쭉동산 등을 조성하고 시비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1992년 2월에 금수현의 노래비와 이은상의 시비가 건립되었으며, 같은 해 7월과 8월에 배재황 시비, 조지훈과 박목월 시비, 이주홍 시비가 차례대로 세워졌다. 강서구는 동향 출신 예술인과 낙동강을 노래한 작품을 발굴하여 벚꽃길을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강의 물길을 따라 문학과 역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을 수놓고 있는 시와 노래는 기념비로 건립된 일곱 작품만이 아니다. 길의 초입에는 '대저둑방 시화길'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대저둑방 시화길'은 관리사무소부터 수관교까지 1.1km에 이르는 구간을 지칭하는데, 이곳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의 서정성과 향토애 넘치는 시화(詩畫)가 서른 작품 이상 전시되어 있다.

관리사무소의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도 좋고, 그냥 걸어도 좋다. 대저둑방 입구에 들어서면 길 왼쪽에 시화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정옥금의 「사월」, 박병금의 「담쟁이」, 김영순의 「봄이다」, 이소정의 「꽃빛이 아득하다」, 변옥산의 「봄소식」 등의 작품을 통해 '대저둑방 시화길'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지역 문인들의 시화는 강의 물길 따라 1km 이상 이어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낙동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서정적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30

1.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 안내문 2. 지역 문인들 시화 •박형준 3.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 입구 표지

여 편의 다양한 시와 그림은 문학에 대한 애정, 자연과 인간에 대한 조화미를 보여준다. 지역 문인들의 이러한 지역 사랑은 일상생활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은 강의 장구한 흐름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곳에는 노래비와 시비만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현충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유공자인 조정환, 이수강 선생의 흉상과 기념비가 그것이다. 두 기념비는 대저둑방과 연결된 국도 인근에 세워져 있다.

대저둑방 시화길로부터 시작된 벚꽃길은 전체 12.68km에 이르는 장대한 코스를 자랑한다. 이 길은 강서구 제방에서 울숙도까지 이어지는 마라콘 코스이기도 하다. 강서구청에서는 "아름다운 낙동강 제방 위에 마라톤 코스를 조성하여 맥도생태공원과 연계한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명지동 I.C에서 구포대교"까지 12.68km에 이르는 조깅 코스를 조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가 아프면 걸어도 좋고, 너무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좋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 입구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빌려 가로수 벚꽃길을 달리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지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은 매년 '강서낙동강 30리 벚꽃 축제'와 '부산낙동강 유채꽃 축제'를 개최한다. '강서낙동강 30리 벚꽃축제'는 강서만개(江西滿開), 벚꽃만감(櫻花萬感)이라는 주제로 낙동강변을 따라 열리는 생태문화예술 축제이다. 그리고 하얀 벚꽃 터널과 함께 전국 최대의 유채꽃을 즐길 수 있다.

2. 금수현의 「그네」를 타고 음악의 세계로

음악의 선율을 통해 세상사 근심을 털어내고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을 걷다 보면 금수현의 노래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금수현(1919~1992)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19년 지금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해당하는 김해의 대저면 사덕리에서 태어났으며, 부산제2상업학교와 일본 동양음악학교에서 공부했다.

1942년 동래고등여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일하며 창작과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남공립고등여학교 교감을 거쳐 1953년 경남여자중학교 교장, 1956년 통영고등학교 교장으로 교편을 잡기도 했다. 해방 이후 음악을 통한 시민 계몽운동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1957년 문교부 편수관으로 근무하면서 검인정 음악교과서 『남녀중학교용 새 음악교본』, 『남녀고등학교용 새 고등음악』 등을 저술하여 음악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금수현은 소설가 김말봉의 딸 전혜금과 혼인했으며, 이 인연은 "세모시 옥색치마"로 시작하는 가곡 「그네」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946년에 작곡한 가곡 「그네」는 장모인 김말봉 여사가 쓴 가사에 단숨에 곡을 붙인 것으로 유명하며, 이 곡은 음악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가곡 작품으로는 「그네」를 비롯하여 「파도」, 「꽃으로 그린 그림」, 「정자나무」, 「눈 오는 소

리」, 「파랑새」, 「완화삼」, 「구름」 등이 있다.

금수현은 1992년 8월 31일 작고하였으며, 1960년에 녹조훈장, 1981년에 제10대 외솔상 등을 수상했으며, 음악의 대중화와 음악교육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타계 이후 옥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는 2014년 7월 대저동 일대에 금수현의 음악거리를 조성했다.

금수현 음악거리는 대저동 대상초등학교와 옛 구포다리 사이에 조성되었는데, 도시철도 3호선 강서구청역에서 내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로 향하는 길에 만날 수 있다. 금수현 음악거리를 구성하는 도로 양 끝에는 대표 가곡인 「그네」의 가사와 바이올린을 형상화해 놓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음악거리 인근에 카페도 여러 곳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가 성장해 온 공간을 천천히 걸어보

금수현 「그네」 노래비

며 풋풋했던 유년 시절의 기분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다시 금수현 음악거리를 지나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로 돌아오면, 첫 번째 문화 기념비로 금수현 노래비와 동상을 만날 수 있다.

금수현의 노래비는 특색 있는 조형미를 보여준다. 반달 모양의 노래비 왼쪽에 곡선의 스테인레스관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이 노래비는 금수현의 차남이자 조각가인 금누리가 강서구의 의뢰를 받아 만들었다.

가곡 「그네」는 금수현의 대표작으로 그네를 타는 여성이 하늘, 구름, 제비, 나무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미를 천연덕스럽게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이 노래비 옆에는 '노래 듣기' 기능이 갖추어져 있는데, 김영자 소프라노와 박승유 테너가 녹음해 놓은 가곡을 간단한 버튼 누르기로 감상할 수 있다.

금수현의 많은 가곡 중에서도 「그네」의 노래비가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에 세워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저강둑은 강, 나무, 구름, 인간이 회통하며 하나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고통을 바람에 날려버리는 회복의 공간이며, 그것은 "사-바가 발 아래라/ 마-음의 일만근심은 바-람이 실어가네"라는 가사에서 잘 드러난다.

노래비의 해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래비 아래에는 "향토 출신 음악가 금수현 선생의 대표작 「그네」의 율동적 감각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네」의 노랫말의 아름다운 자연 배경과 낙동강의 음색에 어울리는 관악기를 추상화하였다. 그네의 움직임에 따른 곡선의 역동성과 소리, 음의 형상화가 돋보인다"고 설명되어 있다.

노래비 옆 벤치에서 조용하게 작곡을 하고 있는 금수현 음악가의 동상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옆에 앉아 함께 「그네」를 감상해 보자. 학교 일로, 회사 일로 지친 마음이 노랫말처럼 '바람'에 훌훌 실려 사라지지 않을까.

3. 이은상의 「낙동강」, 슬픈 현대사의 파고

낙동강, 유구한 역사와 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금수현의 노래비 「그네」에서 15분 남짓을 걸어가면 이은상 시비 「낙동강」이 나온다. 노산 이은상 시인(1903~1982)은 1903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으며 창신학교와 경성의 연희전문에서 공부했다. 1923년 자신이 졸업한 창신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도일하여 와세다[早稻田]대학과 동양문고에서 문학을 연구했다.

1928년 귀국 후 『신생』, 『신가정』 등의 잡지를 편집했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문필 활동을 전개했다. 1920년대 계급주의 문학운동에 대응하여 조선의 전통적인 사상과 표현을 계승하는 시조부흥운동을 주도했으며, 1932년 『노산시조집』을 간행하면서 민족주의적 문학 사상의 토대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해방 후 현재의 영남대학교 전신인 청구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82년 9월 작고하였으며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사후(死後) 1941년 친일 언론사에 발표한 '만주국 건국 축하 글'이 알려져 친일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은상의 시비는 한인성 작가가 조각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낙동강의 역동적인 물길과 그 연안의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비의 조형 취지에 대한 설명도 그러하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 「낙동강」의 흐름을 상징하였다.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산세와 끊임없이 흐르는 맑은 강물을 형상화하면서 힘찬 맥박을 표현하였다. 선의 리듬은 한민족의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와 희망찬 미래를 나타낸다" 특이하게도, 시비 아래쪽에는 "시낭송 듣기 버튼"이 있어서 시비의 조형미를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금석에 새겨져 있는 「낙동강」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보아라 가야 신라 빛나는 역사
흐른 듯 잠겨 있는 기나긴 강물
잊지마라 예서 자란 사나이들아
이 강물 네 혈관에 피가 된 줄을
오! 낙동강 낙동강
끊임없이 흐르는 전통의 낙동강
—이은상, 「낙동강」 일부

1연 6행의 「낙동강」은 강물의 장구한 흐름 속에 기입되어 있는 역사성과 우렁찬 민족적 기운("전통의 낙동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원문은 1연이 아니라 전체 3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으로 말하자면 3절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1951년 11월 부산 대청동의 새로이 출판사에서 펴낸 「낙동강」 악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윤이상이 작곡하고 이은

상이 작시를 하여, 같은 해 11월 15일에 창작("씀")되어 20일에 펴냈다.

시비에는 새겨져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절에 해당하는 2연의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산들아 물을 누벼 일천삼백리/ 구비구비 여흘여흘 이 강 위에서/ 조국을 구하려는 정의의 칼로/ 반역의 무리들을 무찔렀나니/ 오오 낙동강 오오 낙동강/ 끊임없이 흐르는 전통의 낙동강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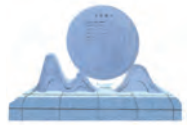
두 번째 절 혹은 연에 주목하면, 「낙동강」은 단순히 강의 역사성과 자연 경관만을 묘사한 작품이 아니다. 이 시는 1952년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향토문화연구회'가 경남도청 공보과 후원으로 제작한 전시홍보영화인 「낙동강」의 '삽입곡'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영상 필름이 발굴되어 202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재상영되기도 했다. 작곡은 전시작곡가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윤이상, 작사는 이은상이다(『조선일보』, 2022년 8월 5일 기사 참조).

「낙동강」은 「경남도민의 노래」 혹은 「낙동강의 노래」로 널리 불렸으며, 그 이면에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낙동강과 그 연안에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민족상잔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은상의 시비 「낙동강」의 금석문에 새겨져 있는 시어만으로 이 작품을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낙동강」은 망각할 수 없는 역사의 상흔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담고 있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에 세워져 있는 시비 「낙동강」은 분명 대한민국의 장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낙동강」을 통해 상기할 수 있는 풍경의 이면에는 슬픈 역사의 흔적이 녹아 있다. 시비에는 새겨져 있지 않은 「낙동강」의 다음 절 혹은 연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념의 대립과 민족상잔의 고통이 바로 그 파고(波高)의 정체이다.

이은상 「낙동강」 시비

4. 배재황의 「오막살이」, 잊힌 독립운동가의 삶과 시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꿈과 좌절

이은상의 「낙동강」 다음에 만나게 되는 시비는 배재황(1895~1966)의 「오막살이」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로 현재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면 대장리에서 태어났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에 건립되어 있는 시비가 대부분 이름 있는 문인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배재황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학술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역사문화대전과 시비에 기록된 연보를 중심으로 배재황의 생애와 독립운동 업적을 정리하자면, 그는 경상남도 진해의 민족교육 기관이었던 개통학교와 계광학교에서 공부하였으며, 경성 청년학교 중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시경의 한글학교에서 국어학을 공부하였으며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계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여성독립운동가인 김조이를 가르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승려로 위장을 하고 서울에서 등사기를 구입하여 김해를 거쳐 진해로 넘어와 이두용의 집에서 계광학교 교사 주기용, 허전 등과 함께 독립 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1919년 4월 3일의

배재황 「오막살이」 시비

'웅동 독립 만세운동'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1년 봄 일본인 하자마 후시타로[迫間房太郎]가 경영하는 김해군 진영의 한 농장에서 지주와 소작농 간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배재황은 이 사건을 계기로 1934년 진영으로 이주하게 된다. 이후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일본인 지주와의 소작 쟁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농민 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민운동에도 힘썼다.

이러한 전기(傳記)가 배재황 선생에게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는 공부를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일제의 탄압과 악덕 지주들의 횡포에 맞섰다. 낙동강변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마을마다 '의신계(義信契)'를 조직해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해방 후에도 건국 준비위원회와 '미소공동위원회' 경상남도 대표로 참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1947년

좌경(左傾)으로 몰려 이른 시기에 사회 활동을 접게 되었다.

배재황은 이후 낙동강 하류로 이주하여 시 창작으로 외로움을 달래다가, 1966년 10월 19일 72세를 일기로 타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4년 9월에 창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오막살이」의 시비 뒷면에는 "만년에 낙동강 하구로 이주 갈숲을 울삼아 詩句 작성으로 여생을 보내다"라고 쓰여 있다.

갈 숲에 오막살이
찾을 이 그 누구랴
갈대 그린 그림폭을
窓에다 그려주는
그 달을 기다리노라
밤마다 잠 못 자네

窓에 그린 갈대그림
淸風아 흔들지마
그 위에 그린 새가
잠 깰까 염려된다
이 세상 온갖 근심
잊으려던 잠이니

—배재황, 「오막살이」 전문

시 「오막살이」에는 깊고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다. 갈숲의 오막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다. 배재황은 조국의 해방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청춘을 바쳐 투쟁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청년 독립운동가의 꿈은 오히려 '해방된 조국'에서 좌초되고 만다. 한반도가 좌우의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격앙되면서 배재황은 정치적 탄압과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배재황의 쓸쓸한 심정과 적막한 풍경은 시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함께 읽어 보자.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세상의 근심과 외로움을 잊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차분하게 표현되어 있다. 시의 화자는 갈숲에 가려져 있는 외로운 오막에서 살아가고 있다.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밤이 되면 갈대가 보이는 창에 떠오르는 '달'이 유일한 손님이다.

그러나 가끔은 은거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갈대그림")을 흔드는 바람("청풍")이 있다. 시의 화자는, 아니 잊힌 독립운동가 배재황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마"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세상 온갖 근심"을 잊고 잠에 들고자 하는데, 그것을 흔드는 바람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역사의 큰 강줄기 속에서 망각된 청년 독립운동가의 삶은 이렇게 한 편의 시로 남겨져 있다.

배재황 시비는 박태원 부산대 교수가 조각했다. 시비의 조각 해설에는 "배재황 선생의 시 「오막살이」를 조형화한 것으로 넓은 대지 위에 솟아오르는 보름달을 상징, 오막살이 시절을 부각시켜 산과 초가집 그리고 달을 구성하여 시골 풍경을 조형화시켰다"고 적고 있다. 시비의 조형적 미학을 전부 알기는 어렵지만, 이 작품의 창작 취지가 '외로움'과 무관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 점이 마음에 든다.

조국과 지역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잊힌 독립운동가'의 시비마저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다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시비 옆에 앉아 조용히 되뇌어 본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다고, 이제 더는 외롭거나 아프지 마시고, 시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잠드시기를.

5. 이은상의 「故鄕길」, 그리고 지역 출신 두 독립운동가

이은상 시비(詩碑/是非)의 아이러니, 혹은 역사교육의 사유 공간

금수현의 노래비로부터 시작한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의 대미를 장식할 시비와 현충시설이 있으니, 대저에 가장 먼저 건립된 이은상의 「故鄕길」과 조정환, 이수강 두 독립운동가의 구국기념비이다. 시비와 기념비는 30리에 이르는 둑방길이 1990년대 시민공원으로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자리하고 있었다.

「故鄕길」 시비와 독립유공자 현충시설은 대저둑방 아래 조성되어 있다. 작은 안내문이 둑방길 바닥에 설치돼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경우, 잠시만 한 눈을 팔아도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이은상의 「고향길」과 독립지사 기념비는 벚꽃길 산책과 문화 탐방에서 놓칠 수 없는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꼭 내려가서 보아야 한다.

강서구청의 기록에 따르면, 「故鄕길」 시비는 재(在)일본 경상남도 도민회에서 세운 것이다. 시비에도 "一九七七년 三월 一일 노산 이은상 짓고 고천 배재식 쓰고 재일본 경상남도 도민회 세움", 그리고 "경상남도 협찬"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시비 뒷면을 보면 가나다 순으로 협찬자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 많은 이름을 보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타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출향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진다.

「故鄕길」 건립 기록에 따르면, 이 시비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산과 경상남도 출신 재일 조선인들이 고향을 찾은 기념으로 함께 뜻을 모아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이은상의 「故鄕길」은 김성덕이 곡을 입혀 '가곡'으로도 불렸다.

「故鄕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설렘, 그리고 귀향의 즐거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자아 정체성을 고향의 강산(江山)과 일치시키며 고향으로 가는 길의 당위와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비의 건립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 보면, 「故鄕길」의 이면에는 부산·경남 출신 재일(在日) 한국인들이 강제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슬픔과 애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이은상의 시조는 '고향-타향-고향'이라는 원점 회귀형 구조를 보여준다고 한다. 전체 3연으로 구성된 이 작품 역시 귀향의 과정과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고향은 타향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귀향(歸鄕)을 다룬 문학 작품은 단순한 여행 서사와 정취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시의 어휘와 문장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고향과 대비되는 타향에서의 고단함이 스며 있는 셈이다.

「故鄕길」에 대한 작품 감상과 해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시비 뒷면에 석각(石刻)되어 있는 협찬자의 이름이다. 협찬자 명단은 하나하나 고향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기록이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은상 시인이 사후 친일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강제징용 한국인들의 고향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故鄕길」 시비의 건립 배경을 생각한다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은상 「故鄕길」 시비 • 박형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시비의 건립 내력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시비 「故鄕길」의 좌우 양측에는 현재의 강서구 출신 독립운동가인 조정환(1875~1926), 이수강(1912~1962) 선생의 흉상과 독립운동 내력을 소개하는 비(碑)가 있다. 두 애국지사의 상(像)과 비는 모두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이다. 사료가 부족하지만, 기존의 연구 자료와 부산역사문화대전, 기념비의 약력, 강서구 홈페이지의 보존 기록 등을 통해 두 지사(志士)의 삶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정환 선생은 1875년 10월 현재의 강서구 녹산면에서 태어났다. 한문사숙 옥산재(玉山齋)에 입학하여 공부했으며, 1905년 을사늑약 후 구국의 길로 나갔다. 1906년 개성에 있는 풍덕에 화성학교를 세워 조선사를 강의하였고, 경기도 파주에 인성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19년 3·1운동 후 만주로 건너가 무장투쟁단체인 '대한독립단'에 가입했다. 그 후 조병준, 변창근 등과 함께 '민국독립단'을 창단하고 자의부장으로 활약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23년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했으며, 단재 신채호 선생과 다물단(多勿團)을 조직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1925년 9월에는 서울에서 백남훈, 홍성하, 박승철 등과 함께 조선사정연구회를 조직하여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후 북경을 거점으로 상해와 만주를 왕래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행방불명되었다. 사후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와 우국충정을 담은 한시(漢詩) 한 수가 도착했는데, 그 임종시(臨終詩)가 도착한 해가 1927년이다.

조정환 선생의 타계 시점은 기록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 않다. 유고 한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일편단심은 조국의 해와 달 같은데	心韓日月
내 몸은 중국 땅에 묻히는구나	白骨漢山川
이제 인간사를 뿌리쳐 버리니	卸却人間事
오늘 아침이 독립의 해로구나	今朝獨立年

이 임종(臨終) 절구(絶句)를 남기고 남강 조정환은 소식이 끊어졌고, 대체로 만주의 조선인 대량학살 참변 때 희생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980년 9월 외솔회에서 발간한 『나라사랑』 제36집은 기획 특집을 '남강 조정환'으로 꾸렸으며, 이는 시민과 후학들에게 훌륭한 사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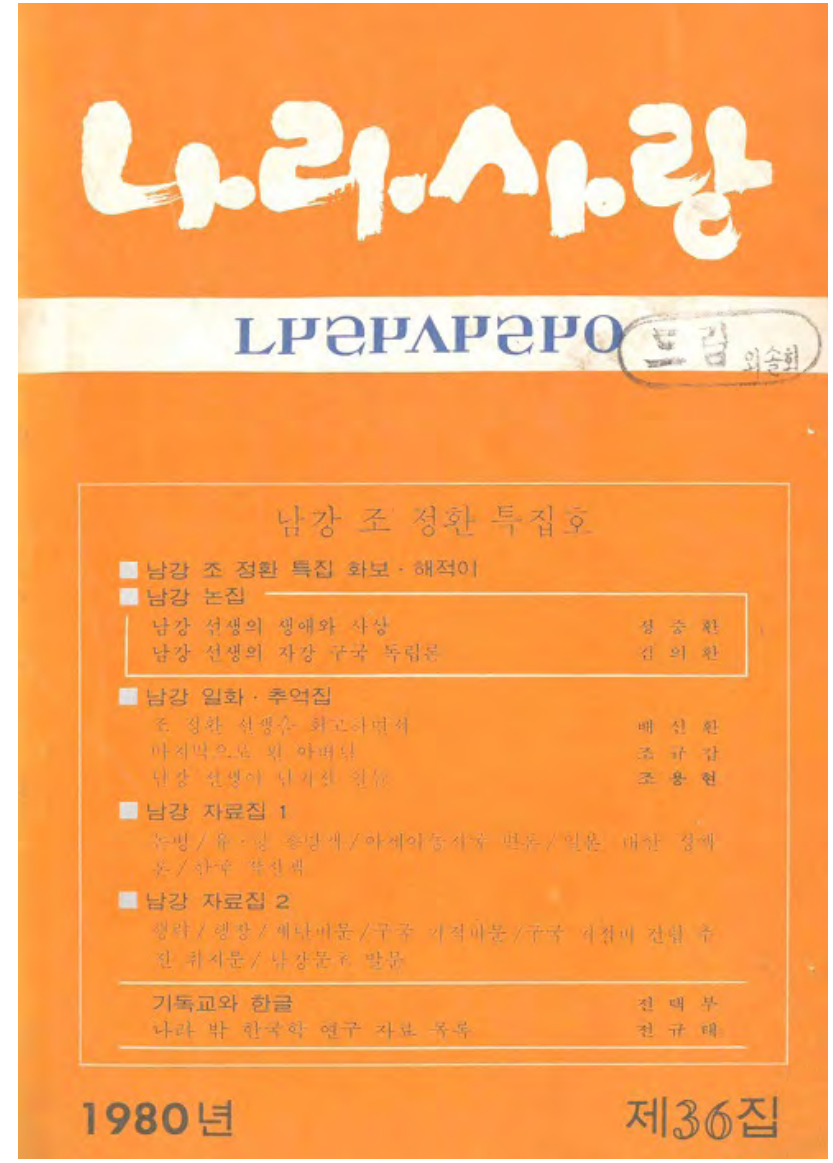
남강 조정환에게는 1980년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이, 1990년에 건국

1. 남강 조정환 선생 상　　2. 이수강 선생 상

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조정환의 생가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53-7이며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1973년 선생을 추모하는 구국기적비 등이 건립되었으며, 이후 시민들에게 애국애족(愛國愛族)의 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남강공원이 조성되었다.

이수강 선생은 현재의 강서구 천가동 출신의 독립운동가이다. 1930~40년대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다. 1936년 3월 오사카에서 동향인으로 결성된 '대판 가덕인 친목회'에 입회하여 동지들과 함께 민족 정신을 고양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친목회가 해산되자, 같은 해 중순 김근도, 김성규와 비밀리에 회합하여 겉으로는 체육 연성과 상호 친목을 표방하지만, 실은 민족독립의식 계도와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가덕인 청년회'를 결성하였다. 1938년 6월경에 김성규, 이수룡, 강신화, 김봉천 등과 함께 조선 독립의 구체적 실행 방법에 관해 토의하고 '가덕인 청년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남강 조정환 선생을 특집으로 다룬 『나라사랑』 • 박형준

특히 이수강은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일본에서 내란이 일어나면 일제히 봉기하여 조선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며 동포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러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42년 징역 4년, 194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해방과 함께 출감하였으나,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7년간 투병한 끝에 1962년 타계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86년 대통령 표창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두 애국지사의 흉상과 기념비 가운데 친일 논란에 휩싸인 이은상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일 부산·경남인의 고향 방문을 기념해 세워진 「故鄕길」의 내력도 역설적이다. 강둑 너머 끝없이 흐르고 있는 낙동강의 흐름은 침묵의 목격자인 양 말이 없다. 어쩌면 이 공간이야말로 일제강점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한국 근현대사의 교육 무대가 아닐까.

역사적 진실에 대한 탐구는 학자와 시민 사회의 몫이겠지만,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을 걸으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슬픈 역사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길을 걸을 때 두 애국지사의 충혼비를 지나치지 않도록 하자.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리다 보면, 금세 지나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아니, 청춘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이름을 잊지 말 것.

6. 조지훈의 「완화삼」과 박목월의 「나그네」, 과잉 없는 우정

문학은 자연과 언어를 매개로 사람에 도달하는 길

여기까지 이르면 다리가 아프다. 많이 걸었다. 자전거를 타고 왔어도 그리 녹록한 거리가 아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서편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다. 오후 늦은 시간에 잘 어울리는 시가 있으니, 바로 조지훈(1920~1968)의 「완화삼」과 박목월(1915~1978)의 「나그네」이다.

조지훈 「완화삼」과 박목월 「나그네」 시비

조지훈은 1920년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한문을 수학했다. 혜화전문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39년 『문장』지(誌)에 정지용 시인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다. 해방 후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족적 정서와 전통 사상에 근거한 작품을 창작했다. 대표 시집으로 『풀잎 단장』, 『조지훈 시선』 등이 있으며, 「완화삼」을 비롯한 많은 작품이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박목월은 1915년 경상북도 경주 모량리에서 태어났으며 대구 계성중학교에서 공부했다. 1939년 조지훈과 마찬가지로 『문장』지에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등단했으며, 해방 전후로 시와 동시 창작에 힘을 기울였다. 서라벌예술대학 강사와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동심, 자연, 동양의 미를 잘 표현한 작품이 알려져 있다. 대표 시집으로 『구름의 서정』, 『박목월 자선집』 등이 있다.

두 시인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문예지 『문장』에 작품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조지훈, 박목월은 박두진과 함께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청록집』을 펴낸다. 3인 합동시집의 출간은 향후 한국문학의 역사에 기록될 유명한 시파(詩派), 즉 '청록파'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어 수업 시간에 '청록파'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조지훈과 박목월이 창작한 「완화삼」과 「나그네」는 모두 『청록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시적 교류는 무척 흥미롭다. 붉은 노을이 물드는 강둑에 서서 「완화삼」과 「나그네」를 읽어 보면, 두 시인의 우정과 정취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다.

조지훈 시인의 회고담에 따르면, 그가 박목월 시인을 처음 보았을 때 동양적인 인품과 여유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아마도 박목월의 삶과 시 세계가 겹쳐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곤 박목월 시인이 거주하고 있던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 「완화삼」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목월에게"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차분한 어조로 시적 화자의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다.

시의 제목인 완화삼(玩花衫)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약간의 난해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 「완화삼」은 어렵게 생각하거나 딱딱하게 시어를 풀이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다. 그저,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의 두 시비 앞에 앉아 노을이 지는 강물을 바라보면 된다. 「완화삼」은 의미(뜻풀이)가 아니라 풍경(이미지)에 주목해야 하는 작품이다.

키워드는 세 개다. 선비의 적삼(衫), 꽃(花), 그리고 어울림(玩). 눈을 감고 떠올려 보자. 시의 화자는 술이 익어가는 마을에서 벗과 함께 교유하고 있다.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라는 멋진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두 사람의 "다정"한 어울림은 노을처럼 붉고 깊어 간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밤이 오자 마음이 고요해진다. 시의 화자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두고 떠나야 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생각만 해도, 아쉽고 안타깝다. 바쁘고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시를 읽는 것은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강, 하늘, 바람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에서 「완화삼」이라는 시를 읽으며 잠시, 잠시만 노을에 기대 보자. 시간이 허락한다면, 첫 번째 노래비의 주인공 금수현이 시 「완화삼」에 곡을 붙인 가곡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여기서 끝나도 좋겠지만, 박목월 시인은 「나그네」라는 작품을 통해 조지훈의 「완화삼」에 화답한다. 학창 시절 국어 수업 시간에 박목월의 시 「나그네」를 조지훈의 「완화삼」과 함께 배웠었던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그네」가 「완화삼」에 대한 시적 답신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두 작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지훈의 시에 나오는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백리”, “나그네”, “술 익는 강마을” 등의 시어와 시구는 고스란히 박목월의 시에 나오는 “구름에 달 가듯이”,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나그네”, “술 익는 마을”로 대응된다.

박목월의 「나그네」가 의미 있는 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고 멀리 떠나는 벗(“나그네”)에 대한 감정을 한 치의 과장과 과잉 없이 표현했기 때문이다. 나그네를 바라보는 이의 애절한 마음, 그 뜨거운 아쉬움은 오직 “타는 저녁놀”로서만 감각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절제미를 모국어와 전통 사상을 통해 길어 올렸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두 시비 사이로 타오르는 노을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시와 인간, 그리고 그 틈을 벌겋게 물들이는 대저둑방의 노을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이다.

평자에 따라서는 조지훈과 박목월의 작품이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게 자연에 대한 관조에 몰두해 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두 시인이 한국인의 내면과 정서를 모국어를 통해 잘 담아내 민족의 전통과 사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강서낙동강변 30리에 시비로 건립되어 있는 「완화삼」과 「나그네」는 문학이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절제된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표현 양식임을 잘 보여준다.

7. 이주홍의 「엄마의 품」, 드러나지 않지만 빛나는 마음

한국을 대표하는 아동문학가, 엄마와 닮은 강둑에 세워진 시비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에서 만날 수 있는 시비는 하나가 더 있다. 이주홍의 「엄마의 품」이다. 그러나 대저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입구에는 이주홍 시비에 대한 안내는 없다. 「완화삼」과 「나그네」 시비에서 1.5km 후 「故鄕길」 시비가 있다는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는 오류이다. 실제 시비의 순서는 「故鄕길」, 「완화삼」과 「나그네」, 그리고 이주홍의 「엄마의 품」이다.

그래서일까. 자전거를 타고 강둑을 기분 좋게 달리다 이주홍 시비를 지나쳐 버렸다. 조지훈과 박목월 시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난 후 시원한 강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달렸더니, 어느새 목적지를 지나 맥도생태공원에 이르렀다. 시비를 놓친 것이다. 언제 지나쳐 버렸을까? 자전거를 돌려 달린다.

분명 시비가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되돌아간다. 왼편에 아무런 안내문이 없는 조각상이 하나 나온다. 예사롭진 않다. 두 개의 나뭇잎 사이에 대나무 피리 형상이 뻗어 있고, 그 사이에 반달이 걸려 있다. 안내문이 없어서 지나쳤지만, 사진을 찍고 다시 천천히 보니 동화책 표지 같다는 느낌이 든다.

자전거에서 내려 조형물 앞으로 돌아가니, 이주홍 시비 「엄마의 품」이 분

이주홍 「엄마의 품」 시비

명하다. 대나무 모양에 걸려 있는 반달에 이주홍의 동시 「엄마의 품」이 새겨져 있다.

이주홍은 1906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다. 호는 향파이며,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고 서울의 한성중학원과 일본의 도쿄 세이소쿠 카쿠엔[定則] 영어학교에서 공부했다. 1928~29년 동화와 소설을 발표하며 문필 활동을 시작했으며, 동화, 동시, 시, 소설, 희곡, 그림, 서예, 만화, 번역 등의 분야에서 다재다능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학 운동 잡지 『신소년』의 편집에 관여했으며, 해방 후 부산으로 내려와 현재의 동래고등학교 교사, 부산수산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며 지역의 아동문학 발전에 헌신하다가 1987년 1월에 타계하였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에 이주홍 선생의 삶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문학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의 고향 경상남도 합천에도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이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주홍 소설 전집』 다섯 권, 『이주홍 희곡 전집』 세 권, 그리고 『이주홍 아동문학 전집』 다섯 권이 발간되었다. 대표작으로 동시 「해 같이 달 같이만」이 있으며 대중독자에게 널리 앞려진 작품으로는 동화집 『못난 도야지』, 『못나도 울엄마』 등이 있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에 세워져 있는 시비에는 동시 「엄마의 품」 일부가 새겨져 있다.

「엄마의 품」은 이주홍의 동시와 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어머니를 소재로 삼고 있으며, 모친에 대한 작가의 애정이 매우 충만하게 표현되어 있다. 엄마의 품은 하늘과 같다. 새가 아무리 멀리 날고 구름이 아무리 멀리 떠간다고 해도 결국 하늘 안에서 존재한다. "이 세상에/ 어머니보다/ 큰 것은 없지"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 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다.

자식들이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엄마의 품 안에 존재하며, 가족 간의 사랑, 미움, 허물 역시 엄마의 품 안에 담긴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에서 만난 강, 하늘, 바람, 나무 모두 엄마의 품과 같이 넉넉하고 포근하다. 어쩐지 낙동강 하구의 이 아름다운 자연과 어머니의 마음은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잠시, 자전거를 세워놓고 시 「엄마의 품」을 감상하고 있자니 기분이 편안해진다.

이주홍의 시비는 동래구 금강공원에도 있는데, 그 시비에 새겨져 있는 「해 같이 달 같이만」이라는 동시 역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이주홍의 문학비 역시 그러한 점을 반

영하여 제작되었는데, 「엄마의 품」 시비는 박태원 교수의 작품이며 그 해설은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 설화 반피식(半披息)에서 소재를 빌었으며 피리의 이미지를 조형화하여 시 「엄마의 품」이 지닌 내용을 피리에 의인화시켜 표현하였다. 두 개의 피리 형태는 엄마와 아기의 비유이고 시를 적은 반원 형태는 대나무 숲에 비치는 반달의 모습이며 두 개의 타원형태는 대나무 잎의 조형화와 엄마의 다리 부분에 비유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강둑 산책로에서는 「엄마의 품」 조형물의 앞모습과 동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비가 세워질 때 인근 도로에서 강변을 바라보는 각도로 건립되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시비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엄마의 마음처럼 느껴진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빛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머니의 품이고 마음이기 때문이다.

8.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낙동강의 파수꾼이 일러준 교훈

강이 바다에 이르는 마음으로 약한 이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은 사하구의 을숙도까지 이어진다. 낙동강의 물길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河口)까지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30리 벚꽃길에서 만날 수 있는 문학과 역사 문화 유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것은 낙동강 하구, 즉 을숙도에서 만날 수 있는 김정한의 유명한 단편소설 「모래톱 이야기」이다.

낙동강의 물길은 강서구에서 을숙도까지 이어져 있으나, 인간의 보행과 자전거로 이 물길을 모두 따라가는 것은 무리다. 강서낙동강변 30리 벚꽃길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학, 역사 유산을 감상하고 세상사에 찌든 마음을 치유했다면, 자동차를 타고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부산'을 대표하는 소설가, 낙동강과 그 연안을 무대로 한국 근현대사의 모순과 아픔을 이야기해 온 작가가 바로 요산 김정한이다. 「모래톱 이야기」는 김정한 소설의 핵심 배경이 되는 낙동강 하구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2017년 을숙도에 표지석이 세워졌다.

김정한은 1908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행정구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표지석 • 박형준

역명은 경상남도 동래군 북면 남산리이다. 명정학교,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 동래고등보통학교에서 공부한 후 1928년 울산 대현공립보통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1930년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고등학원 문과 문학부에 입학해 고학했다.

1932년 조선으로 돌아온 김정한은 남해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사하촌」이 당선돼 본격적인 소설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1940년 교원을 그만두고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맡아 운영하며 해방 전까지 경남도청 상공과 산하의 면포조합 서기로 일하기도 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조선문학가동맹 부산지부장, 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지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큰 고초를 겪었다. 1950년 부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56년 첫 창작집 『낙일홍』을 출간했다. 김정한은 1960년대 이후 더욱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전개했으며, 1987년 민족문학작가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역시 외면하지 않았다.

요산 김정한 선생은 1996년 11월 28일 타계하였으며, 대표작으로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인간단지」 등이 있다. 2006년 생가가 있던 금정구 남산동에 요산문학관이 건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최근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에서부터 문학관까지 이어지는 요산문학로가 조성되기도 했다.

1966년 『문학』 6호에 발표된 「모래톱 이야기」는 김정한의 문학적 여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다. 작가 스스로 해방 후 이 작품을 본격적인 소설 창작의 계기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한은 한 인터뷰에서 일제 말기에 절필을 했고, 「모래톱 이야기」가 문단 복귀작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문학계의 문헌 연구 결과 「옥중회갑」, 「농촌세시기」 등 최소 열 편 이상의 작품이 『전선』, 『경남공론』 등에 이미 발표된 바 있어, 「모래톱 이야기」를 작가의 양심에 따른 절필과 문단 복귀 과정을 설명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다만, 「모래톱 이야기」의 인물 구성, 주제 의식, 공간적 배경을 살펴보면, 해방 후 김정한 문학의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모래톱 이야기」에 등장하는 낙동강 하구의 '조마이섬'은 불안정하고 소외된 모래톱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건우, 갈밭새 영감 등과 같은 흥미로운 캐릭터를 통해 그리는 동시에,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위정자와 유력자에 의해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김정한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모래톱 이야기」의 한 장면을 함께 읽어 보자.

『섬 얘기』란 제목의 그의 글은 결코 미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끔찍한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사는 고장—복숭아꽃도, 살구꽃도, 아기진달래도 피지 않는 조마이섬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갖은 풍상과 홍수를 겪어 오는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 땅인데, 일제 때는 억울하게도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의 명의로 둔갑이 되었는가 하면, 그 뒤는 또 그 조마이섬 앞강의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넘아가 있다든가 하는—말하자면, 선조 때부터 거기에 발을 붙이고 살아오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도깨비처럼 뒤바뀌고 있다는, 섬의 내력을 적은 글이었다.

『김정한 전집-소설』 3권 12~13쪽의 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 부분은 조마이섬의 역사적 내력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는 외진 모래톱에서조차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의 취약한 삶의 조건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마저도 소유의 대상으로 갈망하며 가로채고자 하는 사회적 위악과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한은 낙동강과 그 연안을 둘러싼 지역을 문학의 무대로 삼아 자기 몫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가히, '낙동강의 파수꾼'이라 부를 만하다.

그렇다면 「모래톱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일까? 부산외국어대학교 박경수 교수에 따르면, 「모래톱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마이섬'은 현재의 을숙도와 합쳐진 일웅도(日雄島)이다. 일웅도는 1978년 김해군 대저읍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으로 편입되었다가 1983년 12월 사하구 하단동으로 행정단위가 확정되었다.

(사)요산기념사업회에서는 김정한의 삶과 문학 활동을 기리기 위해 2001년 낙동강 을숙도 상단부에 목재로 「모래톱 이야기」 표지문을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태풍과 홍수 등으로 목재 표지문이 유실되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지역 시민과 문인들의 표지석 재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2017년 11월 소설 「모래톱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금의 을숙도 문화회관 인근 조각공원에 이를 기념하는 표지석을 설치했다.

표지석의 표제는 "소설 「모래톱 이야기」의 현장"이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표지석 뒷면에는 김정한 소설가의 일대기가 약력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구는 (사)요산기념사업회에서 신영복체로 새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숙도에 병합된 일웅도를 무대로 삼고 있는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는 경북 상주에서 부산의 을숙도 하구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문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낙동강과 그 연안의 문학은 장구한 역사의 흐름을 기록하는 강과 같다. 동시에, 넓은 마음으로 약한 이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바다와 같다. 마음의 물길이 강처럼 흘러 바다가 되는 곳, 부산의 강과 연안에서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이다.

참고문헌

첫 번째 답사. 유서 깊은 연안 고을, 기장의 행정과 관방 유적을 톺아보다

『경상도속찬지리지』, 『경상도지리지』, 『기장읍지』(1899), 『기장현읍지』(1831), 『대동여지도』, 『대동지지』, 『세종실록』, 『선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여지집성』, 1963.
공태도, 「이길 봉수대와 아이 봉수대」 『기장향토문화연구지』, 1998.
기장군지편찬위원회, 『기장군지』, 2001.
기장문화원, 『기장의 관방문화』 1, 2018.
부산광역시 기장군·복천박물관, 『문화 유적 분포 지도-기장군』, 2005.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장향토사 교과서』, 201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3, 200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4, 200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8, 200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광역시)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부산박물관, 『기장군 효암리 이길 봉수대 발굴보고서』, 2004.
부산은행, 『부산, 역사 향기를 찾아서』, 2005.
이근열, 「부산 기장군 '대변(大邊)' 지명 어원 연구」 『지명학』 28, 2018.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장 효암 이주 단지 조성 사업 구역 내 기장 임랑리 유적』, 2001.

두 번째 답사. 기장의 아홉 포구, 그 포굿길을 따라 해변을 거닐다

『각사등록』, 『경상도속찬지리지』, 『경상도지리지』, 『기장현읍지』(1832), 『기장현읍지』(1871), 『기장현읍지』(1899), 『부산일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정조실록』, 「차성가」

기장군지편찬위원회, 『기장군지』, 2001.
김차웅, 「기장양식다시마의 유래와 명성 등에 대한 연구」 『어항』 2008년 여름호, 200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7, 200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8, 2002.
일광면지편찬위원회, 『일광면지』, 2006.
장안읍지편찬위원회, 『장안읍지』, 2008.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

세 번째 답사. 동백섬에서 기원한 해운대, 바닷길 따라 역사와 문화를 찾다

『경상도지리지』, 『부산일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한국수산지』(조선총독부, 1911), 『해사일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3, 200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3, 199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지』, 1994.

네 번째 답사. 남쪽 바다와 맞닿은 곳, 자연과 역사를 품은 공간을 걷다

「부경대학교 박물관 팸플릿」

부산광역시·국립민속박물관, 『부산의 마을신앙』 3, 2021.
부산수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어업학과 70년사 편찬위원회, 『부산수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어업학과 70년사 : 1941~2011』, 2012.
부산광역시 남구청, 『남구의 민속과 문화』, 200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3, 1997.

UN평화기념관 홈페이지(https://www.unpm.or.kr/un2022/main.php)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https://www.fomo.or.kr/museum/kor/Main.do)
유엔기념공원 홈페이지(https://www.unmck.or.kr/intro/)

다섯 번째 답사. 부산의 축소판 영도, 우리네의 해양 문화를 음미하다

국립중앙박물관, 『<고적9> 조도패총』, 1976.
문화재청, 『태평양 전쟁유적 일제조사 용역』, 2013.
부산박물관, 『동삼동패총전시관』, 2009.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어묵사』, 201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영도문화관광 콘텐츠개발 스토리텔링 사업』, 201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2, 1996.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mmk.or.kr/)
동삼어촌계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http://www.xn—2q1bo6itugnpfg6bu8mura767c.kr/)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yeongdo.go.kr/tour.web)
태종대유원지 홈페이지(https://www.bisco.or.kr/taejongdae/)

여섯 번째 답사. 물길이 접하는 길목, 낙동강 어귀에서 바다와 만나다

『경상도속찬지리지』, 『대동지지』, 『동국문헌비고』, 『동래부지』(1740), 『만기요람』, 『부산일보』,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영조실록』, 『정조실록』, 『충무공전서』, 『태종실록』

부산광역시, 『부산고지도』, 200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1, 200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5, 201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1, 199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지명총람』 4, 1998.
이민웅, 「다대포첨사 윤흥신의 임란 사절 경위와 조선후기의 현창」 『항도부산』 40, 2020.

일곱 번째 답사.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보다

『국제신문』, 『동아일보』, 『부산일보』, 『영남읍지』,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부산광역시, 『부산고지도』, 2008.
김동규·홍순연, 『걷다가 근대를 생각하다』, 2020.
부산광역시 강서구, 『1904, 흐르는 섬 가덕도』, 2018.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가덕도 등대』, 2019.
백민영 외, 『부산의 큰 섬, 가덕도 : 2021 부산민속문화의 해』, 202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00년의 한(恨)숨을 쉬다 : 외양포·대항마을 사람들 이야기』, 201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의 장소를 걷다』, 2016.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2010.

부산역사문화대전 홈페이지(http://busan.grandculture.net)
부산연구원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data.bdi.re.kr)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bsgangseo.go.kr/visit)
대한민국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https://www.nl.go.kr/newspape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nfm.go.kr)

여덟 번째 답사. 부산의 젖줄 낙동강, 그 속에 남겨진 유통과 상업의 자취

『국제신문』, 『동아일보』, 『부산일보』, 『연합뉴스』

낙동문화원, 『부산북구향토지』, 2014.
부경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 2004.
부산근대역사관, 『부산 근대역사관 이야기』, 2004.
부산근대역사관, 『부산의 근대 자본가 청운 윤상은의 일생』, 2010.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부산의 장터』, 2007.
신동명 외, 『왜성 재발견 : 역사의 블랙박스』, 2021.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2010.
한국방송공사, 『부산 재발견 : TV로 보는 부산의 역사』, 2012.
황경숙, 『낙동강 하구 재첩마을과 재첩잡이』, 2020.

아홉 번째 답사. 삼각주가 만든 공간, 서낙동강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제주일보』, 『조선왕조실록』

김경은, 『집, 인간이 만든 자연 : 한중일 가옥문화 삼국지』, 2021.
부산광역시, 『부산고지도』, 2008.
김봉우, 『낙동강 옛 나루 : 낙동강 지류의 소금뱃길』, 2019.
부산강서구지편찬위원회, 『부산강서구지』, 201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의 자연마을』 2, 2007.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강서 신장로 서낙토리, 일상의 리듬』, 2016.
유승훈,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민속』, 2008.
이영훈,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 1992.
정영란, 『부산시의 분뇨처리 : 정책, 행정 그리고 130년의 연대기』, 2013.

열 번째 답사.
동해와 남해를 함께 품은 해양도시, 부산의 바닷길 자연유산 문화해설

『간양록』, 『광해군일기』, 『난중잡록』, 『동래부지』, 『동사강목』, 『만기요람』, 『무명자집』, 『미수기언』, 『사가시집』, 『삼국유사』, 『옥봉선생문집』, 『한국구비문학대계』, 『해행총재』

기장군지편찬위원회, 『기장군지』, 2001.
배종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1995.
부경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2003.
정경주·김철범·박준원·나철회, 『부산금석문』, 2002.
표용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2010.
허신, 『설문해자』, 하영삼 역, 『완역 설문해자』 4, 2022.

「역사스페셜」 KBS1, 2009년 7월 4일 방영, <연오랑세오녀 일본의 신이 되었나>.

열한 번째 답사. 강의 품, 시의 길, 마음의 물길이 바다가 되는 곳

김성배, 『문학을 찾아서 시비를 찾아서』, 1994.
남영희, 「중등 음악교재 발간의 전통과 금수현의 음악교과서」 『한국예술연구』 36, 2022.
류종렬 엮음, 『이주홍소설전집』 1~5, 2006.
박정선, 「근대문학에 나타난 낙동강의 표상」 『국어교육연구』 54, 2015.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2014.
조갑상·황국명·이순욱 엮음, 『김정한 전집』 1~5, 2008.
황선열, 「낙동강 문학의 탈근대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43, 2006.

낙동강문학관 : 경북 상주시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reatsangju/222860997229)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bsgangseo.go.kr/main.do)
부산역사문화대전 홈페이지(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홈페이지(https://www.saha.go.kr/saha.do)

집필자

정영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하였다. 중세 한일관계사와 부산 지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부산대학교에 출강하면서 시민강좌와 저작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김윤미

부경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해양사를 연구하고 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 선원, 해군의 삶을 알아가는 시간을 행복한 소명으로 생각한다. 대표 저서로는 『동해포구사』, 『조선표류일기』, 『동북아해역과 인문학』 등이 있다.

서용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공부했다. 부산대 등에서 역사를 가르치며 부산 지역사와 근대 의료에 대한 글들을 썼다. 지금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역사 강의와 연구를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과 대중강좌 등 대학 밖의 일반 시민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황병익

고전시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경성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향가·고려가요 장르를 집중 연구하며, 문화콘텐츠 발굴과 인문학 대중화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 『신라향가 천년의 소망』, 『노래로 신과 통하다』 등이 있고, 「황조가」·「서동요」·「처용가」 등 논문이 여럿이다.

박형준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문학비평과 교육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 『로컬리티라는 환영』, 『마음의 앙가주망』, 『독학자의 마음』 등의 책을 펴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 이 책에 쓰인 시각 자료는 강서구,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김윤미(집필자), 낙동문화원, 남구, 박형준(집필자), 복천박물관, 부산근현대역사관,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부산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역사문화대전, 북구, 비짓부산,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사상생활사박물관, 사하구, 서용태(집필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도구, 정관박물관, 정영현(집필자), 제주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운대구, 황병익(집필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BUSAN, 百聞이 不如一見

부산 물길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발 행 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제구 연산동) 051-888-5057
기 획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시사편찬실(bssisa.com)
원 고 편 집	이창섭
원 고 교 정	이창섭
발 행 일	2022년 12월
디자인·인쇄	디자인제로 051-804-5888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532-01
I S B N	979-11-85308-54-8 979-11-85308-29-6 (세트)

• 이 책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부산광역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의 동의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